

목 차

【심의사항】 6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5	공개
2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54	공개
3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64	공개
4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107	공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5	국보 제207호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보존처리	121	공개
6	보물 제904호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보존처리	124	공개

【검토사항】 27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	계미명 동종	129	공개
2	청자 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	144	공개
3	청자 매병 및 죽찰	150	공개
4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59	공개
5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7	공개
6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7	공개
7	남양주 수종사 금동불감 및 불상 일괄	182	공개
8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92	공개
9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99	공개
10	여주 신륵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	204	공개
11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211	공개
12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	219	공개
13	가평 현등사 동종	225	공개
14	파주 보광사 동종	234	공개
15	고양 원각사 쇄북	243	공개
16	강화 전등사 업경대	252	공개
17	대방광불화엄경 권62	259	공개
18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1~2, 2-1~2	263	공개
19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269	공개
20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273	공개
2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 1-1, 1-2	277	공개
22	자치통감 권193~195	281	공개
23	안성 청원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일괄	286	공개
24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	298	공개
25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	311	공개
26	검재화첩	318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명칭 변경>			
27	보물 제649호 ‘연기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등 2건	335	공개

심 의 사 항

【심의 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2-05-001

1.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인사로부터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07.06.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08.11.25, ‘09.07.21~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2년도 제4차 회의(‘12.08.0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2.08.24~9.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호(1972.2.12.)
- 명 칭 :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66건 148점)/복장유물 목록 붙임참조
- 규 격 : 높이 126.0cm, 어깨폭 64.0cm, 무릎폭 97.3cm
- 재 질 : 목조(향나무)
- 형 식 : 지권인의 좌상
- 제작연대 : 불상(통일신라 말~고려 초), 복장유물(고려~조선)
- 추진경과
 - 1992.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개금 시 복장 일부 확인
 - 2005.07.04. 해인사, 통일신라 목조불상 확인 발표
 - 07.28. 해인사·통도사박물관, 비로자나불 2구의 복장유물 조사
 - 2007.06.1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해인사→문화재청)
 - 08.30~31. 예비조사(서병패, 손영문)
 - 10.16. 실무협의(문화재청 및 해인사 박물관 담당자)
 - 11.13~15. 1차 합동조사(전적류 조사 완료)
 - 2008.01.9~11. 2차 합동조사(후령통, 묵서명, 직물류 조사 완료)
 - 11.25. 지정조사(조각분야)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2009.7.21~22. 지정조사(복장유물) : 송일기, 신승운, 서병패, 손영문
 - 2010.07.27. 지정추진 검토 전문가회의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 결과 : 묵서명을 비롯하여 내부구조 및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 필요.
 - 2011.10.25. 법보전·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 2구 비파괴검사 실시(유양원자)
 - 2011.11.28. 지정 검토 소위원회 개최
 - 불교조각 : 김리나, 문명대, 배재호, 손영문, 정은우
 - 고 문 헌 : 남풍현
 - 불 교 사 : 김상현, 남동신
 - 서 예 사 : 송하경, 선주선
 - 목재분석 : 박상진
 - X-ray분석 : 임남수
 - ※ 결과 : 법보전 불상 안의 묵서명에 대한 육안 확인 후 대적광전 불상과 함께 지정 추진
 - 2011.12. 8. 동산분과 6차 회의(소위원회 후 재검토)
 - 2012.03.23. 지정 검토 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 김리나, 최성은, 정은우, 손영문, 김상현
 - ※ 결과 : 묵서명이나 목재 분석 등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양식이 명확함.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 2구는 그 예가 희귀한 통일신라말 ~ 고려초 목불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가치가 충분함.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범보전 목조 비로자나불좌상은 같은 절의 대적광전에 있는 목조 비로자나불좌상과 그 크기나 착의법 그리고 표현양식이 거의 동일하게 통일신라시대 말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비로자나불상은 특히 개금 이전에 옷칠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원래 상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눈 꼬리가 옆으로 길게 올라간 얼굴의 이목구비의 표현과 위엄있는 표정이다. 편단우견식 착의법과 옷주름 처리는 통일신라 말기의 불상의 형식과 양식적 특징을 잘 따르고 있다. 특히 영주 비로사의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이나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상과 유사하게 비교된다. 자연스럽게 탄력있는 옷주름의 처리와 균형 있는 상의 비례는 통일신라 후기 불상과 그 전통이 짧게 이어지는 고려 초기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양식적 특징이다.

2005년 개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의 복장물이 발견되었고 복장 공간의 바닥에서 이두문(吏讀文)으로 된 목서가 발견되었는데 중화(中和) 3년, 883년 여름에 두 상을 금칠하여 완성하였는데 대각간(大角干)과 우비주(右妃主)에 등신(等身)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문장의 구성이 다소 엉성하고 발원주인공을 파악하는데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발견되어 학계에서는 명문의 정확한 해석에 다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상의 연대 추정에 도움이 되나 좀 더 정확한 내용 파악은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목서체의 특징뿐 아니라 명문을 쓴 목판의 정밀한 조사를 요하나 현재로서는 재조사가 불가능하다.

처음 복장조사 시에 복장 공간에서 채취한 목재자료 샘플의 과학적인 연대 추정에서 오차범위를 참고하여 740년에서 950년까지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 상의 연대는 목서 내용의 정확한 파악에 대한 연구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883년이라는 명문의 연대는 상의 양식적 특징과 목재의 연대와도 부합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 상이 통일신라 말 늦어도 고려 초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까지 알려진 통일신라 말기 내지 고려 초기의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상의 복장에서는 몇 번의 중수에 따른 전적과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는데 1150년, 1156년으로 추정되는 판본 다라니가 포함되었고 1166년(고려 의종10)에 왕의 수명과 나라의 안녕과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하여 넣었다는 판본 다라니도 포함되어 1167년 경에 이 상의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선 초에 와서 왕실 후원의 대규모 사찰 중수와 불상의 복장물 납입이 1488~90년에 있었으며 경전, 복식 후령통 등 발원문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개금과 중수 기록을 보아도 이 상과 해인사는 오랫동안 나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 사찰이며 통일신라 말 내지는 고려 초기의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은 오늘날까지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 말 내지는 고려 초 이후로는 내리갈 수 없는 양식적인 특징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으로 당연히 국가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여러 점에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전기에 이르는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각적으로 균제미가 있는 우수한 조형감을 보이고 있으며 복장에서 발견된 유물들 가운데는 고려 의종 연간의 전적들과 조선 초기의 불교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불상의 조성시기는 나말여초기로 생각되며 고려 의종연간에 중수되었고 조선시대 1489~1490년 사이에 다시 보수개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면에서 한국조각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불상으로 판단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법보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상 그 자체만 보아도 불상의 재질인 목재가 고려시대 이후의 목불들과 달리 독특하게 향나무이며, 또한 그 조각양식도 매우 뛰어나서 통일신라 최전성기의 중앙 양식의 품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상이다. 이에 덧붙여 상 내부에 초기 조성과 연관된 중화 3년의 묵서명이 있으며, 또한 조선 초에 이르면 이 불상은 다시 왕실의 후원을 받아 고려 전기까지 올라가는 매우 귀중한 여러 전적을 포함한 다양한 복장물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 보면 법보전의 목불상은 해인사의 불교사적 특성과 역사적 변화상을 한 몸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490년의 중수와 복장물의 발견 그리고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복장물 납입 등을 통해 적어도 고려 12세기 이전에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 가슴 부분에서 왼손 검지를 감싼 바른 자세의 지권인 수인 이

라든가 편단우견의 대의 그리고 옷주름 등 통일신라 9세기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더욱이 통일신라 시대의 유일한 목조불상으로서 1m가 넘는 크기와 조형성은 물론 조각적인 완성도가 높고 자료적 가치가 뛰어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해야 될 불상으로 판단된다.

다만 양식적 특징은 물론 내부에 쓰여진 묵서 명문을 통해 9세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적광전 불상과 양식상 거의 똑 같은 점과 목재분석 결과(740~950년 전후) 등을 고려하여 제작시기는 통일신라 말 - 고려 초로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은 내부에 적힌 883년의 묵서명이 아니더라도, 동글동글한 나발, 이상화된 얼굴표현, 당당하고 육감적인 볼륨감, 신체에 감기듯 팽팽하게 걸쳐 입은 편단우견의 착의형식,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권지권인의 형태, 긴장 넘치게 조각된 옷 주름 등에서 통일신라 9세기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며, 종교적·예술적으로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씨(史氏) 일가에 의해 납입된 반야심경의 발원문은 1167년(의종 21)에 불상에 대한 중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여서 이 불상의 하한연대 결정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발견된 초조대장경이나 보협인다라니경, 그리고 고려 의종의 재위 시 국왕의 장수와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며 간행된 3종의 범서총지집들이 복장에 납입된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불사를 엄격히 관리했던 시대 분위기 상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예상하게 하며, 이는 화엄종을 유달리 지원했던 의종의 정치적 성향과도 부합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이후로도 1490년, 1773년, 1885년, 1966년 등 최근까지의 중수기록이 중층적으로 남아 있어 불상의 개금중수 연구에도 좋은 자료이다. 이 중 1490년의 중수는 조선왕실 내명부를 대표하는 인혜·인수 두 대비가 당대 최고의 고승(高僧) 학조 대사에게 명하여 불사를 주도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불상은 조선 왕실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490년에 납입된 복장유물은 안립 절차에 입각한 정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조상경(造像經)』이 간행되기 이전에 이미 복장의식이 정립되어 있었음을 이 복장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복장유물은 전통적인 복장의식의 기원과 전승,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선구적인 자료이다. 그 내용면에서도 시대상을 오롯이 담고 있는 최고, 최대 수준의 복

장유물이라는 점에서 불상과 함께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은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상과 동형쌍불(同形雙佛)로 복장물의 형식이 거의 유사하며 직물에 있어서도 동일한 직물이 두 복장물에 같이 사용된 예가 많다.

법보전의 복장물에는 고려시대의 것은 없으나 대적광전과 마찬가지로 1490년에 개금중수 시에 납입된 복장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복장직물은 크게 직물의 성분으로 구분하면 마직물, 견직물, 면직물이 있다. 마직물로는 저마(모시)와 대마(삼베)가 있으며, 견직물로는 평직으로 직조한 명주(明紬), 면주(綿紬), 초(綃)가 있고, 능직으로 직조한 문능(紋綾), 익조직의 사(紗)와 라(羅), 수자직의 문단(紋緞)이 있다. 또한 목면(무명)과 견을 함께 사용하여 직조한 사면교직(絲棉交織)과 모시와 목면의 저면교직(苧棉交織) 등 다양한 조선 초기의 직물들이 조사되었다.

복장물 가운데 3점의 조각보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 조각보의 역사가 600년이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또한 저고리는 조선 초기의 홀저고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령통 내부의 오보병은 그 구성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독특한 방식을 갖추고 있어 직물사 뿐만 아니라 복장물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해인사의 복장물은 연대가 확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후령통을 개봉할 때에 비디오와 사진촬영 등으로 정확한 근거가 남아있어서 복장직물의 납입위치, 순서 등을 알 수 있다. 법보전의 복장직물의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마치 금방 제작된 것 같은 색감과 직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섬유 특성 및 직조기법뿐만 아니라 염색 상황이나 전통 색상 등의 연구에도 중요한 유물들이다. 법보전의 복장물은 1966년 이후의 복장물을 제외하고 대적광전의 복장물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은 대적광전의 다라니류와 같은 종류이다. 범서총지집과 같은 종류의 다라니는 내용이 같은 저본을 서로 다른 각수가 새겨서 같이 불복장한 드문 예로서 공덕(功德)의 목적으로 같은 자료를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1152년, 1156년, 1166년의 간기로 인하여 편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수 발원문은 해인사 중수 불사와 관련된 기록이다. 복장의식과 관련된 자료들로서 다라니류를 포함한 중수발원문은 복장유물에 포함하여 지정할 가치는 충분하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복장유물에는 복장의식과 관련되어 시납(施納)된 성물(聖物)로 크게 지류(紙類), 직물류(織物類), 공예류(工藝類)로 구분된다. 복장유물은 해당 불상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일괄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류문화재의 경우는 자료적 가치에 따라 복장전적만을 별건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류문화재에는 자료의 가치와 성격에 따라 전적, 다라니, 조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다라니와 조성기 등은 불상에 포함하여 지정하고, 특별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전적류만은 독립적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별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해인사 복장유물 가운데 전적만은 자료적 가치나 의미가 별건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전체 분량이 1~2장에 불과한 낙장본은 다라니와 조성원문과 함께 불상에 포함하여 일괄 지정하면 될 것이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이 불상은 편단우견식으로 대의를 착의하고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좌상이다. 불두와 불신의 비례는 안정감이 있고 양감이 풍부하다. 머리에는 중계주와 정상계주가 뚜렷하고 발제선에서 눈썹까지의 이마는 그다지 넓지 않으며 이목구비는 단엄하다. 2005년 개금될 때 금이 벗겨진 상태의 사진을 보면, 턱 부분이 가름한 얼굴은 여성적인 상호를 보이며 인중이 짧은 편으로 이 점은 나말여초기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어깨와 팔, 가슴 위를 흐르는 옷주름은 부드럽고 유려하

며 오른쪽 가슴의 융기한 부분은 선각으로 표현되었다. 왼쪽 어깨 위에 올려진 대의자락 아래에 새겨진 2~3개의 짧은 주름과 왼쪽 어깨에 흐르는 옷주름, 등 뒤로 넘어가는 대의 자락, 등을 덮은 대의 주름의 표현은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풍기 비로사 석조아미타불좌상과 같은 통일신라 불상과 유사함을 보인다. 또한 결가부좌한 두 발의 바닥이 보이는 표현 역시 고려 후기 목불과 금동불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한편, 나발의 크기가 이마 위의 발제선을 따라 가장자리 쪽은 작고 위로 올라가면서 커지는 것은 일반적인 통일신라 조각에서 보이지 않던 표현으로 주목된다.

불상의 내부는 대적광전 불상보다 정리되어 있는 편이고, 중앙의 목판에는 중화삼년(883)인 계묘년 여름에 이 불상에 금을 입혀 조성했다는 내용의 묵서(“서원대 각간주등신사미 우좌비주등신월중 중화삼년계묘차상하절칠금착성[誓願大角干主燈身賜弥 右座妃主燈身月中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가 거친 서체로 쓰여져 있고, 이 묵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칠이 입혀져 있다. 묵서 내용 속의 ‘대각간’은 진성여왕과 긴밀한 사이였던 ‘위홍각간’으로 추정되어 법보전과 대적광전 불상이 위홍과 진성여왕의 발원으로 조성된 불상이라는 추측을 낳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현존하는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불상은 여러 점에서 조성시기가 다르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단은 묵서명과 관계없이 법보전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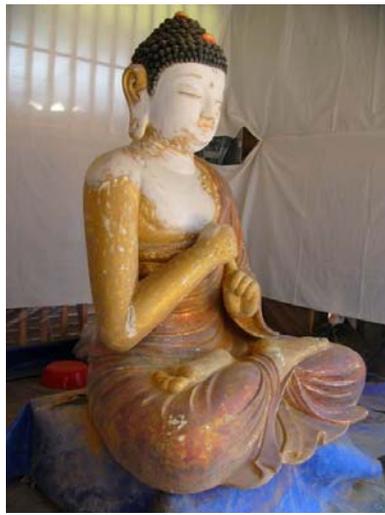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뒷면



개금 이전



개금 이전



내부 목서

○ 내용 및 특징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복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전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11~12세기) 1축을 비롯해서 1166년(의종 20)에 간행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 1167년(의종 21) 국자진사 사겸광(史謙光)이 돌아가신 백부 상서공부시랑 사위(史禕)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인시(印施)한 『반야바라밀다심경』(사위는 문공유의 묘지명의 찬자, 1159년) 등이 있다. 조선시대 유물로는 인수대비와 인혜왕비가 1488년(성종 19)부터 1490년(성종 21)까지 해인사를 대대적으로 중수하고 1489년에는 보안당(법보전) 주불과 문수, 보현보살을 수보하였다는 청색비단에 주서(朱書)한 중수원문이 전하고 있어 이 시기에 해인사의 여러 전각과 불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와 개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의종 연간, 특히 1167년 이전의 전적과 다라니가 많고 그 발원자들 가운데 거창 사씨 문중의 인물들이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제작기법면에서 볼 때, 접목조 기법으로 제작되었고 X-ray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은 두부 안쪽의 과임공간이 일반적인 고려 후기 목조불상들에 비해 좁고 양 쪽 눈에 유리나 같은 재료를 사용되지 않은 점 등에서 고식(古式)을 보이고 있다.

○ 문헌자료

-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법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서원』, 해인사정보박물관, 2008.

- 손영문,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研究」, 『美術史學 研究』 270, 2011. 6.

□ 관계전문가

○ 현 상

현재는 대비로전에 봉안되어 있으나 원래는 해인사 판당 안의 범보전에 봉안되어 있던 향나무제의 목조불상이다. 2005년 사찰 측의 조사에 의해 상의 내부에서 883년(중화 3)의 목서명과 1490년(홍치 3)의 「중수발원문」과 「해인사기」, 그리고 후령통, 고려시대로 올라가는 다양한 전적, 다라니, 직물, 복식 등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이 상은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조성된 현존하는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목불로 추정되었다.

이 상의 중수 및 개금에 관해서는 고려시대 기록은 전하는 것이 없지만 조선시대 이후의 기록은 다수 전한다. 먼저 복장에서 발견된 1490년(홍치 3)의 「중수발원문」과 「해인사기」에 의해 조선 1489년(성종 20)에 왕실의 후원 하에 불상을 봉안한 전각이 새로 건립되고 불상의 대대적인 수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773년의 현판인 「장경각삼존개금기」에 의하면 조선 초 중수 후 280여년이 지나자 불상의 채색이 쇠락하고 불신의 일부도 손상이 있어서 양공 설훈(良工 雪訓)을 청하여 개금불사를 원만히 이룩하였다고 한다. 또 1885년에 복장 납입된 「개금발원문」에 의하면 당시 금어 수룡기전(金魚 繡龍琪銓)에 의한 개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 와서는 1966년, 2000년, 그리고 2005년에 개금불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범보전의 목조비로자나불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신라왕실과 관련되어 조성된 이래 조선 초 다시 왕실의 주목을 받아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고 이후 사내에서 소중히 보존되어 온 상임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편단우견의 착의법에 지권인을 결한 불좌상으로 중화(中和) 3년(883)의 목서명에 어울리게 통일신라시대 불상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 하대인 9세기에 경상북도 지역에서 신라왕실과 연관되어 조성된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이나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등과 양식적으로 깊은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으면서도 동그란 양감 있는 얼굴이나 상호의 표현이 흡사하며, 옷주름 표현은 8세기에 비하면 다소 추상화되었으나 여전히 유려하고 또한 불신에 양감이 풍부한 조각양식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지권인을 결한 수

인도 양감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등 뒤의 둥근 양감있는 조각양식이나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 늘어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대의자락의 표현, 그리고 결가부좌한 다리를 감고 있는 팽팽하면서도 유려한 옷주름 표현 등은 모두 통일신라 하대 최고 수준의 중앙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의 조성 시기는 목서명에 보이는 883년으로 추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 최고(最古)의 목불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된다.

□ 관계전문가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은 근엄한 얼굴에 지권인의 수인과 편단우견의 대의가 특징이며 넓고 볼륨감 있는 어깨와 무릎 등 전체적으로 조형감이 뛰어난 작품이다. 머리에는 둥근 정상계주와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있으며 동그란 나발은 세밀하고 촘촘하게 표현하였다. 계주는 원래의 것이 아닌 중수 불사 때 새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는 넓은 편이며 높은 콧 날, 탄력있는 뺨, 강조된 턱 등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자비와 위엄을 갖추었다. 긴 귀는 실재적 느낌이 강하지만 귓볼에 작은 구멍이 있다. 수인은 왼손의 검지를 길게 뻗은 다음 오른손으로 감싼 지권인으로 가슴 부분에 두었는데 좌우는 바뀌었지만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이나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과 가장 가까운 형상이다.

목에는 삼도가 있다. 불신에는 편단우견의 대의를 걸쳤는데 왼쪽 허리에서 나온 대의자락이 한번 반전되어 왼쪽 어깨로 넘어가면서 삼각형의 편편한 주름을 만들었다. 옷주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밀한 주름을 표현하였는데 주름과 주름 사이를 볼록하게 표현하여 입체감을 강조한 것은 통일신라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어깨 뒤로 돌아간 주름의 자연스러운 흘러내림은 당당한 어깨와 가슴, 허리의 볼륨있는 신체 표현, 탄력있는 신체와 유기적으로 밀착된 자연스러운 옷주름과 더불어 역시 8~9세기 불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왼쪽 팔 밑으로 무겁게 늘어진 대의자락이 한번 반전되면서 흘러 내린 점 그리고 발목 까지 휘감긴 옷자락이라든가 오른발 부근의 3가닥 옷 주름, 두 무릎 사이에 모아진 옷자락이 부채꼴이 아닌 자연스럽게 접힌 처리 방식 등은 9세기적 특징으로 판단된다.

불상 내부에서는 다수의 복장물이 발견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불상의 제작시기 추정이 가능하다. 불상 안에서 발견된 복장물 가운데 학조대사(學祖大師)가 지은 1490년(홍치 3, 성종 21)의 중수원문에는 전당의 보수 사실과 더불어 비로자나불상의 보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시기는 해인사 중창불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와의도 합치되는 점에서 신빙성을 높인다. 이후 불상 개금은 1773년, 1885년, 1966년, 2000년, 2005년 등 현재까지 이어졌으며 마지막 개금 불사가 이루어진

불상의 중수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자료는 범학대사(梵學大師) 통휘(通輝)가 글을 써서 해진사(海眞寺)에서 1152년에 개판(開板)한 만(卍)자 형태의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와 1150년 선사(禪師) 사원(思遠)이 중교(重校), 개판한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 그리고 1156년 법수사(法水寺)에서 중대사(重大師) 자행(資行)이 간행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²⁾, 1166년에 간행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등 12세기 중엽 경에 간행된 일련의 같은 형식의 다라니들이다. 이 3종의 다라니는 모두 의종 때 간행되었으며, 국왕의 장수와 나라의 태평, 법계 중생의 해탈을 위해 간행했다는 공통된 간행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종 대에 간행된 밀교적 성격이 강한 다라니들이 대표적인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에 집중적으로 납입된 점은, 화엄종 사찰을 적극 지원했던 의종의 정치적 성향과도 잘 부합하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사찰의 창건이나 중수가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었던 만큼, 국가차원에서 간행한 중요한 불경(佛經)들이 다량으로 불상에 납입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대개 시대성을 담고 있는 복장유물들은 간행 시기와 멀지 않은 시점에 복장으로 납입되고 있기 때문에, 납입 시점과 중수 시점과의 시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 복장이 불상에 납입된 시기가 곧 불상의 중수시기로 추정되는데, 그 해답은 함께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을 통해 확인된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의 권말에는 붉은색 글씨로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郎史偉)
 (往生西方見)
 (佛聞法之院印成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

이 발원문은 정해년(丁亥年) 국자진사(國子進士) 사겸광이 돌아가신 큰아버지 사위(史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반야바라밀다심경』의 권말에 붉은 색 글씨로 발원내용을 적어 납입한 것이다.³⁾ 이 글이 작성된 ‘정해년’이 곧 불상의 중수시

2) 刊記：茲者奉爲聖壽疆國泰民安先亡師 僧父母及法界有情速證菩提之愿與 大師萬(?)轉同發信議命工彫造梵字 陀羅尼板印 施無窮者 時正豐元年七月日法水寺重大師資行記.

3)

기가 될 것인데, 망자가 된 사위(史禕)의 활동시기를 통해 이곳의 정해년은 1167년, 즉 의종 21년으로 확인된다.⁴⁾ 따라서 1167년 경 고려왕실과 사씨 일가의 후원으로 불상에 대한 중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앞서의 다라니들의 목판에 새긴 간행기와 달리 불상의 중수에 앞서 발원자가 직접 붉은 글씨로 적었다는 점에서 불상의 중수와 거의 동시에 작성, 납입되었음을 말해 주는 자료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왔어도, 조선 왕실의 주도 아래 해인사와 불상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다. 이는 북장에서 발견된 학조대사(學祖大師)가 지은 중수발원문(1490년)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1488~1490년 사이에 이루어진 해인사 중창불사의 과정과 중수에 참여한 인혜·인수 두 대비를 비롯한 내명부의 비빈(妃嬪), 종친, 승려 등의 명단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 (弘治元年 戊申, 1488, 19) (內需司)
 1 5 , 80 , 3
 가 30 ‘ (普眼
 堂)’ 3 (寂光
 殿) ‘ (眞常殿)’
 (祖堂) (眞常殿) ‘ (解
 行堂)’ 2 (餘訥) , (1489)
 , 70 , 2 (僧堂)
 ‘ ; ‘ ; ‘ ,
 (毘盧遮那),
 (普眼堂 毘盧遮那) (文殊菩薩) (像)
 (修補) ...⁵⁾

이 기록을 통해 현재의 범보전 비로자나불상은 당시 보안당(普眼堂)에 모셔져 있던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되며,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보다 1년 전인 1489년에 문수보살상(文殊菩薩像)과 함께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후령통 안에서 발견된 ‘황명홍치삼년경술해인사기(皇明弘治三年庚戌海印寺記)’에서도 확인

4) 史禕(史偉) 1159 文公裕 『 』 (2006), 27 .

5) “..弘治元年戊申春 命內需司施米千五百石 綿布八十餘同 役僧三百余人 撤旧以新之寬窄得中僅容板子 便於守護只構三十間 仍名曰普眼堂 又撤板堂佛殿三間移營於寂光殿側 名曰眞常殿 又撤祖堂移營於眞常殿 側名曰解行堂 燔瓦二百餘訥 翼年己酉春施米千余石綿布七十余同 役僧二百余人 重創僧堂名曰探眞禪堂名曰窮玄上室名曰鑑物堂及三寶位修補 講堂名曰無說堂及修補毘盧遮那 瑠璃殿藥師如來 眞常殿毘盧殿毘盧遮那 普眼堂毘盧遮那及文殊菩薩等像...”

된다.⁶⁾

1490년(홍치 3)에 수보·개금된 후 범보전 비로자나불상은 280여 년이 지난 1773년에 개금이 이루어졌고,⁷⁾ 1885년에도 개금이 있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1966년과 2000년, 그리고 2005년에도 개금중수가 있었다.

우선 범보전 상과 대적광전 상은 얼굴 모습에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이 범보전 비로자나불상 보다 둥글고 볼륨이 좀더 강조되어 부드러운 이미지이며, 이에 비해 범보전 상은 약간 굳은 모습이다. 신체의 형태에서도 대적광전 상이 범보전 상보다 다소 볼륨이 강조되어 우람하고 장대한 느낌이다. 이외 백호의 크기나 세부 옷 주름 표현, 접목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크기에서도 범보전 불상은 높이 126cm, 어깨 폭 64cm 무릎 폭 97.3cm 이며, 대적광전 불상은 높이 125cm, 어깨 폭 63.5cm, 무릎 폭 95.5cm로 거의 같으며, 머리의 표현, 착의형식, 수인, 형태나 비례, 조형미 등에서도 두 구의 불상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형태적·양식적 특징을 보인다.⁸⁾

세부에서 다소의 표현차이는 있지만, 두 구의 비로자나불상 머리는 섬세하게 조각된 둥글둥글한 나발로 촘촘히 부착하였다. 지발부(地髮部)에서 육계로 이어지는 곡선이 급하여 전체적인 모양은 마치 팽이모양을 연상시킨다. 머리에는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새겨 넣었다. 이마는 넓고 평평하며 양 미간 사이에 백호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눈썹은 관자놀이 부근에서 콧날 쪽으로 완만히 뺨어 내려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가늘고 긴 눈은 사바세계를 굽어보듯 자비로운 모습이다. 적당한 길이의 인중은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입술 역시 코의 폭만큼 자리 잡아 사실적으로 조각하였다. 양 뺨은 팽팽하게 살이 올라 있고 턱 아래로는 군살이 잡혀있다. 전반적으로 얼굴에 흐르고 있는 표정은 사유에 잠긴 듯 차분한 느낌이다.

양감이 강조되면서도 사유에 잠긴 이상화된 등근 얼굴은 통일신라 전성기의 석

6) 皇明弘治三年庚戌海印寺記「貞熹王后尹氏率追」先志大藏殿用是交隣雨漏朽破則亦是民弊故「擬欲改創而未遂」薨逝 仁粹王大妃韓氏 仁惠王大妃韓氏」王妃尹氏敬奉」先后遺教弘治元年戊申 乃命比丘學祖幹其事」改創板堂則至秋功訖諸殿 舍未及重修越 明〃年庚戌毗盧殿改營諸殿舍或修補改蓋」或改造 主佛則重修改金類落文殊普賢」改造其餘諸像並比(=皆)修補改金」

7) 藏經閣三尊改金記 夫寺之創 板之設 著在寺誌 不必架疊 而但閣中所安 毘盧佛 文殊 普賢三尊像 皆面彩漫漶 體亦有傷 見者聞者 幾多噴舌 而終鮮拔毛 昨年秋 有安義處士 河脫雲兩主 到此 目其尊像 慨然發心 願施青銅一百六十貫 贊和上人 自募檀門 又得鵝眼數百餘兩 時住持任奇 管其物 時僧統謹學 外以護 前往持賣行 內以監 三人同心 邀良工雪訓 一箇月而告功 時緣到來 不期而成 驗於此矣 坐服乃京城內宮所施獻也 金剛門所安文殊普賢 破傷亦有甚於閣中 二尊 且賴右人之功 修補改彩 煥如新成 亦寺之一大幸矣 事訖大衆謝其功 三人不居其功歸於上人 上人亦有之 歸於處士 處士亦有之 歸於尊像 敢問大衆 尊像之功耶 處士之功耶 上人之功耶 三人之功耶 蓋尊像之功 不待言而人皆可知 六人之功 非文無以昭示於後人之目 於是記之揭壁 乾隆三十八年 癸巳 仲春 龍波病夫 道周 誌 門人 義成書 願刻 前判司 管榮 緣化秩 良工 雪訓 施主秩 坐服施主 尚宮金氏 改金施主 處士 河脫雲兩主. 李智冠, 編著, 『伽倻山 海印寺誌』(伽山文庫, 1992), pp.94-95.

8) 『佛敎美術』, 1970, 270(

, 2011.6), pp.21-28

굴암 석조여래좌상,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불상을 전통을 따르면서도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이 9세기대의 다수의 불상들과 친연성이 확인된다. 중수 복장에 나타나는 1167년 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80년 중수)이나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74년 중수)의 가름한 형태의 얼굴에 두툼한 눈두덩, 강인한 눈매, 높고 큼직한 매부리코에서 오는 이국적이면서 엄숙한 얼굴과도, 또 조선 초기의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이 양감이 절제된 수척한 얼굴과도 확실히 구별된다.<표1 참조> 물론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나 고려 전기 불상에서 찾기 어려운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는 1490년에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상호 표현의 비교

통일신라		고려		조선	
					
경주 석굴암 본존 불상, 8세기 중엽	영주 비로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서산 개심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고려 후기(1280년 중수)	서울 개운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고려 후기(1274년 중수)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1458년	경주 왕룡사원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1466~1474년

어깨까지 닿을 듯하게 표현한 긴 귀는 입체적이고, 3자 형태의 이륜의 윤곽도 뚜렷하고 사실적이다. 귓구멍은 윗구멍은 둥글고 그 아래로 물방울 형태로 처리하여 마치 열쇠구멍 모양으로 표현하였으며, 상하각의 표현도 비교적 뚜렷하다. 길게 늘어진 귓불에는 물방울 모양의 깊은 홈이 파져 있다. 이러한 귀의 형태와 표현 방식은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이나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흥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불좌상,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등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고려 후기의 서산 개심사 아미타불상이나 개운사 아미타불상의 귀와도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개심사 불상이나 개운사 불상의 귀는 이륜의 곡선이 완만하고 귓구멍도 타원형으로 해인사 불상의 동그랗고 뚜렷한 귀와는 차이가 있다.<표2 참조>

<표2> 귀 표현의 비교

해인사		통일신라		고려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경주 안계리 여래좌상, 통일신라	대구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좌상, 863년경	서산 개심사 아미타여래좌상, 1280년 중수	서울 개운사 아미타여래좌상, 고려 후기(1274년 중수)

수인은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권 형태의 지권인으로, 오른손을 가슴선 부근에 둔 것이 특징이다. 왼손 손목을 꺾어 손바닥이 보이는 지권인의 형태는 일본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된 8세기 후반의 금동비로자나불입상이나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에서 볼 수 있으며,⁹⁾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 경)이나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년) 등 9세기 중엽경의 불상에서도 아직 완전히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붙이지 않고 있다.<표3 참조>

<표3> 수인의 비교

해인사		통일신라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금동비로자나불입상, 통일신라, 일본 동경국 립박물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 불좌상, 통일신라, 국 보 제26호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 로자나불좌상, 863년 경

한편 삼도의 표현은 뚜렷하고 부피와 근육이 강조된 어깨는 당당하다. 불신에는 편단우견으로 대의를 걸쳤다. 등을 돌아 온 대의가 가슴 중앙에서 한번 반전하여 왼쪽 어깨 뒤로 넘겼다. 특히 왼쪽 어깨 부근에 자리 잡은 삼각형의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겹쳐진 모습이라든가 어깨 위에 표현된 두 가닥의 짧은 주름, 그리고 팔꿈치의 겹쳐진 주름 등이 특징이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삼각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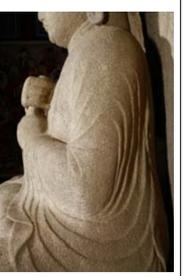
9) 『佛敎美術』, 『
p.61.

』, 『美術史學研究』 250-251(韓國美術史學會, 2006),

층단 주름과 불신에 표현된 세밀한 주름은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과 유사점이 있으나, 이 상에서 보이는 세밀하고 촘촘한 주름 표현에 비해 한결 정돈된 느낌이다. 또 어깨 위에서 팔자형(八字形)으로 표현된 2가닥의 짧은 주름은 석굴암 석조여래좌상,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8세기 중엽 경의 불상부터 9세기 말 경의 불상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나타나는 시대 양식이다. 이러한 주름의 발생은 아마도 석굴암 불상의 생략적인 주름 표현 방식이, 이후 고려 초까지 불상 제작자들이 관습적으로 따라하면서 생긴 주름으로 이해된다.

불상의 뒷면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입체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주름을 생생하게 새겼는데, S자형으로 반전하며 드리워진 대의의 끝자락이 왼쪽 측면으로 둥글게 돌아 간 모습은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나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홍천 물결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9세기 중·후반 불상들과 비교되는 통일신라 시대적 요소이다. 즉 고려 후기나 조선시대 불상에서 보이는 삼각형으로 마무리 한 끝단 처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질에 따른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해인사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시대적 정서와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4> 배면 처리의 비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홍천 물결리 석조비로자나불좌 상, 통일신라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63년경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280년중수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466~1474년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576년

대의 주름은 볼륨 있는 신체에 유기적으로 밀착되어 탄력적이며 음양의 운율이 한껏 발휘된 입체적인 주름이 물결치듯 속도감 있게 조각되어 생동적이다. 특히 오른쪽 발목에서 요철이 있는 좁고 넓은 띠 주름이 팽팽하게 감겨 속도감 있게 흘러내린 모습과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옷 주름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채꼴 형태의 주름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재질과 제작방식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펼쳐진 주름은 나가사키(長崎) 구로

세(黑瀨) 관음당(觀音堂) 금동여래좌상이나 2008년 개금 중 발견된 기림사 소조여래좌상, 그리고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과 매우 흡사하여 부채꼴 주름과 더불어 재질을 불문하고 통일신라시기에 많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기를 내려 고려 후기의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조선 전기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으나 형식화되거나 간결해진 느낌이어서 시대적 차이를 느낄 수 있다.<표5 참조> 이와 함께 결가부좌한 오른발 주위로 짧고 간결하게 펼쳐진 3가닥의 인상적인 주름은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부석사 자인당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그리고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등 9세기 대 불상에서 확인되는 특징이어서 이 불상의 편년에 도움이 된다.

<표 5> 무릎 주름의 비교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
			
금동여래좌상, 통일신라, 日本 長崎 黑瀨 觀音堂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통일신라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무릎, 고려 후기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불좌상, 1466~1474년

이상의 분석에서 2구의 불상은 형식·양식 면에서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불상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 제작시기도 범보전 불상은 늦어도 목서명에 기록된 883년 무렵에는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정형하게 처리된 속파기 기법이나 박상진 교수의 질량분석 이온빔가속기 분석 값에 나이트수로 보정한 분석 결과 값(AD 740~950년)을 감안하여 불상의 제작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따라서 내부 목서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불상 제작 시기의 폭을, 나말여초로 다소 유연하게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상은 조성 이후 여러 차례의 개금중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성 당시의 모습에서 다소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원본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목서명이나 목서명이 적혀있는 목판, 무릎 부재의 목질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복장 후령통

우선 제일 먼저 황색보를 쓴 백색보(白色褌)를 후령통 제일 아래쪽에 안치하고,

그 위에 황색비단 바탕에 묵서(墨書)로 당시 불사와 관련된 간략한 사항을 기록한 ‘황명홍치삼년해인사기(皇明弘治三年海印寺記)’를 두었다. 발원문 바로 위쪽에는 비단 비단천으로 만든 오보병을 안치하였다. 오보병은 중앙에 황색보, 동쪽에 청색보, 서쪽에 백색보, 남쪽에 적색보, 북쪽에 흑색보로 구성하였고, 오보병 내에는 각 방위에 따른 각종 상징물(오곡, 오보, 오향, 오약[五穀, 五寶, 五香, 五藥] 등)을 조상의례에 입각하여 납입하였다. 방위에 따른 각종 상징물을 납입한 오보병은 원통형을 이루게 오색사로 촘촘히 감았다. 그 다음 여러 겹의 직물로 충전한 저고리¹⁰⁾로 오보병을 1차로 감쌌다. 이를 다시 청색보(靑色褌)로 2차로 감싸고 이를 흐트러지지 않게 황색띠로 묶어 마무리하였다. 오보병 윗면 중심에는 수정으로 만든 반투명의 무공심주(無空心珠)를 두었다. 심주의 주변에는 오색문 겹보와 사리호를 싼 적색보, 그리고 동판에 은을 입힌 팔엽연화 및 연봉을 안치하였다.

오색문 겹보는 녹색보를 방형으로 만든 후 실로 십자형으로 묶은 다음, 다시 자색보로 감싼 뒤 실로 십자형으로 묶고 이를 최종적으로 포장한 보자기이다. 수정사리병은 네 겹으로 감쌌는데, 황색보 → 녹색겹보(내면은 적색) → 자주색보 → 적색겹보(내면은 오색문)의 순이다. 팔엽연화는 연봉을 감싼 형태이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동에 은을 도금한 양면원경을 덮고, 긴 후혈이 마련된 뚜껑을 덮었다. 후혈에는 오방색 비단으로 두텁게 감쌌다. 후혈의 외연에는 오방색 비단천으로 감싸고 있는데, 중심부에서 백 → 흑 → 황 → 적 → 청색 순으로 되어있다.

뚜껑에는 진심종자를 순서대로 흙(우[卍], 청색, 아축[阿闍]), 드락(달락[怛洛], 홍색, 보생[寶生]), 흐릭(홀리[紇里], 백색, 미타[彌陁]), 악(惡, 불공[不空], 흑색)을 썼다. 오방 중 중앙을 상징하는 밤(鏤[鏤], 비로[毘盧])자는 후혈 부분에 황색으로 별도로 썼다. 후신에는 방위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동(아[阿])·남(마[摩])·서(라[羅])·북(하[訶]), 즉 사방주를 썼다.¹¹⁾

후령통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긴 후혈이 달려 있는 길쭉한 포탄형을 띠고 있다. 후신은 위가 좁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배가 불러지는 형태를 띤다. 후혈(喉穴)은 별도로 제작하고 하단부를 여러 갈래로 제단한 후 꽃잎 모양으로 펼쳐 후령통의 뚜껑 안쪽 면에서 부착하였다. 후령통 또한 양면원경과 마찬가지로 동에 은을 입힌 것이다.¹²⁾

10) “ 病厄災厄 生生 之

11) 유점사관 『조상경』 복장조입계색조에 따르면 “후령통은 팔엽개를 갖추고 덮개의 위 중앙에는 후혈을 뚫는다. 통의 체형은 오병을 용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다. 소상에는 둥근 통을 쓰고 탕화에는 네모진 통을 쓴다. 통 밖의 사면에는 사방주를 써서 사상을 표시한다. 통의 덮개에는 방위에 따라 진심종자를 쓰되 진중하여 방위가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라고 있다.

12) 후령통의 재질에 대해서는 조상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관상의례」에서는 銀盒이라고 하여 銀으로 만들어야

후령통은 후령통 크기에 알맞게 제작된 황색비단 주머니(또는 내황초폭자[內黃綯幅子])에 넣었다. 황색비단 주머니에 넣은 뒤 후령통의 아래 쪽에는 백색비단에 금니(金泥)로 쓴 보협진언을 안치하였다.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에서는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적은 중수발원문(重修發願文)이 함께 안치되었으나,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중수발원문은 도난 후 2001년 4월 회수되어 별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끝으로 오방색으로 오륜종자를 쓴 황초폭자(黃綯幅子)로 감싼 뒤 황색 실로 묶은 다음 봉합지로 봉하였다. 봉합지에는 묵서로 ‘신근봉(臣謹封)’이라 내려 썼다. 정면에는 붉은 색 글씨로 ‘전(前)’자를 썼다.

<복장 후령통의 납입현황도>



<후령통 유물목록>

	No	명칭	수량	재질	크기(cm)	연대	비고
법보전 후령통	1	후령통	1	동 (수 은 아 말감도금)	전체높이 33.8 두께 0.11	1490년 경	뚜껑에는 진심종자를 오방색으로 썼고, 몸통에는 사방주를 썼다.
	2	양면원경	1	동 (수 은 아 말감도금)	지름 14, 두께 0.13	1490년 경	
	3	팔엽연화	1	동 (수 은 아 말감도금)	높이 5.1, 최대폭 8.14	1490년 경	별도로 만든 연봉을 8엽의 연꽃잎이 감싼 형태.
	4	사리호	1	수정	높이 2.86 최대폭 3.05	1490년 경	
	5	무공심주	1	수정	지름 2.3	1490년 경	

한다.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후령통이 비록 동에 은을 도금하였지만, 『관상의궤』의 복장의식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6	근봉지대 (謹封紙帶)	1	종이	높이 4.43, 폭 3.6	1490년 경	
--	---	----------------	---	----	----------------	---------	--

○ 문헌자료

- 李智冠 編著, 『伽倻山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 범보종찰 해인사, 2010. 12.
- 金成根, 「해인사 두 분 비로자나부처님에 대하여」, 『修多羅』 17, 海印寺僧伽大學, 2005.
-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06.
- 金昌謙,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의 ‘大角干’銘 墨書」, 『新羅史學報』 4, 신라사학회, 2005.
- 林南壽, 「海印寺佛像調查報告」, 2005.
-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범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서원』, 해인사정보박물관, 2008.
- 손영문,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研究」, 『美術史學 研究』 270, 한국미술사학회, 2011. 6.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법보전 비로자나불의 섬유류 복장물은 크게 1490년과 1966년 이후에 복장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490년의 복장물은 대적광전의 복장물과 같은 시기에 납입한 것으로 납입형식이나 구성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대적광전의 복장물에서는 개봉하지 않았던 후령통의 오색후혈장엄과 후령통 내의 오보병을 해체하여 자세한 납입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유물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여 긴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1490년에 복장된 섬유류 유물은 저고리 한 점과 조각보 3점을 비롯하여 57점이다. 대적광전에 비해 유물수가 많은 것은 해체된 오색후혈장엄과 오보병으로 인한 것이며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적광전의 복장물과 거의 흡사하다. 주요 유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후령통과 관련 복장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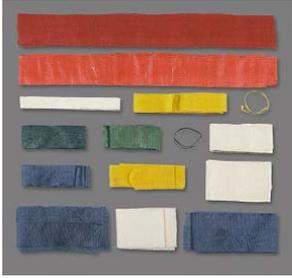
후령통은 대적광전의 것과 동일하며, 외부 황초폭자(유물번호 법-직물05)와 후령통의 형태에 맞게 봉제된 황초폭자(법-직물06)에 싸여있는 것도 똑같다.<도 1> 소보협다라니(법-직물07)와 중수발원문(법-직물07) 역시 대적광전의 것과 동일하다.

후령통의 오색후혈장엄(五色喉穴藏嚴)은 조사 당시 해체가 되어 있었으나 해인사에서 제공한 비디오 자료를 보면 가운데에 황색주로 묶여있었는데 ‘종보기 반그미’라는 목서가 가장자리에 있다.<도 2> 오색후혈장엄이 배치되어 있는 순서는 대적광전의 것과 동일하게 초록→홍색→황색→남색→백색의 순서로 감겨있었으며 13점의 직물로 구성되어 있다.<도 3> 가장 바깥에는 초록연화문사(법-직물17)가 감겨있었는데 가운데에는 붉은색 실로 묶여있었다. 초록연화문사는 이경교라[二經絞羅, 혹은 사직(紗織)]로 바닥을 짜고 평직으로 무늬를 제직하였으며 활짝 핀 두가지 형태의 연꽃이 여백이 거의 없이 뺨뺨하게 원형의 넝쿨에 이어지며 배열되어 있다.<도 4> 초록연화문사 다음에는 초록면주(법-직물18)와 초록주(법-직물19), 홍색의 직물 2점(법-직물20~21)과 적색저포(법-직물22)와 황색저포(법-직물24~26), 남색무문사(藍色無紋紗, 법-직물27), 백색직물 3점(법-직물29~31), 초록운문사(법-직물32)가 감겨있었다. 무문사(無紋紗)는 2경교라로 직조된 직물 가운데 무늬가 없는 것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홍색주 2 점(법-직물20, 21)과 적색저포(법-직물22)에는 비스듬하게 가위로 조금씩 잘라놓은 흔적이 있다.<도 5>

후령통안에는 직물을 짠 조각보(법-직물10)가 있다. 조각보의 겉은 백, 남, 홍, 청, 초록, 황, 담홍의 일곱 색상의 무문라(無紋羅)를 사용하여 81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자기의 안은 연두색문단으로 되어 있다.<도 6> 무문라는 4경교라로 직조한 라직물 가운데 무늬가 없는 것을 말하며 소라(素羅)라고도 한다. 선명한 단색으로 이루어졌으며 색상의 구성이 매우 아름다운 조각보이다. 조각보의 안에는 홍색견사로 묶여있는 자색보자기가 있다. 자색보자기(법-직물13)는 명주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34.6×36.2cm이다. 자색보자기의 안에는 붉은색 실로 묶여있는 초록색주가 있는데 한쪽에는 목서가 있다.<도 7~8>



<도 1> 후령통과 황초폭자



<도 3> 해체한 오색후혈장엄



<도 6> 무문라 조각보



<도 4> 초록연화문사



<도 7> 자색 보자기와 초록주

<도 2> 황색주의 묵서



<도 5> 홍색주의 가위집흔적



<도 8> 초록주의 묵서

2. 사리호와 관련 복장물

사리호는 대적광전의 것과 동일한 등근 황색보자기(법-직물50)에 싸여 있었으며, 다시 초록운문사 조각보(법-직물51)로 싸고 홍색견사로 묶었다. 초록운문사 조각보의 겉은 24조각의 동일한 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은 홍색화문단으로 되어 있다. 초록운문사는 얇고 투공율이 높은 직물이기 때문에 뒤의 홍색이 은은하게 비쳐 은근한 멋을 풍기고 있다. 초록운문사<도 9>는 2경교라로 바닥을 짜면서 평직으로 무늬를 시문하였다. 초록운문사 조각보는 다시 자주색 보자기(법-직물52)로 싸여 있었는데 전술한 초록주를 썼던 보자기(법-직물13)와 같은 직물을 사용하였다.<도 10> 또한 홍색주 보자기로 다시 썼는데 안은 7가지색의 문사(紋紗)로 만든 조각보이다. 조각의 수는 81조각이며 대부분 구름무늬의 운문사를 사용하였으며 2조각은 화문사(花紋紗)로 되어있다.<도 11>



<도 9> 초록운문사 보자기



<도 10> 자색주 보자기



<도 11> 문사 조각보

이와 같이 범보전의 복장물 가운데는 조각보가 3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조각보의 아름다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유물은 조선 후기 이후의 것들로 조각보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근래에 1415년 불상 조성 시에 납입되었던 내소사의 조각보가 조사되었는데 이 보자기와 더불어 해인사의 조각보는 1400년대 조각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며, 우리나라 조각보의 역사가 6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3. 후령통 안의 오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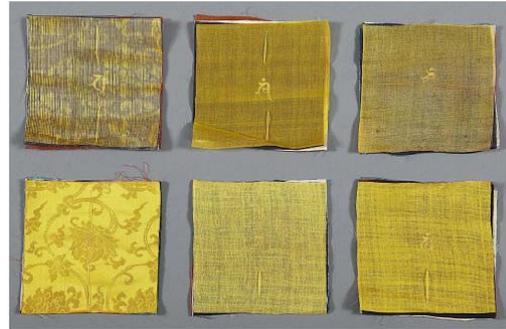
오색사에 감긴 오보병은 대적광전의 것은 해체하지 않았던 반면 범보전의 것은 조사 당시 해체가 되어 있었다. 오보병은 오색사로 묶여있었는데 실에 꼬임이 별로 없는 푼사이다. 해인사의 복장직물을 묶었던 끈은 대부분 2 가닥의 실을 S방향으로 꼬아서 만든 합사인데 오보병의 오색사는 유일한 푼사이다. 오보병은 다섯 방위에 맞는 색상과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황색은 원형, 흑색은 반원형, 백색은 원형, 청색은 사각형, 홍색은 삼각형으로 되어있다.<도 12> 그리고 안에는 약 10×10cm 정도의 직물묶음이 6매가 있는데 직물의 종류별로 문사(紋紗), 저포(苧布, 모시), 초(綃), 주(紬, 명주), 면포(綿布, 무명), 문단(紋緞)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13> 또한 각각 오방색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도 14> 각 묶음은 황 → 흑 → 백 → 적 → 청의 순서로 놓여있고 가운데에는 노란색 실로 크게 홈질이 되어 있다.

오보병은 모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한 쪽은 무늬가 있는 직물이 사용된 반면 다른 한쪽은 무늬가 없는 주(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자기에 물건을 쌀 때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쪽을 겹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싸는 용도 이외에 아름답게 보이는 기능까지 한다. 그러나 범보전의 오보병은 안쪽을 더 화려하고 값비싼 직물로 하였는데 이것은 안에 싸여지는 물건의 소중함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되어진다.

오보병 가운데 중앙을 의미하는 황색은 안은 화문단(범-직물46-1)이고 겹은 황색 명주를 사용하였다. 화문단은 측면형과 꽃 중앙에 연밥이 표현된 형태의 두 가지의 연꽃이 보상화형태의 잎이 달린 원형의 넝쿨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도 15> 동쪽을 나타내는 청색은 안은 황색연화문단과 동일한 직물로 단지 색상만 다르며, 겹은 청색명주로 하였다. 북쪽과 서쪽을 가리키는 흑색과 백색의 안은 운문단으로 커다란 사함여의형태의 구름머리에 긴자형태의 꼬리가 달린 단독운문으로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도 16> 남쪽의 홍색은 안을 화문단으로 하고 겹은 홍색명주로 하였다.<도 17> 이러한 문직물들은 조선시대 직물의 무늬 변천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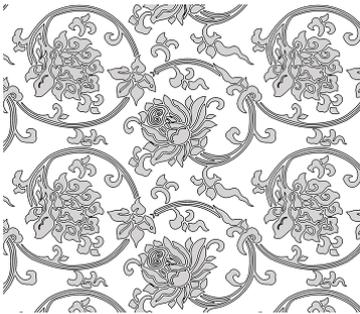
<도 12> 오보병의 구성



<도 13> 각 방위의 6종류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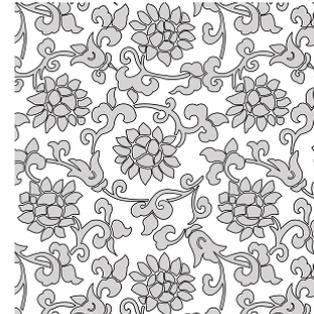
<도 14> 오방위의 직물



<도 15> 화문단의 무늬



<도 16> 운문단의 무늬



<도 17> 화문단의 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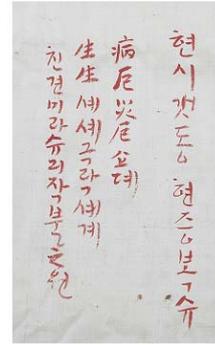
4. 저고리와 관련 복장물

범보전의 저고리는 대적광전의 저고리와 같은 홑겹의 적삼이나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넓은 목판깃과 수구 쪽으로 소매가 좁아지는 것은 같으나, 대적광전의 저고리에는 무가 없는 것에 비해 범보전의 저고리에는 ㄱ자형의 무가 달려있다. 또한 도련이 대적광전의 것에 비해 더 둥글다. 저고리의 뒷 중심선 아래에는 “현시갯동 현증복슈 病厄災厄쇼데 生生세세극락세계 친견미라슈리작불之원”의 주서가 적혀있다. 저고리의 길이는 81cm, 화장 96.5cm, 품 65cm, 고대 15.4cm, 깃나비 9.7cm, 진동 31cm, 옆트임 31.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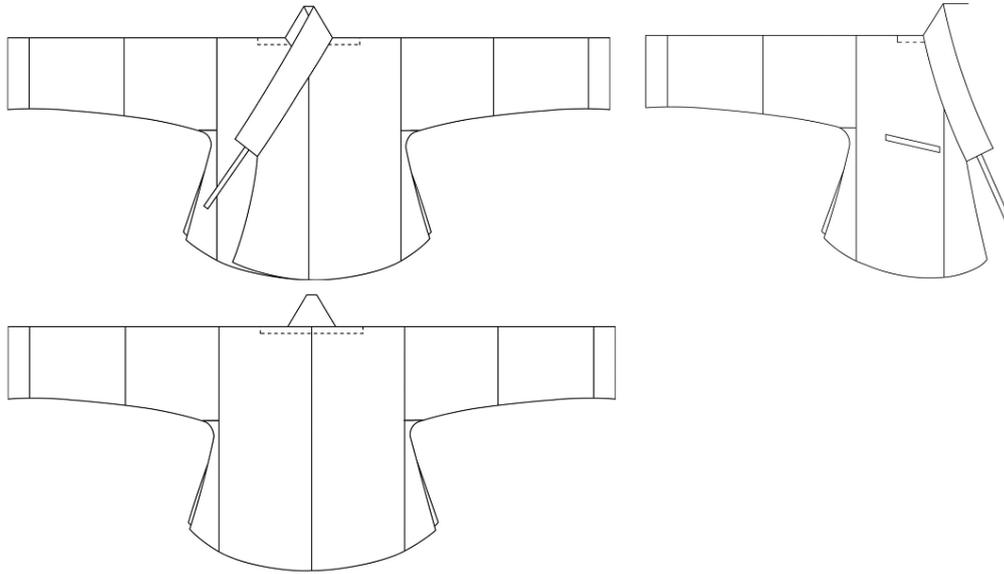
저고리는 길게 접은 소색주(범-직물56)에 싸여있었는데, 직물의 가장자리에는 ‘삼십칠척(三十七尺)’의 명문이 적혀있다. 대적광전과 마찬가지로 저고리의 안에는 사면교직, 소색마포(삼베), 소색저포(모시), 백색저포, 청색주(범-직물35~40, 56)가 길게 접혀져 있었다.



<도 17>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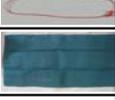
<도 18> 저고리의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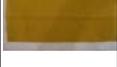


<도 19> 저고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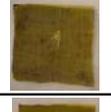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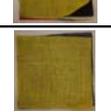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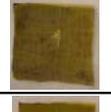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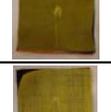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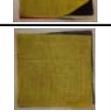
<표 2> 범보전 목조비로자나불상 섬유류 복장물의 특성

유물번호	유물명	직물종류	직물 조직	직물폭 (cm)	크기(cm)	특징	유물사진	시대
범-직물01	소색면포	면	평직	32.5	51.5×32.5	'슈금'명		1490
범-직물02	소색주	견	평직		298.2×38	구김이 심함		1490
범-직물03	저면교직 (苧棉交織)	모시,면	평직	32.1	58.1×32.1			1490
범-직물04	소색주	견	평직	27.8	64.8×27.8			1490
범-직물05	황초폭자	큰폭	견	평직	67	2폭으로 이었음		1490
		작은폭	견					

법-직물06	황초폭자	견	평직	30	46			1490
법-직물07	소보협다 라니	사(紗)	변형평직			금니로 명문적함		1490
법-직물08 *복장발원 문	중수발원 문	견	평직	64.1	64.1×62.9			1490
법-직물09	소색주	견	평직	51	91.2×51			1490
법-직물10	무문라 조각보	겉	견	4경교라	35×34.5	7가지 색상		1490
		안	견	바닥-5매3뿔 수자직 문양-5매3뿔 수자직		연두색문단		1490
법-직물11	홍색사(紅 色絲)	견			23,910	실		1490
법-직물12 *복장발원 문	황명홍치3 년경술해 인사개금 기	견	평직	33.8	33.8×30.6			1490
법-직물13	자색주	견	평직	34.6입	34.6×36.2	보자기		1490
법-직물14	홍색사	견			30.4	실		1490
법-직물15	청색주	견	평직	34.2	71.9×34.2	‘효민’묵서		1490
법-직물16	황색주	견	평직		60.8×7	반으로 접혀있음 ‘중보기 반그미’명문		1490
법-직물17	초록연화 문사	견	바닥-이경교 라 문양-평직		16×26 8.4×70.4	2점		1490
법-직물18	초록면주 (草綠綿紬)	견	평직		121×19	한번 접혀있음		1490
법-직물19	초록주	견	평직		71.7×22	한번 접혀있음		1490
법-직물20	홍색주	견			68.8×16	반으로 접혀있음 가위집 혼적있음		1490
법-직물21	홍색주	견	평직		68.8×16.6	반으로 접혀있음 가위집 혼적있음		1490
법-직물22	적색면포	면	평직		72×16.5 71.8×1.7	반으로 접혀있음		1490
법-직물23	적색저포	모시	평직		111×16.4	반으로 접혀있음 가위집 혼적있음		1490
법-직물24	황색저포	모시	평직		36.4×9.8			1490
법-직물25	황색저포	모시	평직		143×10			1490

법-직물26	황색주	견	평직		33.2×8			1490
법-직물27	남색무문사 (藍色無紋紗)	견	2경교라		149.3×9.8 245×18.1 335.8×14.6	3점		1490
법-직물28	소색주	견	평직		556×6.9	후령통뚜껑 오보병 중 백색		1490
법-직물29	백색저포	모시	평직		236×22	후령통뚜껑 오보병 중 백색. 반으로 접혀있음		1490
법-직물30	소색주	견	평직		71.8×21.7	후령통뚜껑 오보병 중 백색		1490
법-직물31	백색주	견	평직		368×7.2			1490
법-직물32	운문사 (雲紋紗)	견	바닥-2경교라 문양-평직		106.8×12.6	반으로 접혀있음		1490
법-직물33	자색주	견	평직		27.8×6	묶음용 끈		1490
법-직물34	청색주	견	평직	29.7도	51.9×29.7	3부분으로 접혀있음		1490
법-직물35	사면교직 (絲棉交織)	견, 면	평직	35	51.5×35	4부분으로 접혀있음		1490
법-직물36	소색마포 (素色麻布)	삼베	평직	28	64.1×28	3부분으로 접혀있음		1490
법-직물37	소색주	견	평직		51.2×26.1	4부분으로 접혀있음		1490
법-직물38	소색저포	모시	평직	33.8음	81×33.8	4부분으로 접혀있음		1490
법-직물39	소색주	견	평직	24.3	91×24.3	3부분으로 접혀있음		1490
법-직물40	백색저포	모시	평직	33	72×33	4부분으로 접혀있음 세모시		1490
법-직물41	황색무문 라 (黃色無紋 羅)	견	4경교라		33.1×15.6	반으로 접혀있음 '금더기'명문있음 법-직물42의 안에 있었음		1490
법-직물42	청색주	견	평직		57.4×22.7			1490
법-직물43-1	홍색화문 단	앞	견	바닥-5매2뿔 수자직 문양-5매2뿔 수자직	29.2×23	삼각형		1490
		뒤	견	평직				
법-직물43-2-1	오색문사 (五色紋紗)	황색 화문사	견	바닥-2경교라 문양-평직	10×10	법-직물43-1 안에 들었던 6묶음의 직물들 중 하나. 남, 백, 청, 홍, 황 5색		1490
		남색 화문사	견	바닥-2경교라 문양-평직				
		백색	견	바닥-2경교라				

		화보	문양-평직					
		문사	견	바닥-2경교라 문양-평직				
		홍색 운문 사						
청색 무문 사	견	2경교라						
법-직물43 -2-2	오색저포	모시		평직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3 -2-3	오색초	견		평직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3 -2-4	오색주	견		평직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3 -2-5	오색면포 (五色綿布)	면		평직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3 -2-6	오색문단 (五色紋緞)	견		바닥-5매2뿔 수자직 문양-5매2뿔 수자직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3 -3	홍색사 (紅色絲)	견			7.9	실		1490
법-직물44 -1	백색운문 단	견		바닥-5매2뿔 수자직 문양-5매2뿔 수자직	지름:24	원형		1490
법-직물44 -2-1	오색문사	견			10×10	법-직물44-1안에 들 었던 6뿔음의 직물 들 중 하나. 남,백,청,홍,황의 5색		1490
법-직물44 -2-2	오색저포	모시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4 -2-3	오색초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4 -2-4	오색주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4 -2-5	오색면포	면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4 -2-6	오색문단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4 -3	백색사 (白色絲)	견			71	실		1490
법-직물45 -1	남색운문 단	겉	견	바닥-5매2뿔 수자직 문양-5매2뿔 수자직	24.3×18.3	반원형 겉-남색운문단 안-남색주		1490
		안	견	평직				

법-직물45-2-1	오색문사	견			10×10	법-직물45-1안에 들었던 6묶음의 직물들 하나임.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5-2-2	오색저포	모시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5-2-3	오색초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5-2-4	오색주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5-2-5	오색면포	면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5-2-6	오색문단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5-3	남색사 (藍色絲)	견			75.6	실		1490
법-직물46-1	황색화문 단	견	평직		지름:24.1, 24.3	원형		1490
법-직물46-2-1	오색문사	견	바닥-2경 교 문양-평직			법-직물46-1안에 들었던 6묶음의 직물들 중 하나.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6-2-2	오색저포	모시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6-2-3	오색초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6-2-4	오색주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6-2-5	오색면포	면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6-2-6	오색문단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6-3	황색사 (黃色絲)	견			85	실		1490
법-직물47-1	청색화문 단	견	평직		19.2×18.8	방형		1490
법-직물47-2-1	황색화보 문라	견				법-직물47-1안에 들었던 6묶음의 직물들 중 하나. 5색		1490
법-직물47-2-2	오색저포	모시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7-2-3	오색초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7-2-4	오색주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7-2-5	오색면포	면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7-2-6	오색문단	견			10×10	남,백,청,홍,황 5색		1490	
법-직물47-3	청색사 (靑色絲)	견			76.4	실		1490	
법-직물48	오색사 (五色絲)	견				오색폰사		1490	
법-직물49	황색사 (黃色絲)	견	평직		51.6	후령통 묶었던 실		1490	
법-직물50	사리호보와 실	견						1490	
법-직물51	초록운문사조각보	겉	견	바닥-2경교라 무늬-평직	27.5×27	운문사로 구성	18조각으로		1490
		안	견	바닥-5매2뿔수자직 무늬-5매2뿔수자직		문단 구성	3조각으로		1490
법-직물52	자색주보자기	견	평직	34	35.9×34			1490	
법-직물53	문사조각보	앞		바닥-2경교라 문양-평직	32.8×32.5	남,황,청,초록,홍,청록,연두의 7가지 색 사용		1490	
		뒤		평직					
법-직물54	홍색사 (紅色絲)	견			41×77	실		1490	
법-직물55	초록주	견	평직	30	106.2×30			1490	
법-직물56	소색주	견	평직	29	91×29			1490	
법-저고리 01	저고리	견	평직		뒷길이:81 뒤폭:65 진동:31 수구:23.8 화장:96.5 무있음	주서로 명문적혀있음		1490	

○ 문헌자료

- 박윤미, 「내소사 복장직물의 용도규명 및 특성」, 『2007 상설전』, 불교중앙박물관, pp.104-109. 2007,

□ 문화재위원

○ 복장유물 중 전적목록

가. 도서

연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첩 (4장)	목판	12세기	29.6×14.9cm	포배장, 4장 하단에 각수(刻手)이름 ‘증신(曾信)’이 있음.
2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	1장	목판	12~13세기	30×25cm	날장의 표지만 남아있음.
3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장	목판	12~13세기	23.7×43cm	초조대장경 약사경으로 제3장(1장) 부분.
4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1장	목판	12~13세기	30.1×45.5cm	날장. 판심에 ‘연의제십육상 제오십사쪽(演義第十六上 第五十四幅)’

나. 다라니

연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6장	목판	1156년 각	15.8~20.7 ×43.9~56.3cm	정풍원년(1156)칠월 일법수사중대사자행기(正豐元年[1156]七月 日法水寺重大師資行記)의 간기가 있음. 장차(張次)는 1, 3, 20, 35, 36, 43으로 각기 1장씩 총 6장이며 장(張)마다 언평(彦平)의 각수명(刻手名)이 있다.
2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일권(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一卷)	27장	목판	1166년 각	16.2~18 ×45.2~57cm	병술(1166)칠월 일기(丙戌[1166]七月 日記)의 간기와 ‘존심(存深)’의 각수명이 있음. 장차는 7~12, 16~18, 29, 36~47이며, 그 중 8, 43, 44는 2장, 38은 3장으로 총 27장이다.
3	범서총지집 대비로자나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梵書總持集 大毗盧遮那佛經等一代聖教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14장	목판	1150년 각	3:12.5×41cm 24:20×48cm	안동 보광사의 경오(1150)세육월복[십]일해동장안판제포개판(庚午歲六月卜[十]日海東長安廣濟鋪開板)과 동일판이며, 묶음으로 발견되어 장차(張次) 3은 4장, 24은 10장으로 총 14장이다.
소계 3종						

다. 문서(발원문)

연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해인사 중수원문(海印寺重修願文)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62.9×63cm	학조(學祖)가 지은 중수원문으로 감색(紺色) 비단에 주서(朱書)로 필사하고, 하단에 시주자 명단 필서.
2	해인사 중수기(海印寺重修記)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30.3×34.7cm	황색 비단에 묵서.
소계 2종						

○ 내용 및 특징

가. 도서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경전으로 전체 4면이 포배장 형식으로 장책되었다. 표지의 제침은 12.4×4.2cm의 크기에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이라 묵서되어 있다. 재조대장경 국(鞠)함 소재본과 대조해보면, 재조본의 편(遍)이 편(徧)으로, 잡(匝)이 잡(市)으로, 칭설(稱說)이 칭찬(稱讚)으로, 삼악취(三惡趣)를 삼악도(三惡道)로, 제보살(諸菩薩)이 제보살중(諸菩薩衆), 불가사의공덕(不可思議功德)이 불가사의공덕지리(不可思議功德之利) 등과 같이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함차(函次)의 표기가 없는 점에서 사찰판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처음 알려진 새로운 판본이지만 앞의 반엽(半葉)이 결락된 잔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주본(周本) 80권을 대상으로 당승 징관(唐僧 澄觀, 738~839)이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를 지어 경문(經文)을 해석하고, 그후 다시 징관의 제자 승예(僧叡) 등이 소(疏)의 뜻을 해석하여 연의초(演義鈔)라 하였다. 그후 11세기에 경문과 소초를 합편하여 엮은 것이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이다. 권16의 제54장 1장만 전하는 낱장이다.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이 묵서된 표지만 남은 낱장이다.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彫本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은 초조본의 제 3장으로 낱장이다.

나. 다라니

법보전 소재 비로자나불에서 수습한 다라니는 1156년(고려 의종 10), 1166년(의종 20), 1150년(의종 4)에 각기 판각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연번 1~3) 3종이다. 모두 낙장이 많은 잔본이다.

다. 문서(발원문)

2건의 문서는 대적광전 소재 비로자나불복에서 수습한 발원문과 비단의 크기가 약간 다를 뿐 내용은 차이가 없다.

해인사중수원문(연번 1)은 1490년(성종 21)에 인수왕대비 한씨, 인혜왕대비 한씨, 왕비윤씨의 뜻에 따라 내수사의 재정적 지원과 학조(學祖)의 주관 하에 흥치 원년(무신년, 1488)에는 보안당(保眼堂), 진상전(眞常殿), 해행당(解行堂)을 지었고, 2년(기유년, 1489)에는 탐진당(探眞堂), 궁현당(窮玄堂), 감물당(鑑物堂)을 중창하고,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문수보살상을 수보하였으며, 3년(경술년, 1490)에는 비로전(毘盧殿)을 중창하여 대적광전(大寂光殿)으로 명명하고, 주불상(主佛像)을 수보하고 토상(土像)을 철거하고 좌우의 보처(補處)는 모두 칠포(漆布)로 개조한 사실 등, 3년 여에 걸친 해인사의 중창불사와 관련하여 동원된 물력과 인력 및 그 성과 등에 대하여 적고 있다. 원문은 학조(學祖)가 썼다. 원문의 하단에는 시주자 명단을 열서하였다. 검색비단에 주필(朱筆)로 필서하였다.

해인사중수기(연번 2)는 황색비단에 묵서한 것으로 위 원문과 같은 해인 1490년에 작성된 것이다. 해인사 내의 각 전사(殿舍)의 중창과 개금(改金)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다. 시주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앞의 원문내용을 참고의 목적에서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 문화재전문위원

< 해인사 범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목록 >

순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첩(4장)	목판본	12세기	29.6×14.9cm	포배장, 후반부 결락, 하단에 각수(刻手)이름 ‘증신(曾信)’이 있음.
2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1장	목판본	12~13세기	30.1×45.5cm,	날장. 판심에 ‘演義第十六上제오십사폭(演義第十六上第五十四幅)’
3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1(大方廣佛華嚴經 晋本卷11)	1장	목판본	12세기	30×39.5cm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1(大方廣佛華嚴經 卷第11)의 권수제 부분으로 날장임.
4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	1장	목판본	12~13세기	30×25cm	앞표지만 있음.

5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 원공덕경(初雕本藥師瑠 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장	목판본	12~13세기	23.7×43cm	초조대장경 약사경으로 장 차(張次)는 제3장의 낱장임.
6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 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 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 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 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 尼)	6장	목판본	1156년 각	15.8~20.7×43. 9~56.3cm	정풍원년(1156)칠월 일법수 사중대사자행기(正豐元年 [1156]七月 日法水寺重大師 資行記)의 간기가 있음. 장 차(張次)는 1, 3, 20, 35, 36, 43으로 각기 1장씩 총 6장 이며 장(張)마다 언평(彦平) 의 각수명(刻手名)이 있다.
7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 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 일체다라니일권(大毗盧 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 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 羅尼一卷)	27장	목판본	1166년 각	16.2~18×45.2~ 57cm	병술(1166)칠월 일기(丙戌 [1166]七月 日記)의 간기와 '존심(存深)'의 각수명이 있 음. 장차는 7~12, 16~18, 29, 36~47이며, 그 중 8, 43, 44는 2장, 38은 3장으로 총 27장이다.
8	범서총지집 일부 대비로 자나불경등일대성교중일 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 니(梵書總持集 一部 大 毗盧遮那佛經等一代聖教 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 陀羅尼)	14장	목판본	1150년 각	3장:12.5×41cm 24장:20×48cm	안동 보광사의 庚午(1150) 歲六月卜[十]日海東長安廣 濟鋪開板(庚午[1150]歲六月 卜[十]日海東長安廣濟鋪開 板)과 동일판이며, 묶음으 로 발견되어 장차(張次) 3 은 4장, 24은 10장 으로 총 14장이다.
9	해인사 중수발원문(海印 寺 重修發願文) *복장 발원문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62.9×63cm	1490년 학조(學祖)스님이 찬한 중수원문으로 감색(紺 色) 비단에 주서(朱書)로 필 사하였으며, 끝에는 시주자 명단이 있음.
10	해인사 중수기(海印寺 重修記) *복장 발원문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30.3×34.7cm	황색 비단에 묵서로 필사 함. 해인사 판당 및 여러 전각을 중수하고 주불과 문 수보현을 수보(修補)하고 개금한 기록임.

1.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이 자료는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불설아미타경으로 후반부가 결락되어 전체 4면 만이 남아있고 표지는 포배장 형식이고 본문은 권자본 형태로 되어 있다. 크기는 29.6×14.9cm이며, 판식은 상하간 20.5cm, 무게(無界)이며, 전엽(全葉) 30행 17자로 판각되어 있다. 판수에 아미경 이·미삼·미사(阿彌經 二·彌三·彌四)로 약서명과 장차가 있고 4장 하단에 각수(刻手)이름 ‘증신(曾信)’이 있다. 표지의 제침은 12.4×4.2cm의 크기에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이라 묵서로 쓰여 있다. 종이 색은 누렇고 인쇄상태는 먹색이 고르지 않아 뭉쳐있어 깨끗하지 못하다. 이 판본은 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이 자료는 크기는 30.1×45.5cm이며, 판식은 사주단변에 반곽 23×19.1cm, 무게이며, 반엽 10행 18자로 판각되어 있다, 판심에 연의제십육상 제오십사(演義第十六上 第五十四) 약서명, 권차(卷次), 장차(張次)가 있고 판심 폭은 1.8cm이다. 낱장 1장만이 남아 있다. 종이 색은 누렇고 인쇄상태는 먹색이 고르지 않아 뭉쳐있어 깨끗하지 못하다. 이 판본은 지질과 장정형태로 보아 12~13세기로 추정된다.

3.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1(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11)

이 자료는 60화엄본인 진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권11의 권수제 부분으로 불타발다라(佛馱跋陀羅)의 역자명이 있고 호접장본(蝴蝶裝本) 형식의 낱장 1장이다. 이 책의 크기는 30×39.5cm이며,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郭) 23.4×15.4cm, 무게(無界)이며, 반엽 17행(行) 31자(字) 기준으로 대체로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다. 판심에는 ‘진(晉)’, 권차(卷次), 장차(張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판심폭은 0.9cm이다.

4.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

이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권41은 낱장의 표지만 남아있으며 크기는 30×25cm이다. 서배(書背)에 ‘대방광불화엄경 권제사십일 진(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一 晉)’이라는 경명(經名)은 묵서(墨書)이고, 호접장본의 표지로 포배장 형식으로 되었다.

5.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이 자료는 삼장법사 현장(三藏法師 玄奘)이 번역한 『약사경』으로 제3장에 해당하는 낱장 형태이다. 장(張)의 크기는 23.7×43cm, 상하단변에 상하간 22.2cm, 무

게이며, 22행 14자로 되어 있다. 대적광전 판본과는 동일본이며 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6.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이 다라니는 전체는 47장으로 되어 있는데 발견된 장차(張次)는 1복(卜), 3복, 20복, 35복, 36복, 43복으로 각기 1장씩 총 6장이다. 크기는 15.8~20.7×43.9~56.3cm이며, 변란은 상하는 있고 좌우는 없으며, 전광(全匡)은 9.6~10.1×34~48.2cm 정도로서, 무계이고 1면의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각 장차의 단위는 ‘복(卜)’으로 표기하고 그 아래 매장(每張)마다 ‘언평(彦平)’이란 각수명(刻手名)이 있어 1156년(의왕毅王 10) 7월에 법수사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장에는 4행에 걸쳐 ‘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일권(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一卷)’이 쓰여 있고 밑에 소자(小字)로 ‘언평(彦平)’이라 되어 있다.

총 6장에 실린 진언 수는 46종이다. 권말에는 범자다라니를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한다는 법수사(法水寺)의 중대사 자행(重大師 資行)이 정풍(正豐) 원년인 1156년(의왕毅王 10)에 쓴 발문이 있다.

연호 정풍(年號 正豐)의 풍(豐)은 융(隆)의 대자(代字)이다. 고려 태조의 아버지 위(諱)가 융(隆)이라 피휘대자(避諱代字)한 것이다.

이 다라니는 장정하지 않은 낱장 형태로 복장되었으며 밀교사상 및 다라니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7.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이 다라니는 47장 마지막 장에 ‘병술(1166)칠월일 기지합주사사 문림랑 시전중내급사 이세합(丙戌七月日 記知陝州事使 文林郎 試殿中內給事 李世陝)’의 간기가 있어 1166년 7월에 간행된 사실을 밝혀주는 기록이 있으며 전체는 47장으로 되어 있다.

발견된 장차(張次)는 7~12, 16~18, 29, 36~47으로 22장이며, 이 가운데 8, 43, 44는 2장, 38은 3장으로 총 27장이다. 크기는 16.2~18×45.2~57cm이며, 사주(四周)에 변란이 있고 전광(全匡)은 9.8~10.6×33.9~41.8cm 정도로서, 무계이고 1면의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각 장차의 단위는 ‘복(卜)’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존심(存深)’이란 각수명(刻手名)이 있다.

내용과 구성 체제는 1156년(의왕毅王 10) 7월에 법수사에서 간행된 판본과 완전히 동일하고 전체 47장에 실린 진언수는 495종이다.

1166년판 총 22장에 실린 진언 수를 보면 201종으로 전체 진언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권말에는 발원문과 함께 범자다라니를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한다는 ‘병술(1166)칠월일 기지합주사사 문림랑 시전중내급사 이세합(丙戌七月日記知陝州事使 文林郎 試殿中內給事 李世陝)’의 발문이 있다. 간행기록이 있어 다라니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8.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

이 다라니는 왼쪽에 종이끈으로 묶여서 복잡되었던 것으로 2장에 해당한다. 전체 수량을 보면 장차(張次) 24복(卜)은 10장, 30은 4장으로 총 14장이다. 판각 시기는 앞의 1156년판과 1166년판의 내용과 구성은 같고 판각에서 차이가 나는데 앞선 자료로 추정된다.

안동 보광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복장유물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과 동일한 판으로 47장 말에 경오년(庚午年, 1150, 고려 의종 4) 6월 길일(吉日)에 평양 광제포에서 개판(開板) 인시(印施)하고 선사 사원(禪師 思遠)이 중교(重校)하였다는 간행기록이 있다.

크기는 장차 24장은 20×48cm, 전광(全匡) 10.2×35.9cm, 30장은 12.5×4cm 전광(全匡) 9.9×33.2cm이다. 각 장마다 일정하지 않으며, 사주(四周)에 변란이 있고 무계(無界)이며, 1면의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복장용으로 인출되어 먹색이 묻쳐있거나 인쇄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지질도 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출 시기는 13~14세기로 추정된다.

9. 해인사 중수원문(海印寺 重修願文)

1490년(성종 21)에 학조(學祖)가 찬한 해인사 중수원문이다. 62.9×63cm 크기의 정방형 감색(紺色) 비단에 주서(朱書)로 필사하였고 본문은 총 20행이며 1행의 자수(字數)는 일정하지 않으며, 이어 대시주(大施主) 50인, 수희조연(隨喜助緣) 161인을 10단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접는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비단의 감색이나 먹색이 선명하여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내용은 대적광전과 같으며, 다만 여기서의 행을 달리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본문에 있는 대로 표시하여 대적광전 원문과 구별이 되도록 하였다.

有伽耶山海印寺者山川精氣所鍾地仙所依三韓祖室歷代御刹所以高麗五百年間
國家史冊入安于此寺奉使曝晒 者世謂之登仙焉去戊寅年間我/
世祖大王 命敬差官臣尹贊等印出大藏經五十件流布諸山一則弘揚正教一則備於
交隣但藏經國用不小而板堂窄而漏仍令慶尙道材木重創/

五十餘間病其窄而營之故宏壯華麗間閣高大而盖瓦不實僧徒不能守護不多年而傾頽幾盡我 貞熹王后慨然必欲重營而革去往持/
命僧學祖主寺事中因水旱未就而 賓天我 仁粹王大妃殿下 仁惠王大妃殿下欲伸先后/
之志 睿思已熟而未決者有 年世故多件 先后之志恐或未就弘治元年戊申春 命內需司施米千五百石 綿布八十餘同 役僧三百餘人撤旧以新之寬窄得中僅容板子便於守護只構三十間/
仍名曰普眼堂又撤板堂佛殿三間移營於寂光殿側名曰眞常殿又撤祖堂移營於眞常殿側名曰解行堂燔瓦二百餘訥翼年己酉春施米/
千餘石綿布七十餘同役僧二百餘人重創僧堂名曰探眞禪堂名曰窮玄上室名曰鑑物堂及三寶位修補 講堂名曰無說堂及修補毘盧遮那瑠璃/
殿藥師如來眞常殿毘盧遮那普眼堂毘盧遮那及文殊菩薩等像 越庚戌春又施米二千餘石綿布一百五十餘同役僧四百餘人重創毘盧殿/
名曰大寂光殿 修補主佛 撤去土像 左右補處 普以柒布改造 重創內外行廊創鍾樓名曰圓音閣重創中門名曰不二門修補食堂名曰瑠璃殿又撤/
古大藏殿移營於寂光殿東側名曰簫然堂移銀字大藏經入安于普眼堂至於馬廐確家無不新之又以銅鐵一千五百斤鑄鐵三百斤並用殘/
餘旧器鑄成佛器執用器等鍾鼓法物煥然一新嗚呼法運衰季矣人根由之信向如麟角毀謗若塵沙返時流而弘揚豈火中之蓮華也在惡/
世而種小善根處正法而布張大作較其優劣日劫相倍何者正法時人 自律不待勸而自勵惡世則見善如登從惡如崩爲善者指以爲迂濶爲惡者/
標以爲豁達所以處叔世而宣揚實爲難能世我 仁粹王大妃殿下當剛強難化之時返時流蕩 之俗重大義而決大策違衆議而成大事遂使/
法藏有所尊像有儀殿宇巍 寮舍之有序法物之齊整一舉而衆美俱現祇圓精舍不獨專美於往古 先王先后之願意於是乎畢/
成之我殿下追遠報本之 盛德豈臣之所能擬議哉臣桑門未裔法門無才德營事無伎能睿哲神聰 洞照無用特以 先朝舊物專委法/
門之事夙夜戰 猶恐不及而事有件錯者不爲不多只以夙世侍從之緣每蒙 寬宥以至於事畢今者良緣既周能事已圓以此善根所生功德伏/
願先王先后列位靈駕頓悟無生超登覺岸次願 仁粹王大妃殿下萬歲萬歲壽萬歲 仁惠王大妃殿下萬歲萬歲壽萬歲主上殿下萬/
歲萬歲萬 歲 王妃殿下齊年復齊年 世子邸下千秋千秋復千秋 抑亦金枝繁茂玉葉昌盛 社稷延遠宗室安樂四邊寧靜文虎/
盡忠國土恒安時和歲稔物阜民康佛日增輝法輪常轉然後願茫茫沙界蠢 含靈仗

此勝因俱成正覺 大明弘治三年庚戌夏五月下澣比丘/

學祖謹誌/

大施主

貴人權氏/貴人尹氏/貴人崔氏/昭儀李氏/昭儀金氏/淑儀嚴氏/淑儀鄭氏/淑儀權氏/
淑儀南氏/淑儀鄭氏/淑儀洪氏/淑媛河氏/尚宮曹氏/奉保夫人白氏/安下長今/金氏
加智/沈氏從今/柳氏莫之//惠淑翁主/徽淑翁主/恭慎翁主/顯淑公主/玉環/合歡/福
蘭/

碧環/貞福/福合/升福/永膺夫人宋氏/齊安夫人金氏/月山夫人朴氏/翼峴夫人/密城
夫人/尹氏今代/權氏福今/玄氏介叱同/尹氏貴非/韓氏六月/尚宮洪氏泉只/尚宮金
氏宝背/阿之崔氏小非/李氏六月/韓氏沙叱江/黃氏奉非/河氏玄非/葉氏守非/李氏
貴非/崔氏於里/李氏宝背/

隨喜助緣

金氏哲非/辛氏內口非/梁氏德只/鄭加也之/奇氏玉今/朴氏玉今/金氏於里/金氏萬
德/姜氏玉梅/思郎今/崔氏者斤/金氏孝同非/李氏松非/金氏松葉/朴氏莫非/張氏長
今/盧氏石今/崔氏連今/朴氏銀玉/朴氏宝代/朴氏波獨/田氏孝目/朴氏鴛鴦/黃氏從
心/成氏莫今/

車氏未塵/朴氏仇叱同/姜氏龍今/盧氏哲非/梁氏玉從/崔氏加也之/金氏江阿之/鄭
氏無作只/崔氏田香/李氏思郎/宋氏尚今/金氏守斤非/林氏元今/林氏於里今/曹氏
末乙德/鴨伊/于今/石乙非/孝道/無心/八月/栢伊/思郎/孝同非/山非/

黃莊/金伊德/勿丹里/石乙非/玉今/松德/於乙玄/莫非/曳今/春江/萬春/元香/萬非/
玉頓/青春/今德/小金/金德/甘才/銀代/其每/貴德/水德/白口今/仇叱非/

水永今/冬至/香完/今伊/山今/菊花/慈壽宮/貴人崔氏/安氏義香/鄭氏道然/張氏戒
淵/石氏智全/壽城宮/肅嬪洪氏/昭容文氏/崔氏學眞/楊氏敬全/張氏道成/黃氏道弘
/李氏問道/鄭氏羅玉/昌壽宮/謹嬪朴氏/洪氏道熏/尹氏桂熙/

金氏惠玉/趙氏性安/智聰/道信/智安/勝超/志定/仁隱/六和/香雲/祖林/妙空/水德/
惠逢/惠慈/六丁/妙通/妙安/九月/福德/水今/帝釋/粉非/細滅/韓今/甫无音/豆地/
升非/千非/貴德/高之/貴今/一眞/千石/衆生/甫老末/齊安大君/德源君曙/

河城府院君鄭顯祖/唐陽尉洪常/豊川尉任光載/蓮城君/德津君/桂城君/安陽君/完
原君/檜山君/鳳安君/堅金/克貞/石壽/玉貞/
克石/富壽/長川君金孝江/興陽君申雲/陝川君李孝命/姜善/尹熙貞/金巨勿/
永嘉府夫人申氏/

10. 해인사 중수기(海印寺 重修記)

이 자료는 31.8×33.8cm 크기의 노란색 비단에 목서로 필사하였으며, 전체 행수(行數)는 11행(行)이며 1행(行)의 자수(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접는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비단 색깔이나 먹색이 선명하여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이 해인사 중수기는 1490년(성종 21) 5월에 학조스님이 찬(撰)한 해인사 중수원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추린 것이다.

대적광전과 같은 내용으로 필사하여 복장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행을 달리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대적광전 원문과 구별이 되도록 하였다.

皇明弘治三年庚戌海印寺記/

貞熹王后尹氏事追/

先志大藏殿用是交隣雨漏朽破則亦是民弊故/
 擬欲改創而未遂/
 薨逝 仁粹王大妃韓氏 仁惠王大妃韓氏/
 王妃尹氏敬奉/
 先后遺教弘治元年戊申春 乃命比丘學祖幹其事/
 改創板堂則至秋功訖諸殿未及重修越明 〃年/
 庚戌毗盧殿則改營諸殿或修補改盖或改創/
 主佛則重修改金顏落文殊普賢改造其餘並/
 皆修補改金/

□ 관계전문가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 목록>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cm)	비고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1첩 (2장)	목판본	12~13세기	26.3×14.1	말미(末尾)에 정해丁亥(?)년에 국자진사 사겸광(國子進士史謙光)이 주서(朱書)한 원문(願文) 있음.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16~20)	1책	목판본	12세기	31.8×20.8	요본복각(遼本覆刻), 호접장본(蝴蝶裝本).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첩 (4장)	목판본	12세기	29.6×14.9	포배장(包背裝), 각수 '증신(曾信)'이 기재.
낙장본(落張本)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1장	목판본	12~13세기	30.1×45.5	호접장(胡蝶裝), 판심제(板心題), 교장(敎藏).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1(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11)	1장	목판본	12세기	30×39.5	요본복각(遼本覆刻), 호접장본(蝴蝶裝本).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	1장	목판본	12~13세기	30×25	앞표지.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장	목판본	12~13세기	23.7×43	장3의 날장임.

위의 표에 수록된 전적류 자료 7점에는 전체 분량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가 3점이며, 나머지 4점은 분량이 1장에 불과한 상태이다. 따라서 온전한 3점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별건으로 일괄 지정 대상이며, 낙장본 4점은 아래의 자료들과 함께 불상에 포함하여 일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류문화재 가운데 다라니류 6점, 중수발원문 2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서지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다라니·조성원문 목록>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cm)	비고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6장	목판본	1156년	15.8~20.7×43.9~56.3	정풍원년(正豐元年, 1156)칠월일법수사중대사자행기(七月日法水寺重大師資行記)의 간기가 있음. 장차(張次)는 1, 3, 20, 35, 36, 43으로 각기 1장씩 총 6장이며 장(張)마다 언평(彦平)의 각수명(刻手名)이 있다.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27장	목판본	1166년	16.2~18×45.2~57	병술(丙戌, 1166) 칠월 일기(七月 日記)의 간기와 ‘존심(存深)’의 각수명이 있음. 장차는 7~12, 16~18, 29, 36~47이며, 그 중 8, 43, 44는 2장, 38은 3장으로 총 27장이다.
범서총지집일부(梵書總持集一部) 대비로자나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梵書總持集一部 大毗盧遮那佛經等一代聖敎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14장	목판본	1150년	3장: 2.5×41 24장: 20×48	안동 보광사의 경오(庚午, 1150)세유월복[십]일해동장안광제포개판(歲六月卜[十]日海東長安廣濟鋪開板)과 동일판이며, 묶음으로 발견되어 장차(張次) 3은 4장, 24는 10장으로 총 14장이다.
해인사중수원문(海印寺重修願文)	1매	필사	1490년	62.9×63	1490년 학조(學祖)스님이 찬한 중수원문으로 감색(紺色) 비단에 주서(朱書)로 필사하였으며, 끝에는 시주자 명단이 실려 있다.
해인사중수기(海印寺重修記)	1매	필사	1490년	30.3×34.7	노란색 비단에 목서로 필사함. 해인사 판당 및 여러 조각을 중수하고 주불과 문수보현을 수보(修補)하고 개금한 기록임.

위의 표에 수록된 자료는 다라니와 중수원문이다. 다라니류는 대부분 낙장의 낱장 상태로 자료적 가치는 있으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전적류의 낙장본과 함께 불상에 포함하여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붙임>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목록

구분	연번	유물명	점수	크기(cm)	시대
후령통	1	후령통	1	전체높이 33.8 두께 0.11	1490년 경
	2	양면원경	1	지름 14, 두께 0.13	1490년 경
	3	팔엽연화	1	높이 5.1, 최대폭 8.14	1490년 경
	4	사리호	1	높이 2.86 최대폭 3.05	1490년 경
	5	무공심주	1	지름 2.3	1490년 경
	6	근봉지대	1	높이 4.43, 폭 3.6	1490년 경
	소계	6건	6점		
섬유류	1	소색목면	1	51.5×32.5	1490년 경
	2	소색주	1	298.2×38	1490년 경
	3	저면교직	1	58.1×32.1	1490년 경
	4	소색주	1	64.8×27.8	1490년 경
	5	황초폭자	1	86.5×83.4	1490년 경
	6	내 황초폭자	1	46	1490년 경
	7	소보협다라니	1		1490년 경
	8	소색주	1	91.2×51	1490년 경
	9	무문라 조각보	1	35×34.5	1490년 경
	10	홍색사	1	23,910	1490년 경
	11	자색주	1	34.6×36.2	1490년 경
	12	홍색사	1	30.4	1490년 경
	13	청색주	1	71.9×34.2	1490년 경
	14	황색주	1	60.8×7	1490년 경
	15	초록연화문사	2	16×26/8.4×70.4	1490년 경
	16	초록면주	1	121×19	1490년 경

17	초록주	1	71.7×22	1490년 경
18	홍색주	1	68.8×16	1490년 경
19	홍색주	1	68.8×16.6	1490년 경
20	적색면포	1	72×16.5	1490년 경
21	적색저포	1	111×16.4	1490년 경
22	황색저포	1	36.4×9.8	1490년 경
23	황색저포	1	143×10	1490년 경
24	황색주	1	33.2×8	1490년 경
25	남색무문사	3		1490년 경
26	소색주	1	556×6.9	1490년 경
27	백색저포	1	236×22	1490년 경
28	소색주	1	71.8×21.7	1490년 경
29	백색주	1	368×7.2	1490년 경
30	雲紋紗	1	106.8×12.6	1490년 경
31	자색주	1	27.8×6	1490년 경
32	청색주	1	51.9×29.7	1490년 경
33	사면교직	1	51.5×35	1490년 경
34	소색마포	1	64.1×28	1490년 경
35	소색주	1	51.2×26.1	1490년 경
36	소색저포	1	81×33.8	1490년 경
37	소색주	1	91×24.3	1490년 경
38	백색저포	1	72×33	1490년 경
39	황색무문라	1	33.1×15.6	1490년 경
40	청색주	1	57.4×22.7	1490년 경
41	홍색화문단	1	29.2×23	1490년 경
	오색문사	1	10×10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오색목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홍색사	1	7.9	1490년 경
	42	백색운문단	1	지름:24	1490년 경
		오색문사	1	10×10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오색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백색사	1	71	1490년 경
		43	남색운문단	1	24.3×18.3
	오색문사		1	10×10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오색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남색사		1	75.6	1490년 경
	44	황색화문단	1	지름:24.1,24.3	1490년 경
		오색문사	1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오색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45	황색사	1	85	1490년 경
		청색화문단	1	19.2×18.8	1490년 경

		황색화보	1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오색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청색사	1	76.4	1490년 경
	46	오색사	1		1490년 경
	47	황색사	1	51.6	1490년 경
	48	사리호보와 실	1		1490년 경
	49	초록운문사조각보	1	27.5×27	1490년 경
	50	자색주 보자기	1	35.9×34	1490년 경
	51	문사조각보	1	32.8×32.5	1490년 경
	52	紅色絲	1	41×77	1490년 경
	53	초록주	1	106.2×30	1490년 경
	54	소색주	1	91×29	1490년 경
	55	저고리	1	뒷길이:81/뒤폭:65	1490년 경
	소계	55건	93		
전적· 다라니 · 발원문 등	1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	29.6×14.9cm	12세기
	2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1장	30.1×45.5	12~13세기
	3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1(大方廣佛華嚴經 晋本卷11)	1장	30×39.5	12세기
	4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	1장	30×25	12~13세기
	5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장	23.7×43	12~13세기
	6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	6	15.8~20.7×43.9~56.3cm	1156년 각

	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7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일권(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一卷)	27	16.2~18×45.2~57cm	1166년 각
8	범서총지집 대비로자나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梵書摠持集大毗盧遮那佛經等一代聖敎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14		1150년 각
9	해인사 중수원문(海印寺重修願文)	1매	62.9×63cm	1490년(성종 21)
10	해인사 중수기(海印寺重修記)	1매	30.3×34.7cm	1490년(성종 21)
소계	6건	50점		
합계	67건	149점		

2.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陝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

가. 심의사항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인사로부터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07.06.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08.11.25, ‘09.07.21~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2년도 제4차 회의(‘12.08.0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2.08.24~9.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陝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 량 : 2건 2점
- 규 격 : 반야바라밀다심경 26.3×14.1cm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 31.8×20.8cm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목판본

○ 제작연대 : 12세기

○ 추진경과

- 1992.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개금 시 복장 일부 확인
- 2005.07.04. 해인사, 통일신라 목조불상 확인 발표
- 07.28. 해인사·통도사박물관, 비로자나불 2구의 복장유물 조사
- 2007.06.1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해인사→문화재청)
- 08.30~31. 예비조사(서병패, 손영문)
- 10.16. 실무협의(문화재청 및 해인사 박물관 담당자)
- 11.13~15. 1차 합동조사(전적류 조사 완료)
- 2008.09~11. 2차 합동조사(후령통, 묵서명, 직물류 조사 완료)
- 11.25. 지정조사(조각분야)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2009.7.21~22. 지정조사(복장유물) : 송일기, 신승운, 서병패, 손영문
- 2010.07.27. 지정추진 검토 전문가회의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결과 : 묵서명을 비롯하여 내부구조 및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 필요.

- 2011.10.25. 법보전·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 2구 비파괴검사 실시(유양원자)
- 2011.11.28. 지정 검토 소위원회 개최
- 불교조각 : 김리나, 문명대, 배재호, 손영문, 정은우
- 고 문 헌 : 남풍현
- 불 교 사 : 김상현, 남동신
- 서 예 사 : 송하경, 선주선
- 목재분석 : 박상진
- X-ray분석 : 임남수

※ 결과 : 법보전 불상 안의 묵서명에 대한 육안 확인 후 대적광전 불상과 함께 지정 추진

- 2011.12. 8. 동산분과 6차 회의(소위원회 후 재검토)
- 2012.03.23. 지정 검토 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 김리나, 최성은, 정은우, 손영문, 김상현

※ 결과 : 묵서명이나 목재 분석 등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양식이 명확함.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 2구는 그 예가 희귀한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목불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가치가 충분함.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문화재청에서 종전에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불복(佛腹)에서 수습한 전적 문화재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유지되어 왔다. 초기에는 유형의 구분 없이 전체를 일괄로 지정해온 경우이다. 그러나 복장된 유물의 전체가 불상 조성시기에 간행 또는 인출된 서적만을 입장(入藏)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인출하여 별도로 유전되어 오던 전적을 후일 불상 조성 시, 또는 개금(改金) 시에 넣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일괄 지정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전적의 가치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이런 때문에 근년에는 독자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는 전적류에 한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하고, 관리하여 왔다.

해인사 대적광전과 범보전의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2005년도에 수습한 전적류도 종전에 문화재 지정에서 적용해온 이러한 원칙 위에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여부의 검토에 있어서 도서(圖書)의 완전성(完整性)과 대표성(代表性)이 심각히 훼손된 경우(특히 낱장이나 일부만 잔존하는 도서나 사경, 다수의 복본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완전본)와 여타 불복장물(佛腹藏物)과 함께 지정하는 것이 보존이나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특히 낱장이거나 다수가 결장된 다라니와 발원문)는 전적류로 별도 지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의 표에 열거한 도서들은 전본(傳本)이 극히 희귀한 고려시대의 전적으로서, 한국의 도서판본학과 도서교류사 및 불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해인사 범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전적 중 국가문화재 지정대상 목록 >

순번	명칭	수량	판본	연대	크기	비고
1	반야바라밀다십경(般若波羅蜜多心經)	1첩	목판	1167년경	26.3×14.1cm	권미제(卷尾題) 아래에 주서(朱書)로 정해구월 국자진사사겸광(丁亥九月 國子進士史謙光)이 백부 상서공부시랑 사위(伯父 尙書工部侍郎 史禕)의 왕생을 기원하는 원문이 주필(朱筆)로 쓰여 있다.
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16~20(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16~20)	1책	목판	12세기	31.8×20.8cm	권16-20의 잔본 1책. 호접장(蝴蝶裝). 거란본 계통의 번각본으로 추정됨.
소 계					2종 2건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류 중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은 전래되는 호접장 가운데 불과 몇 종 안되는 장정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희귀본에 속하며,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권미제 아래 주서(朱書)는 인출 시기와 목적 그리고 복장 시기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불교사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법보전의 복장 전적은 대부분 불완전한 상태로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전적은 소자본 화엄경 1점(권16~20)으로 거란본을 복각 간행하여 호접장 형태로 장책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전적 인쇄사에 주목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불설아미타경은 권미 일부가 결락되었으나, 종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판본으로 주목된다.

금번 지정대상 복장전적은 해인사 법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비로자나불좌상에서 수습된 자료이다. 이들 복장유물에는 복장의식과 관련되어 해당 불상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일괄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류문화재의 경우는 자료적 가치에 따라 복장전적만을 별건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해인사 복장유물 가운데 아래에 제시하는 전적만은 자료적 가치나 의미가 별건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법보전 지정대상 전적(3점) 목록>

명 칭	수량	판종	연대	특징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1첩 (2장)	목판본	1167년경	절첩장본(折帖裝本), 유일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16~20)	1책	목판본	12세기	호접장본(蝴蝶裝本), 극귀중본(極貴重本)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첩 (4장)	목판본	12세기	포배장본(包背裝本), 유일본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지난 2005년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좌상의 개금(改金) 중에 불복(佛腹)에서 많은 유물이 수습되었다. 범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서 수습된 전적류는 도서 7종이다.

○ 복장전적 목록

연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 복장전적으로 별도 지정	1첩	목판	1167년경	26.3×14.1cm	권미제(卷尾題) 아래에 주서(朱書)로 정해구월 국자진사사겸광(丁亥九月 國子進士史謙光)이 백부 상서공부시랑 사위(伯父 尙書工部侍郎 史禕)의 왕생을 기원하는 원문이 주필(朱筆)로 쓰여 있다.
2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첩 (4장)	목판	12세기	29.6×14.9cm	포배장, 4장 하단에 각수(刻手) 이름 '증신(曾信)'이 있음.
3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1장	목판	12~13세기	30.1×45.5cm	날장. 판심에 '연의제십육상 제오십사폭(演義第十六上 第五十四幅)'
4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 11(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11)	1장	목판	12세기	30×39.5cm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1(大方廣佛華嚴經 卷第11)의 권수제 부분. 날장.
5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 16~20(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16~20) ※ 복장전적으로 별도 지정	1책	목판	12세기	31.8×20.8cm	권16~20의 잔본 1책. 호접장본(蝴蝶裝本).
6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	1장	목판	12~13세기	30×25cm	날장의 표지만 남아있음.
7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장	목판	12~13세기	23.7×43cm	초조대장경 약사경으로 제3장(1장) 부분.
소계 7종						

○ 내용 및 특징

법보전 소재 비로자나불에서 수습된 도서는 모두 7종이다. 그 중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연번 1)은 권말제(卷末題) 다음에 “북위선백부상서공부시랑사위 왕생서방견불문법지원 인성 시정해구월일 봉삼보제자국자진사사겸광지”(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郎史禕 往生西方見佛聞法之願 印成 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 삼가 돌아가신 백부이신 상서공부시랑 사위(尙書工部侍郎史禕)가 서방(西方,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불법을 듣게 되기를 기원하여 <이 경을> 인출한다. 때는 정해년 9월 모일이다. 삼보(三寶)를 받드는 제자(불제자)이며 국자감 진사인 사겸광은 쓴다.) 라는 주필(朱筆)로 쓴 지문이 있다. 정해년은 1167년(고려 의종21)으로 추정되며, 이 반야심경은 대적광전 수습본과 같은 12세기에 판각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연번 2)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경전으로 전체 4면이 포배장 형식으로 장책되었다. 표지의 제침은 12.4×4.2cm의 크기에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이라 묵서되어 있다. 재조대장경 국(鞠)함 소재본과 대조해보면, 재조본의 편(遍)이 편(徧)으로, 잡(匝)이 잡(市)으로, 칭설(稱說)이 칭찬(稱讚)으로, 삼악취(三惡趣)를 삼악도(三惡道)로, 제보살(諸菩薩)이 제보살중(諸菩薩衆), 불가사의공덕(不可思議功德)이 불가사의공덕지리(不可思議功德之利) 등과 같이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함차(函次)의 표기가 없는 점에서 사찰판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처음 알려진 새로운 판본이지만 앞의 반엽(半葉)이 결락된 잔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연번 3)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주본(周本) 80권을 대상으로 당승 징관(唐僧 澄觀, 738~839)이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를 지어 경문(經文)을 해석하고, 그 후 다시 징관의 제자 승예(僧叡) 등이 소(疏)의 뜻을 해석하여 연의초(演義鈔)라 하였다. 그 후 11세기에 경문과 소초를 합편하여 엮은 것이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이다. 권16의 제54장 1장만 전하는 낱장이다.

연번 4는 대방광불화엄경 진본(大方廣佛華嚴經 晉本) 권11의 제1장(낱장)이고 연번 5는 같은 판본의 권16~20(1책)이다. 반엽이 17행 34자로 된 소자본 화엄경이다. 판심에는 ‘진 십육(晉 十六)’, 권차(卷次), 장차(張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는 없고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거란본 계통의 번각본으로서 함차(函次)의 표기가 없는 점에서 사찰본으로 추정되는 귀중본이다. 연번 6은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이 묵서된 표지만 남은 낱장이다.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彫本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연번 7)은 초조본의 제 3장으로 낱장이다.

○ 문헌자료

- 한국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 「海東高麗國檢校太子大保中大夫知門下省事刑部尙書

致仕文公墓誌」,檢校太子大保承務郎行試尙書工部侍郎知制誥賜紫金魚袋史偉撰.

- 해인사·문화재청, 『해인사 대적광전 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조사보고서』, 2008

□ 문화재전문위원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발견된 복장 전적류는 7종이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목록 >

순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복장전적으로 별도지정	1첩	목판본	1167년경	26.3×14.1cm	권미제(卷尾題) 아래에 정해(?)구월 국자진사사겸 광(丁亥(?))九月 國子進士 史謙光의 발원문이 주서(朱書)되어 있음.
2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첩 (4장)	목판본	12세기	29.6×14.9cm	포배장, 전반부 결락, 하단에 각수(刻手)이름 ‘증신(曾信)’이 있음.
3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 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1장	목판본	12~13세기	30.1×45.5cm,	날장. 판심에 ‘演義第十六上 제오십사폭(演義第十六上第五十四幅)’
4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 11(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11)	1장	목판본	12세기	30×39.5cm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1(大方廣佛華嚴經 卷第11)의 권수제 부분으로 날장임.
5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 16~20(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16~20) *복장전적으로 별도지정	1책	목판본	12세기	31.8×20.8cm	60화엄본인 진본(晋本) 권 16~20의 잔본 1책으로 호접장본(蝴蝶裝本)임.
6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	1장	목판본	12~13세기	30×25cm	앞표지만 있음.
7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 원공덕경(初雕本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장	목판본	12~13세기	23.7×43cm	초조대장경 약사경으로 장차(張次)는 제3장의 날장임.

1.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이 자료는 현장(玄奘)법사가 번역한 반야심경으로 전체 4면이 절첩장 형식으로 되었다. 크기는 26.3×14.1cm이며, 판식은 상하간 20.8cm, 무계이며, 1면 6行 16字,

로 되어 있다. 표지의 제침에는 11×3.3cm의 크기에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이라 주서로 쓰여 있고, 권미제 아래에는 경전을 인출한 목적과 인출자를 알려주는 주서(朱書)가 있다.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郎史禕
往生西方見
佛聞法之願印成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

내용을 보면 정해(丁亥) 9월 국자진사 사겸광(國子進士 史謙光)이 ‘돌아가신 백부 상서공부시랑 사위(伯父 尙書工部侍郎 史禕)의 왕생을 기원하며 이 경을 인출한다.’라고 쓴 기록이다. 대적광전에서도 같은 판본이 수습되었는데 복장 납입의 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종이 색은 누렇고 인쇄상태는 먹색이 고르지 않아 뭉쳐있어 깨끗하지 못하다. 이 판본의 인출시기는 12세기로 추정되며 복장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이 자료는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불설아미타경으로 전반부가 결락되어 전체 4면 만이 남아있고 표지는 포배장 형식이다. 크기는 29.6×14.9cm이며, 판식은 상하간 20.5cm, 무게(無界)이며, 전엽(全葉) 30행 17자로 판각되어 있다. 판수에 아미경 이·미삼·미사(阿彌經 二·彌三·彌四)로 약서명과 장차가 있고 4장 하단에 각수(刻手)이름 ‘증신(曾信)’이 있다. 표지의 제침은 12.4×4.2cm의 크기에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이라 묵서로 쓰여 있다. 종이 색은 누렇고 인쇄상태는 먹색이 고르지 않아 뭉쳐있어 깨끗하지 못하다. 이 판본은 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이 자료는 크기는 30.1×45.5cm이며, 판식은 사주단변에 반곽 23×19.1cm, 무게이며, 반엽 10행 18자로 판각되어 있다, 판심에 연의제십육상 제오십사(演義第十六上 第五十四) 약서명, 권차(卷次), 장차(張次)가 있고 판심 폭은 1.8cm이다. 낱장 1장만이 남아 있다. 종이 색은 누렇고 인쇄상태는 먹색이 고르지 않아 뭉쳐있어 깨끗하지 못하다. 이 판본은 지질과 장정형태로 보아 12~13세기로 추정된다.

4.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1(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11)

이 자료는 60화엄본인 진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권11의 권수제

부분으로 불타발다라(佛馱跋陀羅)의 역자명이 있고 호접장본(蝴蝶裝本) 형식의 낱장 1장이다. 이 책의 크기는 30×39.5cm이며,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郭) 23.4×15.4cm, 무계(無界)이며, 반엽 17행(行) 31자(字) 기준으로 대체로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다. 판심에는 ‘진(晉)’, 권차(卷次), 장차(張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판심폭은 0.9cm이다.

5.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16~20)

이 『대방광불화엄경』은 동진(東晉)의 불타발다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60화엄본인 진본 권16~20의 잔본 1책(39장)이다. 이 책 크기는 31.8×20.8cm로 호접장본(蝴蝶裝本)이다.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郭) 24.5×15.8cm, 무계(無界)이며, 소자본(小字本)으로 한 면에 17행(行) 34자(字) 기준으로 대체로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다. 판심에는 ‘진 십육(晉 十六)’, 권차(卷次), 장차(張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는 없고 상태는 일반적으로 양호하다.

12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되며 호접장본으로 현재 전해지는 몇 종 안 되는 장정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판각이나 인쇄상태가 양호한 귀중본으로서 서지학 연구에 가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6.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

이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권41은 낱장의 표지만 남아있으며 크기는 30×25cm이다. 서배(書背)에 ‘대방광불화엄경 권제사십일 진(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一 晉)’이라는 경명(經名)은 묵서(墨書)이고, 호접장본의 표지로 포배장 형식으로 되었다.

7.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이 자료는 삼장법사 현장(三藏法師 玄奘)이 번역한 『약사경』으로 제3장에 해당하는 낱장 형태이다. 장(張)의 크기는 23.7×43cm, 상하단변에 상하간 22.2cm, 무계이며, 22행 14자로 되어 있다. 대적광전 판본과는 동일본이며 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 성보문화재연구원, 『해인사 금동비로자나 불복장유물의 연구』, 1997.
- 해인사,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2008.
- 해인사,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2008.

○ 기 타

해인사 법보전에 봉안되었던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에서 1992년에 개금불사 때 수습되어 해인사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 관계전문가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지류문화재는 전적류 전적 7점이며 이 중 전적류를 대상으로 서지적 특징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 목록>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cm)	비고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1첩 (2장)	목판본	12~13세기	26.3×14.1	말미(末尾)에 정해丁亥(?)년에 국자진사 사겸광(國子進士史謙光)이 주서(朱書)한 원문(願文) 있음.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16~20)	1책	목판본	12세기	31.8×20.8	요본복각(遼本覆刻), 호접장본(蝴蝶裝本).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첩 (4장)	목판본	12세기	29.6×14.9	포배장(包背裝), 각수 '증신(曾信)'이 기재.
낙장본(落張本)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1장	목판본	12~13세기	30.1×45.5	호접장(胡蝶裝), 판심제(板心題), 교장(敎藏).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1(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11)	1장	목판본	12세기	30×39.5	요본복각(遼本覆刻), 호접장본(蝴蝶裝本).
대방광불화엄경 권41(大方廣佛華嚴經 卷41)	1장	목판본	12~13세기	30×25	앞표지.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장	목판본	12~13세기	23.7×43	장3의 날장임.

위의 표에 수록된 전적류 자료 7점에는 전체 분량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가 3점이며, 나머지 4점은 분량이 1장에 불과한 상태이다. 따라서 온전한 3점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별건으로 일괄 지정 대상이며, 낙장본 4점은 아래의 자료들과 함께 불상에 포함하여 일괄 지정할 필요가 있다.

3.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인사로부터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07.06.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08.11.25, ‘09.07.21~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2년도 제4차 회의(‘12.08.0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2.08.24~9.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60건 244점)/복장유물 목록 붙임참조
- 규 격 : 높이 125.0cm, 어깨 폭 63.5cm, 무릎 폭 95.5cm
- 재 질 : 목조(향나무)

- 형 식 : 지권인의 좌상
- 제작연대 : 불상(1167년 이전), 복장유물(고려~조선)
- 추진경과
 - 1992.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개금 시 복장 일부 확인
 - 2005.07.04. 해인사, 통일신라 목조불상 확인 발표
 - 07.28. 해인사·통도사박물관, 비로자나불 2구의 복장유물 조사
 - 2007.06.1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해인사→문화재청)
 - 08.30~31. 예비조사(서병패, 손영문)
 - 10.16. 실무협의(문화재청 및 해인사 박물관 담당자)
 - 11.13~15. 1차 합동조사(전적류 조사 완료)
 - 2008.09~11. 2차 합동조사(후령통, 묵서명, 직물류 조사 완료)
 - 11.25. 지정조사(조각분야)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2009.7.21~22. 지정조사(복장유물) : 송일기, 신승운, 서병패, 손영문
 - 2010.07.27. 지정추진 검토 전문가회의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 결과 : 묵서명을 비롯하여 내부구조 및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 필요.
 - 2011.10.25. 법보전·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 2구 비파괴검사 실시(유양원자)
 - 2011.11.28. 지정 검토 소위원회 개최
 - 불교조각 : 김리나, 문명대, 배재호, 손영문, 정은우
 - 고 문 헌 : 남풍현
 - 불 교 사 : 김상현, 남동신
 - 서 예 사 : 송하경, 선주선
 - 목재분석 : 박상진
 - X-ray분석 : 임남수
 - ※ 결과 : 법보전 불상 안의 묵서명에 대한 육안 확인 후 대적광전 불상과 함께 지정 추진
 - 2011.12. 8. 동산분과 6차 회의(소위원회 후 재검토)
 - 2012.03.23. 지정 검토 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 김리나, 최성은, 정은우, 손영문, 김상현
 - ※ 결과 : 묵서명이나 목재 분석 등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양식이 명확함.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 2구는 그 예가 희귀한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목불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가치가 충분함.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좌상은 같은 절의 법보전에 있는 목조 비로자나불좌상과 그 크기나 착의법 그리고 표현양식이 거의 동일하여 언뜻 보아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 비로자나불상의 양식적 특징 역시 옷칠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원래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눈 꼬리가 옆으로 길게 올라간 균형 잡힌 이목구비의 표현과 위엄있는 표정은 통일신라시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편단우견식 착의법과 옷주름 처리 역시 통일신라 말기의 불상 중에 보이는 형식과 양식을 잘 따르고 있어 이 상의 연대가 통일신라시대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임을 알려준다. 이 상에서는 아무런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의 복장 공간의 벽에서 채취한 목재 편으로 조사한 과학적인 연대 추정에서 오차 범위를 참고하여 930~1090년의 연대가 산출되었다. 이 과학적인 연대추정은 절대적인 수치라기 보다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으로 아마도 법보전의 상이 먼저 만들어 지고 그 상을 모본으로 동일한 상을 조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표현은 거의 동일하여 시대적인 큰 차이가 없이 역시 통일신라 말기까지 올려볼 수 있으며 늦어도 고려 초기의 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상의 복장에서도 법보전과 거의 동일하게 몇 번의 중수에 따른 전적과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1150년, 1156년의 판본 보협다라니는 정확한 연대가 확인된다. 포함되었고 1166년(고려 의종10)에 왕의 수명과 나라의 안녕과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하여 넣었다는 판본 다라니도 포함되어 1167년 경에 이 상의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선 초 성종 시기에 왕실의 인수대비와 인혜대비의 후원으로 1488~90년에 법보전의 비로자나불상과 함께 사찰의 대규모의 중수와 복장물 납입이 있었으며 경전, 복식, 후령통, 발원문 등이 발견되었다. 해인사는 통일신라 시기부터 왕실의 후원을 받은 중요한 사찰로서 그 전통이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현존 최고의 목조불상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질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국가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은 정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없으나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을 범본으로 고려 의종 연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에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의 귀중한 전적과 복장물들이 납입되어 있었고 발원문을 통해 조선 초기 1490년에 보수·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고려 전기 목조 불상의 중요

한 자료이며 동시에 조선 초 왕실 발원에 의한 해인사의 대대적인 중건불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전적과 복장물들이 납입되어 있어 한국 불교 및 불교 조각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대적광전 불상은 법보전의 불상과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모습으로 조성되어 함께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봉안되어 오던 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상은 비록 처음 조성의 목서명이나 기록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조각양식이 매우 훌륭하며 특히 복장물의 내용이 매우 풍부하므로 이 불상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490년의 중수와 복장물의 발견 그리고 고려시대 12세기와 14세기에 해당하는 복장물 납입 등 구체적인 물목이 확인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가슴 부분에서 왼손 검지를 감싼 바른 자세의 지권인 수인 이라든가 편단우견의 대의 그리고 옷주름 등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적 특징을 반영한 상으로 1m가 넘는 크기에 통일신라시대의 유일한 목조불상인 점도 특징이다.

제작시기는 통일신라 9세기의 양식적 특징이 잘 반영된 작품이지만 대적광전 불상의 목재분석 결과(930~1090년 전후) 등을 고려하여 통일신라 말 ~ 고려 초로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조형성은 물론 조각적인 완성도, 자료적인 가치 등 우리나라 불상 연구에 상당히 의미있는 작품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역시 법보전 불상과 마찬가지로 정상계주나 중앙계주 등 일부 수리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동글동글한 나발과 큼직하게 표현된 육계의 머리 형태, 양감이 강조된 이상적인 얼굴 모습, 육감적이면서도 균

형잡힌 신체, 신체에 유기적으로 밀착된 탄력과 생동감 넘치는 옷 주름 등에서 통일신라 9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불상의 양식과 접목기법, 과학적인 조사결과 나말여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법보전 불상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 최고의 목조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균형 잡힌 조형미, 종교적·예술적 감성이 잘 표현된 상호 등에서 수준 높은 예술적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1167년 이 지역 유력 세력이었던 사씨와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중수, 고려 14세기 후반 화살 명장(名匠) 송부개의 중수 참여, 그리고 1490년 조선 왕실 주도로 이루어진 개금중수 사실만으로도 한국조각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불상임에 틀림없다.

복장유물과 복장전적은 현재까지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중 최대·최고 수준이며, 전통적인 복장의식의 기원과 확립, 전승 및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불상과 함께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전문위원회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섬유류 유물이 함께 복장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의 유물로는 요선철릭, 답호, 저고리, 사경낭, 주머니, 직물편 등 1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머니를 제외하고 1992년 수습하여 1997년도에 발표하였다. 조선시대의 것은 1490년에 납입된 것으로 저고리를 비롯하여 보자기, 오색후혈장엄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의 섬유류 유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선철릭은 고려시대의 유일하며 가장 오래된 철릭인 것뿐만 아니라 15세 소년의 것으로는 유일하다.

둘째, 답호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의 것으로 약간 후대인 1340년에 납입된 문수사의 답호와 함께 고려시대 답호 변화 양상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셋째, 저고리와 포(袍)의 부분으로 여겨지는 의복류 또한 현전하는 고려시대의 복식 유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복식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넷째, 1490년에 납입된 저고리는 홑저고리로 조선 초기의 저고리 유형을 알 수 있는 몇 점 안되는 현전하는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다섯째, 후령통을 싸고 있는 내황초폭자는 후령통의 크기에 맞게 주머니 형식

으로 바느질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황초폭자는 유일하다.

여섯째, 후령통 후혈부분에 감겨있는 오색후혈장엄(오보병), 후령통 안의 오보병 등은 해체하지 않아 복장의 순서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일곱째, 홍두께로 손질한 직물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 옷감 손질법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의 섬유류 복장물은 복식과 직물문화연구에 있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복장물의 민속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은 법보전의 다라니류와 같은 종류이다. 범서총지집과 같은 종류의 다라니는 내용이 같은 저본을 서로 다른 각수가 새겨서 같이 불복장한 드문 예로서 공덕(功德)의 목적으로 같은 자료를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1152년, 1156년, 1166년의 간기로 인하여 편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수 발원문은 해인사 중수 불사와 관련된 기록이다. 복장의식과 관련된 자료들로서 다라니류를 포함한 중수발원문은 복장유물에 포함하여 지정할 가치는 충분하다.

○ 관계 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복장유물 가운데 소자범화경이나 약사경, 금광명경, 감지금니사경 등은 유일하거나 매우 희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전적류에 구분되기는 하나, 전체 분량이 1~2장에 불과한 낙장본은 제외한 전적만을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제외된 낙장본은 다라니와 조성원문과 함께 불상에 포함하여 일괄 지정하면 될 것이다.

복장유물에는 복장의식과 관련되어 시납(施納)된 성물(聖物)로 크게 지류(紙類), 직물류(織物類), 공예류(工藝類)로 구분된다. 복장유물은 해당 불상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일괄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류문화재의 경우는 자료적 가치에 따라 복장전적만을 별건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류문화재에는 자료의 가치와 성격에 따라 전적, 다라니, 조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다라니와 조성기 등은 불상에 포함하여 지정하고, 특별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전적류만은 독립적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별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해인사 복장유물 가운데 전적만은 자료적 가치나 의미가 별건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특히 소자법화경이나 약사경, 금광명경, 감지금니사경 등은 유일하거나 매우 희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분량이 1~2장에 불과한 낙장본은 제외하고 아래에 제시한 전적만을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제외된 낙장본은 다라니와 조성원문과 함께 불상에 포함하여 일괄 지정하면 될 것이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뒷면



개금이전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같은 형식으로 편단우견식으로 대의를 착의하고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쥔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좌상이다. 불두와 불신이 안정된 비례를 보이고 안면과 신체에 양감이 풍부하다. 머리에는 정상계주와 중간계주가 뚜렷하며 얼굴의 이목구비가 단엄하다. 불신 오른쪽 가슴에 선각으로 가슴 융기선을 표현하였다. 모든 면에서 법보전 불상과 매우 유사한데, 상의 크기, 지권인을 결한 손의 위치, 왼편 어깨 위에 걸쳐져 아래로 흘러내리는 옷주름, 등 위를 덮은 대의 옷주름 표현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불상의 내부표면은 법보전 불상에 비해 거칠게 조각칼로 쳐낸 흔적이 그대로 보이며 칠

을 입히거나 하지는 않았다. 모든 면에서 범보전 불상과 유사하며, 범보전 불상에 비해 1cm 정도 작지만 범보전 불상을 범본으로 하여 제작된 상으로 생각된다.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내부

○ 내용 및 특징

범보전 비로자나불상처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의 복장에서도 여러 종류의 전적이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11~12세기) 52축, 범학대사 통휘(通輝)가 글을 쓰고 해진사(海眞寺)에서 1152년(의종 6)에 개관한 만(卍)자 형태의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 1150년(의종 4)에 선사 사원(思遠)이 중교하고 평양 광제포에서 개관한 「범서총지집」, 1156년(의종 10) 범수사에서 중대사 자행(資行)이 간행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 1166년(의종 20)에 지협주사사 문림랑(文林郎)과 시전중내급사 이세○(李世○)이 발원하여 간행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 1167년(의종 21) 국자학생 사유직(史柔直)이 부친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인시(印施)한 『반야바라밀다심경』 등이 있다. 고려 후기의 자료로는 지공 역(指空 譯)의 감지금니 『문수최상승무생계법』(1326년)이 있고, 조선시대 유물로는 1490년명의 「해인사 중수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수기에는 “비로전을 중수하여 대적광전이라고 부르고, 주존불을 보수하고, ‘토상’을 철거하였으며 좌우보처를 ‘칠포개조(漆布改造)’했다(.....越庚戌(1490)春又施米二千余石綿布一百五十余同役僧四百余人重創毘盧殿名曰大寂光殿修補主佛撤去土像左右補處並以漆布改造....)”는 대적광전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상에 대한 보수 내용이 있다. 이 밖에도 복장유물로 후령통, 발원문, 양면의 원경(圓鏡), 사리호와 팔엽연화, 무공심주, 오보병과 함께 1490년명의 「해인사기」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비로전(대적광전)의 주불을 중수개금하고 문수·보현상을 개조했다.(.....庚戌毗盧殿改營諸殿舍或修補改蓋或改創) 主佛則重修改金顏落文殊普賢改造其餘諸

並」皆修補改金」)”고 적혀있다.

대적광전 불상은 정확한 조성시기를 알 수 없으나 법보전 비로자나불상과 마찬가지로 불상의 신체비례와 착의형식, 옷주름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 불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복장에서 발견된 전적들은 고려 의종대의 유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작기법도 법보전 불상과 같은 ‘접목조’이며, 내부 X-ray 사진을 보면 현존하는 고려시대 목조불상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범본으로 고려시대 12세기 의종연간에 조성되었고 이후 조선 초기 1490년에 왕실발원으로 해인사가 대대적으로 중수되던 시기에 중수와 개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불교조각이 1170년을 경계로 전·후기로 구분되는 것에 기준하여 고려 전기의 불상으로 편년할 수 있다.

○ 문헌자료

-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해인사·문화재청, 2008.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서원』, 해인사정보박물관, 2008.
- 손영문,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70, 2011. 6.

□ 관계전문가

○ 현 상

현재는 대비로전에서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과 더불어 봉안되어 있으나 원래는 대적광전에서 주불삼존상 곁에 봉안되어 오던 독존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법보전의 목조비로자나불상과 크기와 양식면에서 거의 동형을 보여서 주목되는 상이다. 이 상은 이미 1992년 개금 시에 복장의 일부가 확인되었고, 이후 2005년에 복장 전체가 조사되었다. 법보전 상과 달리 상의 내부에 묵서명은 없고 복장물은 법보전 상의 것과 거의 같아서 조선 초의 왕실에 의한 대대적인 중수 시에 함께 봉안된 복장물임을 알 수 있다. 복장물 중에는 고려초조대장경 다수와 1326년(고려 충숙왕 13)에 쓰인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 등 고려시대 전적이 다수 들어 있다. 그러나 대적광전 불상은 법보전 상과 달리 이후 여러 차례 있었음직한 중수 관련 기록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한편 2005년 진행된 X-Ray 조사에 의하여 대적광전 불상은 복부가 별재로 만들어 끼우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법보전 상 보다 속이 깨끗이 다듬어져 있어서 조성 방식에 두 상이 다소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 내용 및 특징

편단우견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좌상으로 법보전 불상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전체적인 모습에서 대적광전의 불상이 보다 웅건하고 남성적인 조형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먼저 상호에서 확인되는데 얼굴이 보다 크고 둥글어서 당당한 기운이 느껴진다. 어깨나 가슴의 양감도 보다 당당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법보전 상에 비해 조각 양식 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지권인을 한 수인으로 아래에 있는 왼손이 균형을 잃고 작게 표현된 점 정도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형성이 상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뛰어난 중앙양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의 조성시기는 법보전 상과 다른 내부의 조성 방식 등을 감안할 때 법보전 상 보다는 다소 후대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적인 조각양식을 볼 때 통일신라 이후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관계전문가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법보전 불상과 거의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작품이다. 다만 법보전 불상과 비교하여 얼굴의 윤곽이 둥글어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이며 팔의 각도와 어깨의 양감 등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제작기 법상 법보전 불상과 속 파기 기법이 다르고 불상 내부에서 묵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목재분석에서도 A.D 930년 전후(930~1090년 전후)의 결과로 법보전 불상(A.D 740~950년 전후)과 시기적 격차를 보인다.

복장물의 내용도 법보전 불상과 거의 비슷하지만 대적광전 불상에서는 1992년 개금불사 당시의 복장물 수습에서 지공화상의 수결이 있는 1326년에 제작된 감지금니의 <문수최상승무생계법(文殊最上乘無生戒法)>이 보고된 바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 내용 및 특징

1) 목조비로자나불좌상

2007년 11월에 낙성한 대비로전에는 목조비로자나불상 2구가 봉안되어 있는데, 우측(향좌측)에 앉아 있는 불상이 과거 대적광전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이다. 현재까지 이 불상의 제작시기라든지 제작주체 등 조성 내력과 관련된 기록은 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05년 7월 개금과정에서 다량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복장 유물들의 발견 양상은 법보전 비로자나불상과 거의 유사하지만, 내용이나 종류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곳에서 발견된 복장유물들은 법보전 불상의 조성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중수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그 중에서 불상의 중수와 관련된 자료로는 고려 의종(재위: 1147~1170) 대 간행된 다라니와 같은 형식의 범서총지집, 그리고 국자학생(國子學生) 사유직(史柔直)이 정해년(丁亥年)에 부친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인출·봉납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과 15세 송부개(宋夫介)가 오래살기를 기원하며 봉납한 요선철릭(腰線帖裏), 그리고 1490년에 승려 학조(學祖)가 지은 중수발원문이다.

우선, 의종 대 간행된 자료들은 고려시대 불사의 특성상 국가의 지원을 예상하게 하며, 『반야바라밀다심경』에 적혀있는 발원문은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과 같은 해인 1167년에 사유직이 쓴 것이다.¹³⁾ 법보전 불상의 발원문은 붉은 색 글씨로 죽은 큰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위한 발원문이라면, 대적광전 불상의 발원문은 살아 있는 아버지의 무병장수를 기원한 것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이를 통해 1167년 무렵 사씨 집안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극락왕생과 살아 계시는 아버지의 무병장수를 위해 불상 중수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부개(宋夫介)가 봉납한 요선철릭에는 “년십오 송부개 장명지원(年十五 宋夫介 長明之願)”이라는 목서명을 남기고 있다. 송부개는 화살을 교묘하게 잘 만들어 고려 우왕(禡王, 재위: 1375~1388)으로부터 안(安)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인물이다.¹⁴⁾ 그가 15세 때 송부개라는 이름으로 해인사 중수불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볼 때, 송안(宋安)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기 이전(1384년)에 한 차례 더 중수불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형식의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 또는 중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복장물을 시납한 시납자가 직접 발원내용을 적어 납입했다는 점에서 중수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비해 1490년에 쓰여진 중수발원문은 불상 중수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중수기록이기 때문에, 중수 시기 추정에 절대적인 자료이다. 이 중수발원문은 후령통을 감싼 내황초폭자 밑면에서 발견되었는데, 법보전에서 발견된 중수기의 내용과 몇 글자 정도 단락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다.

13) “特爲親父無病長生之 願印成丁亥九月日誌 弟子國子學生史柔直”

14) 『高麗史節要』卷32 辛禡 3 甲子條 禡, 遣宦者賜酒于矢人宋夫介, 又, 繼至其家, 悅其工於矢, 賜名曰安, 自是, 百工之家, 無所不至, 輒效其所爲甚精.”

…講堂名曰無說堂及修補毘盧遮那琉璃殿藥師如來眞常殿毘盧殿毘盧遮那普眼堂毘盧遮那及文殊菩薩等像越戊戌(1490년)春又施米二千余石綿布一百五十余同役僧四百余人重創毘盧殿名曰大寂光殿修補主佛撤去土像左右補處並以漆布改造…

이 기록을 통해 무술년(1490) 봄에 왕실에서 쌀 2000여 섬과 포 150여 동, 역승 3백여 명을 시주하여 비로전을 중창하고 대적광전이라 이름하였다고 하는 사실과 주불을 수보(修補)하고 흙으로 만든 상(土像)을 철거하고 좌우보처를 아울러 칠(漆)과 포(布)로 개조(改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령통 내에서 발견된 ‘황명홍치삼년경술해인사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¹⁵⁾

이외 조위의 기록에는 “주불과 보처 불상을 황금으로 꾸몄다”고 기록하고 있고,¹⁶⁾ 임사홍(任士弘)의 중수기(1491년)에는 “칠포(漆布)를 사용해서 주불과 좌우보처를 만들고, 옛날 상을 철거했다”¹⁷⁾라고 하였다. 이 당시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면, 목조 불상 위에 칠과 포를 바르고 금으로 완성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수와 보현을 좌우 협시로 한 비로자나삼존상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은 1167년과 고려 후기(우왕 대), 그리고 1490년 개금 중수된 이후의 중수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통상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몇 차례 더 중수되었을 것이다.

불상의 형식과 양식은 법보전 불상에 비해 양감이 강조되어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가슴, 무릎, 등에 표현된 옷 주름의 표현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일뿐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모델로 해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박상진 교수의 질량분석 이온빔가속기 분석 값에 나이트 수로 보정한 분석 결과가 AD 930~1090년으로 도출되었고, 속파기 기법도 법보전 불상보다 정형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법보전 불상보다 뒤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한다면, 법보전 불상이 제작되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제작되었거나, 그 보다는 약간 늦은 고려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확단하긴 어렵지만, 그 시점은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의 공이 큰 희랑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인사에 중창불사를 지원하고 국가의 중요문서를 보관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¹⁸⁾

15) 「皇明弘治三年庚戌海印寺記」 “..明〃年庚戌毘盧殿改營諸殿舍或修補改蓋」或改造主佛則重修改金頽落文殊普賢改造其餘諸像並皆修補改金”

16) “...皆營毘盧殿曰大寂光殿主佛補處皆皆飾黃金...”, 曹偉, 「海印寺重修記」, 『海印寺古蹟』

17) “...改毘盧殿揭以大寂光殿用柴布作主佛及左右補處並去舊像...”, 任士洪, 「宜宏大之旋 諭慶尙監司 鳩材改構凡四十餘楹梓匠 失其規制 不久而傾」, 『海印寺古蹟』

18) 「伽倻山海印寺古籍」 希郎大師 가田 五百結

2) 복장후령통(腹藏喉鈴筒)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복장 중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후령통이다. 현재, 후령통 안에 봉안된 유물들은 이미 해체된 채로 보관 중이지만, 후령통 해체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 두었기 때문에 안립(安立) 순서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우선 제일 먼저 ‘묘아니’라는 발원자의 묵서명이 있는 황색 비단천을 포장한 백색보를 후령통의 제일 아래쪽에 안립하고, 그 위에 황색 비단에 묵서(墨書)로 당시 불사와 관련된 간단한 사항만을 기록한 ‘황명홍치삼년해인사기(皇明弘治三年海印寺記)’를 두었다. 발원문 바로 위쪽에는 오방색 비단으로 만든 오보병을 안립하였다. 오보병 내에는 각 방위에 따른 각종 상징물(五穀, 五寶, 五香, 五藥 등)을 납입하고 방위에 따라 배열하고 오색 실로 촘촘히 묶었으며, 이를 다시 여러 겹의 비단으로 충전한 저고리¹⁹⁾로 다시 한번 감쌌다. 다시 검은색 비단으로 한 번 더 감싼 뒤 황색 띠로 묶어 마무리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오보병은 원통형을 이루고 있다.

오보병 윗면 중심에는 수정으로 만든 반투명의 무공심주(無孔心珠)를 안치하였다. 청색보병과 적색보병 윗면에는 사리병을 포장한 자색보를, 백색보병 위에는 청색보 문치를 두었다. 그리고 흑색보병 위쪽에는 동판에 은을 도금한 팔엽연화, 그리고 심주(心珠)로 보이는 흑수정을 안치하였다. 팔엽연화는 8개의 꽃잎이 연봉을 감싼 형태이다. 수정사리병은 황색보 → 녹색겉보 → 짙은 자주색보 순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하였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동에 은을 입힌(수은아말감) 양면원경을 덮고, 긴 후혈이 마련된 뚜껑을 덮었다. 후혈은 오방색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들렀다. 오방색 비단은 중심에서 백 → 흑 → 황 → 적 → 청색 순으로 되어있다. 뚜껑 부분에는 범자로 진심종자(眞心種子)를 썼지만, 후혈을 두텁게 감싼 오방색 비단에 가리어 일부만 확인된다. 완전히 노출된 범보전 후령통과 마찬가지로 흙(우[吽], 청색, 아축[阿闍]), 드락(달락[怛洛], 홍색, 보생[寶生]), 흐릭(흘리[紇里], 백색, 미타[彌陀]), 악(惡, 불공[不空], 흑색)을 뚜껑 윗면에 쓰고 후혈에는 오방 중 중앙을 상징하는 밤(鏤[鏤], 비로[毘盧])자를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몸통에는 방위 색으로 동(아[阿])·남(마[摩])·서(라[羅])·북(하[訶]), 즉 사방주(四方呪)를 썼다.

후령통은 범보전 불상의 그것과 같이 길쭉한 함에 긴 후혈이 달려 있는 모양이다. 후신(喉身)은 위가 좁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배가 불러지는 형태를 띤다. 후혈

重新

「가」

天福 8年(943)

19) “文氏報仇奉爲 先亡父母王生極樂悟無生忍?亦己身夫妻并諸子孫災殃 永殄家宅昌盛無災無障 補壽延長共享多福”

(喉穴)은 별도로 제작하고 하단부를 여러 갈래로 제단한 후 꽃잎 모양으로 펼쳐 후령통의 뚜껑 안쪽 면에 부착하였다.

후령통은 특별히 제작된 황색비단 주머니(또는 內黃絹幅子)에 속에 넣고, 밑바닥에 백초금서(白絹金書)로 쓴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과 청색비단에 붉은색 글씨로 쓴 중수원문을 포개 놓았다. 모든 안립 절차를 마친 후 방위에 맞게 오륜종자(五輪種子)를 쓴 외황초폭자(外黃絹幅子)로 감싸 황색실로 묶고, 최종적으로 ‘신봉근(臣謹封)’이라 쓴 봉합지를 돌려 마무리하였다.

<후령통 유물목록>

연번	명칭	수량	재질	크기(cm)	연대	비고	
대적광전 후령통	1	후령통	1	동(수은아말감도금)	전체높이 33.3, 두께 0.12	1490년 경	후혈은 오색천으로 두텁게 감쌌고, 몸통에는 사방주를 썼다.
	2	양면원경	1	동(수은아말감도금)	지름 14.1, 두께 0.13	1490년 경	
	3	팔엽연화	1	동(수은아말감도금)	높이 5.1, 최대폭 8.14	1490년 경	별도로 만든 연봉을 8엽의 연꽃잎이 감싼 형태.
	4	사리호	1	수정	전체높이 3.8 사리호 2.9×2.2×1.9	1490년 경	사리호 내에는 좁쌀보다 작은 이물질이 납입되어 있는데, 사리로 추정됨.
	5	무공심주	1	수정	흑수정 3.39 백수정 2.66×2.3	1490년 경	
	6	근 봉 지 대 (謹封紙帶)	1	종이	높이 4.43, 폭 3.6	1490년 경	후령통을 황초폭자로 감싼 뒤 최종적으로 봉합한 종이로서 봉합지에는 ‘신근봉(臣謹封)’이라고 썼다.

○ 문헌자료

- 李智冠 編著, 『伽倻山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 법보종찰 해인사, 2010. 12.
- 金成根, 「해인사 두 분 비로자나부처님에 대하여」, 『修多羅』 17, 海印寺僧伽大學, 2005.
-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06.
- 金昌謙,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의 ‘大角干’銘 墨書」, 『新羅史學報』 4, 신라사학회, 2005.
- 林南壽, 「海印寺佛像調査報告」, 2005.
-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법보종찰 해인

사·문화재청, 2008.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서원』, 해인사정보박물관, 2008.
- 손영문,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研究」, 『美術史學 研究』 270, 한국미술사학회, 2011. 6.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의 복장물은 현재 해인사 정보박물관에 소장 중인데 유물의 상태는 마치 복장 당시의 상태와 같이 색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섬유의 상태도 거의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적광전의 섬유류 복장물 가운데 요선철릭을 비롯한 섬유류 9점은 1992년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개금불사 때 수습되었다. 유물의 종류는 포(袍) 4점과 상의(上衣) 4점, 삼베로 만든 소매 한 벌과 직물[紬] 1점이다. 함께 발견된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最上乘無生戒法)의 필사년도(1326년)와 의복의 구성, 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에 납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머니(담홍색조문직은능낭[淡紅色鳥紋織銀綾囊]) 1점과 저고리 1점을 비롯한 33점의 유물은 2008년에 실물 조사에서 밝혀진 유물들로 주머니는 1326년의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1490년에 복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내용 및 특징

대적광전의 섬유류 유물은 요선철릭, 담호 등의 의복과 발원문을 비롯한 직물류가 있다. 1992년 개금불사 시에 수습했던 1~10번까지의 유물은 실물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2008년에 발행한 특별전 도록을 참고하였으며, 그 외의 유물은 2008년에 실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주요 유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요선철릭(腰線帖裏, 유물번호 대-복식02)

철릭은 상의하상(上衣下裳)으로 구성되어 있는 겉옷 종류인 포(袍)이며, 요선철릭은 철릭 가운데 허리에 선장식이 있는 것이 특징인 옷이다. 분홍색이 감도는 고운 모시로 지었으며 깃은 이중깃이며 소매는 통이 넓지 않은 착수(窄袖)이다. 허리부분의 앞은 9줄, 뒤는 10줄이 0.5cm 간격으로 접어 덧대어 온박음질하였다. 치마는 8폭으로 1.5~2cm 너비로 맞추름을 잡았으며 왼쪽에 트임이 있다. 치마 앞쪽의 안자락에 “년십오 송부개 장명지원(年十五 宋夫介 長命之願)”이라는 묵서(墨書)를 통해 옷의 주인이 15세 송부개가 오래 살기를 기원하며 복장한 옷임을 알

수 있다.<도 1, 2>

2. 답호(裕穫, 유물번호 대-복식03)

삼베로 지은 반소매의 포이다.<도 3> 이중깃이며 여밈이 깊고 양 옆에는 무를 넓게 달아 옆주름 처리를 하였고 트임을 주었다. 겹섶 아랫자락에 “승봉랑 봉선고 부사이승밀 의(承奉郎 奉先庫 副使李承密 衣)” 목서가 있어 옷의 주인이 이승밀임을 알 수 있다. 승봉랑은 고려시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제사에 사용하는 미곡을 저장, 관리한 관청이며, 부사는 고려시대 5, 6품의 품계에 해당된다.



<도 1> 요선철릭



<도 2> 요선철릭의 목서



<도 3> 답호

3. 저고리(유물번호 대-복식04)

주(紬)로 지은 저고리이다. 소매 화장이 114cm로 소매 길이가 길며 소매부리가 좁아지는 착수(窄袖) 형태이다. 소매의 중간 폭은 재질이 다른 주를 사용하였다. 양 옆선에는 28cm 정도의 트임이 있으며, 좁고 짧은 고름이 달려있다.<도 4>

4. 저고리(유물번호 대-복식05)

홀으로 지은 모시 적삼이다. 깃은 목판깃이며 겹깃과 안깃이 비슷한 형태이다. 섶도 좌우 대칭의 형태이며 21cm의 옆트임이 있다. 진동 37cm, 소매부리는 34cm로 소매통이 넓은 편이다. 고름의 흔적은 없으며 우측 겨드랑이에 15cm 정도 길이로 실을 꼬아서 만든 것이 달려있다.<도 5>

5. 저고리(유물번호 대-복식06)

저고리의 안섶, 겹섶과 등부분만 남아 있다. 모시로 홀으로 지었다.<도 6> 깃은 목판깃이며 모시 적삼에 비해 여밈은 좀 더 깊다. 진동점 아래 약 15cm 가량 옆선을 붙였던 흔적이 있다.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와 겹깃에 1cm 나비의 끈이 남아 있어 끈 고름으로 여뻤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 4> 저고리



<도 5> 저고리



<도 6> 저고리

6. 저고리(유물번호 대-복식07)

저고리의 일부분으로 왼쪽만 남아있다. 다른 저고리에 비해 앞길이 58cm, 뒷길이 57cm로 짧은 편이다. 겹섶을 따로 대지 않고 길은 옷감의 온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15.7cm의 옆트임이 있다.<도 7>

7. 직령(유물번호 대-복식08)

왼쪽 길만 남고 소매와 깃은 없다. 답호와 외형은 거의 흡사하나 무의 형태와 옆주름의 구성 양식에서 차이가 난다. 직사각형의 무 형태로 옆주름분이 많다. 앞무와 뒷무를 연결하여 옆주름을 잡고, 뒷길 안자락에 한 폭 더 붙여서 뒷길 겹자락 안쪽에 고정하였다. 도포처럼 뒷길 안과 겹자락을 각각 분리하여 뒷길 안자락에 트임을 준 뒤트임양식이다. 앞쪽의 무는 답호형태이며, 뒤쪽의 무는 도포의 형태와 비슷하다.<도 8>

8. 직령(유물번호 대-복식09)

모시로 지었으며 왼쪽 길만 남아있고 소매와 깃은 달려있지 않다. 직사각형의 무가 달려있으며 트임은 없다.<도 9>



<도 7> 저고리



<도 8> 직령



<도 9> 직령

9. 소매편(유물번호 대-복식10)

삼베로 만든 소매로 소매부분만 복장되었다.<도 10>

10. 남색주(유물번호 대-복식11)

폭 48cm, 길이 121.8cm의 남색의 주이다.<도 11>

11. 담홍색조문직은능낭(淡紅色鳥紋織銀綾囊, 유물번호 대-직물01)

7.0×5.5cm의 조그마한 주머니로 윗부분에는 조일 수 있도록 끈이 달려있으며, 앞부분에는 먹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 주머니의 겉에는 3매능직의 바닥에 편은사(片銀絲)를 사용하여 새 무늬를 능직으로 제작하였다. 크기가 2.0×2.0cm 정도 되는 두마리의 작은 새가 가로방향으로 거꾸로 놓여있는 것이 반복되며 다음 줄에는 마치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직물이 해인사 대적광정의 사경주머니, 아미타불의 불복장물(1302)과 문수사 아미타불의 복장물(1346)에서도 조사되어 고려 말 직물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주머니의 안에 사용된 직물은 홍색화문라(紅色花紋羅)로, 익직의 바닥에 8개의 잎을 가진 꽃무늬를 시문하였다.<도 12>



<도 10> 소매편



<도 11> 남색주



<도 12>담홍색조문직은능낭

12. 사경낭(寫經囊, 유물번호 대-직물02)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最上乘無生戒法)을 넣어 보관하던 주머니이다. 남,청,백,홍 각색의 천을 분할하고 이어서 장식하였다. 매듭고리는 주황색실과 분황색실로 엮어 만들고 훈사실을 말아 감아 장식하였다.

13. 후령통과 관련 복장물

후령통은 황초폭자(黃綯幅子, 대-직물05)에 싸여 봉인되어 있었는데 보자기의 크기는 약 847×835cm 정도이며 황색 명주 한 폭 반을 사용하였다.<도 13> 명주는 누에가 뽑아낸 견사로 직조한 것으로 실의 굵기가 일정한 상품의 필라멘트를 사용한 견(絹)에 비해 굵기가 일정치 않고 다소 거친 느낌이 드는 평직 견직물의 일종이다.

황초폭자를 풀자 후령통 바닥부분에 소보협다라니(대-직물08)와 중수발원문(대-직물10)이 접혀 있었다. 소보협다라니<도 14>는 곱게 짠 사(紗)에 금니로 쓰여 있다. 중수 발원문은 청색주에 주서로 적혀있는데 69cm 나비의 비교적 넓은 폭의 명

주를 사용하였다. 직물의 군데군데에 액체를 분무한 것 같은 흔적이 있는데 액체가 닿은 부분은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든다.<도 15>

후령통은 황초폭자(대-직물07)로 또 다시 싸여 있었는데 겉의 보자기와는 달리 후령통의 형태에 맞게 주머니 형식으로 바느질이 되어있다.<도 16> 후령통은 대부분 사각형의 보자기에 싸여 있으나 이와 같이 후령통에 꼭 맞게 봉제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바가 없다. 두 보자기는 동일한 직물로 제작되었다.

후령통의 후혈(喉穴)에는 오색의 직물이 감겨있으며(대-직물09) 가운데에는 붉은 색의 비단실로 묶었다.<도 17> 직물은 겉에서부터 초록→홍색→황색→남색→백색의 순서로 감겨있는데 초록색의 직물은 커다란 사합여의형태의 구름머리가 있는 운문사(雲紋紗)이다. 불상조성의 의식에 관한 경전인 『조상경』의 후령통 안을 안립하는 순서에는 “오보병 입구에 매달아 놓은 오색사를 합하여 통 뚜껑에서 뽑아 나오게 하여 후령을 오뚝하게 솟게 한 후에, 통 뚜껑을 덮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불복장에는 이와 같이 오보병이 후령통의 안에 안립되며 오색사가 뚜껑의 뾰족한 부분을 통해 나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 후령통의 오색후혈장엄(五色喉穴藏嚴)과 같이 후령통의 후혈에 오보병이 감겨 있는 방법은 아직 조사된 예가 없다. 수국사의 아미타불 복장물 가운데 이와 유사한 복장물이 발견되었으나 후령통 내부에 안립되었던 것이며 길이 2.2cm, 나비 1.2cm인 작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겉에서부터 흑색→흰색→홍색→초록→황색의 순서로 감겨있는데, 해인사의 오보병과 형태 면에서는 유사하나 직물이 감긴 순서와 안립 위치도 다르다.

‘묘아니’라는 명문이 적힌 황색저포(대-직물15)는 소색견(素色絹, 대-직물16)에 싸여있었는데 89×52cm의 견을 반으로 접어서 보자기로 사용하였다.<도 18> 후령통 안에는 오색사로 감은 오보병이 있는데 중앙에는 황색을 두고 둘레에는 방위에 맞춰 홍, 청, 흑, 백색의 직물이 배치되어 있다.<도 19> 현재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므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적광전의 복장물은 법보전의 것과 거의 유사한데 법보전의 오보병은 모두 개봉이 되었으므로, 뒤에 설명하는 법보전의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도 13> 황초폭자에 싸인 후령통



<도 14> 소보협다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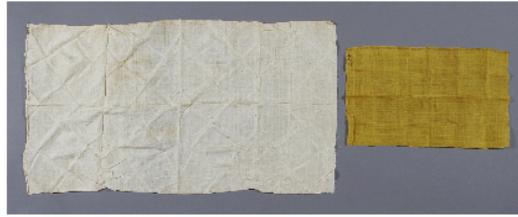
<도 15> 중수발원문



<도 16> 황초폭자



<도 17>후령통의 오색
후혈장엄



<도 18> 황색포와 소견색 보자기



<도 19>오보병

14. 사리호와 관련 복장물

사리호는 둥근 황색보자기(대-직물20)에 싸여 윗부분은 황색실로 묶여있었으며 <도 20> 초록운문사보자기(대-직물22)로 싼 후에 다시 자색명주 보자기(대-직물 21)에 싸여있었다. 초록운문사 보자기의 겉은 사함여의형의 큰 구름머리에 만(卍)자 형태의 꼬리가 달려있는 단독운문이다. 보자기의 안은 5매수자직으로 짜여진 녹황색 운문단(雲紋緞)으로 구름꼬리의 한 쪽이 사선으로 연결되고 있다. 직물에 표현된 구름무늬는 조선시대에 널리 애용되던 대표적인 무늬 가운데 하나로 복식뿐만 아니라 장신구, 초상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구름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초록운문사 보자기의 앞과 뒤에 사용된 구름무늬는 조선 전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도 20>사리보에
싸인 사리호



<도 21>자색주
보자기



<도 22>
초록운문사보자기 겉



<도 23>
초록운문사보자기 안

15.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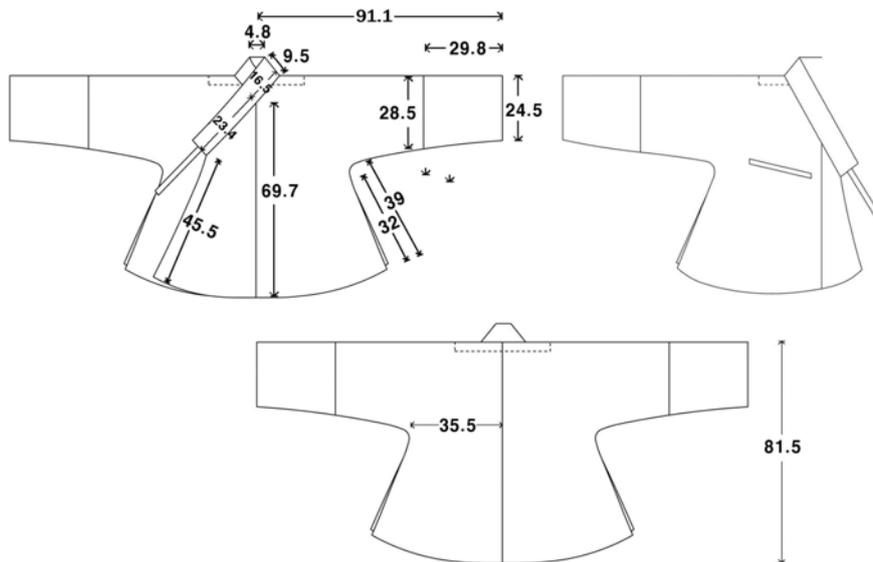
오보병의 둘레에는 저고리(대-복식01)가 감겨 있었다.<도 24> 정련이 잘된 소색의 견으로 만든 홀적삼으로, 깃은 넓은 목판깃이고 2×23.5cm의 작은 고름이 달려있으며 여밈이 깊은 저고리이다. 소매는 수구 쪽으로 약간 좁아지며 진동 아래에는 약 32cm 정도의 트임이 있다. 오른쪽 길 아래에는 “문씨가엇(엇口+七: 이두글자임)환봉위 선망부모왕생극락오무생인천역기신부처병제자손재앙 영진가택창성 무재무장복수연장공향다복[文氏加齡執奉爲 先亡父母迕生極樂悟無生忍扞亦己身夫妻并諸子孫灾殃 永殄家宅昌盛無灾無障福壽延長共享多福]”라는 목서가 있다.



<도 24> 저고리



<도 25> 저고리의 명문



<도 26> 저고리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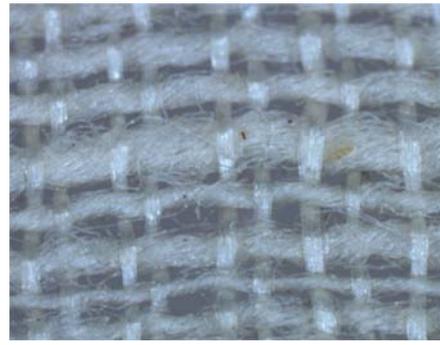
16. 저고리 내부의 유물

저고리의 안에는 직물들이 길게 접혀있었는데 황색화문라(黃色花紋羅), 청초홍서 중수발원문과 동일한 청색주, 소색면주(素色綿紬), 소색주(素色紬), 소색저포(素色苧布), 사면교직(絲棉交織)(유물번호 대-직물24~34) 등이 있다.<그림 27>

유물번호 대-직물30은 경사에는 견사를, 위사에는 무명실을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사면교직(絲棉交織)이다.<그림 28>



<도 27>저고리 안의 직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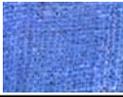
<도 28> 사면교직의 확대

<표 1> 대적광전 섬유류 복장물의 특성

유물번호	유물명	직물종류	직물조직	직물폭 (cm)	크기(cm)	특징	유물사진	시대
대-복식02	요선철릭	모시	평직	31	앞길이 102 뒷길이 101 뒤폭 34 화장동 77.5 화장동 28.5	“년십오 송부개 장명지원(年十五 宋夫介 長命之願)” 이라는 묵서있음		1326
대-복식03	담호	삼베	평직	35	앞길이 116 뒷길이 116 뒤폭 48 화장동 40.5 화장동 37	“승봉랑 봉선고 부사이승밀 의(承奉郎 奉先庫 副使李承密衣)” 묵서있음		1326
대-복식04	저고리	주	평직	54	앞길이 84 뒷길이 83.5 뒤폭 70 화장동 114	소매길이가 긴 저고리		1326
대-복식05	저고리	모시	평직	31	앞길이 66 뒷길이 66 뒤폭 60 화장동 90 화장동 37	홀적삼		1326
대-복식06	저고리	모시	평직	36.5	앞길이 65 뒷길이 64 화장동 89 화장동 28	안섶, 걸섶과 등부분만 남아 있음		1326
대-복식07	저고리	견	평직	54	앞길이 58 뒷길이 57 뒤폭 73 화장동 31	왼쪽 한쪽만 남아있음		1326
대-복식08	직령	모시	평직	340	앞길이 122 뒷길이 117.5 뒤폭 58 화장동 39	왼쪽 길만 남아있음		1326
대-복식09	직령	모시	평직	310	앞길이 135 뒷길이 135 뒤폭 62 화장동 43.5	왼쪽 길만 남아있음		1326

대-복식10	소매편	삼베	평직		53×29	소매편 2점만 있음		1326
대-복식11	남색주	주	평직		121.8×48			1326
대-직물01	담홍색조문직은낭 (淡紅色鳥紋織銀綾囊)	겉	견	능직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		1326
		안	문라	바닥-익직				
대-직물02	사경낭	겉	남	3매능직		문수최상승무생계법(文殊最上乘無生戒法)의 주머니		1326
			백	3매능직				
			청	3매능직				
			홍	3매능직				
안	평직							
대-직물03	황명홍치3년경술해인사기	견	평직		33.7×13.3			1490
대-직물04	소색저포(素色苧布)	모시	평직		187.7×32.1			1490
대-직물05	황초폭자(黃綯幅子)	견	평직	69.5	84.7×83.5			1490
대-직물06	소색주(素色紬)	견	평직		210.6×21.2	치밀하고 고운 명주		1490
대-직물07	내황초폭자	견	평직	30.1	43.6×31.7	원통형으로 봉제		1490
대-직물08	소보협다라니	사(紗)	변형평직		66.3×10.6	금니로 명문적함		1490
대-직물09	오색후혈장엄				높이:11.5	은제후령통뚜껑에 감긴것 안에서부터 백→흑→황→홍→초록의 순서		1490
대-직물10 *복장발원문	중수발원문	견	평직	69.1	69.1×55			1490
대-직물11	청색주	견	평직		56.8×22.4	풀 먹여 다듬질이 잘 되어 있음		1490
대-직물12	청색주	견	평직		384.2×10	생견(生絹)		1490
대-직물13	홍색사(紅色絲)	견			89.3	실		1490

대-직물14 *복장발원문	황명홍치 3년경술 해인사개 금기	견	평직		34.8×30.3			1490
대-직물15	황색저포	모시	평직		29.5×46.5	‘묘아니’명		1490
대-직물16	소색견	견	평직	52	89×52	‘묘아니’명황색저포를 짠 보자기		1490
대-직물17	황색주	견	평직		58.7×6.5			1490
대-직물18	오보병	명주	평직	30.8	높이:11 지름:8.5	오색사에 감긴 오보병		1490
대-직물19	자색주	견	평직		56.5×30.8			1490
대-직물20	사리보	견	평직		높이:3.8 지름:1.8			1490
대-직물21	자색주보자기	견	평직		58×34.5	보자기		1490
대-직물22	초록운문보	겉	초록운문사	바닥-2 경교라 문양-평 직	22.6×23	겉보자기		1490
		안	운문단	바닥-5 매2뿔 경수자 직문양-5 매2뿔 위수자 직				1490
대-직물23	홍색사	견			85.2	실		1490
대-직물24	황색화문라	견	바닥-익 직		26.2×18.1			1490
대-직물25	청색주	견	평직		22.7×57.9	풀 먹여 손질이 잘 되어 있음		1490
대-직물26	소색주	견	평직		36.5×35			1490
대-직물27	소색주	견	평직	25	89.2×25			1490
대-직물28	소색저포	모시	평직		82×33.2	세모시		1490
대-직물29	소색저포	모시	평직	26.5	47.6×26.5			1490

대-직물30	사면교직 (絲棉交織)	견, 면	평직		52.6×35.1			1490
대-직물31	소색저포	모시	평직	27.2	64.3×27.2			1490
대-직물32	청색주	견	평직	29.2	52.4×29.2			1490
대-직물33	소색저포	모시	평직	32.5	77.6×32.5			1490
대-직물34	소색저포	모시	평직		100.5×35			1490
대-직물35	황색사	견			54.7	실		1490
대-복식01	저고리	견	평직		뒷길이:79 뒤폭:71 진동:34 수구:24.5 화장:91.1 무없음	목서로 명문적혀있음		1490

○ 문헌자료

- 태경, 2006, 『조상경』, 운주사, p.248.
-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수국사』, pp.14, 21.
- 박윤미, 2008, 「수국사 불복장 섬유류에 관한 고찰」, 『강좌미술사』 31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177-203.

□ 문화재위원

○ 복장유물 중 전적목록

가. 도서

연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2, 53(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52, 53)	2장	목판	12세기	권52:29×18cm 권53:30×20.2cm	권52(1장), 권53(1장)의 날장. 거란(契丹)본 계통의 번각본으로 추정됨.
2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52축	목판	12~13세기	26.9×46.8cm. (장 크기)	초조대장경.
3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36(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第36)	1장	목판	12~13세기	29.3×54.3cm	화엄경 권36 권두제 부분으로 날장임.

나. 다라니

연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1첩	목판	12~13세기	29.7×10.3cm	내용부분은 결락됨. 대불정다라니계청(大佛頂陀羅尼啓請)만 남아 있는 절첩본.
2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20장	목판	1152년 각 (고려 의종 6)	38.4×41cm	‘범학대사 통휘서 해진사 개판 시천덕사년(1152) 사월일기(梵學大師 通輝書 海眞寺 開板 時天德四年 四月日記)’의 간기가 있음.
3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18장	목판	12세기	31.5×33.8cm	인본다라니.
4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41장	목판	1156년 각	16~22 ×46.6~59.4cm	‘正豐元年(1156)七月日法水寺重大師資行記’의 간기와 ‘彦平’ 刻手名 있음. 張次는 3~4, 7~8, 12, 15~22, 25~26, 32~36, 43~47이며, 중복된 장차는 3, 7, 8, 12, 16, 18~21, 33~35은 2장, 17, 36은 3장으로 총 41장.
5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38장	목판	1166년 각	16~17.9 ×42.3~54.5cm	병술(1166)칠월일 기지합주사사 문림랑 시전중내급사 이세합(丙戌七月日 記知陝州事使 文林郎 試殿中內給事 李世陝)의 간기가 있으며, ‘존심(存深)’ 각수명이 있음. 장차는 1~20, 34~38, 46~47이며, 중복된 장차는 1, 3, 4, 9, 12, 14, 36은 2장, 13, 37은 3장으로 총 38장임.
6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69장	목판	1150년 각 13~14세기 인출	1장:17×37cm 7장:14.1×46 12장:13.6×44.5 18장:19.6×43.5 22장:21.1×49.5 27장:20×44.8 42장:18.1×57.7	장수(張數)를 보면 장차(張次)의 1은 2장, 7은 9장, 12은 8장, 18은 19장, 22은 10장, 27은 10장, 42는 11장으로 총 69장이다.
7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1장	목판	1166년 각	17×37cm	앞부분이 결락되어 장차 확인 불가함.

다. 문서(발원문)

연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해인사 중수원문(海印寺重修願文)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55×69.3cm	학조 찬(學祖 撰) 해인사 중수원문.
2	해인사 중수기(海印寺重修記)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30.3×34.7cm	황색비단에 묵서.

○ 내용 및 특징

가. 도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주본 권52, 53은 한 줄에 34자가 배자된 소자본(小字本)으로 거란본(契丹本) 계열의 판본을 저본으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희귀한 책이다.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처음 알려진 귀중한 판본으로 52축이나 되는 다량이 수습되었다. 다만 불복장용(佛腹藏用)으로 인출한 때문인지, 인출 시의 결락과 낙장이 있는 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 주본 권36은 함차 표시가 없는 24행 17자본의 낱장으로 위의 동일 서명의 판본과는 다른 사간판이다.

나. 다라니

대적광전(大寂光殿) 소재 비로자나불에서 수습된 다라니는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낱장),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낱장, 1152년 개관), 『전신사리보협다라니(全身舍利寶篋陀羅尼)』(낱장),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1156년 개관, 전체 47장에서 중복을 제외한 25장 잔존),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1166년 개관, 전체 47장에서 중복을 제외한 27장 잔존), 『범서총지집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梵書總持集 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1150년 각, 전체 47장에서 중복을 제외한 7장의 잔본) 등 7종이다. 12세기 판본이나 대부분이 완본이 아닌 잔본들이다.

다. 문서(발원문)

해인사중수원문(연번 1)은 1490년(성종 21)에 인수왕대비 한씨, 인혜왕대비 한씨, 왕비 윤씨의 뜻에 따라 내수사의 재정적 지원과 학조(學祖)의 주관 하에 1488

년(홍치 원년, 무신년)에는 보안당(保眼堂), 진상전(眞常殿), 해행당(解行堂)을 지었고, 1489년(홍치 2, 기유년)에는 탐진당(探眞堂), 궁현당(窮玄堂), 감물당(鑑物堂)을 중창하고,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문수보살상을 수보하였으며, 1490년(홍치 3, 경술년)에는 비로전(毘盧殿)을 중창하여 대적광전(大寂光殿)으로 명명하고, 주불상(主佛像)을 수보하고 토상(土像)을 철거하고 좌우의 보처(補處)는 모두 칠포(漆布)로 개조한 사실 등 3년에 걸친 해인사의 중창불사와 관련하여 동원된 물력과 인력 및 그 성과 등에 대하여 적고 있다. 원문은 학조(學祖)가 썼다. 원문의 하단에는 시주자 명단을 열서하였다. 감색비단에 주필(朱筆)로 필서하였다.

해인사중수기(연번 2)는 황색비단에 묵서한 것으로 위 원문과 같은 해인 1490년에 작성된 것이다. 해인사 내의 각 전사(殿舍)의 중창과 개금(改金)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다. 시주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앞의 원문내용을 참고의 목적에서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 문화재전문위원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중 전적목록>

순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2, 53(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 52, 53)	2장	목판본	12세기	권52:29×18cm 권53:30×20.2cm	80화엄본으로 권52(1장), 권53(1장)으로 낱장임.
2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 36(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 第三十六)	1장	목판본	12~13세기	29.3×54.3cm	화엄경 권36 권수제 부분으로 낱장임.
3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 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22축	목판본	12세기	26.9×46.8cm.	초조대장경. 권자본(卷子本). 유물번호 : 대7의 8-10, 14-16, 18-20, 22, 25, 26, 29-30, 32, 39-41, 45, 50-52 총22축.
4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1첩	목판본	12~13세기	29.7×10.3cm	1장. 대불정다라니계청(大佛頂陀羅尼啓請) 이하부분은 결락됨. 절첩본(折帖本).
5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20장	목판본	1152년 각 (고려 의종 6)	38.4×41cm	'범학대사 통휘서 해진사 개관 시친덕사년(1152) 사월일기(梵學大師 通輝書海眞寺 開板 時天德四年 四月日記)'의 간기가 있음.
6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18장	목판본	12세기	31.5×33.8cm	인본다라니. 낱장

7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41장	목판본	1156년 각	16~22 ×46.6~59.4cm	‘정풍원년(1156)칠월일법수사중대사자행기(正豐元年七月日法水寺重大師資行記)’의 간기와 ‘언평(彦平)’ 각수명(刻手名) 있음. 장차(張次)는 3~4, 7~8, 12, 15~22 25~26, 32~36, 43~47이며, 중복된 장차는 3,7,8,12,16,18~21,33~35은 2장, 17,36은 3장으로 총 41장.
8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38장	목판본	1166년 각	16~17.9 ×42.3~54.5cm	병술칠월일 기지합주사사 문림랑 시전중내급사 이세합(丙戌(1166) 七月日 記知陝州事使 文林郎 試殿中內給事 李世陝)의 간기가 있으며, ‘존심(存深)’ 각수명이 있음. 장차는 1~20, 34~38, 46~47이며, 중복된 장차는 1,3,4,9,12,14,36은 2장, 13,37은 3장으로 총 38장임
9	범서총지집(梵書總持集)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69장	목판본	[1150년, 각 13~14세기 인출	1장:17×37cm 7장:14.1×46cm 12장:13.6×44.5 18장:19.6×43.5 22장:21.1×49.5 27장:20×44.8 42장:18.1×57.7	장수(張數)를 보면 장차(張次)의 1은 2장, 7은 9장, 12은 8장, 18은 19장, 22은 10장, 27은 10장, 42은 11장으로 총 69장이다.
10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1장	목판본	[1166년 각	17×37cm	앞부분이 결락되어 장차 확인 불가함.
11	해인사 중수원문(海印寺 重修願文) *복장발원문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55×69.3cm	1490년 학조(學祖)스님이 찬(撰)한 해인사 중수원문
12	해인사 중수기(海印寺 重修記) *복장발원문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30.3×34.7cm	황색 비단에 묵서로 필사하였음.

1.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2, 53(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52, 53)

이 자료는 실차난타(당)[實叉難陀(唐)]가 번역한 80화엄본인 주본으로 권52(1장), 권53(1장)으로 총 2장이며 낱장 형태로 남아 있다.

크기는 29×18cm(권52), 30×20.2cm(권53)이며, 호접장본이다. 판식을 보면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은 22.6×14.6cm, 무계(無界)이며 매장 17행 34자로 배자 되어 있다. 판심에는 주, 권차, 장차(周, 卷次, 張次)가 있으며, 표지는 없으나 상태는 일반적으로 양호하다. 12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2.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36)

이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은 권두제 부분 제1장만 있는 낱장 형태이다. 크기는 29.3×54.3cm이며, 판식은 상하간 22.9cm, 무계이며 24행 17자로 판각되어 있다. 12~13세기에 간행된 사간본으로 추정된다.

3.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이 자료는 삼장법사 현장(三藏法師 玄奘)이 번역한 『약사경』으로 초조대장경이다. 1장(張)의 크기는 26.9×46.8cm, 상하단변에 상하간 22.2cm, 무계이며, 권수제 아래에 ‘공(恭)’의 함차(函次) 표시가 있으며 판심에는 ‘약사본원공덕경(藥師本願功德經)’에 이어 장차(丈次), 함차(函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권미제 없이 장차(丈次)는 16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장에 수록된 본문의 행수(行數)와 각 행(行)의 자수(字數)는 첫 장은 23행 14자, 그 이하 장은 24행 14자로 되어 있다. 초조본의 장차표시인 ‘장(丈)’이 15장에서는 ‘장(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4장(丈) 7행(行) 13자(字)는 송태조 조부(宋太祖 祖父)의 휘(諱)인 ‘경(竟)’의 자(字) 마지막 획이 탈락되어 피휘결획(避諱缺劃)한 것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앞에는 표죽(標竹), 뒤에는 축을 달아 권자본 형식으로 장정을 갖추는데 해인사본은 장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장용으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修道)’라는 목서가 방향을 바꾸어 본문과는 거꾸로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수도(修道)’는 시주자명으로 보인다. 인쇄도 흐리게 된 것도 많고 인출 시 위 아래 변란이 인쇄가 안된 부분도 있으며, 지질도 얇은 종이로부터 두꺼운 저지(楮紙)에 이르는 여러 종류로 나타나 혼용하여 연결하였다. 12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서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일부 결락이 있거나 훼손되어 불완전한 것 22축을 대상으로 한다. 유물번호는 조사 시 유물번호 대-7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의 일련번호는 대7 의 8-10, 14-16, 18-20, 22, 25, 26, 29-30, 32, 39-41, 45, 50-52 총22축 등이다. (2008년에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해인사·문화재청, 2008. pp. 84~89.에 수록되어 있음.)

4.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이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는 첫 장의 대불정다라니계청(大佛頂陀羅尼啓請)만 남아 있다. 크기는 29.7×10.3cm이며, 상하간 23.2cm, 무게, 1면의 행자수는 5행 15자이다.

절첩본 형식으로 12~13세기 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은 탈락되고 앞·뒤표지는 감색(紺色)으로 되어 있다.

5.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이 자료는 38.4×41cm 크기의 저지(楮紙)에 인쇄하였는데 판 크기는 31.4×28.2cm이며, 광곽 28.2×25.3cm 안에 끈자를 뒤집은 모양의 글자 속에 범자(梵字)를 4행으로 가득 차게 판각하고 먼저 외곽의 모양을 따라 전체를 회전하면서 기술하였다. 상단에는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로 표기하고 하단에는 ‘범학대사 통휘서 해진사 개판 시천덕사년 사월일기(梵學大師通輝書 海眞寺 開板 時天德四年 四月日記)’라 하여 1152년(의종 6) 4월에 범학대사(梵學大師) 통휘(通輝)스님이 글을 써서 해진사(海眞寺)에서 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낱장으로 모두 20장이 남아 있다.

6.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이 자료는 31.5×33.8cm 크기의 저지(楮紙)에 같은 원형 만다라 도형을 2개 찍은 형태로 동심원이 아니라 가장 안쪽부터 점차 바깥으로 7겹을 풀어 나오면서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 판 크기 19.8×16.6cm 안에다 판각하여 1장에 나란히 중복 인쇄하였다. 상단에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라 기술하고 난외에는 ‘납승정혁(納僧精赫)’의 묵서명이 있다. 복장용으로 납입된 것으로 18장이 남아있으며 12세기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74.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이 자료는 47장 마지막 장에 대자(大字)로 『범자대장(梵字大藏)』이라 표기하고 ‘정풍원년칠월일법수사중대사자행기(正豐元年七月日法水寺重大師資行記)’가 있어 1156년(의왕毅王 10) 7월에 법수사에서 간행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전체는 47장으로 되어 있는데 발견된 장차(張次)는 3~4, 7~8, 12, 15~22 25~26, 32~36, 43~47로 25장이다. 이 가운데 중복된 장차 중 3·7·8·12·16·18·19·20·2

1·33·35는 2장씩 17·36은 3장씩 있어 총 41장이다. 크기는 16~22×46.6~59.4cm이며, 변란은 상하는 있고 좌우는 없으며, 상하간은 9.2~10.3cm 정도로서, 무계이고 1면의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각 장차의 단위는 ‘복(卜)’으로 표기하고 그 아래 매장(每張)마다 ‘언평(彦平)’이란 각수명(刻手名)이 있다.

내용은 대일경(大日經) 등 여러 경전에서 언급된 다라니를 수록하였으며 제목은 한자로, 내용은 범자로 진언을 수록하였는데 1156년판 총 25장에 실린 진언 수는 259종이다. 권말에는 범자다라니를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한다는 법수사(法水寺)의 중대사 자행(重大師 資行)이 정풍(正豐) 원년인 1156년(의왕毅王 10)에 쓴 발문이 있다.

연호정풍(年號正豐)의 풍(豐)은 융(隆)의 대자(代字)이다. 고려 태조의 아버지 휘(諱)가 울(隆)이라 피휘대자(避諱代字)한 것이다.

이 다라니는 장정하지 않은 낱장 형태로 묶음 또는 여러 장이 겹쳐서 복잡되었기 때문에 중복된 장차는 충전용식으로 보여 진다. 인쇄상태도 좋고 지질이나 판각술도 고려 인쇄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밀교사상 및 다라니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8.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이 자료는 47장 마지막 장에 ‘병술(1166)칠월일 기지합주사사 문림랑 시전중내급사 이세합(丙戌七月日 記知陝州事使 文林郎 試殿中內給事 李世陝)’의 간기가 있어 1166년 7월에 간행된 사실을 밝혀주는 기록으로 전체는 47장으로 되어 있다.

발견된 장차(張次)는 1~20, 34~38, 46~47로 27장이다. 이 가운데 중복된 장차 중 1·3·4·9·12·14·36은 2장씩 13·37은 3장씩 있어 총 38장이다. 크기는 16~17.9×42.3~54.5cm이며, 사주(四周)에 변란이 있고 전광(全匡)은 9.5~10.5×36.2~46.4cm 정도로서, 무계이고 1면의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각 장차의 단위는 ‘장(丈)’ 과 ‘복(卜)’이 혼용되어 있고 그 아래 ‘존심(存深)’이란 각수명(刻手名)이 있다.

내용과 구성 체제는 1156년(의왕毅王 10) 7월에 법수사에서 간행된 판본과 완전히 동일하고 전체 47장에 실린 진언수는 495종이다.

1166년판 총 27장에 실린 진언 수를 보면 249종으로 전체 진언 수의 절반 정도에 미치고 있다. 권말에는 발원문과 함께 범자다라니를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한다는 ‘병술(1166)칠월일 기지합주사사 문림랑 시전중내급사 이세합(丙戌七月日 記知陝州事使 文林郎 試殿中內給事 李世陝)’의 발문이 있다. 간행기록이 있어 다라니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9.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이 다라니는 종이끈으로 묶여 있거나 또는 여러 장이 겹쳐서 복잡되었던 것으로 현존 장차(張次)의 수를 보면 7장이다. 전체 수량을 보면 장차(張次) 1은 2장, 7은 9장, 12은 8장, 18은 19장, 22은 10장, 27은 10장, 42은 11장으로 총 69장이다. 인쇄상태나 지질 및 판각 등이 앞의 판본 보다 좋지 못하고 훼손된 부분도 있다. 판각 시기는 앞의 1156년판과 1166년판의 내용과 구성은 같고 판각에서 차이가 나는데 앞선 자료로 추정된다.

1장을 보면 첫째 줄에 ‘범서총지집일부(梵書摠持集一部)’라 하고 행을 달리하여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라는 부제(副題)를 달고 있고, 제목에 이어 6개의 원형 만다라에 진언(眞言)이 구성되어 있는 점, 장차의 7장·12장·18장·22장·42장에는 ‘복(卜)’이 있는 것, 그리고 각수명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비교해 보면 현재 지정예고 된 안동 보광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복장유물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과 동일한 판이다. 47장 말에 ‘시경오세유월복일해동장안광제포개관인시무궁 봉축 성수만년겸기법계유식함령공증보리자 선사사원중교(時庚午歲六月卜日海東長安廣濟鋪開板印施無窮 奉祝 聖壽萬年兼冀法界有識含靈共證菩提者 禪師思遠重校)’라 하여 경오년(庚午年, 1150, 고려 의종 4) 6월 길일(吉日)에 평양 광제포에서 개관 인시(開板 印施)하고 왕의 수(壽)를 누리고 법계는 두루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기원과 함께 선사 사원(禪師 思遠)이 중교(重校)하였다는 간행기록이 있다.

크기는 각장마다 일정하지 않으며, 사주(四周)에 변란이 있고 무계이며, 1면의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복잡용으로 인출되어 먹색이 뭉쳐있거나 인쇄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10.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앞부분이 결락되어 장차 확인은 불가하다. 1장만 남아있는데 형태 면에서 보면 판식은 사주 단면이고 판각이나 지질 및 인쇄로 보아 병술년(丙戌年)인 1166년에 해당하는 판본으로 보여지는데 남아 있는 진언을 보면 금강살추진언(金剛薩捶眞言), 여래갑주진언(如來甲冑眞言), 단락견진언(斷諾見眞言), 승원길상법라진언(勝願吉祥法螺眞言), 길상원연화좌진언(吉祥願蓮華座眞言), 금강혜진언(金剛慧眞言), 여

래정진언(如來頂眞言), 여래정상진언(如來頂相眞言), 여래호상진언(如來毫相眞言), 여래대발진언(如來大鉢眞言), 여래시무외진언(如來施無畏眞言), 여래여원진언(如來與願眞言) 등으로서 차이가 있다.

11. 해인사 중수발원문(海印寺 重修發願文)

이 해인사 중수발원문은 1490년(성종 21) 5월에 학조(學祖)가 찬(撰)한 내용을 55×69.3cm의 크기의 감색(紺色)비단에 주서(朱書)로 필사하였다. 본문은 총 22행이며 1행의 자수(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본문 끝에 ‘대명홍치삼년경술하오월하한비구학조근지(大明弘治三年庚戌夏五月下澣比丘學祖謹誌)’라 하여 찬자(撰者)를 밝히고 그리고 행(行)을 달리하여 대시주(大施主) 50인과 수희조연(隨喜助緣) 161인의 명단이 8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1458년(세조 4)에 경차관 윤찬(敬差官 尹贊) 등에게 명하여 대장경 50부를 인출하여 여러 산사(山寺)에 유포하게 하고 판당(板堂) 50여 간을 중창하였으나, 몇 해 못가서 무너지게 되자, 정희왕후(貞熹王后, 세조비 윤씨)께서 승 학조(僧 學祖)에게 명하여 주관하게 하였으나 중건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하였다. 인수대비(仁粹大妃, 덕종비)와 인혜대비(仁惠大妃, 예종비)는 선대의 뜻을 좇아 1488년(성종 19) 봄부터 1490년(성종 21)봄까지 해인사의 여러 전각을 중수하고 주불과 문수보현을 수보·개금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중수원문은 접힌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 비단색이나 먹색도 선명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내용은 범보전과 같으며, 다만 여기서는 행을 달리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본문에 있는대로 표시하여 범보전 원문과 구별이 되도록 하였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有伽耶山海印寺者山川精氣所鍾地仙所依三韓祖室歷代御刹所以高麗五百年間國家史冊入安于此寺奉使曝晒者世謂之登仙焉去戊寅年間我/ 世祖大王 命敬差官臣尹贊等印出大藏經五十件流布諸山一則弘揚正教一則備於交隣但藏經國用不小而板堂窄而漏仍令慶尙道材木重/ 創五十餘間病其窄而營之故宏壯華麗間閣高大而盖瓦不實僧徒不能守護不多年而傾頽幾盡我 貞熹王后慨然必欲重營而革/ 去往持命僧學祖主寺事中因水旱未就而 賓天我 仁粹王大妃殿下 仁惠王大妃殿下欲伸 先后之志 睿思已熟而未決者有/ 年世故多件 先后之志恐或未就弘治元年戊申春 命內需司施米千五百石 綿布八十餘同 役僧三百餘人撤旧以新之寬窄得中僅容板/ 子便於守護只構三十間仍名曰普眼堂又撤板堂佛殿三間移營於寂光殿側名曰眞常殿又撤祖堂移營於眞常殿側名曰解/

行堂燔瓦二百餘訥翼年己酉春施米千餘石綿布七十餘同役僧二百餘人重創僧堂
名曰探真禪堂名曰窮玄上室名曰鑑物堂/
及三寶位修補 講堂名曰無說堂及修補毘盧遮那瑠璃殿藥師如來真常殿毘盧遮
那普眼堂毘盧遮那及文殊菩薩等/
像 越庚戌春又施米二千餘石綿布一百五十餘同役僧四百餘人重創毘盧殿」
名曰大寂光殿 修補主佛 撤去土像 左右補處 普以/
柴布改造 重創內外行廊創鍾樓名曰圓音閣重創中門名曰不二門修補食堂名曰
瑠璃殿又撤古大藏殿移營於寂光殿東/
側名曰簫然堂移銀字大藏經入安于普眼堂至於馬廐確家無不新之又以銅鐵一千
五百斤鑄鐵三百斤並用殘餘旧器鑄成/
佛器執用器等鍾鼓法物煥然一新嗚呼法運衰季矣人根由之信向如麟角毀謗若塵
沙返時流而弘揚豈火中之蓮華/
也在惡世而種小善根處正法而布張大作較其優劣日劫相倍何者正法時人 〃 自律
不待勸而自勵惡世則見善如登從惡/
如崩爲善者指以爲迂濶爲惡者標以爲豁達所以處叔世而宣揚實爲難能世我 仁
粹王大妃殿下當剛強難化之時返時流/
蕩 〃 之俗重大義而決大策違衆議而成大事遂使法藏有所尊像有儀殿宇巍 〃 寮舍
之有序法物之齊整一舉而/
衆美俱現祇園精舍不獨專美於往古 先王先后之願意於是乎畢成之我殿下追遠
報本之 盛德豈臣之所能擬議哉/
臣桑門末裔法門無才德營事無伎能睿哲神聰 洞照無用特以 先朝舊物專委法門
之事夙夜戰 〃 猶恐不及而/
事有件錯者不爲不多只以夙世侍從之緣每蒙 寬宥以至於事畢今者良緣既周能
事已圓以此善根所生功德伏願/
先王先后列位靈駕頓悟無生超登覺岸次願 仁粹王大妃殿下萬歲萬歲壽萬歲 仁
惠王大妃殿下萬歲萬歲壽萬歲/
主上殿下萬歲萬歲萬 〃 歲 王妃殿下齊年復齊年 世子邸下千秋千秋復千秋 抑亦
金枝繁茂玉葉昌盛 社稷延遠宗室/
安樂四邊寧靜文虎盡忠國土恒安時和歲稔物阜民康佛日增輝法輪常轉然後願茫
茫沙界蠢 〃 含靈仗此勝因俱成正覺/
大明弘治三年庚戌夏五月下澣比丘學祖謹誌/

大施主

貴人權氏/貴人尹氏/貴人崔氏/昭儀李氏/昭儀金氏/淑儀嚴氏/淑儀鄭氏/淑儀權氏/

淑儀南氏/淑儀鄭氏/淑儀洪氏/淑媛河氏/尙宮曹氏/奉保夫人白氏/安下長今/金氏加智/沈氏從今/林氏莫之/顯淑公主/惠淑翁主/徽淑翁主/恭愼翁主/玉環/合歡/福蘭/碧環/貞福/福合/升福/

永膺夫人宋氏/齊安夫人金氏/月山夫人朴氏/翼峴夫人/密城夫人/尹氏今代/權氏福今/玄氏介叱同/尹氏貴非/韓氏六月/尙宮洪氏泉只/尙宮金氏宝背/阿之崔氏小非/李氏六月/韓氏沙叱江/黃氏奉非/河氏玄非/葉氏守非/李氏貴非/崔氏於里/李氏宝背/金氏哲非/辛氏內口非/梁氏德只/鄭加也之/奇氏玉今/朴氏玉今/金氏於里/金氏萬德/姜氏玉梅/思郎今/崔氏者斤/

隨喜助緣

金氏孝同非/李氏松非/金氏松葉/朴氏莫非/張氏長今/牟氏石今/崔氏連今/朴氏銀玉/朴氏宝代/朴氏波獨/田氏孝目/朴氏鴛鴦/黃氏從心/成氏莫今/車氏未塵/朴氏仇叱同/姜氏龍今/盧氏哲非/梁氏玉從/崔氏加也之/金氏江阿之/鄭氏無作只/崔氏田香/李氏思郎/宋氏尙今/金氏守斤非/林氏元今/林氏於里今/曹氏末乙德/鴨伊/

于今/石乙非/孝道/無心/八月/栢伊/思郎/孝同非/山非/黃莊/金伊德/勿丹里/石乙非/玉今/松德/於乙玄/莫非/曳今/春江/萬春/元香/萬非/玉頓/青春/今德/小金/金德/日才/銀代/其每/

貴德/水德/水永今/白口今/仇叱非/冬至/香完/今伊/山今/菊花/慈壽宮/貴人崔氏/安氏義香/鄭氏道然/張氏戒淵/石氏智全/壽城宮/肅嬪洪氏/昭容文氏/崔氏學眞/楊氏敬全/張氏道成/黃氏道弘/李氏問道/鄭氏羅玉/昌壽宮/謹嬪朴氏/洪氏道熏/

永嘉府夫人申氏/尹氏桂熙/趙氏性安/金氏惠玉/智聰/道信/智安/勝超/志定/仁隱/六和/香雲/祖林/妙空/德水/惠逢/惠慈/六丁/妙通/妙安/九月/福德/水今/帝釋/粉非/細滅/韓今/甫先音/

豆智/升非/千非/貴德/高之/貴今/一眞/千石/衆生/甫老未/齊安大君/德源君曙/河城府院君鄭顯祖/唐陽尉洪常/豐川尉任光載/蓮城君/安陽君/完原君/檜山君/奉安君/堅金/克貞/石壽/玉貞/克石/富壽/

長川君金孝江/興陽君申雲/陝川君李孝命/姜善/尹熙貞/金今音勿/

12. 해인사 중수기(海印寺 重修記)

이 자료는 30.3×34.7cm 크기의 노란색 비단에 목서로 필사하였으며, 전체 행자수(行字數)는 11행이며 1행의 자수(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본문 5행의 인수왕대비 한씨(仁粹王大妃 韓氏)의 ‘한(韓)’자는 다시 써서 붙였다. 오자(誤字)가 나서 이 해인사기 왼쪽 하단부를 잘라서 본문에 붙인 흔적이 나타나 있다. 접은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비단 색과 먹색이 선명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이 중수기는 1490년(성종 21) 5월에 학조(學祖)스님이 찬(撰)한 해인사 중수원문을 간략하게 추린 내용으로 해인사 판당 및 여러 전각을 중수하고 주불(主佛, 비로자나불좌상)과 문수보현(文殊普賢)을 수보(修補)하고 개금(改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보전과 같은 내용으로 필사하여 복장되었으며,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행을 달리하여 법보전 원문과 구별이 되도록 하였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皇明弘治三年庚戌海印寺記/
 貞熹王后尹氏事追/
 先志大藏殿用是交隣雨漏朽破則亦是民/
 弊故擬欲改創而未遂/
 薨逝 仁粹王大妃韓氏 仁惠王大妃韓氏/
 王妃尹氏敬奉/
 先后遺教弘治元年戊申 乃命比丘學祖幹其事/
 改創板堂則至秋功訖諸殿 舍未及重修越/
 明 〃年庚戌毗盧殿改營諸殿舍或修補改盖/
 或改造主佛則重修改金頽落文殊普賢改/
 造其餘諸像並皆修補改金/

□ 관계전문가

낙장본(落張本)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2, 53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52, 53)	2장	목판본	12세기	권52: 29×18 권53: 30×20.2	권52(1장)와 권53(1장)으로 날장. 요본복각(遼本覆刻).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36)	1장	목판본	12~13세기	29.3×54.3	권36의 장1 권수제 부분임. 사간본(寺刊本).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1첩 (1장)	목판본	12~13세기	29.7×10.3	권수의 대불정다라니계청(大 佛頂陀羅尼啓請), 절첩본(折 帖本).

상기한 낙장본 3점은 아래의 자료들과 함께 불상에 포함하여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그리고 지류문화재 가운데 다라니류 6점, 중수발원문 2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서지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다라니·조성원문 목록>

명칭	수량	판본	간사기	크기(cm)	비고
대불정다라니 (大佛頂陀羅尼)	1첩 (1장)	목판본	12~13세기	29.7×10.3	권수의 대불정다라니계청(大佛頂陀羅尼啓請), 절첩본(折帖本).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20장	목판본	1152년각 (고려 의종 6)	38.4×41	‘범학대사 통회서 해진사 개관시천덕사년 사월일기(梵學大師通輝書 海眞寺 開板 時天德四年 [1152] 四月日記)’의 간기가 있음.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18장	목판본	12세기	31.5×33.8	인본다라니.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41장	목판본	1156년각	16~22×46.6~59.4	‘정풍원년(1156)칠월일법수사중대사자행기(正豐元年[1156]七月日法水寺重大師資行記)’의 간기와 ‘언평(彦平)’ 각수명(刻手名) 있음. 장차(張次)는 3~4, 7~8, 12, 15~22, 25~26, 32~36, 43~47이며, 중복된 장차는 3, 7, 8, 12, 16, 18~21, 33~35은 2장, 17, 36은 3장으로 총 41장.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38장	목판본	1166년각	16~17.9×42.3~54.5	병술칠월일 기지합주사사 문림랑시전중내급사 이세합(丙戌[1166]七月日記知陝州事使 文林郎 試殿中內給事 李世陝)의 간기가 있으며, ‘존심(存深)’ 각수명이 있음. 장차는 1~20, 34~38, 46~47이며, 중복된 장차는 1, 3, 4, 9, 12, 14, 36은 2장, 13, 37은 3장으로 총 38장임.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69장	목판본	1150년각 13~14세기인출	1장:17×37 7장:14.1×46 12장: 13.6 × 44.5 18장: 19.6 × 43.5 22장: 21.1 × 49.5 27장:20×44.8 42장: 18.1 × 57.7	장수(張數)를 보면 장차(張次)의 1은 2장, 7은 9장, 12은 8장, 18은 19장, 22은 10장, 27은 10장, 42은 11장으로 총 69장이다.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	1장	목판본	[1166년각]	17×37	앞부분이 결락되어 장차 확인 불가함.

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해인사중수원문(海印寺重修願文)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55×69.3	학조(學祖)스님이 찬(撰)한 해인사 중수원문, 주서(朱書).
해인사중수기(海印寺重修記)	1매	필사	1490년 (성종 21)	30.3×34.7	노란색 비단에 묵서로 필사 하였음.

위의 표에 수록된 자료는 다라니와 중수원문이다. 다라니류는 대부분 낙장의 낱장 상태로 자료적 가치는 있으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전적류의 낙장본과 함께 불상에 포함하여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붙임>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목록

구분	연번	유물명	점수	크기(cm)	시대
후령통	1	후령통	1	전체높이 33.3, 두께 0.12	1490년 경
	2	양면원경	1	지름 14.1, 두께 0.13	1490년 경
	3	팔엽연화	1	높이 5.1, 최대폭 8.14	1490년 경
	4	사리호	1	전체높이3.8 사리호2.9×2.2×1.9	1490년 경
	5	무공심주	2	흑수정3.39	1490년 경
	6	근봉지대(謹封紙帶)	1	높이 4.43, 폭 3.6	1490년 경
	소계	6건	7점		
섬유류	1	요선철릭	1	앞길이 102	1326년 경
	2	답호	1	앞길이 116	1326년 경
	3	저고리	1	앞길이 84	1326년 경
	4	저고리	1	앞길이 66	1326년 경
	5	저고리	1	앞길이 65	1326년 경
	6	저고리	1	앞길이 58	1326년 경
	7	직령	1	앞길이 122	1326년 경
	8	직령	1	앞길이 135	1326년 경
	9	소매편	2	53×29	1326년 경
	10	남색주	1	121.8×48	1326년 경
	11	담홍색조문직은능낭	1	70×55	1326년 경

12	사경낭	1		1326년 경
13	소색저포	1	187.7×32.1	1490년 경
14	황초폭자	1	84.7×83.5	1490년 경
15	소색주	1	210.6×21.2	1490년 경
16	내 황초폭자	1	43.6×31.7	1490년 경
17	소보협다라니	1	66.3×10.6	1490년 경
18	오색후혈장엄	1	높이:11.5	1490년 경
19	청색주	1	56.8×22.4	1490년 경
20	청색주	1	384.2×10	1490년 경
21	홍색사	1	89.3	1490년 경
22	황색저포	1	29.5×46.5	1490년 경
23	소색견	1	89×52	1490년 경
24	황색주	1	58.7×6.5	1490년 경
25	오보병	1	높이:11	1490년 경
26	자색주	1	56.5×30.8	1490년 경
27	사리보	1		1490년 경
28	자색주 보자기	1	58×34.5	1490년 경
29	초록운문보	1	22.6×23	1490년 경
30	홍색사	1	85.2	1490년 경
31	황색화문라	1	26.2×18.1	1490년 경
32	청색주	1	22.7×57.9	1490년 경
33	소색주	1	36.5×35	1490년 경
34	소색주	1	89.2×25	1490년 경
35	소색저포	1	82×33.2	1490년 경
36	소색저포	1	47.6×26.5	1490년 경
37	사면교직	1	52.6×35.1	1490년 경
38	소색저포	1	64.3×27.2	1490년 경
39	청색주	1	52.4×29.2	1490년 경

	40	소색저포	1	77.6×32.5	1490년 경
	41	소색저포	1	100.5×35	1490년 경
	42	황색사	1	54.7	1490년 경
	43	저고리	1	뒷길이:79	1490년 경
	소계	43건	44점		
전적 · 다라니 · 발원문 등	1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2, 53(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52, 53)	2	권52:29×18cm	12세기
	2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삼십육(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第三十六)	1	29.3×54.3cm	12~13세기
	3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 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 願功德經)	22	26.9×46.8cm.	12세기
	4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1	29.7×10.3cm	12~13세기
	5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 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 寶篋陀羅尼)	20	38.4×41cm	1152년, 각/(고려 의종 6)
	6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全身舍 利寶篋印陀羅尼)	18	31.5×33.8cm	12세기
	7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 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 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41	16~22×46.6~59.4cm	1156년, 각
	8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 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 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 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 陀羅尼)	38	16~17.9×42.3~54.5cm	1166년, 각
	9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대비로 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 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大毗盧 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一乘諸 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69	1장:17×37cm 7장:14.1×46cm/12장:13. 6×44.5/18장:19.6×43.5/ 22장:21.1×49.5/27장:20 ×44.8/42장:18.1×57.7	[1150年, 각, 13~14세기인 출
	10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 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 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	1	17×37cm	[1166년 각]

		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11	해인사 중수원문(海印寺重修願文)	1	55×69.3cm	1490년(성종 21)
	12	해인사 중수기(海印寺重修記)	1	30.3×34.7cm	1490년(성종 21)
	소계	12건	215점		
	합계	60건	점		

4.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陝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

가. 심의사항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인사로부터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07.06.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08.11.25, ‘09.07.21~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2년도 제4차 회의(‘12.08.0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2.08.24~9.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대상문화재 개요>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陝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 량 : 8건 37점
- 규 격 : 하단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목판본, 필사본

○ 제작연대 : 12~14세기

○ 추진경과

- 1992.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개금 시 복장 일부 확인
- 2005.07.04. 해인사, 통일신라 목조불상 확인 발표
- 07.28. 해인사·통도사박물관, 비로자나불 2구의 복장유물 조사
- 2007.06.1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해인사→문화재청)
- 08.30~31. 예비조사(서병패, 손영문)
- 10.16. 실무협의(문화재청 및 해인사 박물관 담당자)
- 11.13~15. 1차 합동조사(전적류 조사 완료)
- 2008.09~11. 2차 합동조사(후령통, 묵서명, 직물류 조사 완료)
- 11.25. 지정조사(조각분야)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2009.7.21~22. 지정조사(복장유물) : 송일기, 신승운, 서병패, 손영문
- 2010.07.27. 지정추진 검토 전문가회의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결과 : 묵서명을 비롯하여 내부구조 및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 필요.

- 2011.10.25. 법보전·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 2구 비파괴검사 실시(유양원자)
- 2011.11.28. 지정 검토 소위원회 개최

불교조각 : 김리나, 문명대, 배재호, 손영문, 정은우

고 문 헌 : 남풍현

불 교 사 : 김상현, 남동신

서 예 사 : 송하경, 선주선

목재분석 : 박상진

X-ray분석 : 임남수

※ 결과 : 법보전 불상 안의 묵서명에 대한 육안 확인 후 대적광전 불상과 함께 지정 추진

- 2011.12. 8. 동산분과 6차 회의(소위원회 후 재검토)

- 2012.03.23. 지정 검토 자문회의 개최

자문위원 : 김리나, 최성은, 정은우, 손영문, 김상현

※ 결과 : 묵서명이나 목재 분석 등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양식이 명확함.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 2구는 그 예가 희귀한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목불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가치가 충분함.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문화재청에서 종전에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불복(佛腹)에서 수습한 전적 문화재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유지되어 왔다. 초기에는 유형의 구분 없이 전체를 일괄로 지정해온 경우이다. 그러나 복장된 유물의 전체가 불상 조성시기에 간행 또는 인출된 서적만을 입장(入藏)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인출하여 별도로 유전되어 오던 전적을 후일 불상 조성 시, 또는 개금(改金) 시에 넣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일괄 지정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전적의 가치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이런 때문에 근년에는 독자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는 전적류에 한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하고, 관리하여 왔다.

해인사 대적광전과 범보전의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2005년도에 수습한 전적류도 종전에 문화재 지정에서 적용해온 이러한 원칙 위에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여부의 검토에 있어서 도서(圖書)의 완전성(完整性)과 대표성(代表性)이 심각히 훼손된 경우(특히 낱장이나 일부만 잔존하는 도서나 사경, 다수의 복본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완전본)와 여타 불복장물(佛腹藏物)과 함께 지정하는 것이 보존이나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특히 낱장이거나 다수가 결장된 다라니와 발원문)는 전적류로 별도 지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의 표에 열거한 도서들은 전본(傳本)이 극히 희귀한 고려시대의 전적으로서, 한국의 도서판본학과 도서교류사 및 불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복장 전적 중 국가문화재 지정대상 목록>

순번	명칭	수량	관종	연대	크기	비고
1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 51~57(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51~57)	1책	목판	12세기	30.2×18.5cm	권51~57의 잔본 1책. 호접장(蝴蝶裝). 거란(契丹)본 계통의 번각본으로 추정됨.
2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권10(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卷10)	1책	목판	12세기	30.2×18.7cm	권1~10의 잔본 1책으로 호접장(蝴蝶裝). 거란(契丹)본 계통의 번각본으로 추정됨.
3	금광명경 권3(金光明經 卷3)	1축	목판	12세기	29×57.2cm (장 크기)	담무참(曇無讖, 북경[北涼])의 번역본으로 권자본.
4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	1첩	목판	12세기	26×11.6cm	정해(丁亥, ?)년 9월에 쓴 묵서지기(墨書識記) 있음.

5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축	목판	12세기	26.6×49.5cm, (장 크기)	권수에 변상도가 있으나 앞부분이 결락(缺落).
6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彫本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30축	목판	12~13세기	26.9×46.8cm. (장 크기)	초조대장경. 52축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훼손이 없는 판본만을 선정하여 지정. 유물번호 : 대7의 1~7(7축), 11~13(3축), 17, 21, 23, 24, 27, 28, 31, 33~38(6축), 42~44(3축), 46~49(4축) 총30축. <유물번호는 『해인사 대적광전 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조사보고서』(해인사,문화재청,2008. 제82~88면 복장유물목록 참조)>
7	백지묵서사경(白紙墨書寫經)	1축	필서(筆書)	12~13세기	14×324.4cm	앞부분이 결락됨. 중반부 이하는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의 초기(抄記).
8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最上乘無生戒法)	1첩	필서(筆書)	1326년 (고려 충숙왕 13)	8.3×6.4cm	1326년 사성기(寫成記)가 기록된 감지에 금니로 필서. 변상도가 있고 절첩본. 수진본(袖珍本).
소계 8종 37건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1~57과 정원본 권1~10 『금광명경』 권3, 『반야바라밀다심경』,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30축, 『백지묵서사경』 및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 등의 8종 37점은 고려 중기에서 조선 전기에 간행 또는 사성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는 유일본, 희귀본, 귀중본이므로 불교사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호접장은 불과 몇 종 안 되는 장정의 형태로서 희소성이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대적광전의 복장 전적은 화엄경, 금광명경, 약사경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로 12~13세기에 목판으로 간행된 자료이다. 화엄경은 소자본으로 거란본(34자본)을 복각한 것으로 보이며, 호접장 형태로 장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자료는 전래본이 매우 희귀한 실정이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불완전한 상태이다. 금광명경은 기림사와 동학사 복장본에도 들어 있으나, 판수제 표시 방식이

다른 것으로 보아 동일본이 아닌 다른 판본으로 판단된다.

약사경은 초조본과 사간본이 모두 발견되었다. 이 중 사간본은 권수 변상도 일부가 남아 있고, 자체도 구양순체로 매우 해정하고 능름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판본으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유일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복장유물에는 소형 사경이 1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경은 경문을 감지에 금물로 쓰고 권수에 금니변상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1326년(태정 3)의 사성(寫成) 연대가 기재되어 있어 사경의 제작 시기와 조성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그 외의 전적은 대부분 1~2장의 분량으로 문화재로서는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복장유물은 해당 불상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일괄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류문화재의 경우는 자료적 가치에 따라 복장전적만을 독립적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별건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해인사 복장유물 가운데 전적만은 자료적 가치나 의미가 별건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특히 소자법화경이나 약사경, 금광명경, 감지금니사경 등은 유일하거나 매우 희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적광전 지정대상 전적(8점) 목록>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특징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1~57 (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51~57)	1책 (56장)	목판본	12세기	호접장본(蝴蝶裝本), 극귀중본(極貴重本)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권10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卷10)	1책 (66장)	목판본	12세기	호접장본(蝴蝶裝本), 극귀중본(極貴重本)
금광명경 권3(金光明經 卷3)	1축 (17장)	목판본	12세기	권자본(卷子本), 유일본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	1첩 (2장)	목판본	12~13세기	절첩장본(折帖裝本), 유일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축 (15장)	목판본	12세기	유일본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30축	목판본	12세기	권자본(卷子本). 희귀사례
아미타경통찬소(阿彌陀經通贊疏)	1축 (9장)	필사본	12~13세기	권자본(卷子本), 교장(敎藏, 학술적 가치 높음)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사경 (紺紙金泥文殊最上乘無生戒法寫經)	1첩	필사본	1326년	호접장본(蝴蝶裝本), 유일본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서 수습된 전적류 지정대상 목록은 유형별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복장전적 목록

순번	명칭	수량	관종	연대	크기	비고
1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 51~57(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51~57)	1책	목판	12세기	30.2×18.5cm	권51~57의 잔본 1책. 호접장(蝴蝶裝). 거란(契丹)본 계통의 번각본으로 추정됨.
2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권10(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卷10)	1책	목판	12세기	30.2×18.7cm	권1~10의 잔본 1책으로 호접장(蝴蝶裝). 거란(契丹)본 계통의 번각본으로 추정됨.
3	금광명경 권3(金光明經 卷3)	1축	목판	12세기	29×57.2cm (장 크기)	담무참(曇無讖, 북경[北涼]의 번역본으로 권자본.
4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	1첩	목판	12세기	26×11.6cm	정해(丁亥, ?)년 9월에 쓴 묵서지기(墨書識記) 있음.
5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축	목판	12세기	26.6×49.5cm, (장 크기)	권수에 변상도가 있으나 앞부분이 결락(缺落).
6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彫本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30축	목판	12~13세기	26.9×46.8cm (장 크기)	초조대장경. 52축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훼손이 없는 판본만을 선정하여 지정. 유물번호 : 대7의 1~7(7축), 11~13(3축), 17, 21, 23, 24, 27, 28, 31, 33~38(6축), 42~44(3축), 46~49(4축) 총30축. <유물번호는 『해인사 대적광전 범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조사보고서』(해인사,문화재청,2008. 제82~88면 복장유물목록 참조)>
7	백지묵서사경(白紙墨書寫經)	1축	필서(筆書)	12~13세기	14×324.4cm	앞부분이 결락됨. 중반부 이하는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의 초기(抄記).
8	감지금니문수취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取上乘無生戒法)	1첩	필서(筆書)	1326년 (고려 충숙왕 13)	8.3×6.4cm	1326년 사성기(寫成記)가 기록된 감지에 금니로 필서. 변상도가 있고 절첩본. 수진본(袖珍本).
소계 8종 37건						

○ 내용 및 특징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한 줄에 34자가 배자된 소자본(小字本)으로 거란본(契丹本) 계열의 판본을 저본으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희귀한 책이다. 다음으로 『금광명경(金光明經)』도 전본(傳本)이 많지 않은 희귀본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은 결락이 없는 완전한 판으로 권말제(卷末題) 다음에 “특위친부무병장생지원 인성 정해구월일 제자국자학생사유직지”(特爲親父無病長生之願 印成 丁亥九月日 弟子國子學生史柔直 誌, 특별히 친부의 무병장생을 기원하여 <이 경을> 인출한다. 정해년 9월 모일에 불제자 국자감 학생 사유직은 쓴다.) 라는 지기(識記)의 묵서(墨書)가 있다. 이 지문은 범보전 소재 비로자나불의 불복에서 수습된 같은 반야심경(般若心經)의 권말제 다음에 “복위선백부상서공부시랑사위 왕생서방견불문법지원 인성 시정해구월일 봉삼보제자국자진사사겸광지”(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郎史禕 往生西方見佛聞法之願 印成 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 삼가 돌아가신 백부이신 상서공부시랑 사위가 西方(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불법을 듣게 되기를 기원하여 <이 경을> 인출한다. 때는 정해년 9월 모일이다. 삼보(三寶)를 받드는 제자(佛弟子)이며 국자감 진사인 사겸광은 쓴다.) 라는 주필(朱筆)로 쓴 지문과 함께, 이 두 비로자나불의 복장에 갈무리된 유물과 그 시기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된다. 지문에 보이는 사위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경력을 지낸 인물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공유(文公裕: ? ~ 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史偉, 검교태자대보 승무낭항시상서공부시랑[檢校太子大保 承務郎 行試尙書工部侍郎]을 역임)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다면 이 지문은 1159년과 가까운 정해년인 1167년(고려의종 21)으로 추정되고, 이 반야심경은 12세기에 판각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복장 유물의 시대를 추정할 때에도 이 지문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은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에 수록된 판(版)과는 달리 함차(函次)표시는 없고, 권수에 변상도가 있는 사간판으로 매우 희귀 판본에 속한다.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처음 알려진 귀중한 판본으로 52축이나 되는 다량이 수습되었다. 다만 불복장용(佛腹藏用)으로 인출한 때문인지, 인출 시의 결락과 낙장이 있는 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백지묵서사경(白紙墨書寫經, 연번 9)은 앞부분의 결락이 있다. 중간에서 후반부에 걸쳐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가 필서되어 있다. 내용을 규기(窺基)의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와 대조해 보면, 규기의 소를 초기(抄記)한 것으로 추정된

다. 특히 본문에서 “소아미타경소 서경현법사 행진법사 조(小阿彌陀經疏 西京玄法寺 行眞法師 造)”라고 밝히고 있어서 본 소의 저자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경이다. 그러나 일반 사경과는 달리 초서(草書)로 쓰여 있는 점에서 누군가 참고용으로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最上乘無生戒法)』(연번 10)은 인도 출신 승려로 중국을 거쳐 고려에 입국한 지공(指空)이, 자신이 번역한 『문수최상승무생계경(文殊最上乘無生戒經)』의 내용을 바탕으로 1326년(고려 충숙왕 13)에 지켜야할 계율의 내용을 제자 각경(覺慶)에게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써서 준 계첩(戒牒)이다. 받은 이의 이름을 붙여 각경계첩(覺慶戒牒)이라고도 한다. 현전하는 고려시대의 계첩은 몇 건에 불과하다. 절첩장이다.

○ 문헌자료

- 한국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 「海東高麗國檢校太子大保中大夫知門下省事刑部尙書致仕文公墓誌」, 檢校太子大保承務郎行試尙書工部侍郎知制誥賜紫金魚袋史偉撰.
- 이연숙, 「해인사 복장유물에서 나온 아미타경소 사본의 성격」, 『불교학리뷰』 8호(금강대불교문화연구소,2010) PP.295-311. 참조.
- 해인사·문화재청, 『해인사 대적광전 범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조사보고서』, 2008.

□ 문화재전문위원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목록>

순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 1~57(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51~57)	1책	목판본	12세기	30.2×18.5cm	60화엄본인 진본(晉本) 권51~57의 잔본 1책으로 호접장본(蝴蝶裝本)임.
2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권 10(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卷10)	1책	목판본	12세기	30.2×18.7cm	40화엄본인 정원본(貞元本) 권1~10의 잔본 1책으로 호접장본(蝴蝶裝本)임.
3	금광명경 권3(金光明經 卷3)	1축	목판본	12세기	29×57.2cm (장 크기)	담무참(曇無讖[북경北涼])의 한역본. 卷子本(卷子本).

4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	1첩	목판본	12세기	26×11.6cm	정해(丁亥)(?)년에 史柔直(史柔直)이 쓴 묵서지기(墨書識記) 있음.
5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축	목판본	12세기	26.6×49.5cm, (장 크기)	권수에 변상도가 있으며 전반 일부 결락(缺落)됨. 권자본(卷子本). 사간본(寺刊本).
6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30축	목판본	12세기	26.9×46.8cm. (장 크기)	초조대장경. 권자본(卷子本). 유물번호 : 대7의 1~7(7축), 11~13(3축), 17, 21, 23, 24, 27, 28, 31, 33~38(6축), 42~44(3축), 46~49(4축) 총30축.
7	백지묵서사경(白紙墨書寫經)	1축	필사본	12~13세기	14×324.4cm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이며 전반부 결락됨.
8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取上乘無生戒法)	1첩	필사본	1336년고려 충숙왕 13	8.3 × 6.4cm	사성기(寫成記):1326년(고려 충숙왕 13). 변상도 있음. 소형(小形)의 절첩본(折帖本).

1.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1~57(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51~57)

이 『대방광불화엄경』은 동진(東晉)의 불타발다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60화엄본인 진본 권51~57의 잔본 1책(56장)이다. 이 책 크기는 30.2×18.5cm로 호접장본(蝴蝶裝本)이다.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郭) 24.5×15.8cm, 무계(無界)이며, 소자본(小字本)으로 한 면에 17행(行) 34자(字) 기준으로 대체로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다. 판심에는 ‘진(晉)’, 권차(卷次), 장차(張次) 순으로 되어 있다. 권 51~56은 본문이 완전한데 권 제57 마지막 부분인 3장 좌측 부분은 일부 훼손되었다. 표지는 없고 상태는 일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 책은 12세기 경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몇 종 안 되는 호접장으로서 장정의 형태 뿐만 아니라 지질도 희고 우수하며 인쇄상태도 깨끗한 귀중본(貴重本)으로서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2.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10(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10)

이 『대방광불화엄경』은 반야(般若)가 번역한 40화엄본인 정원본(貞元本) 권 1~10의 잔본 1책(67장)이다. 크기는 30.2×18.7cm이며 호접장본(蝴蝶裝本)이다.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郭) 23.9×15.6cm, 무계(無界)이며, 한 면에 17행 34자 기준으로 대체로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다. 판심에는 정, 권차, 장차(貞, 卷次, 張次)가 있고 권수제 다음 행에는 역자가 표시되어 있다.

내용은 「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으로 되어 있다.

12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되며 호접장본으로 현재 전해지는 몇 종 안 되는 장정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판각이나 인쇄상태가 양호한 귀중본으로서 서지학 연구에 가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금광명경 권3(金光明經 卷3)

이 『금광명경』은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19품 전4권 가운데 권3에 해당되며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과 더불어 호국신앙의 중요한 경전으로 받아들여져 금광명경도량이나 금광명법회의 소의경전(所衣經典)이 되었다.

권두에는 ‘금광명경 권제삼(金光明經 卷第三)’의 권수제에 이어 ‘북량삼장법사 담무참 역(北涼三藏法師 曇無讖 譯)’의 번역자가 있다. 본문은 ‘금광명경지귀신품 제십(金光明經脂鬼神品第十)’으로 경명과 내용 품차를 이어서 1행으로 표기하였다. 내용은 「귀신품」(鬼神品, 10품), 「정론품」(正論品, 11품), 「선집품」(善集品, 12품), 「귀신품」(鬼神品, 13품), 「수기품」(授記品, 14품), 「제병품」(除病品, 15품)으로 되어 있다. 1장의 크기는 29×57.2cm이며, 상하간 21.9~22.2cm, 무계이며, 전엽은 25행 17자이다. 판수에는 ‘금삼(金三)’과 장차(張次)가 ‘십칠(十七)’까지 표시되어 있어 전체가 17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단부가 일부 훼손되었고 인쇄도 흐리게 된 부분도 많고 마지막 장인 17장은 인출 시 위 변란이 잘려 인쇄가 되었다. 지질도 얇은 종이로부터 두꺼운 저지(楮紙)에 이르는 여러 종류로 나타나며 권자본 형태이나 앞·뒤에 축이 없어 복장용으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본은 12세기에 간행된 사간본(寺刊本)으로 추정된다. 귀중본에 속하며 불교사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4.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이 자료는 현장법사가 번역한 반야심경으로 전체 4면이 절첩장 형식으로 되었다. 크기는 26×11.6cm이며, 판식은 상하간 19.7cm, 무계이며, 1면 6행 16자, 2~4면은 5행 16자로 되어 있다. 표지의 제첩은 10.5×3.3cm의 크기에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이라 먹으로 쓰여 있고 제첩 밑에 종이끈이 있는데 길이는 22.7cm, 폭은 1cm 정도로서 붉은색 나는 저지(楮紙)이다.

권미제(卷尾題) 아래에는 ‘특위친부무병장생지원 인성 정해구월일 제자국자학생 사유직(特爲親父無病長生之願 印成 丁亥九月日 弟子國子學生史柔直)’이라 묵서(墨書)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국자학생 사유직이 정해(?) 9월에 부친의 무명장수를 기원하며 이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을 인출한다고 쓴 내용이다. 법보전에서든 같은 판본이 수습되었는데 복장 납입의 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

라 생각된다. 종이 색은 누렇게 인쇄상태는 먹색이 고르지 않아 뭉쳐있어 깨끗하지 못하며, 구김이 심한 것을 보면 복장용으로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 판본은 12~13세기로 추정되며, 희귀본으로서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5.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이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현장(玄奘)이 번역한 경전으로 『약사경(藥師經)』으로 약칭한다. 모든 사람의 신체 건강과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모든 재난을 없애 주어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두에는 변상도가 있는데 앞부분 일부는 결락되었으며, 1장의 크기는 26.6×49.5cm로 15장이 연결되었다. 판식은 상하단변에 상하간 22.2cm, 무계(無界)이며, 전엽(全葉)의 행자수(行字數)는 1장은 23행 15자, 2장~15장은 24행 15자로 되어 있고 판수제는 ‘약사경(藥師經)’, 장차는 제일장(第一張)~제십오장(第十五張)으로 되었다. 권미제 끝에 진언이 있으며, 축 없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이 판본은 12~13세기에 간행된 사간본(寺刊本)으로 추정된다. 희귀본에 속하며, 불교학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6.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이 자료는 삼장법사 현장(三藏法師 玄奘)이 번역한 『약사경』으로 초조대장경이다. 1장(張)의 크기는 26.9×46.8cm, 상하단변에 상하간 22.2cm, 무계이며, 권수제 아래에 ‘공(恭)’의 함차(函次) 표시가 있으며 판심에는 ‘약사본원공덕경(藥師本願功德經)’에 이어 장차(丈次), 함차(函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권미제 없이 장차(丈次)는 16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장에 수록된 본문의 행수(行數)와 각 행(行)의 자수(字數)는 첫 장은 23행 14자, 그 이하 장은 24행 14자로 되어 있다. 초조본의 장차표시인 ‘장(丈)’이 15장에서는 ‘장(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4장(丈) 7행(行) 13자(字)는 송태조 조부(宋太祖 祖父)의 휘(諱)인 ‘경(竟)’의 자(字) 마지막 획이 탈락되어 피휘결획(避諱缺劃)한 것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앞에는 표죽(標竹), 뒤에는 축을 달아 권자본 형식으로 장정을 갖추는데 해인사본은 장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장용으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修道)’라는 목서가 방향을 바꾸어 본문과는 거꾸로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수도(修道)’는 시주자명으로 보인다. 인쇄도 흐리게 된 것도 많고 인출 시 위 아래 변란이 인쇄가 안된 부분도 있으며, 지질도 얇은 종이로부터 두꺼운 저지(楮紙)에 이르는 여러 종류로 나타나 혼용하여 연결하였다. 12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서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약사경』은 52축이 대량으로 수습되었는데 일부 결락이 있거나 훼손되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완전본은 판본을 선별하여 총 30축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한다. 조사 시 유물번호 대-7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의 일련번호 1~7, 11~13, 17, 21, 23, 24, 27, 28, 31, 33~38, 42~44, 46~49번 등이다. (2008년에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해인사·문화재청, 2008. pp. 84~89.에 수록되어 있음.)

7. 백지묵서사경(白紙墨書寫經)

이 자료는 백지에 묵서로 필서되었는데 전반부의 결락(缺落)으로 권수제는 알 수 없고 중·후반부에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가 필서되어 있어 규기(窺基, 632~682)의 撰으로 되어 있는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와 비교한 결과 규기의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를 초기(抄記)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에는 “소아미타소서경현법사행진 법사 조(小阿彌陀疏 西京玄法寺行眞 法師 造)”라고 규기와 다른 행진(行眞)의 저자명이 기술되어 있어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기록으로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의 저자와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 된다. 남아있는 첫 장은 14×42.9cm, 2장부터 9장까지는 14×281.5cm로 모두 9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장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두루마리 형태이다. 무계(無界)이며,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글씨체 또한 초서로 쓰여져 있어 일반적인 사경과는 다른 형태라 경전의 사본으로 추정되며 필사 시기도 12~13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8. 감지금니문수취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最上乘無生戒法)

- 시 대 : 1326년(고려 충숙왕 13)
- 판 종 : 필사(사경)
- 수 량 : 1첩
- 규 격 : 8.3 × 6.4cm
- 재 질 : 감지(紺紙)
- 장 정 : 절첩본(折帖本)
- 서지사항

감지금니문수취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最上乘無生戒法),

지공 역(指空 譯). 필사본(筆寫本), 1326년(고려 충숙왕 13)

1첩, 변상도(7.2×12.5cm). 상하간 7.2cm, 유계(有界), 금사란(金絲欄), 1절(折) 6행(行), 1행(行) 10~12자(字).

감지(紺紙). 절첩본(折帖本).

권말 : 皇帝聖壽萬歲

太子諸王壽筭千秋

皇后皇妃金枝永茂
國王殿下福壽無疆文武
官僚高遷祿位天下太平
風調雨順國泰民安

佛日增輝

法輪常轉者

泰定三年八月日

受持弟子覺慶

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 戒法西天禪師 指空

○ 내용 및 특징

이 『문수최상승무생계법(文殊最上乘無生戒法)』은 1326년(고려 충숙왕 13)에 지공(指空)선사가 한역한 『문수최상승무생계경(文殊最上乘無生戒經)』에서 『무생계법(無生戒法)』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감지에 금자로 쓴 사경이다. 표지는 금은니(金銀泥)의 보상화문으로 장식된 8.2×6.3cm의 소형 절첩장본이다. 매장 6행이며 1행에 11~12자로서 필사되었으며, 첫 면에는 2면의 변상도(7.2×12.5cm)가 있고 이어 본문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무생계(無生戒)의 실천 지침서 내용을 실고 있다. 서문, 사귀의(四歸依), 육대서원(六大誓願), 최상승무생계(最上乘無生戒), 원문(願文)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에 이어 ‘태정삼년팔월일 수지제자각경(泰定三年八月日 受持弟子覺慶)’이라 적고 다시 ‘여래유교제자전수일승계법서천선사 지공(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 指空)’과 함께 범서(梵書)의 수결(手決)이 있다. 다음 장에도 연이어서 금자(金字)의 인장 형태가 있고 다시 금자(金字)의 범서(梵書)가 이어져 있다. 이 가운데 ‘여래유교제자전수일승계법서천선사(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와 ‘수지제자각경(受持弟子覺慶)’ 및 ‘지공(指空)’은 본문의 서체와는 다르다. 원문에 있는 ‘무(武)’는 마지막 획이 결획되어 고려본에 나타나는 피휘결획이다. 완전본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계첩을 넣었던 비단주머니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사경은 발원문 끝에 여래의 유교제자 서천대사 지공의 일승계법을 전수하고자 이 경을 받아 지닌 제자 각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지공스님이 고려에 머문 동안 당시 각경이 직접 지공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경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며 불교사·서지학 및 불교미술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 문헌자료

- 장충식, 「海印寺 金字無生界法과 義相의 一乘發願文」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 허홍식, 「14세기 海印寺 비로자나불 복장과 覺慶戒牒의 奉安 背景」,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 해인사,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2008.
- 서병패, 손영문, 박윤미,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 보고서』, 해인사, 2008.
- 이연숙, 「해인사 복장유물에서 나온 아미타경소 사본의 성격」, 『불교학리뷰』 제8집,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0.

○ 기 타

해인사 대적광전에 봉안되었던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에서 1992년에 개금불사 때 수습되어 해인사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 관계전문가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의 형태·서지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전적목록>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cm)	비고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1~57 (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51~57)	1책 (56장)	목판본	12세기	30.2×18.5	잔본 1책, 요본복각(遼本覆刻), 호접장본(蝴蝶裝本).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권10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卷10)	1책 (66장)	목판본	12세기	30.2×18.7	잔본 1책, 요본복각(遼本覆刻), 호접장본(蝴蝶裝本).
금광명경 권3(金光明經 卷3)	1축 (17장)	목판본	12세기	29×57.2	권자본(卷子本). 사간본(寺刊本). 유일본.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	1첩 (2장)	목판본	12~13세기	26×11.6	정해丁亥(?)年 9월에 사유직(史柔直)이 쓴 묵서지기(墨書識記) 있음.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축 (15장)	목판본	12세기	26.6×49.5	유일본, 권수에 변상도가 있으며 그 일부가 결락(缺落).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52축	목판본	12세기	26.9×46.8	1축 16장.
아미타경 통찬소(阿彌陀經通贊疏)	1축 (9장)	필사본	12~13세기	14×324.4	전반 일부 결락됨.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사경(紺紙金泥文殊最上乘無生戒法寫經)	1첩	필사본	1326년	8.3 × 6.4	절첩본(折帖本). 권수 변상도(卷首 變相圖), 사성기(寫成記. 충숙왕13년).

상기한 전적류 중 온전한 8종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별건으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2-05-005

5. 국보 제207호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慶州 天馬塚 障泥 天馬圖)’ 보존처리

가. 심의사항

국보 제207호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의 접합 및 보관 상태 개선 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부터 국보 제207호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현상변경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국보 제207호
- 명 칭 :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 1건 2점(현상변경 대상은 1점)
- 규 격 : 53×75cm
- 재 질 : 자작나무 껍질
- 제작연대 : 신라(5~6세기)

라. 현 상태

- 발굴 당시 2장이 겹쳐져 발견되었으며 상부에서 발견된 1점은 처리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고, 하부에서 발견된 1점은 처리되었음.
 - 기처리된 1점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리되었으며 이후 특이사항 없음
 - 처리되지 않은 1점(현상변경 대상)
 - 발굴 당시 수습된 상태대로 보관되어 있음.
 - 스폰지에 받쳐져 있으며 발굴 당시의 상황 그대로 여러 조각으로 떨어져 있음.
 - 이동시 흔들림에 의해서 균열이 심화될 우려가 높음.
 - 장니 아래를 받치고 있는 스폰지의 노화로 장니의 오염 가능성 있음.



현상변경 대상 현황사진

마. 현상변경 허가 부분

- 처리된 1점은 상태가 양호하므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
- 미처리된 1점의 표면 이물질제거, 균열 및 떨어진 조각의 집합
- 스폰지 제거 및 받침판 교체

바. 보존처리 계획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리 시 사용한 방법을 준용하여 국립경주박물관 보존처리담당 학예연구사가 처리함.
- 처리방법
 - 표면이물질 제거: 붓, 소도구 등을 사용하여 건식세척 실시
 - 균열 및 떨어진 조각의 접합: HPC(Hydroxy Propyl Cellulose)를 사용하여 조각을 접합하고, 얇은 닥지로 뒷면에서 부분적으로 보강
 - 받침판 제작: 장니의 굴곡면에 맞추어 받침판을 제작하여 교체
 - 처리예상기간 : 1년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보존처리 자문단 구성 및 세부계획 제출

6. 보물 제904호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古代그리스靑銅冑)’ 보존처리

가. 심의사항

보물 제904호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의 재접합, 보강, 안정화처리 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보물 제904호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의 현상변경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904호
- 명 칭 :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22cm, 가로 18.7cm, 세로 27cm, 중량 1,182.5g
- 재 질 : 청동
- 제작연대 : 기원전 6세기경

라. 현 상태

- 국립중앙박물관 기증문화재실에 전시 중이었음.
- 투구의 여러 부분이 접합 및 복원된 상태임.

- 코가리개의 상단 접합 부위 접착제의 열화로 균열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처진 상태임.
- 청동병이 일부 영역에 존재함.



접합 부위의 균열



접합 부위의 균열 확대

마. 현상변경 내용

- 재접합, 보강, 안정화 처리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접합된 부위, 바탕 금속에 대한 X-선 촬영 및 현미경 관찰 등의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
- 코가리개 분리
 -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균열이 발생한 코가리개의 접합 부위를 손상 없이 분리.
- 방청 처리 및 보호 코팅
 - 청동병이 발생했거나 취약한 부위는 방청제를 도포하고 코팅하거나 방청제를 포함한 코팅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코팅.
- 코가리개 접합 및 강화

- 분리한 코가리개를 접착제로 접합하고, 뒷면에 보강판을 덧대어 보강. 접합 부위를 유리 섬유 등을 이용하여 강화하고, 접합 부위와 보강 부위는 원래의 유물과 조화를 이루게 색맞춤.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담당 학예연구사(기술자 제630호)가 처리함.
- 보존처리 기간 : 약 3개월

마. 의결사항

- 보존처리 허가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2-05-007

1. 계미명 동종(癸未銘 銅鍾)

가. 검토사항

“계미명 동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계미명 동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10.0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2.07.2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계미명 동종(癸未銘 銅鍾)
- 소유자(관리자) : 우학문화재단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75.0cm, 입지름 44.5cm
- 재 질 : 청동

○ 제작연대 : 고려 1223년(고려 고종 10)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계미명종은 그 크기가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고려 후기의 중요한 편년자료로서 새겨진 명문의 내용을 통해 1233년에 지금의 안성 부근이 죽주(竹州)의 대혜원용(大惠院用)으로 163근의 중량을 들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좌에 새겨진 범자문은 오어사종에서 처음 등장된 ‘육자광명진언(六字光明眞言)’ 중에서 한자만을 채택해 당좌 문양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당좌의 범자문은 결국 무술명종(戊戌銘鐘)이나 정풍2년명종(正豐2年銘鐘)과 같이 하대(上帶)와 연곽(蓮廓)의 일부로까지 문양화 되는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특히 용뉴의 활달한 조각과 보살상의 모습 등 1216년에 제작된 오어사종과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 고려 13세기 범종의 변천 양상을 밝혀주는 고려 범종의 수작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위원감정위원 (지정 가치 있음)

계미명 동종은 전체적으로 청녹이 있고 용의 왼쪽 다리가 결실되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이 종은 고려 후기 종으로는 규모가 꽤 큰 편에 속하며, 전통적인 신라종 양식을 계승하면서 입상화문대나 보살좌상, 원문범자 등 고려 후기 종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공예사적 의의가 있다. 또한 종신에는 주성년대와 봉안처를 알려주는 명문이 있어 자료적 가치도 클 뿐 아니라 [Ω]식의 종유는 뛰어난 주조기술로 제작되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종은 신라종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종의 어깨에서 종복(鍾腹)까지 조금씩 배를 불리며 내려오다가 종의 입까지 거의 변화 없이 마무리한 단아하고 균형 잡힌 형태미를 보인다. 세밀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용뉴와 율동적인 꽃 넝쿨무늬로 장엄한 상·하대, 그리고 범자를 새겨 넣은 장식적인 연화당좌 등 세부의장도 우수한 편이다.

특히 완전히 독립된 입상화문대, 입술을 천판에서 떨어뜨린 용(龍)과 투각된 여의주, 역L 형태로 무릎을 꿇고 합장 비행하는 비천의 모습 등은 포항 오어사 동종(1216년, 보물 제1280호)이나 부안 내소사 동종(1233년, 보물 제277호),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정우 13년명 동종(貞祐13年銘 銅鐘, 1225년), 탑산사명 동종(1233년, 보물 제88호) 등 13세기

전반기의 종들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종의 제작시기인 ‘계미년(癸未年)’은 13세기 전반기의 계미년(1223년, 고종 10)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시기 범종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물론 연곽대나 경직된 비천의 표현 등에서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아쉬우나, 13세기 범종의 중요한 사례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1) 양식적 특징

계미명종은 총고가 73.4cm로서 고려 후기 종 가운데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전면에 약간의 녹이 덮혀 있지만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종신은 위가 좁고 아래로 가면서 불룩해지다가 배부분 [鐘復]에서 종구(鐘口)까지 직선화 되는 고려 후기적인 요소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용뉴 부분에는 푸른 녹이 전면에 두텁게 덮여 있고 입상화문대와 상대의 일부에는 형지(型持) 부분의 산화로 보이는 철녹이 군데군데 보인다. 종신의 전면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흠이 남아있고 전면이 거칠게 다듬어져 있어 처음부터 종신 표면의 마무리를 잘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용뉴를 중심으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천판의 양쪽에는 주입구(注入口)과 주출구(注出口)로 보이는 기다란 주물자국이 도드라지게 남아있다.

한마리의 단룡(單龍)으로 구성된 한국 범종의 기본적인 용뉴로 구성되었고 용두는 그 입을 천판상(天板上)에서 떨어뜨려 앞을 바라보고 있어 천판과 연결되던 입안의 여의주가 밖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용뉴의 표현은 1010년에 제작된 천흥사종에서 처음 등장되는 고려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지만 11세기 보다는 12세기를 지난 시기의 범종에서 널리 나타나는 양식이다. S자형으로 힘차게 굴곡진 용뉴는 매우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용의 윗입술이 위로 높게 들려 있고 머리 위로는 앞, 뒤로 뻗은 뿔이 표현되었다. 벌려진 입가에는 긴 수염과 목 위로는 불꽃처럼 섬세하게 표현된 갈기가 장식되었다. 특히 용 입안에 물려진 투각 장식된 여의주는 1216년에 제작된 정우(貞祐) 4년 오어사종(吾魚寺鐘)의 여의주 표현과

매우 흡사하여 주목된다.

가늘고 긴 음통은 5마디로 나뉘어져 아래 2단에는 앙복련(仰伏蓮)을, 위의 3단에는 여의두형의 화문을 부조하였고 가장 윗 단 위로는 작은 구슬이 여러개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1~2개 정도만이 남아 있다. 음통 위로 부착되는 보주는 연천(漣川) 출토의 소종(小鐘)을 포함한 1233년의 내소사종과 같은 13세기 전반에 널리 유행되던 표현의 하나이다. 음통 좌우로는 용의 양 다리 사이에서 뻗어 나온 불꽃 모양의焰翼(焰翼)이라는 장식이 음통에서 별도로 떨어져 높게 돌출되어 있으며 오른쪽 발은 뒤로 뻗친 채 천판 위에서 떨어져 4개의 발톱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왼쪽 발의 모습은 전체가 절단되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천판 외연을 돌아가며 상대 위로는 약간 외반된 듯한 입상화문대(立狀花文帶)가 돌출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여러 겹으로 중첩된 연화문으로 장식하였다. 일반적인 범종과 달리 서로 다른 문양으로 장식된 상, 하대 가운데 폭이 좁은 상대에는 도식적인 모습의 국당초문을 시문하였고 이보다 넓게 표현된 하대에는 매우 유려한 모습의 연당초문을 장식하였다.

상대 아래 바로 붙은 4개의 연곽은 그 모양이 조금은 부정확하고 크기가 조금씩 틀린 점을 볼 수 있다. 폭이 좁은 연곽대에는 상, 하대와 또 달리 뇌문을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뇌문 역시 고려 후기 범종에서 널리 사용된 문양의 하나이다. 연곽 안으로는 연판으로 이루어진 화문좌 위에 높게 돌출된 9개씩의 연꽃봉우리장식 [蓮蕾] 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 높낮이가 일정치 않고 형태도 불규칙하지만 연꽃의 도드라진 부분을 충실히 표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종에는 연곽과 연곽 사이에 해당되는 종신의 아래 부분에는 구름 위에 무릎 꿇은 궤좌형(跪座形)의 보살좌상을 앞, 뒤로 부조하고 그와 번갈아 가며 마치 당좌처럼 만들어진 원형의 범자문을 앞, 뒷면에 장식하고 있음이 매우 이색적이다. 앞, 뒷면에 장식된 단독의 보살상은 몸을 약간 옆으로 돌려 측면관을 취한 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한 자세를 취하였다. 머리 위에는 높은 삼산 보관을 쓰고 있으며 벗은 상체에는 목걸이와 배 앞에는 띠 매듭이 장식되었으며 무릎 꿇은 채 뒤로 뻗은 두 다리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다리 아래로 표현된 구름은 도식적이며 양 어깨 위에서 솟아오른 두 가닥의 천의 자락은 굴곡을 이루었지만 그 폭이 너무 두텁게 표현되어 경직되면서도 둔중한 느낌을 준다

하대에서 약간 위로 올라 온 곳에 배치된 2개의 원형 당좌는 앞, 뒷면 동일한 모습으로서 바깥 원권 주위를 23엽의 연판으로 장식하였고 원권 테두리에는 뇌문을 돌렸다. 당좌의 내구에는 子房의 표현이 없이 도두라진 한 글자의 범자문을 양각하였는데, 확실한 자획은 분명치 않지만 육자광명진언(六字光明眞言)²⁰⁾ 가운

20) ‘ ’

데 마지막 글자인 ‘흠’자로 추측된다. 이처럼 당좌에 범자문이 장식된 것은 이 종
이 현재까지 알려진 거의 유일한 예이다. 대부분의 종의 당좌 부분이 연밥이나 무
문 등으로 남겨둔 것에 비하여 종을 치는 자리로서 다소 불편한 양각의 범자문으
로 장식한 것은 고려 후기 종의 경우 4개로 늘어난 당좌의 수효와 마찬가지로 당
좌가 이제 종을 치는 자리로서의 의미보다 장식적인 요소가 더 강조된 점을 느끼
게 한다.

2) 銘文

계미명 종은 종신 한쪽 면 보살상과 당좌 사이에 12행 도합93자의 명문이 음각
되어 있다. 일부의 글자를 제외하고 거의 판독이 가능한 상태로서 그 전문과 주
요한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는 판독불능,(?)는 정황으로 추정되는 글자)

奉佛弟子南瞻部州高麗國
竹州大惠院金鍾造成
特爲
聖窮萬歲國土太平法界
生亡共增菩提之愿
前上戶長同心爲金鍾入重
壹百陸十三斤印
時癸未八月二十八日
安送戶長崔(?)
棟梁道人賢堪
院主大師智成
南日月寺依芙(?)△希素

첫행의 ‘남섬부주(南瞻部州)’는 수미산 사주(四州)²¹⁾ 가운데 남쪽을 가리키며 고
려를 수미산의 남쪽에 위치한 불국토로 해석한 것으로서 고려 불교미술품의 명문
가운데 자주 등장되는 표현이다.

2행의 ‘죽주(竹州) 대혜원(大惠院)’의 죽주는 □□동국여지승람□□ 권 8에 보이는²²⁾

	六字大明呪, 六字大明眞言, 六字陀羅尼					破地獄眞言	
가	眞言陀羅尼	奉先寺鐘					吾魚
寺鐘			13				
21) 須彌山 四州	東勝身州, 南瞻部州, 西牛貨州, 北俱盧州						
22) 竹山縣	陰竹縣	22里	忠清道 鎭川縣	26里		安城	
23里	陽智縣	49里	1 70里	「建置沿革」	高句麗	皆次山郡	新

죽산현(竹山縣)으로 지금의 경기도 안성 부근에 해당된다. 이 책에 의하면 고려 초에 죽주로 고쳐 조선 태종 13년(1413)에 죽산으로 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혜원의 원은 고려시대에 간혹 사찰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륵대원(彌勒大院)과 같이 교통의 요충지에 있으면서 역원(驛院)의 성격을 같이 했던 절을 가리킨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여지승람』 죽산현 역원조에는 ‘태평원(太平院), 보현원(普賢院), 통리원(通梨院)’ 등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혜원은 기록되지 않았다. 같은 행의 ‘金鍾造成’ 가운데 金鍾은 고려시대의 범종의 명문에서 자주 등장되는 종의 공덕을 기리는 미사여구의 하나로 판단되며 □□조선왕조실록□□ 태조 7년조(1398)에 실제로 白金을 넣어 만든 범종의 예를 찾아볼 수 있어 흥미롭다.

4행은 각각 국왕의 만세와 국가의 太平을 기원하였고 6행과 7행, 8행은 고려시대 鄉吏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前의 上戶長이 113근의 중량을 들며 발원한 내용임을 기록하였다. 다시 9행은 범종을 만든 시기를 연호 없이 癸未年 8월 28일로 기록하였는데, 말미의 印자는 고려시대 명문 가운데 자주 볼 수 있는 의미 없는 종결형 접미어이다.

10행에는 당시의 동량이었던 도인 현감(賢堪)과 11행에는 대혜원의 주지를 가리키는 원주대사(院主大師) 지성(智成)을, 그리고 마지막 행에는 남일월사(南日月寺)의 스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일월사는 고려 태조 5년(922)에 창건된 개성 송악산에 있던 절로서²³⁾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월사명을 지닌 대형의 고려시대 청동발우(靑銅鉢盂)²⁴⁾가 1점 소장되어 있다.

3) 편년

이 범종은 입상화문대가 상대 위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우선 앞서 언급한 고려시대의 범종 편년 가운데 후기(13세기 초 ~ 14세기 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겹으로 중첩된 방향의 입상화문대는 내소사종(1222), 연천 출토의 소종만큼 높게 돌출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탑산사종(1233)과 무술명종(1298)의 입상화문대 연판문처럼 각이 진 오각형의 모습이나 도식적 연판보다는 오어사종(1216)의 모양과 유사하다.

용뉴는 그 입을 천판상에서 띠어 앞을 바라보고 있으며 입 안에 여의주가 표현되는 형식과 음통 위에 장식된 작은 보주는 오어사종, 내소사종, 그리고 연천 출

羅 介山 . 高麗 初年 竹州 成宗 團練使 가 穆宗 顯宗 9
 廣州 明宗 2 監務 . 本朝 太宗 13 禮 縣監
 . □□新增東國輿地勝覽□□ 8. 竹山縣(,1969.9)
 23) □□新增東國輿地勝覽□□ 開城府 下 新增 佛宇條
 24) 本館品 7978 鉢盂 1920 11 天池茂太郎
 가
 丙 四月十五日 日月寺金堂大輔處觀音前母鉢盂入重陸斤次知造成中大 爲棟梁下 行依
 孝 鑄成’ 가 丙 年 日月寺 金堂 觀音菩薩 母鉢盂(上鉢盂)

토의 소종과 같은 13세기 전반기의 범종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특히 입안에 물려진 투각 장식된 여의주는 오어사종의 발 위에 올려져 있는 칠보문 장식의 투각 여의주와 동일한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용두의 윗 입술이 높게 위로 돌출되어 있는 점이라던가 용의 목 뒤에 화염처럼 섬세하게 장식된 갈기의 표현 역시 오어사 종의 그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현재 왼쪽 발은 절단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원래는 13세기 범종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 발을 위로 들어 보주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추측된다.

연곽대에 장식된 뇌문은 고려 범종에서 그다지 예를 볼 수 없는 독특한 문양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명문을 가진 예로서는 정풍 2년명 종²⁵⁾이 대표적이다. 이 종에 기록된 명문을 통해 그 제작시기를 1157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입상화문대의 완전한 정착이라던가 천판상에서 얼굴을 띠어 S자형으로 굴곡을 이루며 앞을 바라보는 용뉴의 얼굴 및 왼발 위에 올려진 보주, 음통 위에 둘러진 장식적인 보주의 표현은 13세기를 지난 시기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이 종보다 약 40년 뒤에 만들어진 명창(明昌) 7년명(1197) 범종에 아직까지 입상화문대의 표현이 없다는 점은 이 범종의 제작시기를 13세기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또한 상대에 나타나는 원권(圓圈)의 범자문과 그 여백 부분에는 2단의 뇌문이 장식된 점은 계미명종의 뇌문이나 당좌에 장식된 범자문과 시기적으로 서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계미명종의 당좌에 장식되는 범자문은 이 종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유일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 범종의 당좌는 그 용도를 상실하여 장식적인 의미만이 강조된 점을 느낄 수 있다. 고려시대 범종 가운데 범자문이 장식된 종으로는 정풍 2년명 종과 이 계미명종, 그리고 오어사종 및 무술명종을 들 수 있으며 정풍 2년명종을 13세기 작품으로 본다면 모두 13세기 전반에서 후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특히 1216년에 제작된 오어사종은 종신에 별도의 位牌形 명문곽을 두어 ‘六字光明眞言’을 장식한 점을 볼 수 있어 이러한 범자가 결국 계미명종이나 무술명종처럼 문양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범자문 당좌와 번갈아가며 배치된 궤좌형의 보살상은 구름 위에 몸을 약간 옆으로 돌린채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모습으로서 머리 뒤로 천의를 날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두광이 없거나 천의의 수와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1213년에 제작된 오어사종과 거의 동일한 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계미명종의 제작 시기는 오어사종이 만들어졌

25) 正豐二年,庚戌亂中,汀寺住持比丘宗,於發心
 浮彫菩薩像
 年 太祖 父王 隆 豐
 丁丑年 鄭永鎬,「正豐二年銘小鐘 - 朴秉來氏藏」,『考古美術』2 11 (韓國美術史學會,1961.11),pp.175~176.

던 13세기 전반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정우년간((1213~1216) 이후 몽고의 침입과 항쟁을 거치는 1231년부터 1258년까지의 13세기 중, 후반에는 년호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干支만을 기록한 경우가 많으며 이후 지원(1264~1294) 후반부터 대덕년간(1297~1307)에 이르면서 다시 재개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종이 제작된 계미년을 오어사종이 만들어졌던 1216년 이후에서 찾아본다면 1233년(고종 10년), 또는 이보다 한 갑자 뒤늦은 1283년(충렬왕 9년)이 해당되며 그 중에서 1233년에 더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 문화재감정위원

○ 내용 및 특징

용인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계미명 동종은 높이 75cm, 구경 44.5cm 크기의 중종이며, 전체적으로 푸른 녹이 슬어있으나 구조상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도1) 종신에 음각된 명문에 의하면 1223년에 죽주(경기도 안성 부근) 대혜원종으로 주성된 것이다.²⁶⁾(도2, 3)

형태는 음통이 있는 종뉴 아래 입상화문대가 장식된 불룩한 종신이 연결된 모양인데, 종뉴와 종신의 외형, 상·하대의 위치, [Q]식의 종유는 신라종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입상화문대의 배치는 고려 후기종의 특징이다. 즉 고려시대 전기까지는 한국종의 규범인 신라종의 전통을 계승하여 용주사종·청녕4년명 동종(1058년)·천흥사 동종(1074년)처럼 종복에 비천상과 불·보살상이 배치되었으나, 12세기 중엽이후 내소사종(1222년)과 탑산사종(1233년)처럼 견부에 입상화문대가 장식되고 종신에는 보살상이 배치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종은 현재 알려진 고려종 중 포항 오어사 동종(도4)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을사명 동종(乙巳銘銅鍾)(도5)과 전체적인 형태와 구성, 문양 등에서 매우 유사해 비교된다.

먼저 종뉴를 보면 사조룡(四爪龍)은 이례적으로 전보(錢寶) 모양의 여의주를 물고서 S자 형으로 몸을 구부린 채 서기(瑞氣)로써 음통을 싸고 있다. 비록 왼쪽 다리는 결실되었지만 부리부리한 눈·섬세한 지느러미와 비늘이 표현된 신체나 동세(動勢)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5단으로 구성된 음통은 1, 2단은 복련과 양련이, 3단은 연화문, 4단, 5단은 양련이 고부조(高浮彫) 되었고 그 끝에는 소주(小珠)가 장식되었으나 1개만 남았고 3~4개는 결실되었다.(도6) 특히 전보형 보주는

26) 1984, 1223, 1999, 1223, 癸未銘高麗鍾(附無銘小鍾一口), 《梵鐘》7, 1984, pp.1~6, 癸未銘梵鐘特徵 編年, 《丹豪文化研究》, 1999, pp.7~33.

오어사 동종의 사조룡이 입에 문 여의주 외에 오른 발로 받들고 있는 보주와 같은 똑같은 모양이다.(도7) 종신의 견부에는 중첩연판문으로 된 입상화문대와 모란당초문의 상대가 있으며, 그 아래에 뇌문이 장식된 유곽 안에는 매우 입체적인 [Q]식 연봉으로 된 종유가 있다.(도8) 상대 문양은 오어사 동종은 분명한 모란당초문인데 비해 이 종은 작약에 가까운데, 모란과 작약은 둘 다 불교의식에 상단화(上壇花)로 장엄되는 꽃이다.(도9) 하대문양은 상대와 같은 모란당초문으로 가는 줄기에 풍성한 화관의 큰 꽃과 작은 잎들이 섬세하게 표현되었다.²⁷⁾(도10) 유곽과 유곽사이의 아랫 쪽 종복에는 원문범자(원문범자)로 된 당좌와 보살좌상이 교대로 배치되었다. 특히 삼면관을 쓴 보살상은 구름위에 무릎을 꿇고서 합장한 자세로 앉아있는데, 보살의 자세와 구름모양은 오어사 동종, 을사명 동종의 보살좌상과 흡사하다.(도11, 12) 범문이 장식된 당좌는 유일한 예로서 유곽은 뇌문을 돌리고 외연은 연판문을 양감있게 조각한 것이다.(도13)

천판에는 양쪽에 대칭으로 일자형의 용탕 주입구와 공기 배출구가 있고 한쪽에는 형지 자국이 남아있다.(도14) 음통은 종신과 관통되었고 음통과 용사이인 천판의 정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 종소리의 진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주조시 내형(內型)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심을 꽂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좌와 보살상 사이에 음각된 명문은 다음과 같다.

【명문】

奉佛弟子南瞻部州高麗國
 竹州大惠院金鍾造成
 特鑄
 聖窮萬歲國土大平法界
 生亡共增菩提之愿以
 前上戶長同心爲金鍾入重
 壹百陸十三斤印
 時癸未八月二十八日
 安逸戶長 崔
 棟梁道人賢堪
 院主大師智成
 南日月寺依芙小(?)希素

27) 2006, 『佛具』, 『佛具』, 2006.

명문은 계미년 8월28일에 죽주 대혜원 종을 전 상호장이 중량 113근을 들여 발원하였고, 70세가 넘어 퇴직한 최호장, 화주 현감, 원주(주지) 지성, 남일월사 희소가 주성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봉안처인 대혜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던 사찰이었겠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불교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제작년대는 입상화문대와 보살좌상이 있어 고려 후기에 속하는데, 계미년은 1163년, 1223년, 1283년 중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오어사 동종이나 을사명 동종과 전체적인 형태, 보살상 모양, 유곽대 문양이 매우 유사하고, 각 부분의 표현수법을 볼 때 오어사 동종보다는 다소 덜 수려하고 을사명 동종보다는 섬세해서 1223년에 제작된 것이 맞겠다.



도1. 계미명 동종, 1223년, 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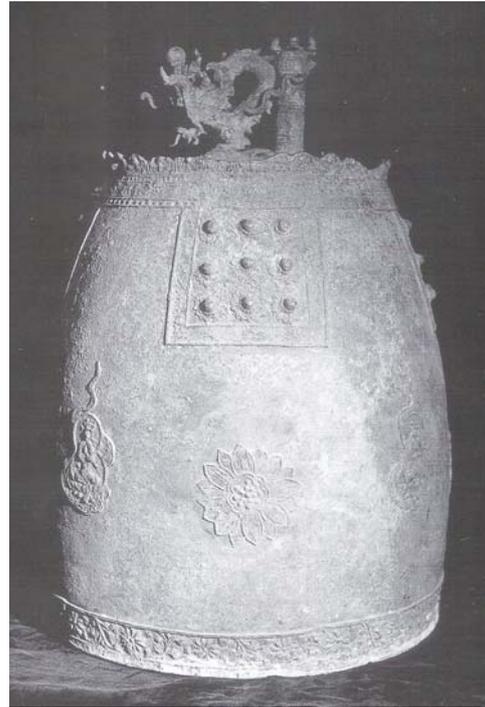
도2. “奉佛弟子南贍部州高麗國
竹州大惠院金鍾造成”



도3. “時癸未六月
二十八日”



도4. 오어사 동종, 1216년, 93.5cm
보물 제1280호(1998.06.29 지정)



도5. 을사명 동종, 1246년 추정,
62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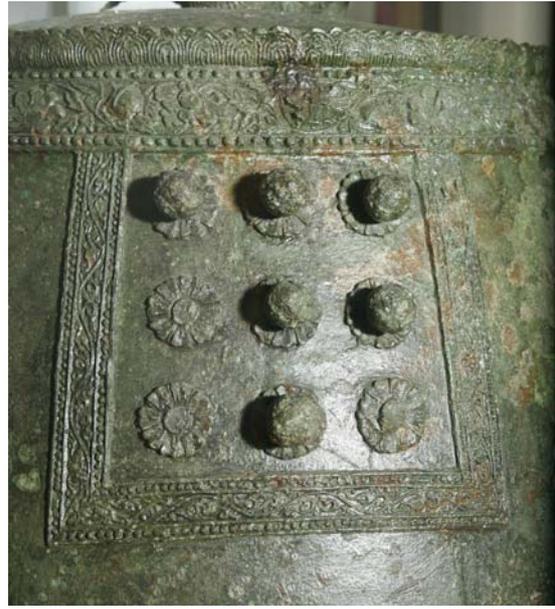
도6. 계미명 동종의 종뉴



도7. 도6 종뉴의 전보형(錢寶形) 여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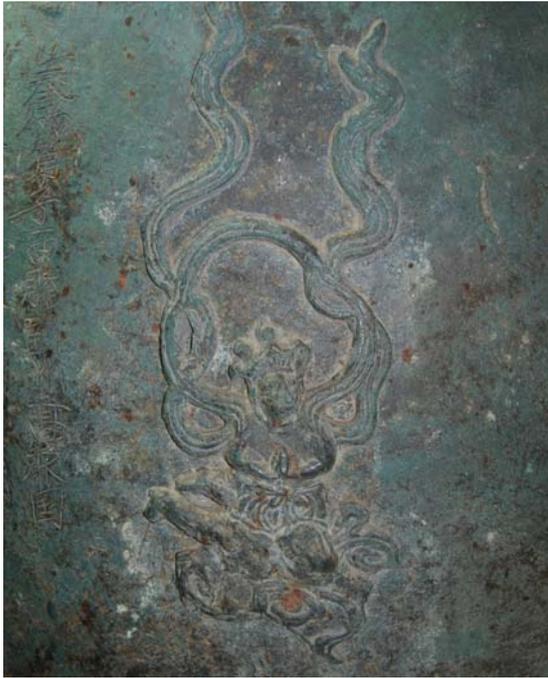
도8. 계미명 동종의 입상화문대, 상대, 유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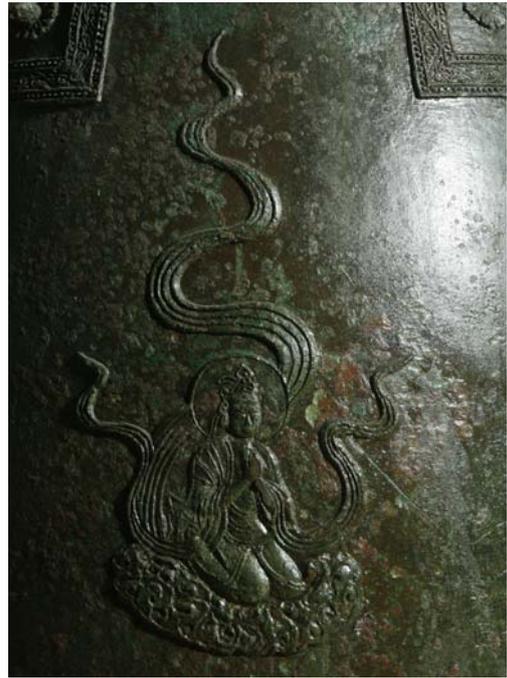
도9. 오어사 동종의 입상화문대, 상대, 유곽



도10. 계미명 동종의 모란당초문 하대



도11. 계미명 동종의 보살좌상



도12. 오어사 동종의 보살좌상



도13. 계미명 동종의 범자문 당좌



도14. 계미명 동종의 주조 흔적

□ 문화재전문위원

이 동종은 한 마리 용(龍)과 음통, 꽃 넝쿨무늬로 이루어진 상대(上帶)와 하대(下帶), 사다리꼴의 연곽대(蓮郭帶)와 9개의 연봉우리(蓮蕾), 그리고 종신의 비천과 당좌로 구성된, 이른바 신라 범종의 전통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투각된 여의주를 문 용(龍)이나 천판과 종건의 연결부분에 꽃잎을 세워 돌린 입상화문대(立狀花文帶), '범(梵)'자를 새겨

넙은 당좌(撞座) 등은 시대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천관은 전반적으로 편평한 편이지만, 용뉴를 붙인 곳만 약간 볼록하게 솟아있다. 천관의 두 곳에는 ‘一’자형의 큼직한 주물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용뉴의 형태는 S형태로 꿈틀되며 솟구친 한 마리 용(龍)이 자신의 몸통보다 굵은 음통을 힘겹게 짊어진 모습이다. 용은 새의 부리처럼 생긴 용의 주둥이로 투각된 여의주를 물었고, 입술은 천관에서 떨어져 있다. 뒤로 젖힌 용의 앞다리 중 하나는 결실되었고, 네 개의 발톱은 날을 힘 있게 세웠다. 부리부리한 눈과 휘날리는 눈썹, 수염, 갈퀴, 그리고 다리 사이에서 뻗어 나온焰翼(焰翼) 등에서 무한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도톨도톨 빈틈없이 새겨 넣은 비늘에서 섬세함을 더하였다.

다섯 마디로 이루어진 대나무 모양의 음통(音筒)은 꽃무늬로 꾸몄는데, 아래쪽 두 마디는 올림연꽃(仰蓮)과 내림연꽃(覆蓮)을 마주보게 하였고 그 위쪽 마디에는 연화문과 보상화문으로 장식하여 변화를 주었다. 마지막 마디는 4엽의 꽃잎이 하늘을 향해 오므린 형태인데, 꽃잎 끝에는 이슬이 내려앉듯 표현하여 싱그러움을 주었다. 이러한 음통의 구슬 표현은 13세기 범종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천관과 종건을 잇는 부분에는 입상화문대를 낮게 돌렸고, 입상화문대의 꽃잎은 여러 겹으로 중첩시켜 복잡한 모습이다. 입상화문대 바로 아래 표현된 상대에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국화당초문을 돌렸으나 다소 마멸이 보인다. 상대(上帶)에 바로 이어붙인 4개의 사다리꼴의 연곽은 그 모양이 약간 부정형으로 표현되었고, 폭이 좁은 연곽대에는 뇌문을 돌려 장식하였다. 시대를 막론하고 연곽대에 넝쿨무늬가 주로 표현되나, 정풍(正豐) 2년명 동종(1157년)처럼 고려시대 범종에서는 뇌문도 더러 표현된다. 연못에는 9개의 꽃자리를 마련하고 그 속에는 9개의 연봉우리(蓮雷)를 올렸는데, 마치 극락의 구품 연못에서 연화화생(蓮花化生) 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종복(鍾腹)에는 2구의 비천이 서로 대응되게 돈을새김 하였다. 비천은 나무끼는 천의를 입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비행하는 모습이다. 머리에는 왕관 형태의 보관을 쓰고 역L자 형태로 무릎을 꿇고 합장하였는데, 표현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천의자락 또한 가래질 한 것처럼 골이 깊고 두텁게 표현되어 다소 둔중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골 깊고 둔중한 천의자락이나 옷자락은 13세기에 제작된 범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2개의 당좌는 종구의 약간 위쪽에 마련되었다. 안쪽에는 씨앗의 표현 없이 한 글자의 범자문을 양각하였는데, 육자광명진언(六字光明眞言) 가운데 마지막자인 ‘흠(吽)’자로 추정된다. 테두리는 뇌문(雷文)과 24엽의 작은 연화문과 사이 앞으로 구성하여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범자문과 연화문의 장식적인 조합은 고려시대 향완에서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나 범종에서는 드문 사례이다.

종신(鍾身)의 넓은 공간에는 음각으로 주종 사유를 적은 주종기(鑄鍾記)를 음각으로 새겼다.

奉佛弟子南瞻部州高麗國
 竹州大惠院金鍾造成
 特爲
 聖窮萬歲國土太平法界
 生亡共增菩提之愿以
 前上戶長同心爲金鍾入重
 壹百陸十三斤印
 時癸未八月二十八日
 安逸戶長崔
 棟梁道人賢湛
 院主大師智成
 南日月寺依芙(?)○希素

위의 주종기에 의하면, 이 종은 죽주(竹州) 대혜원(大惠院)의 금중(金鍾)으로 제작되었으며, 국왕의 만수무강과 법계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발원하고 있다. 무게는 163근이 들어갔다. 종의 제작 시기는 계미년 8월 28일이며, 제작에는 전상호장(前上戶長)을 비롯하여 안일호장(安逸戶長), 동량도인(棟梁道人) 현담(賢湛), 원주(院主) 지성(智成), 그리고 남일월사(南日月寺)의 스님들이 동참하였다. 남일월사는 922년(고려 태조 5) 궁성의 서북쪽 송악산에 창건된 일월사(日月寺)와 같은 사찰로 추정된다.

이 종을 봉안(奉安)한 죽주(현재 안성) 대혜원에 관한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시대 원(院)의 역할이 대체로 교통로 상의 중요한 지점에 자리하여 종교적 기능과 함께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위험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였던 만큼, 이 대혜원도 죽주지방의 중요한 교통 요지에 위치하여 이러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에는 푸르스름한 청동 녹이 자연스럽게 서려 있고, 천관, 상대 등 일부에서 검붉은 부식도 확인된다. 또한 입상화문대나 상대 문양 등에도 마멸로 인하여 문양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지만,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문헌자료

- 黃壽永, 「癸未銘高麗鐘(附 無名鐘小 一口)」, 『梵鐘』 7, 韓國梵鐘研究會, 1984.
- 崔應天, 「癸未銘 梵鍾의 特徵과 編年」, 『丹豪文化研究』 4,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1999.

2. 청자 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 (靑磁 鐵畫堆花文蟾形 硯)

가. 검토사항

‘청자 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부터 ‘청자 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2.06.0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2.09.1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자 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靑磁鐵畫堆花文蟾形硯)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7.0cm, 길이 13.9cm
- 재 질 : 도토
- 형 식 : 청자 벼루
- 제작연대 : 고려시대 12세기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벼루는 태안 대섬 해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선박(‘태안선’이라 명명됨) 내에서 발견된 유물로 우선 출처가 확실하다. 그리고 태안선의 침몰연대가 1131년 무렵으로 이 유물이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벼루는 두꺼비 모양을 한 상형청자계통인데, 모양이 간결하면서도 힘차고 균형이 잘 잡혀 조형감이 뛰어나며, 외면에 흑색의 철사점과 백색의 백퇴점을 찍어 두꺼비의 피부 상태를 표현하였고, 유색도 황색조를 약간 띄어, 여러 모로 비색계 상형청자와는 다른, 독특한 미감을 지닌 고려청자의 또다른 미학을 보여주는 명품의 하나로 생각된다.

또한 청자로 만든 벼루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장방형 형식의 벼루(보물1382호 <청자상감국화모란문‘신축’명벼루>)가 1점만 완형으로 전해질 뿐일 정도로 희귀한데, 이 벼루는 일반 형식에서 벗어난 상형청자계의 유일한 벼루로 더없이 진귀한 고려청자의 일예로 그 희소성이 높다.

이처럼 이 벼루는 출처가 분명하고, 제작연대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학술적 의의도 크고, 벼루라는 희소성에, 상태가 거의 완벽하고, 퇴화와 상형청자가 어우러진 독특한 미감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희귀한 명품 청자로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이 벼루 외에 태안선에서 발견된 2점의 괴수장식뚜껑을 가진 삼족향로는 그 조형성이 참으로 특이하여 주목되는데, 그 독특한 미감을 지닌 향로 역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차후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청자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벼루는 태안 대섬 해저에서 대접, 접시, 완, 발우, 주자, 향로, 도기 등 25,000점의 도자기, 20점의 목간과 함께 출수되었다. 특히 목간에서 ‘탐진현재경대정인수호부사기일과(耽津縣在京隊正仁守戶付沙器壹裹)’이라는 목서가 적혀 있는데, ‘탐진(현재의 강진)에서 개경에 있는 대정 인수 집에 도자기 한 꾸러미를 보낸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간의 내용으로 보아 강진에서 제작된 후 운반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자 벼루는 고려시대 보기 드문 것으로 유물이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비해 이 유물은 출토지와 제작 시기가 비교적 정확한 편이어서 시대성을 비롯해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두꺼비의 머리와 몸체, 다리에 이르기까지 비례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눈동자와 발톱 등 세부 표현 역시 외형이 잘 나타나 있다. 내부는 조

각칼로 파낸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번조 온도가 지나쳐 유색이 일부 퇴락되고 유약이 흘러내렸다. 보기 드물게 철화와 퇴화 기법으로 두꺼비의 전면을 장식하여 장식성을 배가시켰고 연당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치 알과 같은 중첩된 반원 문양은 실제 사용 시 연당에 먹을 갈기 편리하게 해 놓은 것으로도 추정된다.

따라서 상기 유물은 출처가 확실하고, 제작시기, 수요처, 수요자 등을 알 수 있어 그 시대성과 희소성은 물론 그릇의 장식과 색상, 용도, 제작기법 등에서도 뚜렷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청자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벼루>는 우리나라 서해안 태안 대섬지역의 수중발굴 중 침몰되어 있던 고려의 선체에서 출수되었다. 함께 발견된 목간의 내용을 통해 1131년[신해(辛亥)] 개성으로 공물 등을 운반하던 선박으로 확인되며, 벼루 역시 동일시기의 제작품으로 볼 수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유물은 출수지가 명확하고 동반유물이 뚜렷하며 그 성격이 분명한 희귀한 사례이며, 유물에 직접적인 명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드문 연적이므로 미술사적 유물자료로서도 가치와 의미가 크다.

전체적으로 보아 출수지가 명확하며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일 뿐만 아니라 사례가 극히 드문 청자벼루로서 조형성과 장식성이 뛰어나다. 또한 유물의 제작지, 사용자, 제작경향, 장식기법 등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 벼루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명칭은 제도개선 명칭으로 변경함.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이 벼루는 두꺼비 모양의 상형청자로, 수중발굴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전체 형태는 두꺼비가 고개를 쳐들고 손과 발을 힘 있게 웅크린 모습이며, 외면에는 흑색의 철사점과 백색의 백퇴점을 돌아가며 찍어서 두꺼비의 오тол도톨한 피부 돌기를 표현하였다. 등에는 타원형으로 편평하게 파서 연당(硯堂)을 만들었으며 가장자리 한 곳에 반원을 포개가며 쌓은 듯한 음각문양을 베풀었는데, 두꺼비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먹을 붓에 묻힐 때 먹 양을 조절하는 기능적 성격도 띠고 있다. 밑의 배부분은 타원형의 접지면을 두고 그 가운데를 칼로 깊숙이 파 긁어내어 삭도(削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유약은 연당과 바닥의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고르고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전체가 열은 황갈색조를 띠고 전면에 빙얼이 있다. 접지면에 내화토 빛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두꺼비 모양 벼루는, 2007년 8월 25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충청남도 태안의 대섬 해역에서 고려선박(‘태안호’라 명명됨)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이다. 25,000점의 도자기와 20점의 목간이 발견된 태안선은 목간의 관독을 통해 1131년 무렵에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유물이 12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고려청자 중에 현존하는 벼루는, 파편 몇 개를 제외하고 실물로는, <청자상감국화모란문'신축'명벼루(보물1382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1례가 있을 뿐이며, 상형청자로 제작된 벼루는 이 유물이 유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형청자는 순청자계로 디테일의 표현이 자세한 편이지만, 이 벼루는 두꺼비의 진중함을 보여주려는 듯 섬세하고 디테일한 표현 보다는 잘 잡힌 균형과 단순한 형태 속에 힘찬 기운을 담으려는 듯한 조형감을 보이며, 얼굴의 표현이 다분히 해학적이다. 외면에 베풀어진 흑, 백의 퇴화점등이 전체 모양과 잘 어울려 순청자와는 또 다른 미적 세계를 보여준다.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청자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벼루는 태안 대섬에서 출수된 것으로 형태가 온전하고 문양장식과 유면 상태가 양호하고 회청색의 유색 또한 맑고 투명하다. 기형은 두꺼비를 형상화한 것으로 두꺼비가 고개는 위로 들고 손과 발은 힘 있게 웅크린 모습이다. 제작시 성형은 형틀을 사용하지 않고 점토 덩어리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속파기를 하였다. 두꺼비의 외면에는 오тол도톨한 피부 돌기를 볼록

하게 표현하고 그 위에 각각 철화(鐵畵)와 퇴화(堆花) 기법으로 점을 찍어 장식하였다. 두꺼비 눈동자는 철화로 그려 넣었는데, 백색의 퇴화를 바탕으로 사용하여 보다 선명하게 강조하고 주변에 음각선을 시문하여 눈의 윤곽을 표현하였다. 곡선으로 표현된 입과 짧은 선으로 표현된 다리의 세부는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벼루의 연당(硯堂)에는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도록 제작하였다. 연당의 가장자리에는 반원을 켜켜이 쌓아 문양을 음각하였다. 유약은 연당과 바닥의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었다. 번조 온도도 지나쳐 유약이 흘러내려 접지면에 두텁게 묻쳐 있다. 유면 전면에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 내화토빛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

청자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벼루는 태안 대섬 해저에서 대접, 접시, 완, 발우, 주자, 향로, 도기 등 25,000점의 도자기, 20점의 목간과 함께 출수되었다. 특히 목간에서 ‘탐진현재경대정인수호부사기일과(耽津縣在京隊正仁守戶付沙器壹裹)’이라는 목서가 적혀 있는데, ‘탐진(현재의 강진)에서 개경에 있는 대정 인수 집에 도자기 한 꾸러미를 보낸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간의 내용으로 보아 강진에서 제작된 후 운반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자 벼루는 고려시대 보기 드문 것으로 유물이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비해 이 유물은 출토지와 제작 시기가 비교적 정확한 편이어서 시대성을 비롯해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두꺼비의 머리와 몸체, 다리에 이르기까지 비례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눈동자와 발톱 등 세부 표현 역시 외형이 잘 나타나 있다. 내부는 조각칼로 파낸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번조 온도가 지나쳐 유색이 일부 퇴락되고 유약이 흘러내렸다. 보기 드물게 철화와 퇴화 기법으로 두꺼비의 전면을 장식하여 장식성을 배가시켰고 연당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치 알과 같은 중첩된 반원 문양은 실제 사용 시 연당에 먹을 갈기 편리하게 해 놓은 것으로도 추정된다.

□ 관계전문가

<청자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벼루>는 우리나라 서해안 태안 대섬지역의 수중발굴 중 침몰되어 있던 고려의 선체에서 출수되었다. 함께 발견된 목간의 내용을 통해 1131년 [辛亥] 개성으로 공물 등을 운반하던 선박으로 확인되며, 벼루 역시 동일시기의 제작품으로 볼 수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유물은 출수지가 명확하고 동반유물이 뚜렷하며 그 성격이 분명한 희귀한 사례이며, 유물에 직접적인 명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드문 연적이므로 미술사적 유물자료로서도 가치와 의

미가 크다.

고려청자로 제작된 벼루는 전해지는 유물이 희귀하다. 그릇 이외에도 연적이나 필가 등 문방구류가 청자로 제작되었으며, 가마터는 물론 건물터와 같은 수요지 유적에서 출토된 파편을 통해 벼루가 만들어졌던 것도 확인되지만 전세유물은 극히 드물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미술관 소장 보물 1382호 <청자상감국모란문신축명벼루>가 알려져 있을 뿐이어서, 청자벼루의 실존하는 유물이 극히 희귀하다고 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 검토대상품인 <청자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벼루>의 존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벼루에는 고려중기 청자의 제작경향과 장식기법이 잘 나타난다. 움크리고 있는 커다란 두꺼비의 형태와 세부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두꺼비의 전체적인 모습은 물론 피부까지도 검은 색의 철점(鐵点)과 백토를 사용한 백토점(白土点)을 번갈아 불규칙한 간격으로 전면에 찍어 특징을 묘사하였다. 고려중기에 유행하던 상형청자의 생동감 넘치는 형태와 장식이 잘 드러나며, 여기에 더하여 먹을 가는 연당의 가장자리 한 곳에 두꺼비의 알처럼 보이는 원형의 음각장식을 두어 세부묘사와 재미를 더하였다.

3. 청자 매병 및 죽찰(靑磁 梅瓶 및 竹札)

가. 검토사항

‘청자 매병 및 죽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부터 ‘청자 매병 및 죽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2.06.0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2.09.1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자 매병 및 죽찰(靑磁 梅瓶 및 竹札)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 수 량 : 4점
- 규 격 : 청자 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높이 38.9~39.1cm, 입지름 7.1cm,
굽지름 14.2cm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높이 39.0~39.1cm, 입지름 6.8~7.0cm,
굽지름 15.0cm
상감매병 죽찰 길이 13.4cm, 너비1.4cm
음각매병 죽찰 길이 14.2cm, 너비1.6cm

- 재 질 : 도토, 목재
- 형 식 : 청자 매병, 죽찰
- 제작연대 : 고려시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들 매병 2점과 죽찰 2점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2호선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10년에 발굴한 일괄유물들로, 근래 활발해진 우리 해양고고학의 발굴활동이 거둔 대표적인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귀중한 사례이다.

마도 2호선은 1190년~1213년에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유물들이 12세기 말~13세기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일단 추정될 수 있다. 특히 이들 매병에 사용된 죽찰 2점에는 매병에 담긴 내용물이 ‘꿀’과 ‘참기름’임을 밝혀주고, 수취인의 인적 사항까지 적혀있으며, 매병이 당시에 ‘준(樽)’으로 불리었음을 알게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역사적, 학술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매병 2점은 39cm가 넘는 대형의 매병으로,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느낌은 2점이 매우 비슷하며, 양감이 뛰어나 자태가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모양을 하고 있다. 1점은 독특한 음각(반양각, 혹은 편절조라 부르는 특징적인 음각수법)으로 모란절지문을 베풀었는데, 음각수법이 정교하고 유려할 뿐만 아니라, 연줄기 밑동에 점을 찍어 줄기에 달린 털을 나타낸 점도 희귀한 예이다. 상감문양이 베풀어진 1점은 동체를 과형으로 처리하고 6개의 능화형 화창 내에 갖가지 상감문을 베풀 매우 화려한 작품으로 그 정성과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다. 이들 2점의 매병에는 음각과 상감이라는 다른 양식의 문양이 베풀어져 있지만, 기형적 특징이나 번조수법이 유사해 동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금까지 선후관계로 파악해 온 두 양식이 어느 시기에는 공존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라고 생각이 되어, 이 2점의 매병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려청자 연구의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빼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들 일괄 유물들은 해저발굴조사를 거쳐 출수한 유물들로 출처가 확실하고, 제작시기, 수요처, 수요자, 내용물 등 고려시대 청자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일급의 학술자료이면서, 특히 매병 2점은 예술성도 뛰어나고 상태도 매우 양호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유물은 출처가 확실하고, 제작시기, 수요처, 수요자, 용도와 내용물 등을 알 수 있어 그 시대성과 희소성은 물론 그릇의 장식과 색상 등에서도 뚜렷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및 <죽찰>은 2010년 우리나라 서해안 태안 마도 2호선 수중발굴 조사과정에서 출수되었다. 함께 발견된 죽찰의 내용을 통해 이들 유물이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고려중기 청자의 조형, 장식소재와 구성, 장식기법, 유색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학술자료로서도 중요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보아 출수지가 명확하며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일 뿐만 아니라 사례가 극히 드문 청자매병과 죽찰이 일괄인 희귀한 작품이다. 비록 몸체 일부에 구멍이 뚫리고 유실되었으며 주변에 금이 있지만, 기존에 보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자매병과는 유물의 특징, 의미, 중요도가 차별화되는, 고려선박에서 출수된 일괄품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2점의 죽찰은 고려시대 도자사에 관해서 뿐 아니라 고려중후기의 사회와 경제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따라서 이들 2점의 죽찰 및 그와 함께 발굴된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과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등은 일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명칭은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및 죽찰’,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및 죽찰’로 함.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청자상감국화유로죽문매병 : 반구(盤口)가 달린 전형적인 고려매병으로 높이가 39cm에 달하는 대형이다. 양감이 좋은 풍부한 곡면의 어깨에 저부가 밖으로 살짝 벌어져 전체가 유려한 S자 곡선을 이룬다. 동체는 6개의 골을 새겨 瓜形으로 만들었으며 문양은 상하에 여의두문대와 연판문대를 돌리고, 각 골마다 길쭉한 능화형 화창을 배치하고 그 속에 국화, 모란, 대나무, 갈대, 버드나무, 황촉규(닥꽃) 등을 흑백상감으로 베풀었다. 비교적 짙은 녹색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고, 바닥 내부와 접지면 전체를 훑어내고 모래섞인 갈색내화토 빛음을 10군데 받치고 번조하였다. 바닥은 안굽이다. 동체 하부는 번조과정 중에 유약이 말리는 현상이 벌어져 일부 태토가 드러나는 등 유몽침 현상이 심하게 퍼져있다.

버드나무가 시문된 쪽의 능화창 위편으로 2곳에 구멍이 뚫려 유실되었고, 그 주변으로 잔 금이 가 있다. 대나무와 모란이 시문된 면의 어깨부에도 금이 있다. 일부 유실된 부위는 현재 복원처리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 위의 매병과 크거나 형체가 거의 비슷하나, 과형이 아닌 민 몸이다. 문양은 독특한 음각수법(윤곽을 칼을 비스듬히 하여 넓게 깎아내어 반양각(半陽刻), 혹은 편절조(片切彫)로 불리는 수법임)을 사용하여 목부분에 여의두문대를, 동체 하단에는 운문과 뇌문대를 베풀었다. 중심문양은 연화절지문으로 4곳에 등간격으로 시문되었는데, 통상의 연화절지문이지만, 연줄기의 밑둥을 뿔죽한 도구로 점을 찍어 줄기에 난 털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녹색을 띤 청자유를 전면에 고르게 씌우고, 안굽의 바닥접지면만 유를 훑어내고 모래섞인 갈색내화토 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빙열이 다소 있으며 일부 유약이 흐르거나 황갈색을 보인다.

죽찰 : 매병과 함께 발견된 죽찰 2점은 모두 상부 한 곳에 ‘><’ 모양의 홈을 파서 머리부분을 만들었다. 상감문매병용의 죽찰은, 앞면에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都將校吳文富)”가, 뒷면에 “택상진성준봉(宅上眞盛樽封)”이라는 목서가 있다. 음각문매병용으로 추정되는 죽찰에는 앞면에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都將校吳文富)”가, 뒷면에는 “택상정밀성준봉(宅上精蜜盛樽封)”이란 목서가 있다. 수취인과 내용물을 쓴 죽찰은 상태가 양호하고 보존처리 중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매병 2점과 죽찰 2점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역에서, 마도2호선이라 명명된 고려시대 선박에서, 2010년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행한 발굴조사과정 중에 출수된 것이다. 발굴 당시 이들은 선체 내부에서 음각문매병에는 죽찰이 매달린 채로, 상감문매병은 바로 곁에서 죽찰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정식 발굴 조사를 거쳐 확보된 희유한 고려청자예이다.

이 마도2호선에서는 47점의 목간이 나왔는데, 이들을 검토한 결과, 화물의 발송자, 발송지, 수취인, 화물의 종류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배의 난파된 연대는 1190년~1213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 매병들은 12세기말~13세기초반에 제작되거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죽찰의 내용으로 보아 이 매병은 ‘참기름’과 ‘꿀’을 담아 운송하는데 사용된 것이고, 당시 매병을 ‘준’(樽)으로 불렀음도 알 수 있다.

매병 2점은 크기가 둘 다 39.1cm나 되어 대형에 속하며, 몸체가 당당하고 고려적인 우아함이 넘치는 기형의 아름다움이 우선 돋보인다. 얼핏 보면 기형상 2점이 동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정도로 유사하나, 반구의 제작상태나, 굽바닥의 유약처리, 유면상태 등에서 차이가 난다. 주목되는 사항은, 1점에는 소위 반양각 효과를 보이는 음각문의 문양이 화려하게 시문되었고, 다른 1점에는 과형의 동체에 화려한 상감문이 배풀어져, 둘 다 수법은 달라도 장식이 정교하고 화려하게 배풀어진 최상급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물은 일단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음각수법 중에 보다 후기에 성행한 반양각(편절조)수법의 문양이, 화려한 상감청자 전성시기에도 계속해서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고려청자 연구와 편년에 시사하는 바가 큰 학술적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과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죽찰은 동반 출수되었다. 먼저 청자매병 두 점은 크기가 거의 유사하고 현존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비록 상감기법과 음각기법이라는 다른 장식을 사용하였음에도 전형적인 매병의 특징인 낮은 반구형의 구연부와 둥그런 어깨, 변곡점을 지닌 부드러운 S자형 윤곽선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그 제작 시기가 대동소이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매병은 문양과 장식에 있어서는 각각 상감기법과 음각기법을 사용하였고 문양 소재와 유색은 확연히 다르다.

먼저 음각매병은 형태를 보면 구연은 낮은 반구(盤口) 형태로 짧은 경부와 넓게 벌어진 어깨를 지니고 있다. S자 형태의 동체부는 폭이 좁아지다가 접지부에 이르러 다시 외반하는 변곡점을 갖고 있다. 문양은 3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음각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녹색 유약이 기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바닥 접지면은 닦아내고, 모래 섞인 황색 내화토 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유면 위로 빙렬이 보이며 일부에 유약이 흐르거나 황갈색 빛을 띠기도 한다. 바닥은 굽 폭이 넓은 안굽이다.

다음 상감매병은 과형(瓜形)처럼 몸체를 6개의 면으로 음각으로 깊이 파서 분할하였다. 상하 종속문으로 뇌문과 연판문을 상감하고 주제문으로 몸체 가운데에 흑백 상감으로 된 능화형 창 안에 다양한 문양 조합을 표현하였다. 구연부 둘레에는 두 줄의 가로선문을 돌리고 그 아래로 장식 여의두문대를 상감하였다. 유색은 유약이 골고루 녹지 않아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부 유약의 핀 흘 현상과 뭉침 현상이 보인다.

다음 죽찰은 각 두 점으로 먼저 상감매병과 함께 출수된 죽찰은 ‘> <’ 모양의 홈을 경계로 머리와 몸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홈은 죽찰을 매병에 매달기 위해 판 것이다. 머리 상단을 ‘^’ 모양으로 다듬어 마치 꽃봉오리 같다. 결락된 부분은 없으나, 장자(將) 중간에 금이 가 있다. 그럼에도 대나무 섬유로 이어져 있다. 앞면에는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都將校吳文富)”가 적혀 있는데 수취인을 적은 것이다. 뒷면에는 “택상진성준봉(宅上眞盛樽封)”이라고 써져 있다. 음각매병과 함께 출수된 죽찰역시 기본 형식은 상감매병과 함께 출수된 것과 유사하며 결락된 부분 없이 매우 양호한 상태다. 앞면에는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都將校吳文富)”가, 뒷면에는 “택상정밀성준봉(宅上精蜜盛樽封)”이라고 적혀 있다.

○ 내용 및 특징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과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죽찰은 동반 출수 유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무신란 이후인 1190년에서 1213년 사이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로, 그 제작 시기가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반 경으로 추정 가능하여 뚜렷한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청자매병 두 점은 현존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비록 상감기법과 음각기법이라는 다른 장식을 사용하였음에도 전형적인 매병의 특징인 낮은 반구형의 구연부와 둥그런 어깨, 변곡점을 지닌 부드러운 S자형 윤곽선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그 제작 시기가 대동소이함을 추정할 수 있다. 두 매병은 문양과 장식에 있어서는 각각 상감기법과 음각기법을 사용하였고 문양 소재와 유색은 확연히 다르다.

먼저 음각매병의 경우는 11-12세기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음각연화문매병과 연화의 가지와 꽃잎, 꽃봉우리 등의 표현방식이 매우 유사하며 그 유색 또한 회청색의 맑고 투명한 유약이 시유되어 전통적인 장식 형태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맑은 유색과 잘 빠진 형태, 수려한 조각 솜씨 등은 예술성을 뚜렷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매병의 기형과 음각 장식의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시대성과 학술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문양 안쪽의 세부 잎맥은 가늘고 얇은 음각기법으로 표현하여 사실감을 더했다. 연줄기 밑둥은 유면 위에서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 점을 찍는 방식으로 사실감을 주었는데, 이러한 연꽃 줄기의 표현 방식은 이전의 고려시대 매병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것으로 중국 정요 매병에서 일부 보이는 기법이다. 따라서 이 음각 매병의 제작시기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12세기로 추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음각연화문 매병보다는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매병의 형태는 오랜 기간 정형화되어 지속되지만 문양 장식은 그 변화 양상이 보다 빨리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상감매병은 과형(瓜形)처럼 몸체를 6개의 면으로 음각으로 깊이 파서 분할하였다. 상하 종속문으로 뇌문과 연판문을 상감하고 주제문으로 몸체 가운데에 흑백 상감으로 된 능화형 창 안에 다양한 문양 조합을 표현하였다. 문양 조합은 세 종류로 먼저 버드나무와 수금, 새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형식, 대나무나 갈대와 수금의 형식과 마지막으로 닥꽃이나 모란, 혹은 국화에 수금과 나방을 결합하는 형식이다. 이런 과형 매병의 성형 방식과 다양한 문양 조합은 13세기 이후의 새로운 변화로 고려청자의 장식성이 더욱 심화되는 증표로 삼을 수 있다. 유색은 유약이 골고루 녹지 않아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부 유약의 핀 흘 현상과 뭉침 현상이 보인다. 제작시기는 과형의 형태와 문양 조합, 상감 기법의 다양한 사용, 유색의 변화 등으로 미루어 당연히 음각매병과는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출수된 유물이므로 확정할 수는 없다. 역으로 13세기를 전후해서 고려청자의 다양한 기형과 장식이 공존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여겨지며 음각 매병의 기형과 장식이 변화에 있어 보수적인 면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죽찰에는 ‘준’(樽)이라는 기명의 명칭과 내용물이 기재되어 있어 고려시대 매병의 표기와 꿀, 참기름 등 식재료를 담았던 매병의 당시 용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시대성과 최소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상감매병과 함께 출수된 죽찰은 ‘> <’ 모양의 홈을 경계로 머리와 몸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홈은 죽찰을 매병에 매달기 위해 판 것이다. 머리 상단을 ‘^’ 모양으로 다듬어 마치 꽃봉오리 같다. 결락된 부분은 없으나, 將자 중간에 금이 가 있다. 앞면과 뒷면 모두 글자가 있으며, 앞면은 8자, 뒷면은 6자 총 14자다. 앞면에는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都將校吳文富)”가 적혀 있는데 수취인을 적은 것이다. 뒷면에는 “택상진성준봉(宅上眞盛樽封)”이라고 써져 있어 준에(樽) 참기름을 담아 올린다는 내용이다.

중방은 고려시대 무반의 최고 협의기구다. 도장교는 정8품 이하의 하급무반이다. 뒷면의 ‘택상(宅上)’이라는 용어는 앞면의 수취인 맥에 올린다는 표현이다. 태안선과 마도 1호선~3호선까지 수증 출수 고려시대 목간에 자주 나오는 용어로, 발송자와 수취인의

관계를 드러낸다. 즉 수취인이 상위 관직 또는 계층인 경우 ‘택상’을 쓰고, 둘 간의 관계가 동등하거나 하위인 경우에는 ‘호부(戶付)’를 적어 구분했다. 화물종류를 적은 진은(眞) 진유(眞油) 즉 참기름이다. 참기름을 준에(樽) 채워 보낸 것이다.

음각매병과 함께 출수된 죽찰은 결락된 부분 없이, 매우 양호한 상태다. 앞면과 뒷면 모두 글자가 있고, 앞면 8자 뒷면 7자 총 15자다. 앞면에는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都將 校吳文富)”가, 뒷면에는 “택상정밀성준봉(宅上精密盛樽封)”이라고 적혀 있다. 수취인과 기타 내용은 상감매병의 그것과 모두 동일하다.

□ 관계전문가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및 <죽찰>은 2010년 우리나라 서해안 태안 마도 2호선 수중발굴 조사과정에서 출수되었다. 함께 발견된 죽찰의 내용을 통해 이들 유물이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고려중기 청자의 조형, 장식소재와 구성, 장식기법, 유색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학술자료로서도 중요성이 높다.

이 유물을 통해 청자매병의 용도가 추가되고 수요자가 새롭게 밝혀져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각각의 매병에 붙어 있던 죽찰의 내용을 통해, 이 속에 꿀과 참기름을 담아 중방의 하급장교 오문부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명칭을 준(樽)으로 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매병의 구체적인 용도가 정확하게 확인된 유일한 유물이다. 나아가 고려왕실이나 귀족만이 고급질의 청자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기존의 막연한 추정을 넘어 죽찰에 등장하는 정8품 이하의 하급관리도 강진 혹은 부안의 청자가마에서 제작된 질이 좋은 청자를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중요한 예이다.

출수된 매병 두 점은 모두 높이 39cm인 대형으로 각각의 장식도 뛰어나다. 이들 유물처럼 크기가 크고 전체의 형태가 당당한 조형의 매병은 드문 편으로 유사한 전세유물 중에서도 출수지와 제작시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희귀한 사례이다. 표면에 음각기법으로 장식한 연화문은 고려중기 청자를 장식하던 전형적인 소재이지만 세부표현에서 시간이 경과하며 변화되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상감장식의 경우도 즐겨 사용되던 소재가 채택되어 기존에 막연하게 추정하던 장식의 구성이나 세부표현 등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어 중요하다.

□ 관계전문가

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태안 인근의 고려시대 침몰선 발굴조사에서는 당시 배에 실려 있던 유물들과 함께 다수의 목간(木簡)과 죽찰(竹札)들이 수습되었다. 이들 목간과 죽찰들은 배에 실려 있던 화물의 짐표[荷札]들로서, 당시 배에 실려

있던 화물의 구체적 종류와 수량 등을 알려준은 물론 화물의 선적시기, 발송자와 수취자, 침몰선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목간과 죽찰들을 통해 침몰선과 거기에 선적되어 있던 화물들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수습된 다수의 목간과 죽찰들 중에서도 2010년 태안 마도 2호선 발굴 과정에서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및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과 함께 수습된 2점의 竹札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죽찰들은 본래 부착되어 있던 물품과 함께 발굴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배에 실렸던 화물과 목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들 죽찰은 발굴 당시의 매병과의 위치나 죽찰에 보이는 줄의 흔적들로 볼 때 매병에 부착되어 있던 짐표 죽찰로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해당 매병의 구체적 성격과 용도를 알려주는 정보들이 적혀 있다. 2점의 죽찰에는 각기 ‘중방도장교(重房都將校) 오문부(吳文富)’의 집에 보내는 꿀과 참기름을 ‘준(樽)’에 담아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매병이 고려시대에 꿀과 기름 등의 점액성(粘液性) 식품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층에 하급 무반 관료들도 포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매병들이 당시에 ‘준(樽)’으로 일컬어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들 죽찰에는 함께 발굴된 매병들의 구체적 성격과 용도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고려시대 도자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2점의 죽찰에 기록된 내용은 고려시대의 식생활과 관료들의 위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꿀과 참기름이 중요한 물품으로서 고급 도자기에 담겨 지방에서 개경으로 특별히 수송되었으며, 중방 도장교라는 하급 무반이 그러한 물건의 수취자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4.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江華 傳燈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가. 검토사항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2호
- 명 칭 :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江華 傳燈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전등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 수 량 : 불상 3구
- 규 격 : 석가모니불 높이 123.5cm, 무릎폭 87cm
아미타불 높이 89.5, 무릎폭 66cm
약사불 높이 92.5cm, 무릎폭 65cm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1623년(인조 1년)
- 제작자 : 수연(守衍), 성옥(性玉), 영철(靈哲), 찰영(察英), 법림(法林), 혜우(惠祐)

라. 내용 및 특징

전등사 대웅보전에는 석가여래를 주불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세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복장발원문을 통해, “순치십이년(順治十二年)”인 1623년에 조성되었고, 불상조성에는 수연(守衍), 성옥(性玉), 영철(靈哲), 찰영(察英), 법림(法林), 혜우(惠祐)··· 등의 조각승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삼세불상 중 석가여래는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보다 약간 크게 조성되었는데, 본존인 석가모니불좌상은 높이가 123.5cm이고 우측 아미타불좌상은 89.5cm, 좌측 약사불좌상은 92.5cm로 본존과 좌우협시의 총고차이는 약 30cm 정도이다. 삼세불상은 넓은 이마에 턱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얼굴형에, 반개한 눈, 오뚝한 삼각형의 코, 양 끝 입술을 살짝 들어 올린 입술 등이 조화를 이루어 원만한 상호를 자아낸다. 세 불상은 모두 긴 허리에 비해 무릎높이가 낮은 신체비례를 보인다.

중앙의 석가모니불은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린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으며, 왼손은 자연스럽게 무릎위에 올려놓은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결한다. 착의 법은 어깨를 덮은 변형편단우견식 대의를 걸치고 가슴 부근의 승각기는 가지런히 접혀있다. 대의가 덮은 어깨와 가슴부근과, 왼쪽팔의 옷 주름은 사선과 선으로만 간략히 마무리 하였고, 소매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은 연판형과 같은 형태로 처리하였다. 하반신자락은 결가부좌한 다리의 윤곽을 따라 세 줄이 수평을 이룬 형태로, 발목부근에는 좌우로 두 자락씩의 자락이 맞물려 접혀있다.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전반적인 인상과, 신체비례와 옷 주름 등에서 거의 동일하지만, 자세와 착의법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고, 왼손은 거의 왼 무릎에 닿을 정도로 놓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약사불은 아미타불과 반대의 자세를 취했다. 착의법은 본존인 석가모니불과 달리 대의 속에 편삼을 입고 있다. 따라서 좌우 협시의 다른 자세 때문에 오른쪽 어깨를 덮는 대의 자락과 편삼자락이 대의 속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복부 주위의 옷주름은 석가불과는 다른 형태이다. 또한 본존의 승각기가 흡사 꽃잎과 같이 접힌 형태이지만, 아미타불과 약사불상에서는 간략하게 선으로만 표현되었다.

조각승 수연은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현재까지 수연의 활동은 1615년 금산사 독성상 제작이후 1639년 풍곡사 목조삼세불좌상(현재 예산 수덕사 봉안)이 그의 마지막 불상 조성 기록이다. 이들 기년명 불상들은 대부분 보물 및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수연의 1619년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1639년 남원 풍국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현재 예산 수덕사 소장)은 각각 보물 제 1751호와 1381호이고, 익산 승림사 명부전 권속과 강화 전등사 명부전 권속들은 각각 시도유형문화재 제 189호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6호이다. 그리고 수연이 현진과 함께 조성한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보물 제 16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등사 대웅보전의 삼세불좌상은 현재까지 공개된 수연의 활동 중에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전등사 대웅보전 삼세불좌상은 수연의 다른 기년명 불상들과 비교하면 상호의 표현 및 옷 주름의 표현에서 다른 표현이 나타난다. 수연의 가장 이른 기년명 불상은 1619년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다. 봉서사 목조아미타좌상의 두상은 타원형인 것에 반해 1623년 전등사 삼세불좌상은 전체적으로 얼굴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각이진 방향으로 변하였다. 특히 전등사 석가모니불좌상은 봉서사 아미타불좌상보다 턱 부분의 양감이 강조된 모습이다. 전등사 삼세불좌상의 각이진 방향의 얼굴은 전등사 이후에는 다시 원형으로 되돌아간다.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불사 2년 뒤인 1625년 나주 다보사 석가모니불좌상은 타원형의 얼굴로 조성되었고, 이러한 상호는 이후 1630년대 기년명 불상들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하반신의 옷주름 표현에서도 전등사 삼존불좌상은 기존의 수연 기년명 불상들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봉서사 아미타불좌상의 하반신에는 세 자락의 주름이 펼쳐져 있는데, 이 중 두 번째 자락은 가장 상단에 위치하면서 그 끝을 동그랗게 처리하였다. 전등사 삼세불좌상은 봉서사의 하반신 표현과 달리 좌우 2자락이 대칭으로 펼쳐진 형태이다. 봉서사 불상들의 하반신 대의자락 표현은 1620년대의 기년명 불상에서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1634년 옥구 보천사(현재 익산 승림사 봉안) 지장보살좌상, 1636년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좌상 그리고 1639년 남원 풍국사(현재 예산 수덕사 봉안) 상들에서 다시 조각된다.

전등사대웅보전목조삼존불좌상은 상호와 옷주름의 형태에서 기존의 수연의 작품과 다소 변화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상호 및 대의자락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변화는 수연이 1622년 현진과의 함께한 불사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22년의 자인수양사(慈仁壽兩寺) 불상조성 불사는 현진을 필두로 응원, 수연, 범령 등 17세기 전·중반에 수화승으로 활동하던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한 불사였다. 이 때 수연은 다른 조각승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들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변화가 전등사 목조삼존불좌상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된 수연의 불상 표현은 전등사 이후에는 다시 초기 작품에서 보이는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의 기년명 불상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 명문 및 특기사항

願文, 1623년, 종이, 1매, 수장고

記文 : 歸命西方大慈尊紫金光色彌陀佛四十八願度含生」接引郡迷登九品願我捨此五蘊聚速往安養蓮華中」親聞圓音悟無生恒沙菩薩因復遊虛空終爲破有盡」我願曠劫無能盡似此造像佛功德法界衆生同成覺」隨喜造成供養者見者禮者皆成佛天地洞然毫末」盡此像劫石如須臾」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歲年」世子邸下壽千秋」證明坦悟」畫員守衍」性玉」靈哲」察英」法林」惠祐」供養主雪珠」侍子儀生」侍得龍」三綱志敬」持寺儀玄」普眞」普瓊」持殿志仁」佛像大施主終今單身」佛像大施主高業同兩主」面金大施主高大春兩主」体木金大施主丹形單身」体木大施主愛界兩主」烏金大施主高者斤介兩主」供養施主金武勝兩主」座臺施主劉玉遭兩主」座臺施主崔德金兩主」甫團施主韓外香單身」彩安大施主朴春伊兩主」復藏施主嚴命福兩主」腹藏施主朴淑引兩主」引燈施主件星介兩主」熟頭施主表黑石兩主」施主察行比丘」來往大僧湖英比丘」都大別座敬希比丘」天啓三年癸亥四月十九日未畢終雲守衲子大化師弘敏比丘」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7세기 전반에 전북, 충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수연(守衍)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1623년에 조성한 불상으로 수연이 수화승(首畫僧)으로 조성한 작품들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두 번째 불상이다. 삼불의 구성은 석가불을 본존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상이 좌우에 협시하는 형식으로서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삼세불의 도상을 보이고 있다. 불상들의 세부를 보면, 본존 석가불상은 단엄한 자세에 자비한 상호(相好)를 보이며, 좌우의 아미타불상과 약사불상은 이목구비의 표현이나 비례 면에서 본존상 보다는 다소 조형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본존상은 상호(相好)의 표현이 근엄하고 전체적인 신체비례 면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져 시기적으로 앞서는 같은 수연 작의 서천 봉서사 목조 아미타여래삼존좌상(1619)에 비해 조각적으로 세련된 감각을 보여준다.

삼세불상의 얼굴은 각각 독특한 상호를 보이고 옷주름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전등사 삼세불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들 가운데 수화승 수연과 함께 서천 봉서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19년, 보물 1751호) 조성에 참여했던 성옥(性玉)의 조각적 개성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

화승(三畫僧)으로 참여한 영철(靈哲)은 이후 옥구 보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34년, 익산 승림사 봉안)과 남원 풍국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9년, 예산 수덕사 봉안)의 조성에 수연을 따라 참여했으며 성육에 비해 연배가 아래인 조각승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성원문을 통하여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각적으로 우수하며, 조각승들과 나타난 발원시주자들의 명단이 잘 전하여, 불상(佛像), 면금(面金), 체목금(體木金), 체목(體木), 오금(烏金), 좌대(座臺), 보단(甫團), 채안(彩安), 복장(腹藏) 등, 세부적인 시주 항목이 기록된 점 등에서 조선시대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가)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선시대 1623년에 조성된 것으로서, 중앙에 봉안된 비교적 큰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좌상과 아미타여래좌상이 협시하는 구성이다. 삼존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작품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표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조성발원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수연(守衍)과 그의 제자인 영철(靈哲) 등 여러 사람이 조성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각승들의 이름이 조성발원문의 뒤쪽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부분에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삼불좌상은 어깨가 넓고 상체가 하체에 비해 약간 크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중앙의 석가여래좌상은 향마촉지인을 결하였으며, 양옆의 약사여래좌상과 아미타여래좌상은 손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한 손은 들어 올려 설법인을 결하였고,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삼존 모두 상호가 방형으로, 눈과 눈썹이 가늘고 길며 입이 큰 편이다. 이러한 모습은 수연의 다른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들 불상만의 특징이다. 즉 1619년에 조성된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나 1625년 작인 나주 다보사 석가모니불좌상 등에서는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의 상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등사 불상에 보이는 입술 아래 중앙에 살짝 패인 흔적은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같이 수연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조선시대 1614년에 전등사가 전소된 후, 사찰을 복원하면서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된 이들 불상은 17세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조각승 수연의 작품이면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불상은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수연과 그의 일파가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으로, 수연의 중기적 조각 경향이 가장 잘 녹아 있는 불상이다. 본존인 석가모니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공간적 삼세불상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임진왜란 이후 크게 성행한 삼불 신앙을 반영한 것이다. 본존 석가여래를 좌우협시 불상보다 30cm가량 크게 만들어 존격의 차이를 두었고, 대좌 또한 본존과 좌우협시의 달리 제작하여 이 또한 차이를 두었다. 삼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發願文)을 통해 1623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조성주체, 시주자 등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이 시기 불상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만든 수연(守衍)은 17세기 전반기에서 중반기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인데, 그는 1615년 태전(太顛)을 도와 김제 금산사 독성상을 제작하였고, 1622년에는 현진(玄眞)과 함께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을 제작한 바 있다. 이외 익산 승림사 영원전 지장시왕상(1624년),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1639년) 등에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다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 불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작품 가운데 봉서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1619년 작) 다음으로 이른 시기의 작품이며, 봉서사 불상과 마찬가지로 그의 초기 작품 경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불상이다. 전반적으로 봉서사 불상의 형태적, 양식적 특징을 잇되, 장대한 몸체에 맞게 머리의 크기도 알맞게 맞춰 형태적 균형을 이뤘다. 특히 둥글 납적한 얼굴, 턱이 짧고 양 뺨에 잔뜩 바람을 불어 넣은 듯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양 뺨과 큼직한 삼각형의 돌출코 등에서 위엄이 서린 모습이 라기보다는 순박함이 배여있는 수연(守衍) 특유의 개성 있는 얼굴표정을 연출하였다. 또한 넓고 두툼한 가슴과 탄탄한 허리에서 오는 중량감 넘치는 형태, 강약과 완급의 변화가 있는 주름 표현이나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주름표현 등에서 봉서사 아미타여래상 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발전된 변화를 보인다.

이 삼존상은 석가여래삼불 도상적 특징을 정확히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대좌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 삼불상은 조선후기 불교미술의 특징인 대중적 평담미와 조각승 수연이 추구한 중량감 있는 형태미가 잘 어우러진 불상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여래좌상, 1623년, 나무,
 상높이 123.5 무릎폭 87,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2호



()



()

5.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江華 傳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가. 검토사항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6호
- 명 칭 :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江華 傳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전등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 수 량 : 31구
- 규 격 : 지장보살 높이 103.0cm, 무릎폭 68.5cm
도명존자 높이 142.0cm, 무릎폭 38cm
무독귀왕 높이 156.5cm, 무릎폭 41cm 외 28구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1636년(인조 14)

○ 제작자 : 수연(守衍), 영철(靈哲), 밀영(密暎), 의엄(義嚴), 정원(淨元), 성민(省敏), 법란(法蘭), 사신(思信), 선행(善行), 신관(信觀), 신수(信修), 충신(冲信)

라. 내용 및 특징

전등사 명부전에는 지장삼존, 시왕상 및 하부권속을 포함해 28구의 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좌상, 도명존자, 송제대왕과 오관대왕의 내부에서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어 “송정구년병자…(崇禎九年丙子…)” 1636년에 이들 존상들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명부전 존상 조성 역시 대웅전과 같이 수연의 주도아래 영철(靈哲), 밀영(密暎), 의엄(義嚴) 등 총 12명의 조각승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에는 지장삼존을 그 좌우측에는 각 5명의 왕과 귀왕, 판관, 사자상을 두어 일반적인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하부권속들과 함께 벽면에 배치되어야 할 좌우 인왕은 현재는 지장보살삼존의 맞은편에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이마가 넓고 턱으로 내려갈수록 뽀족한 얼굴 모습에 깊게 파인 넓은 인중, 입술의 양 끝을 살짝 들어가게 하는 등 특징적인 얼굴 모습을 보인다. 지장보살좌상은 대의에 편삼을 걸쳤으며, 드러낸 가슴 아래에는 가지런히 접힌 승각기가 보인다. 상반신의 대의자락은 선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표현한 반면 하반신대의 자락의 접힘은 양감을 살려 처리하였다. 지장보살좌상의 양 옆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입상으로 있다. 향우측의 도명존자는 검지와 중지를 결한 수인을 하고 오른손에는 선장을 쥐고 있고, 향좌측의 무독귀왕은 두 손을 수건으로 감싼 채 보함을 든 모습이다.

전등사 명부전의 시왕상은 양관형태의 관모를 쓰고 포, 치마, 의대와 광다회를 걸친 모습이다. 의대와 광다회 위에는 불연에 보이는 매듭장식들이 남아있다. 여덟 구의 상은(像) 의자좌를 하고 연령대는 중년의 상호가 대부분으로, 대부분 양손에 홀을 쥐는 모습이다. 다수의 시왕상 관모 정면에는 꽃장식이 주요한 장식 모티프이고 화염문양이나 뿔장식 등이 부수적으로 첨부된다. 하지만 현재 전등사 명부전 시왕 관모들 중에는 근래에 새롭게 조성한 것들 역시 확인되어 조성 당시의 전체적인 관모 형태 및 장식 모티프들을 가늠하는데 한계가 있다.

명부전의 좌우에는 귀왕, 판관, 사자, 동자 및 인왕상들이 있다. 시왕과 같이 양관을 쓴 귀왕은 현재 한 구만이 남았고, 검은 색 복두를 쓴 판관은 세 구가 있다. 한 구의 판관은 양손으로 홀을 쥐는 모습이지만 나머지 판관들은 한 쪽 손은 소매 속에 말아 넣은 채 명치 부근에서 광다회를 쥐거나, 한 손을 내민 자세를 한

다. 사자상은 현재 한 구뿐인데, 특이하게 관관과 같은 검은색 복두를 쓰고 있다. 조선후기 대부분의 사자상이 두건을 쓴 모습인 것을 고려하면 좀처럼 보기 힘든 표현이다. 하지만 수연이 전등사 명부전보다 2년 앞서 만든 1634년 옥구 보천사 시왕상(현재 익산 승림사 영원전 봉안)에서도 복두를 쓴 사자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연 계보의 조각승들은 복두를 쓴 사자상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 명문 및 특기사항

① 전등사십왕조상회향발원문(傳燈寺十王造像回向發願文), 1636년, 종이, 48.3×128, 1매, 수장고

記文：傳燈寺十王造像回向發願文」歡喜園春水月容慈雲甘露洒濛〃願因敬造斯功德普使同緣利莫窮」崇禎九年丙子始於孟秋畢於孟冬日各〃結願隨喜施主與緣化比丘義玄助緣」劉金信正信雄等 伏祝」主上三殿萬萬歲」國泰民安法輪轉」畫員秩」證明坦悟」守衍」靈哲」密暎」兼持殿義卍」淨元」省敏」法蘭」思信」善行」信觀」信修」沖信」侍者愛生」愛立」德男」禹男」緣化秩志仁」天琦」太演」海元」德希」孝立」承立」姜早金」化主義玄」助緣劉金」助緣信正」信雄」大施主李氏兩主」李氏兩主」金氏莫福兩主」申氏保体」韓氏保体」朴氏丹從兩主」朴氏文從兩主」徐業同兩主」崔氏保体」朴次芴屎靈駕」金大仁靈駕」姜乙生兩主」韓氏靈駕」韓氏保体」李氏保体」李氏金氏兩主」黃氏鄭氏兩主」閔氏鄭氏兩主」吳氏○之保体」金氏杰介保体」李得仁兩主」人參氏」○伊氏」○○氏」閑氏得香保体」姜善禮」表億石」莫之」尹代」連春韓彦」崔達于伊仁玉韓氏」大施主秩地藏大施主金希龍兩主」張得男兩主」金茂生兩主」鄭氏丹春兩主」南應春兩主」金命金兩主」千應春兩主」金淸兩主」安應春兩主」朴承玄兩主」崔命千兩主」白云吉兩主」…兩主」李德行兩主」金族同兩主」明氏介屎學力」黃彦龍兩主」高勝男兩主」金春難兩主」吳貴男兩主」莫介兩主」吳辛彦兩主」金夢生兩主」姜己生兩主」朴大守兩主」崔秀李兩主」李氏今伊兩主」李杰男兩主」姜僅生兩主」秦業成兩主」朴杰男兩主」金許老應孫兩主」白敬泉保体」金氏愛春兩主」白氏愛進保体」張鶴林兩主」全春福兩主」金業成立兩主」金仁男兩主」李吉龍兩主」車(九/入)里兩主」劉九乙金兩主」劉難福兩主」河貴一兩主」金戒云兩主」崔信伊保体」安氏順養兩主」李天伊兩主」金春兩主」金夢吉兩主」姜氏件里兩主」車南金兩主」李氏玉今兩主」李欣孫兩主」黃秀春兩主」邢凱兩主」朴沖福兩主」趙天龍兩主」惠瑜比丘」應均比丘」池天龍兩主」金墨世兩主」尹許奴應兩主」朱杰連兩主」徐氏九月兩主」朴氏芴介兩主」朱德山兩主」朱德根兩主」朴天龍兩主」朴礼先兩主」李丁立兩主」韓氏莫代兩主」金永之兩主」金氏海堂兩主」崔繼興兩主」韓氏希介兩主」張氏孝進兩主」高僅謙兩主」金氏春伊兩主」文芴福兩主」劉莫之

兩主」張芑金 兩主」白氏孝女 兩主」洪氏○水介 兩主」姜訥去伊 兩主」張位男 兩主」辛敬進 兩主」黃氏 兩主」慶喜 學力」金氏李仁 學力」趙氏 兩主」辛浩道 兩主」徐氏 學力」鄭氏 學力」金氏愛蘭 學力」辛氏敬淑 學力」李氏李玉 學力」北官 兩主」圓牛 比丘」金京忠 兩主」桂芑屎 兩主」林男 兩主」上勝 比丘」守能 灵駕」洪進生 兩主」趙俊識 兩主」奉仁必 兩主」宋豐金 兩主」全天龍 兩主」洪山 兩主」柵彥山 兩主」張(訥/叱)孫 兩主」韓氏春梅 兩主」姜希守 兩主」金氏龍介 兩主」韓(芑/叱)金 兩主」崔彥奉 兩主」金應守 兩主」金茂生 兩主」朴承男 兩主」金奉守 兩主」黃得 兩主」崔墨孫 兩主」劉氏甘之 學力」南金 兩主」李菊花 兩主」鄭冲 兩主」朴應命 兩主」朴己立 兩主」李孫 兩主」鄭孫 兩主」李氏九月 兩主」劉氏滄德 兩主」張士臣 兩主」張南孫 兩主」韓氏正○ 學力」金氏欣介 學力」朴氏○一 學力」金氏大立 學力」姜鐵道 兩主」金氏杰介 學力」金尙男 兩位」沈氏 兩位」申氏 兩位」朴夢仁 兩主」辛會 兩位」薛興 兩主」尹氏 兩位」安介夫里 兩主」洪彥春 兩主」趙承林 兩主」勝雲 比丘」戒環 比丘」宝瓊 比丘」宝峻 比丘」志敬 比丘」雲思 比丘」法云 比丘」戒淳 比丘」正彥 比丘」僅尙 比丘」元敏 比丘」元明 比丘」天峻 比丘」○能 比丘」○敏 比丘」太琦 比丘」玉憐 比丘」太嘗 比丘」元應 比丘」惠明 比丘」信會 比丘」德峻 比丘」佛玄 比丘」自皓 比丘」云皓 比丘」宣繼宗 兩主」高淡 兩主」全天國 兩主」崔命吉 兩主」高氏耄德 兩主」宋得萬 兩主」宋希巾 兩主」趙氏仁玉 兩主」宋希 兩主」韓氏 兩位」韓氏 兩位」裴氏正今 兩位」李氏元陳 兩主」韓氏 兩位」金氏保体」韓仁 兩位」卓守閑 兩主」杰介 學力」張芑金 兩主」白氏小禮 學力」金敬還 兩主」姜乙生 兩主」閑唱 灵駕」

② 원문, 1918년, 종이, 47.7×48, 1매, 수장고

記文：願文」伏以地藏大聖威神力恒河沙劫說難盡大聖威德雖曰无量一言以蔽之曰悲智願心也往在」恒沙劫中宿植善本覺華定自在王古佛塔前大發三心久遠劫波長遊三途不可思議功德成就然」至聖沒量恒沙聖德視如毛倫不足以爲貴而如斯末運當發大心者可謂火中蓮花豈不勝」哉化主智永仰慕聖女釋迦如來世尊前立大誓願曰願我生 〃 在 〃 處 〃 如彼地藏大聖衆生」度盡方證菩提堅志如來廢寺壞像次第新之而繼无彼我之私偏有同緣於此故 大正五年」丙辰大雄寶殿三尊改金後佛畫幀神衆變相藥師塗粉彌陀觀音之改金十王改彩殿」閣丹腹寂默廢寮之修理講堂退室之滲滿完旧如新若非曩劫宿願豈如是耶溯仰」大聖之因行亦无過於今日抑亦菩薩重來否和尚之願與功湏彌之筆香海之墨難可盡記」而以古視今不可无記故告諸大衆 〃 當知否沙彌耆艾咸曰假使鐵輪頂上旋安可忘和尚」之功也欺願我欲如和尚之願令諸衆生益入滅度永盡群生名字則遮可報和尚之恩而亦」可爲菩薩之德酬矣余稽首曰菩薩之願成就者和尚(和尚而)之化效之者即大衆○以大衆之心比」度則和尚之風化豈大於大聖耶大聖之盛德沙劫說難自固不誣以是

爲發原文」以發願已至心奉祝」天皇陛下聖壽萬歲」李太王殿下玉體安寧」李王殿下聖壽千秋」施主」尙宮淸信女己酉生金氏虛空心」尙宮淸信女己酉生柳氏妙明心」尙宮淸信女戊申生邊氏光明華」緣化所」證明太虛」大圓」持殿仁虛」片手寶鏡」金魚霽月」慈月」助畫南壽」鐘頭善洪」供司石潭」火坩玄義三」高寬錄」書記根皓」山監善周」別座青峰」監事錦松」法務寶鏡」院長蓮月」住持兼化主鏡濟」大正七年戊午九月十日點眼時」太虛頭陀焚香謹書」

③ 축원문, 조선후기, 종이, □ 20×16.8 □ 20.2×17.1, 2매, 수장고

記文：□ 進士李慶昌口舌官災一時消滅」願生文章才子功盖一國名滿天下」之願」
□□ 進士李慶昌先亡父母往生極樂世界自己」身上口舌官災永爲消滅功名富貴煥」赫一世奴婢牛馬一時興旺願生貴子名」滿天下所求所願一〃成聚之願」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전등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은 조성원문을 통하여 승정(崇禎) 9년(1636)이라는 뚜렷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 조각승 수연(守衍)에 의해 조성된지 13년이 지난 뒤에 역시 수연이 수화승이 되어 제작한 상들이다. 지장보살상과 그 좌우에 무독귀왕, 도명존자, 십왕(十王)와 귀왕, 판관, 사자상, 동자상, 인왕상 등, 명부전의 권속이 많다보니 조각승도 12명이나 참여하여 수연의 지휘 아래 제작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상들의 조성을 위한 시주에 수많은 신도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당시 전등사 일대의 대대적인 불사(佛事)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장보살상은 방형의 얼굴에 엄중하면서도 자비로운 상호(相好)를 보이며 양 어깨에 걸쳐진 대의 옷자락은 유연한 주름을 이루며 하체로 연결된다. 양손으로는 지물을 들지 않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에 설법인을 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례와 조형감이 우수하다. 지장보살상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도명존자상은 얼굴표현에서 사실성이 돋보이며, 장삼위에 가사를 입은 착의형식이 단정하다. 수연 조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장보살상과 도명존자 외에도 시왕상과 기타 권속의 여러 상에서 보이는 인간적이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는 수연 조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조각기법 상의 우수성, 조각가와 조성연대에 대한 분명한 기록, 원래부터 전등사 명부전 봉안을 위해 조성된 상이라는 여러 점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전등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 28존의 존상들은 지장보살좌상과 도명존자상 등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조선시대 1636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존상을 조성했던 조각승은 대웅보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만든 수연(守衍)과 영철(靈哲) 등 조각승 12명이다. 아마 1614년에 전등사가 전소된 후, 주 전각인 대웅보전을 먼저 낙성하고, 부속 건물인 명부전을 건축한 후 이들 존상을 봉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왕상의 일부 관모가 후대에 교체된 것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장보살좌상은 비례가 적절하고 상호가 원만하다. 보살상에 보이는 둥근 모습의 상호와 인간적인 느낌은 수연의 후기 조각의 특징이다. 명부전이라는 같은 공간에 봉안하면서도 각 존상이 지닌 존격을 살려 표현을 다르게 하였는데, 긴 얼굴의 시왕상과 달리 짧은 형태의 얼굴을 지닌 동자상의 표정에서 조각승의 수준 높은 관찰력과 묘사력이 엿볼 수 있다. 일부 시왕상의 정수리 부분에 보이는 보발을 세 부분으로 정리한 모습은 수연과 영철, 운혜 등 사승 관계에 놓여 있는 이들 조각승의 표현법이다. 한편 시왕상에 보이는 양관 형태의 관모와 포, 치마, 의대, 광다회 등은 조선시대 복식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등사 명부전의 지장보살삼존상 등 28존의 존상들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명부전 도상에서 빠진 것이 거의 없어서 조선시대 지장신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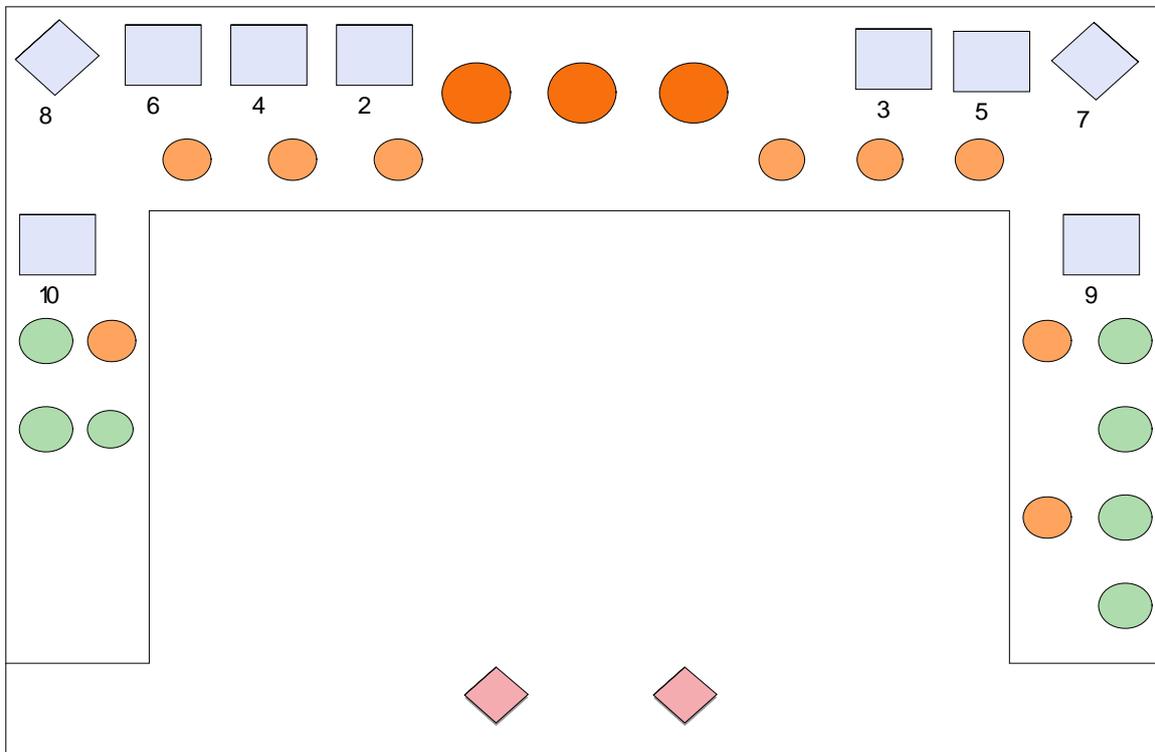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전등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을 비롯한 도명존자, 무독귀왕, 10대왕, 귀왕, 판관, 사자, 동자, 장군(인왕) 등 지장보살의 권속들이 경(冂)형 불단 위에 엄숙하게 봉안되어 있다. 이들 상중에서 지장보살상과 무독귀왕상, 도명존자상, 제1 진광대왕상, 제3 송제대왕상, 제4 오관대왕상에서 복장유물이 수습되었다. 특히 지장보살상과 도명존자, 송제대왕, 오관대왕상에서는 제작과 관련된 조성발원문이 수습되었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상들은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을 만든 수조각승 수연(守衍)과 영철(英哲), 밀영(密英) 등 12명의 화원이 1636년(인조 14)에 함께 참여하여 만든 작품으로 밝혀져 17세기 전반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대웅전 삼세불상을 제작했던 수연이 13년 후 다시 같은 사찰의 명부존상 조성에 참여하고 있어 한 곳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한 작가의 작품 경향과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로서 주목된다.

이 상들은 대웅전 삼세불상에 비해 좀더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변모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장보살상의 자비와 시왕상의 단엄함, 동자상의 쾌활함이 잘 어우러져 17세기 명부조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제작시기가 밝혀진 지장시왕상의 가운데 이른 시기에 해당하므로, 수습된 발원문을 포함하여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1636 , ,

56



()



()

願文

伏以地藏大聖威神... 恒沙劫中宿種善根... 聖聖沒量... 我化主智永仰... 度盡方證善提... 西辰大雄寶殿... 年丁巳臘月... 開丹輝宸... 大聖之日行... 必以古視今... 之切也歎願... 可為善陸之... 度則和而之... 以發願山至心奉祝

天皇陛下聖壽萬歲
李太王殿下聖體安寧
李王殿下聖壽千秋
施主
尚宮清信女山生金氏虛空
尚宮清信女山生柳氏妙明
尚宮清信女山中生邊氏光明

大正七年戊午九月十日點眼時

綠化所
證明 大座
大圓 仁虛
性子 寶鏡
全魚 雲月
卷月
勸德 兩寺
鐘頭 善洪
供司 石傳
火治 玄義三
高寬 錄
書記 根 皓
山 善 善 周
別座 青 峰
監 事 錦 松
法務 實 鏡
院長 蓮 月
住持 兼 化 土 鏡 濟

太虛願院焚香謹書

進士李慶昌先亡父母性生性果世界自己
身上口舌官災永為消滅功名富貴
兼一世外牌牛馬一時與狂願生其子花
滿天下祈亦所願一：成聚之願

進士李慶昌口舌官災一時消滅
願生文章才子功蓋一國名滿天下
之願

6.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江華 靑蓮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가. 검토사항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江華 靑蓮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청련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550
- 수 량 : 불상 1구
- 규 격 : 높이 85.0cm, 무릎폭 61.0cm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고려시대(13세기)
- 제작자 : 미상

라. 내용 및 특징

청련사 큰법당에는 아미타여래좌상 1구가 봉안되어 있는데, 불상조성기나 복장 발원문 등의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불상은 머리에 뽕족한 나발과 함께 원형의 정상계주와 중간계주가 표현되어 있으며, 머리와 육계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이마는 반듯하다. 반개(半開)한 두 눈은 양끝이 살짝 치켜 올라간 형태이며, 콧날은 오뚝하고 인중이 뚜렷하다. 비교적 좌우가 짧은 입술은 두툼한 편으로, 양쪽 볼에도 양감이 드러난다. 목에는 삼도가 음각되었고, 머리에 비해 약간 좁은 어깨는 둥근 형태이다. 양손은 모두 들어 중품중생인을 결하고 있으며, U자형 대의로 인해 드러난 가슴 부분은 양감이 강하게 표현되었고, 복부에는 균의를 묶은 승각기가 보인다. 방형에 가까운 무릎 부분은 상체에 비해 낮은 편으로, 가운데 부분에 모여져 흘러내린 옷주름과 함께 왼쪽 무릎에는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대의자락이 표현되었다.

청련사 아미타여래좌상과 비교할 상으로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80년 중수),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74년 이전),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3세기),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362년 개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상은 상체가 약간 앞으로 굽은 자세, 머리에 비해 좁고 둥근 어깨와 낮은 무릎의 신체비례, 원형의 상호와 양감이 강조된 볼, 대의를 걸친 착의법과 옷주름 및 승각기 표현 등에서 13세기에 조성된 상들과 유사하다. 특히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왼쪽 어깨에서 보이는 대의가 접힌 부분에 표현하고 있는 세로방향의 독특한 물결주름은, 다른 상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으로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왼쪽 어깨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두 상의 영향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수국사 아미타여래좌상이나 개운사 아미타여래좌상의 경우에도 왼쪽 어깨에 대의가 접힌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어 개심사나 청련사 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런 대의 자락이 접힌 표현과 함께 좌측 어깨에서 흘러내려 끝부분에서 Ω 모양으로 정리되는 주름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런 형태의 옷주름은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의 상들로 계승되면서 점차 도식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에서는 왼쪽 어깨의 옷주름과 함께, 왼쪽 무릎 위에 흘러내린 옷주름 역시 직선에 가까운 몇 가닥의 단순한 형태로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에 표현된 중간계주의 형태 역시 개심사, 개운사, 청련사 아미타여래좌상의 경우처럼 13세기에 조성된 상들의 경우 대부분 원형인데 반해, 심향사나 대둔사, 문경 대승사 아미타여래좌상(1301년 추정)의 경우처럼 시대가 지날수록 반달형을 띠고 있어 그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마.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복장물을 잃어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으나 정도 신앙이 성행하여 전국적으로 아미타불의 조성이 유행하던 고려후기에 조성된 상으로 생각된다. 온화하면서도 숭고한 불격(佛格)이 나타나는 상호(相好)나 왼쪽 어깨 위에 걸쳐진 대의 옷주름이 지그재그 형태도 묘사되고, 왼편 어깨에서 상박부로 흘러내리는 주름이 작은 오메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표현은 복장 봉합목의 안쪽에 1280년의 보수목서명이 전하는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귀 부분의 조각기법은 개심사 불상 외에도 기해(1239년)명(銘)의 시중 최종준(崔宗峻)발원 보협인다라니가 복장에서 다량 발견된 갈현동 수국사(守國寺)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매우 흡사하다. 개심사상과 비교해 보면, 어깨를 비롯한 불신(佛身)의 표현에서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고 옷주름도 단순해진 감이 있으나, 제작 공방이 같다고 생각될 만큼 많은 유사성이 발견되며, 고려 왕실이 강도(江都)로 도읍을 옮겼던 13세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불상은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추정되는 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원만한 상호와 적절한 신례 비례를 갖춘 전형적인 고려시대 불상이다. 현재 복장 유물은 없어졌으나, 전체적으로 고려 1280년에 보수되었다는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3세기 전반 작으로 추정된 수국사 목조불좌상과 비교되는 작품으로서, 고려 13세기 전반의 양식적인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즉 귀의 외관이 Y자와 열쇠 구멍 모양으로 깊게 조각되어 있거나, 고려시대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인 왼쪽 팔 상박 측면을 덮고 있는 Ω 형태의 법의 자락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대의 자락이 엉덩이 밑으로 깔린 다음, 양쪽 다리 앞으로 나오게 표현한 점, 결가부좌한 양쪽 발목 위로 흘러내린 옷자락이 S자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개심사 불상과 수국사 불상에서도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은 청련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이 고려시대 13세기 전반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불상과 청련사와의 관계가 분명하진 않지만, 불상은 고려의 강도(江都) 시기(1232-1270)에 강화도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양식적으로 고려 불상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고려시대 13세기 작으로서 그 희소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단정하고 우아한 상호, 단아하고 세련된 조형미, 완급 조절이 잘 표현된 옷 주름 등에서 세련되고 품격 높은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비록 조성기나 중수기 등 불상제작과 관련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부드럽고 단아한 이국적인 얼굴, y자 형태로 분명하게 표현한 귀의 상·하각, 불링핀 형태의 명확한 귓구멍,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 왼쪽 가슴에서 머플러처럼 너풀너풀 거리며 늘어진 띠 주름과 어깨의 잘게 늘어진 주름 사이로 조그맣게 표현된 Ω형 주름, 승각기를 돌돌 말아 단단하게 묶은 띠 매듭과 자락, 그리고 양 무릎에 수평으로 표현된 힘 있게 눌러 찍은 듯한 골 깊은 주름과 오른 발목을 덮어 내린 넓은 ‘八’자 모양 띠 주름 등의 양식에서 1274년에 중수된 서울 개운사 아미타여래좌상이나 1280년에 중수된 서산 개심사 아미타여래좌상, 그리고 13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수국사 아미타여래좌상 등 13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가깝다. 이 불상이 갖고 있는 조형적, 양식적 특성으로 볼 때, 이 상도 이르면 13세기 전반 늦어도 중반 사이에는 제작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 불상은 타 지역에서 이운해 온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청련사의 주불로 예경되었던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몽고병란을 피해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1232에서 1270년 사이에 개경의 수준 높은 조각 장인이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불상은 고려 불교미술이 추구했던 우아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형적, 예술적, 종교적으로도 성숙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이다. 더불어 강화천도(江華遷都)시절의 불교미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13 , , 85 61

7. 남양주 수종사 금동불감 및 불상 일괄 (南楊州 水鍾寺 金銅佛龕 및 佛像 一括)

가. 검토사항

‘남양주 수종사 금동불감 및 불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1)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남양주 수종사 금동불감 및 불상 일괄
(南楊州 水鍾寺 金銅佛龕 및 佛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수종사(불교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 수 량 : 불감 1구, 불보살상 18구
- 규 격 : 하단 참조
- 재 질 : 금동, 목조
- 제작연대 : 조선전기(15세기), 1628년(인조 6)
- 제작자 : 15세기 - 미상
1628년 - 성인(性仁)

라. 내용 및 특징

수중사는 1460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금동불상군은 경내에 위치한 팔각오층 석탑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되었다. 먼저 1957년 5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초층 탑신석뿐만 아니라 초층 옥개석, 기단중대석 세 군데 원형의 장치공 내부에서 불상이 발견되었다. 초층 탑신석에서는 금동불상 1구와 보살상 2구, 금동불감 1점, 목조상 3구 등이 발견되었는데, 금동불좌상에서는 ‘시주 명빈김씨(施主 明嬪金氏)’의 명문(銘文)과 1493년명의 복장기(腹藏記)가 확인되었고, 기단 중대석에서는 1628년명의 조성기(造成記)가 새겨진 금동비로사나불좌상(金銅毘盧舍那佛坐像)을 포함한 금동불상 8구, 초층 옥개석에서 4구의 금동불상이 발견되었고 상들은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기탁 보관 되고 있다.

이후 1970년 5월23일~24일, 원래 경내(境內)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석탑을 사찰 경내로 이건(移建)하기 위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2층 옥개석에서 금동불상 9구와 3층 옥개석에서 금동불상 3구가 출토되었다. 하지만 발견될 당시의 현장기록이 없고, 촬영자료 또한 출토가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져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또한 이 때 출토된 12구의 불상은 외부로 유출되어 4구는 분실되었고, 나머지 8구는 국립중앙박물관(6구)과 동아대학교박물관(2구)에 각각 소장되어 있어 수중사 탑내에서 출토된 불상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 불상군은 원문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주 명빈김씨(施主 明嬪金氏)’의 명문을 지니고 1493년에 숙용(淑容), 홍씨(洪氏), 숙용(淑容), 정씨(鄭氏), 숙원 김씨(淑媛 金氏)가 복장발원문을 넣어 탑에 봉안한 불상군 2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1628년에 인목대비가 주조하였다고 알려진 불상군 23구이다.

우선 초층 탑신석에서 발견된 불상군은 총 6구로 금동석가불좌상, 반가사유보살상, 지장보살좌상 3구와 목조의 관음보살입상, 지장보살입상, 천왕상 3구로 구성되었다. 금동석가불좌상 내부에서 은제 사리병과 발원문이 적힌 형겔뭉치 등이 발견되었는데, 석가불좌상 1구와 관음보살상 1구가 봉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외의 상들은 복장기록에 적혀 있는 후궁 숙용 홍씨(淑容 洪氏), 숙용 정씨(淑容 鄭氏), 숙원 김씨(淑媛 金氏)에 의해 봉안되었는지 아니면 발원문에서 누락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외에도 출토당시 3구의 목조상과 함께 목조불감도 발견되었다고 하나 훼손이 심해 나무 편들만 수습되었다.

중대석에서 발견된 금동비로사나불좌상의 바닥면에서 발견된 조성기에 의해, 승정원년(崇禎元年), 즉 1628년(인조 6년)에 정의대왕대비(1584~1632)즉 인목대비가 발원하여 23구의 불상을 탑에 안치했고, 화원 性仁이 불상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은 1622년에 왕실일가를 위해 발원한 지장암 목조비로사나불좌상의 복장 발원문에서도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종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상들은 복장기록에 의해 1493년에 납입된 2구와 1628년 납입된 23구등 총 25구의 존상만이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상의 출토경위가 불분명하고 현존하는 불상군의 수량 또한 총 26구로 기록과는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불감에 관한 기록은 없다.

○ 명문 및 특기사항

① 원문, 1493년, 종이, 28.9×42.3, 1매, 불교중앙박물관

記文：弘治六年癸丑六月初七日淑容○氏淑容○氏淑媛金氏等端爲」主上殿下聖壽萬歲亦爲兒息咸亨福壽○行○修釋迦如來一軀」觀音菩薩一軀安激○○若其功德○意具○于後」主上所天 義莫重焉 兒息骨肉 情所篤也」富貴則極 難讀者○ 欲圖延年 常竭愚衷」百思莫伸 惟佛○○ 法門雖多 造佛是最」茲肇禮誠 各捨己貲重修古佛 莊嚴斯飾」虔點○眸 安妥塔廟 能事方周 徵願必圓」頌王之德 日月並明 先王之壽 天地同久」兩主大妃 中宮世子 誕膺純嘏 咸躋壽域」抑亦己身 既諸子甥 ○保康寧 福壽增崇」在在處處 涵○聖澤 生生世世 恒○主伴」施主」淑容洪氏」惠淑翁主兩主」完原君兩主」○山君兩主」○城君」福蘭」石壽」○福」鐵壽」舜壽」○蘭」淑容鄭氏」安陽君兩主」奉安君」承福」淑媛金氏」徵淑翁主兩主」敬淑翁主」福○」福崇」

② 비로자나불좌상, 1628년, 금동, 높이 10.3, 무릎폭 6.3, 1구, 불교중앙박물관

점각 명문：崇禎元年戊辰昭聖」貞懿大王大妃發願」鑄像二十三尊容安于」寶塔後貽濟衆爾」畫員 性仁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출토 금동불·보살상 18구는 조성원문에 쓰여있는 성종의 후궁들이 홍치(弘治) 6년(1493)에 납입했다고 하는 불상 2구(석가여래 1구와 관음보살 1구)와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바닥면에 새겨진 조성기에 보이는 승정(崇禎) 원년(1628)에 인목대비(정의대왕대비)의 발원으로 조성된 23구의 일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조사된 유물들은 출토지점과 조성시기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 그룹은 석탑 1층 탑신석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1493년에 납입되었다고 추정되는데, 내부 중앙 벽에 삼세불상이 새겨지고 문짝 안쪽 면에 인왕상이 새겨져 있는 금동불감 1점과 금동상 3구(석가불좌상, 반가사유보살상, 지장보살좌상),

소형 목조상 3구(지장보살입상, 1면4비관음보살입상, 지장보살입상)의 총 6점이다. 이 가운데 금동석가불좌상은 조성시기가 조선초 15세기 전반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으로서 왕실에서 불상제작을 담당했던 內需司에서 만든 불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상이 봉안되어 있던 금동불감은 천은사 금동불감과 같은 고려말기 불감에 비해서는 제작기법이 떨어져 정치한 면이 부족하나 왕실에서 1493년경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소형의 목조상 3구는 절금(切金) 기법을 사용한 제작기법과 상호(相好)와 도상(圖像)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 무로마치[室町]시대의 불상으로 생각되는데 왕실비빈(王室妃嬪)들이 모시고 있던 불상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그룹은 석탑의 기단중대석과 1층 옥개석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좌바닥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서 1628년에 화원(畫員)(조각승) 성인(性仁)이 조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한 11구의 금동불·보살상들이다. 이 상들은 두부가 큰 단구형의 체구에, 둥그랗고 통통한 얼굴, 둥글게 처진 어깨, 작은 손, 빈약한 하체에서 17세기 조각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당시의 불교도상을 총망라한 듯, 착의형식, 수인, 보관형태 등에서 다양함을 보이고, 왕실 발원의 불상으로서 조각적으로도 수준이 높으며, 석탑안에 납입되었던 상들이므로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특히, 조선초 15세기부터 임란이후인 17세기까지의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변천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조성 발원문과 불상 대좌 밑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하여 수종사 불감과 불상 일괄은 조선시대 15세기 후반과 조선시대 1628년경에 각각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감은 많이 부서지긴 하였지만, 조선시대 초기의 불감 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불감 안팎에 표현된 도상들을 통하여 당시 불교 도상 연구에 기준 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불감 내부 정면에 표현된 삼신불의 도상, 가늘고 긴 조선시대 초기 탑의 조형, 불감 외부 양 옆면의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의 그림, 뒷면의 불설법도 등은 조선시대 전기에 유행했던 도상들과 연관된다. 함께 발견된 조성 발원문은 이들 일괄품이 조선시대 왕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데, 특히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바닥에 새겨진 명문을 통하여 이 불상의 발원자가 정의대왕대비(貞懿大王大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문에 기록된 화원 성인(性仁)은 17세기 초에 활동했던 조각가로서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을 만든 사람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된다.

15세기 불상으로 보이는 일련의 상들은 고려 후기 불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듯하며, 17세기 불상으로 편년되는 웅크린 자세의 무거운 존상들은 비례가 맞지 않아 약간은 해학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시대상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종사 불감 및 불상 일괄은 수종사 탑에 납입될 조선시대의 상황과 발견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없고, 함께 봉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조선시대 초기의 왕실불교미술을 대표하고, 발원문과 명문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수종사는 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사찰 내에 태종과의 빈권씨 사이에서 태어난 정혜옹주의 사리탑(1439년 금성대군이 건립)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무렵에 왕실과 관계를 맺으며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왕실과의 인연이 지속되었는데, 수종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일련의 금동불상들이 그것을 대변한다.

수종사에서 발견된 금동불상은 크게 시기를 달리하여 2차례에 걸쳐 봉안되었다. 첫째는 1493년 숙용홍씨, 숙용정씨, 숙원김씨 등 성종의 후궁들이 발원, 봉안한 불상들이다. 두 번째 불상은 선조의 계비인 ‘소성정의대왕대비(昭聖貞懿大王大妃)’ 즉, 인목대비가 1628년에 조성하여 봉안한 불상들이다.

1493년에 봉납된 금동불상의 밑면 봉합판과 복장에는 시주자와 발원문을 남기고 있다. 불상의 밑면 복장 봉합판에는 음각으로 ‘시주 명빈김씨(施主 明嬪金氏)’라는 사주자를 새겼으며, 복장에는 1493년 숙용홍씨 등 성종의 후궁들이 발원한 발원문을 넣었다. 1493년 발원문에는 임금의 성수만세와 왕실의 안녕, 자손들의 복수(福壽)를 기원하며 옛 불상을 중수, 장엄하여 탑에 안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불상을 처음 시주한 ‘명빈김씨’는 태종의 후궁으로 불심이 깊어 많은 왕실 발원 불사에 적극적 참여한 인물이다. 그가 명빈으로 책봉된 해는 1411년이고, 세상을 떠난 해가 1479년이기 때문에 이 불상은 1411년에서 1479년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빈김씨’가 어느 시점에 시주한 불상을 1493년에 숙용홍씨 등이 불상을 수리하여 수종사 탑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납입된 불상들은 모두 1층 탑신에서 발견되었고, 금동불상 1구, 보살상 2구, 금동불감 1점, 목조상 3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원문에는 석가여래 1구와 관음보살 1구를 중수하여 봉안한다는 내용이 있어 실제 발견된 불상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 않는다. 아마도 이는 본문에서 ‘옛 불상을 중수하고 장엄하여 탑에 봉안한다’라고 거

듬 언급하고 있듯이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불상만을 원문에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1628년에는 인목대비가 불상 23구를 제작하여 탑에 안치하였다. 조성기는 소형 금동불상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비로자나불상의 밑면에 점각으로 기록해 두었다. 인목대비가 선대 비빈들이 불상을 봉안했던 탑에 다시 탑을 봉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조의 능(목릉)이 수종사 가깝고, 1628년이 선조가 붕어(崩御)한지 20년 되는 해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또한 선대의 비빈들이 탑 내 불상을 봉안했던 사실도 참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628년에 안치된 불상들은 23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24구로 알려져 있다. 그 중 4구는 분실되었고 불교중앙박물관에 12구(불상 6, 보살상 5, 나한상 1), 국립중앙박물관 6구, 동아대박물관에 2구가 전한다.

이들 불상들은 모두 조선 왕실의 비빈(妃嬪)에 의해서 조성되고 봉안된 공통점이 있고, 비록 소규모 불상이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불교조각품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1493년에 봉안된 금동불상 2구는 조성기에 의하면 석가여래와 관음보살로 추정됨에 따라 불교도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이들은 고려 후기의 조각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중국 명대 티베트 불상양식을 수용하여 조선 전기 새로운 불상양식을 확립하고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발견된 목조불상들은 이채로운 얼굴과 세부표현에서 외국(日本)으로부터 수입되어 납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료, 수종 분석 등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628년에 인목대비가 발원한 불상은 조각승 성인(性仁)이 조성하였다. 성인은 광해군의 정비인 장열왕후가 발원한 자인수양사 불상 조성에도 참여하는 등 왕실과 관련이 깊었던 조각승으로 생각된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통통한 얼굴에는 유쾌한 미소를 머금고 있고, 짧고 아동적인 체구에 표현된 옷주름은 유려한 선묘를 보여준다. 보살상들은 하나같이 다른 보관을 착용하고 풍만한 양감에 단구적인 신체 비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불상 중에는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여래의 전형적인 삼신불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 사례가 드문 삼신불 도상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이다. 전반적으로 이들 불상들은 1622년 자인수양사 목조비로자나불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고 있어 17세기 전반기 궁중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불상들은 역불승유의 정치적 이념 아래에서 두 시기에 걸쳐 동일한 탑에 내명부의 최고 품계의 비빈들이 불상을 조성, 봉안하였다는 사실에서 조선시대 왕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실증자료이며, 발견된 불상들도 모두 우수한 조각기법과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 이 시기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함께 발견된 불감과 함께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문헌자료

윤무병, 「수종사팔각오층탑내발견유물(水鐘寺八角五層塔內發見遺物)」,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叢)』, 을유문화사, 1969.

정영호, 「수종사 석탑 내 발견 금동여래상」, 『고고미술』 106·107, 한국미술사학회, 1970.

박아연, 「수종사 팔각오층 석탑 봉안 왕실발원 금동불상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명칭은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출토유물 일괄’로 함.

● 1493

02	<p>佛坐像 (15), , 14.3cm 9.1cm, 1 , : 1</p>		05	<p>地藏菩薩坐像 (15), , 3.9cm 2.7cm, 1 , : 1</p>	
03	<p>가 菩薩半跏像 (15), , 7.0cm 3.6cm, 1 , : 1</p>		06	<p>地藏菩薩立像 (15), , 2.8cm 1.1cm, 1 , : 1</p>	
04	<p>觀音菩薩立像 (15), . , 6.2cm 1.9cm, 1 , : 1</p>		07	<p>天王像 (15), , 2.9cm 1.2cm, 1 , : 1</p>	
08	<p>佛龕 (15), , 21.5cm x 18.5cm x 10.2cm, : 1</p>				

● 1628

09	<p>毘盧舍那佛坐像 1628 , , 10.3cm 6.3cm, 1 ,</p> <p>點刻 銘文：崇禎元年戊辰昭聖，貞 懿大王大妃發願，鑄像二十三尊容安 于，寶塔後胎濟衆爾，畫員 性仁，</p> <p>：</p>		12	<p>佛坐像 (17), , 9.8cm, 6.3cm, 1 ,</p> <p>：</p>	
10	<p>盧舍那佛坐像 (17), , 10.0cm, 5.7cm, 1 ,</p> <p>：</p>		13	<p>佛坐像 (17), , 10.0cm, 5.8, 1 ,</p> <p>：</p>	
11	<p>佛坐像 (17), , 9.9cm, 6.5cm, 1 ,</p> <p>：</p>		14	<p>佛坐像 (17), , 9.0cm, 5.6cm, 1 ,</p> <p>：</p>	
15	<p>觀音菩薩坐像 (17), , 9.4cm, 5.8cm, 1 ,</p> <p>：</p>		18	<p>菩薩坐像 (17), , 9.7cm, 5.9cm, 1 ,</p> <p>：</p>	
16	<p>菩薩坐像 (17), , 10.9cm, 5.7cm, 1 ,</p> <p>：</p>		19	<p>菩薩坐像 (17), , 9.1cm, 5.5cm, 1 ,</p> <p>：</p>	
17	<p>菩薩坐像 (17), , 10.2cm, 5.5cm, 1 ,</p> <p>：</p>		20	<p>羅漢像 (17), , 8.9cm, 5.4cm, 1 ,</p> <p>：</p>	

● 1493

<p>01</p>	<p>願文 1493 , , 28.9cm x 42.3cm, 1 ,</p> <p>弘治六年癸丑六月初七日淑容 氏淑容 氏淑媛金氏等端為，主上殿下聖壽萬歲亦為兒息咸亨福壽 行修釋迦如來一軀，觀音菩薩一軀安激 若其功德意具 于後」主上所天 義莫重焉 兒息骨肉 情所篤也」富貴則極 難讀者 欲圖延年 常竭愚衷」百思莫伸 惟佛 法門雖多 造佛是最」茲肇禮誠 各捨己貴重修古佛 莊嚴斯飾」虔點 眸 安妥塔廟 能事方周 徵願必圓，頌王之德 日月並明 先王之壽 天地同久，兩主大妃 中宮世子 誕膺純嘏 咸躋壽域」抑亦己身既諸子甥 保康寧 福壽增崇」在在處處 涵」</p> <p>: 1493 02</p>	
-----------	--	--



8.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安城 靑龍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가. 검토사항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2.7.11)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安城 靑龍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 청룡사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28
- 수 량 : 불상 3구
- 규 격 : 석가모니불 높이 179.0cm, 무릎폭 129.0cm
문수보살 높이 163.0cm, 어깨폭 40.0cm
보현보살 높이 164.0cm, 어깨폭 42.0cm
- 재 질 : 소조

○ 제작연대 : 1603년

○ 제작자 : 광원(廣圓), 만주(萬珠), 유밀(有一), 이금정(李今貞), 각통(覺通), 정현(晶玄)

라. 내용 및 특징

석가여래삼존상은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데, 항마촉지인 수인을 결한 좌상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문수보살, 보현보살 입상이 자리하고 있다. 본존인 석가모니불은 191cm, 좌협시인 문수보살입상이 163cm, 우협시인 보현보살입상은 164cm이다. 삼존불의 상호는 전체적으로 역삼각형 형태로 3구 모두가 동일한데, 두껍고 높으면서 각지게 표현한 코와, 도드라진 인중의 표현 등에서 매우 독특하다. 본존불의 경우 뽀족한 정상계주가 확인되고, 두 보살입상은 화형장식과 관대가 달린 높은 보관을 착용했고, 가슴에는 원형의 영락장식이 확인된다. 양쪽 귀를 감싸면서 흘러내린 두 가닥의 보발은 어깨에서 한 번 매듭지어진 후 짧게 흘러내리는 형태이다. 문수보살입상(좌협시)과 보현보살입상(우협시)은 착의 표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문수보살입상에서는 대의가 무릎 부분에 자연스럽게 U자형으로 흘러내리게 표현한 데 반해 보현보살입상에서는 대의 한쪽 끝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표현하고 있다. 이런 착의법은 문경 봉암사 보살입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봉암사 보살입상의 경우 안쪽으로 들어간 한쪽 끝이 허벅지에 밀착해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문수보살입상과 보현보살입상은 착의 표현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다른 부분에서는 동일한 모습이다.

석가여래삼존상은 본존인 석가모니불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해 만력31년(1603년)에 조각승 광원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각승 광원이 제작한 상이 청룡사 상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예가 없어, 광원의 활동 시기나 사승관계 및 유파 등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 명문 및 특기사항

원문, 1603년, 비단, □ 36.1×98 □ 36.1×120 □ 35.5×105.5 □ 64×87.5,

4점, 수장고

주서 : □ 萬曆三十一年癸卯八月十六日列衆「證明」衍惠「火尊」現悶」

□ 双引懷玉「飯頭熙安」熟頭暉訂「祖悅自淳」杜參一好「元信連卜」惠禪「化主文惠」副太永「腹藏化主」頓

□ 別上彦愍「畫員」廣圓「副萬珠」有一「李今貞」覺通「晶玄」

□ 宗旭「尙准」祖戒「玄日」住持元惠「三寶呂日」殿上丹吾「一化」

마.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임란(壬亂) 이후 대형 소조불상의 제작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의 불상이다. 삼존불상은 가름한 난형(卵形)의 얼굴에, 가늘고 긴 눈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고, 이마에서 콧등까지가 편평하게 연결되며, 인중이 돌출하였으며, 미소 띤 입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갔다. 두부에 비해 어깨는 좁은 편이며 신체는 평판적이다.

본존상은 나발이 크고 투박한데 발제선을 따라서 작은 크기의 나발이 붙어있고 그 위쪽으로는 큰 나발이 붙어있다. 양 손은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나타내었다. 내의 윗주름이나 대의 옷주름은 유연하고 복잡하게 표현되었는데, 흙의 가소성(可塑性)이 잘 활용된 듯하다. 좌우협시보살상의 보관은 후보(後補)된 것이며, 목걸이나 수인에 있어서는 서로 닮은꼴에 가깝지만, 착의형식에는 변화를 나타내어 향(向) 좌측 보현보살상은 어깨 뒤로 쇼올형태의 천의를 두르고 손목 위에 천의자락을 걸친 천의형(天衣形)이고, 향(向) 우측 문수보살상은 여래의 대의(大衣)형태의 옷을 입은 가사형(袈裟形)이다.

삼존불상은 본존불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원문을 통해서 만력 31년(1603)에 조성된 화원 광원(廣圓)이 수화승을 맡아 조성한 것이 밝혀졌다. 푸른색 비단에 붉은 결명주사로 쓰여진 발원문에 커다란 글씨로 화원(畫員)(조각승)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6명의 화원 가운데 승려가 아닌 화원(李今貞)도 참여한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첫 장을 여는 17세기 초의 소조삼존불상으로 조성원문이 전하여 제작연대와 조각가를 알 수 있고 조각적으로 우수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청룡사 대웅보전의 소조삼존불상은 협시보살상의 보관을 제외하곤 원래 조성 당시의 것이다. 부서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불상들이다. 삼존 모두 역삼각형의 상호와 약간 경직된 모습의 불신, 입체감이 넘치는 모델링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소조불삼존상은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조선시대 1603년에 조각승 광원(廣圓) 등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들 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소조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범의를 부드럽게 처리하였다는 점인데, 특히 17세기에 조성된 다른 불상과 달리 지나칠 정도로 입체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주존의 큼직한 나발들은 16세기 불상의 전통

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인과 가슴 앞에 접혀진 상태로 표현된 균의는 명대 불상에 보이는 특징이다. 한편 조성발원문은 여느 발원문과 달리 쪽으로 염색된 비단 위에 활달한 필체로 큼직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청룡사 대응보전의 소조삼존불상은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조성연대로 분명한 조각승 광원의 수준 높은 작품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청룡사 대응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상은 중앙에 향마촉지인을 결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협시보살상을 배치한 석가여래삼존형식을 보여준다. 이 상들은 목조 틀 위에 흙을 덧붙여 제작한 목심 소조불상으로, 규모는 17세기에 전반기에 조성된 대형 소조불상들에 비해 작다. 즉, 보은 법주사 비로자나삼불상을 비롯한 대규모 소조불상들은 대부분 임진왜란이 한참 지나 재건불사가 탄력을 받던 시기에 제작된 것인데 반해, 이 불상은 임진왜란이 끝 난지 얼마 되지 않은 해에 제작되었다. 아마도 이 불상 제작의 계기로 재건불사가 크게 탄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건불사의 기념비적 위치에 있는 불상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청룡사가 전란 후 빠른 시간 내에 재건불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전기부터 쪽 왕실의 원당이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불상은 위아래 폭의 변화가 큰 역삼각형의 얼굴에 콧마루는 편평하게 빗어내 예리한 각을 이루게 하고 코 끝의 콧방울은 마늘처럼 둥글려서 부드럽게 처리하여 서로 상반된 느낌의 조화를 꾀하였다. 특히 본존불상의 굵고 큼직한 나발, 소조기법을 잘 활용한 유연한 옷 주름, 어깨를 축 늘어지게 덮어 내린 대의자락, 그리고 보살상의 균의에 띠와 띠 매듭이 표현된 점 등은 17세기 전반기 불상과는 다른 양식적 특징이 보인다.

이 불상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1603년 화원 광원(廣圓)을 비롯한 부화원 만주(萬珠), 유일(有一), 이금정(李今貞), 각통(覺通), 정현(晶玄) 등이 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1603년이라는 제작시기가 말해주듯 이 불상은 16세기에서 17세기 불교조각을 연결시켜주는 위치에 있어 중요하다. 이 불상을 제작한 광원 역시 지금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조각승으로, 17세기 이전에도 다양한 승려 조각승들이 활동했음을 이 불상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불상은 16세기 불상에서 17세기 불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에 있는 불상이자, 17세기 불상조각의 첫 장을 장식하는 의미 있는 조각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가 , 1603 , ,
179 129



()



()



妙法蓮華經卷第四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珠 解
 二下根領悟得記二 初學衆領悟得記
 五百弟子授記品第八
 三月說法各隨機領悟而述成與記前化城品因
 緣說一周以披下根滿慈與五百羅漢等於此領
 悟佛為述成與記故曰五百授記品然此先記滿
 慈次記五百十二之衆而將乘五百名品者願慈
 乃大弟子內餘外現為衆標領雖先與記非是當
 機又十二居末不當名品故也十大弟子無非上
 根領悟得記本無先後但各專一德隨機授與耳
 滿慈說法第一而五百羅漢常說無上道故授為
 普明是當說法之機故以滿慈授之如阿難羅云
 亦大弟子而授學衆各有以也文五
 初滿慈領悟
 爾時富樓那彌多羅尼子從佛聞是智慧方便隨宣
 說法又聞授諸大弟子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後
 聞當世因緣之事復聞諸佛有大自在神通之力得
 未曾有心淨踊躍即從座起到於佛前頭面禮足
 注一四略何專領目不覺洽

9.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楊平 龍門寺 金銅觀音菩薩坐像)

가. 검토사항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체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2.7.13)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2호
- 명 칭 :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楊平 龍門寺 金銅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용문사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5
- 수 량 : 불상 1구
- 규 격 : 높이 72.5cm, 무릎폭 43.0cm
- 재 질 : 금동
- 제작연대 : 고려후기(14세기)
- 제작자 : 미상

라. 내용 및 특징

용문사는 한국전쟁 때 절이 모두 소실된 까닭에 소장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한 기록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복장 또한 유실되어 조성연대 역시 알 수 없다.

보살상은 이목구비가 모두 자그마하고 양 볼에 탄력이 있는 원만한 상호로, 상대적으로 크게 조성된 백호가 미간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높게 틀어 올린 보계를 비롯해, 보발은 3개의 동심원을 이루며 리본처럼 양 어깨와 등으로 흘러내린다. 보관에는 양쪽으로 훑날리는 관 수식이 표현되었는데, 머리에 꼭 맞지 않아 원래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신체 비례는 상체가 길고 상대적으로 하체가 낮게 조성되었는데, 원만한 어깨선과 곳곳하게 허리를 펴고 있는 상체는 당당한 느낌을 준다. 가슴은 미약하게 가슴골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위로 5줄의 수식이 달린 영락장식 표현되었다. 발목 부분에서 부드럽게 중첩된 양 소맷자락은八字형으로 양쪽 무릎을 덮고 그 위에는 영락장식이 소맷자락과 만나는 부분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런 표현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소장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서도 확인된다.

배 부분에는 균의자락을 묶은 매듭이 보이며, 왼쪽 가슴에는 승각기를 고정시킨 삼각형의 금구장식이 있다. 이런 금구장식은 1395년에 조성된 장육사 건칠보살좌상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조선전기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통견의 大衣는 목 부분에서 한번 접혀 양팔을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손목 부분에서 한번 접히고, 오른쪽 소맷자락은 배 부분의 옷자락 사이에 끼워져 자연스럽게 접혀 있다.

手印은 중품중생인으로 검지와 중지를 교차하듯 붙이지 않고 양손을 가슴으로 모으듯 결하고 있고, 양다리는 길상좌로 오른쪽 발은 왼쪽다리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꺾긴 대의 자락과 함께 노출되어 있다. 또한 불상의 바닥면 좌우로는 복장마개를 고정하기 위한 못자국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양감이 있는 장대한 신체에 화려함이 넘치는 영락장식, 높은 보계, 왼쪽 가슴에 표현된 금구장식 등에서 1330년에 조성된 일본 관음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유사하다. 하지만 방형에 가까운 안면 표현과 좁은 무릎폭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 14세기에 크게 유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금동보살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상이다. 이 유형의 보살상은 현재 대마

도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는 서산 부석사(瑞山 浮石寺) 금동관음보살좌상(1330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관음대세지보살입상(李王家博物館 舊藏, 1333년), 국립전주박물관 금동보살좌상,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상도 같은 양식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 형식의 보살상에는 살이 많은 방형의 얼굴에, 사실적인 이목구비, 이마에 가지런한 앞머리, 어깨 위에 흘러내리는 수발(垂髮), 가슴에는 화려한 목걸이 장식, 양 무릎 위에 표현된 영락 등으로 요약되며, 이 밖에도 소매가 있는 대의형태의 보살옷을 입고, 양 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으며 내의를 묶은 매듭이 나타난다. 특징적인 표현으로는 왼쪽 가슴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긴 삼각형 모양의 내의(內衣)장식을 꼽을 수 있는데, 내의(內衣)에 형질을 두껍게 겹쳐 만든 장식을 연결하여 어깨에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식의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당말오대(唐末五代)부터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목조보살입상을 꼽을 수 있다. 근진미술관(根津美術館)의 「아미타여래도」(1306년)을 보면 내의장식에 화려한 문양이 보이는데, 고려 후기 불보살상에서는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상에서와 같이 내의장식에 둥근 화문(花紋)을 새김으로써 화려한 내의장식을 조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보관이 후보(後補)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각적으로도 우수하며 고려 후기 14세기 금동보살상의 특징은 잘 보여주는 상이므로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금동보살좌상은 높은 보발, 양쪽 어깨 위로 드리운 몇 가닥의 머리카락, 목걸이와 귀걸이 외에 양쪽 무릎을 덮고 있는 화려한 장식 등을 통하여 고려시대 14세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상은 72.5cm의 그다지 크지 않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이 잘 드러나게 조성되었다. 또한 구조된 불상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상호에 보이는 섬세한 표정과 법의의 유기적인 표현을 엿볼 수 있다. 13세기 고려 불상에서 보이는 Y와 열쇠 구멍 형태의 귀, 오른쪽 발목을 감고 흘러내린 S자 형태의 법의 자락, 엉덩이 밑에서 양쪽 다리 앞으로 나와 있는 옷자락 등은 이 불상에서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다. 특히 13세기 고려 불상에 보이는 원팔 상박의 Ω 형태의 옷자락이 여기서는 흐트러져 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왼쪽 가슴 앞의 금구 장식과 양쪽 무릎을 덮고 있는 화려한 영락 장식은 고려시대 14세기 중반에 조성된 보살상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 상과 비교되는 고려시대 보살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고려 14세기 금동보살입상이 있다. 용문사 금동보살좌상은 후보된 보관을 제외하곤,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조형적으로 우수할 뿐만아니라 고려 14세기 보살상의 전형적인 양식적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관음보살상은 최근에 건립된 관음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다. 보살상은 금동으로 주조된 상으로 표면에는 두텁게 개금되어 있어 상이 가지고 있는 고격한 상호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보살상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도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어 제작시기와 제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보살상에서 보이는 부드럽고 고요한 얼굴, 보계 끝을 마치 주름진 만두모양으로 만들어 맵시 있게 묶은 보발의 표현, 그리고 어깨 위에는 3개의 둥근 타원형의 고리를 이루며 흘러내린 보발, 가슴 양끝의 고리에 걸어 가슴 앞으로 화려하게 드리운 목걸이와 양 무릎으로 흘러가는 세련된 영락장식, 승각기에 표현된 마름모꼴의 금구장식, 균의를 힘 있게 돌돌 말아 묶듯 표현한 띠 매듭, 오른쪽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휘늘어진 옷자락과 팔꿈치에 형성된 납작한 형태의 Ω 주름, 무릎 아래로 흘러내린 나팔모양으로 자리 잡은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부드럽게 펼쳐진 옷 주름, 오른손은 가슴에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설법인의 수인 등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1330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소장)이나 국립전주박물관 금동관음보살좌상(14세기 전반), 그리고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46년)등 14세기 전반기 불·보살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비록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고려 후기 단아한 형태미를 갖춘 완성도 높은 금동보살상이고, 14세기 전반에 조성된 불, 보살상들과 시대 양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살상도 14세기 전반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불상은 고려 후기(14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14 , , 72.5 43

10. 여주 신륵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
(驪州 神勒寺 塑造阿彌陀如來三尊像)

가. 검토사항

‘여주 신륵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3)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여주 신륵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
(驪州 神勒寺 塑造阿彌陀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 신륵사
-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2
- 수 량 : 불상 3구
- 규 격 : 아미타불 높이 149.5cm 무릎폭 96.9cm
관세음보살 높이 177.5cm 어깨폭 60.0cm
대세지보살 높이 174.2cm 어깨폭 42.0cm
- 재 질 : 소조

- 제작연대 : 1610년(광해군 2년)
- 제작자 : 인일(仁日), 수천(守天)

라. 내용 및 특징

신록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1610년에 인일(仁日)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화원 인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불상 조성의 예가 없다.

본존불은 양련으로 장식된 2단 목조 대좌에 위에 길상좌를 결하였고, 상체가 크고 하체가 좁고 낮게 조성되었다. 상호는 코와 입술이 좁게 표현된 것 이외에는 양감이 강하다. 육계는 중간계주가 생략되고 정상계주만 큼지막한 나발에 둘러싸여 높게 표현되어 독특한데,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에 봉안된 석가모니불좌상에서도 확인된다. 수인은 하품중생인을 결하고 있으며, 착의법은 변형통견식으로 목에서 접힌 대의자락은 좌우 대칭으로 두껍게 접혀있고 범의 자락은 오른쪽 어깨로 흘러내려 Ω형태로 흘러 배 앞에서 밀착되었다. 옷주름들은 도식화 되었지만 왼쪽 어깨로 넘어가는 대의 자락은 왼팔 측면에서 흘러내리면서 접힌 주름이 표현되었다.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옷주름, 중간계주가 생략된 특징은 17세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양식보다 도식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좌우협시보살 또한 본존불과 같은 상호를 보이며, 보계는 그 주위를 파배기 형태의 보발로 두르고 있고, 그 중심으로 보계가 올라가는 형태이다. 연꽃형태의 귀걸이 및 동일한 패턴의 영락장식, 팔찌 역시 공통적으로 표현했다.

우협시상은 귀 옆으로 넘어가는 보발의 표현은 좌협시상과 동일 하지만 어깨로 보발이 나타나지 않고 대의를 착용하고 있다. 반면 좌협시상은 수인에 있어서도 양손을 모아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을 결했고, 보발이 파배기처럼 꼬아져 어깨와 등으로 흘러내리게 표현되었고, 범의 또한 대의대신 천의를 걸치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균의의 표현은 이 보살상의 독자적인 요소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서울 보문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통해 비교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상호의 표현, 어깨로 흘러내리는 보발을 생략하고 있는 것과, 착의법, 보계의 장식적인 모티브에서도 유사함을 보여 그 영향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 명문 및 특기사항

복장원문, 1610년, 종이, 26.4×149.6, 1매, 수장고

기문 : 大明萬曆三十八年庚戌十月初十日 驪州牧神勒寺法堂 新佛造成助緣同參名同開 列于后佛像大施主金成福兩 大禮信朱德龍兩主白從介兩主 閔應期兩主劉山水兩主金春蘭兩主 李兪知兩主宋應男兩主金炭兩主 金氏七月兩主吉永益兩主吉

大益兩主金漠」年兩主元達光兩主劉萬年兩主李」希文兩主李恁男兩主比丘太均克斤」仁之孫德希兩主 仁今兩主從今兩主」韓漠卜兩主李業成兩主張順天兩主」張淳兩主春介兩主朴滄孫兩主」金蘭卜兩主韓金伊兩主金貴石兩主」朴成兩主韓香金伊兩主李希同兩主」學正戒珠 安江阿之滄德崔入沙乙兩」時叱介李加應於里兩主智仙全永速兩」引手林春茂兩主 妙正 戒祖 天正 處元之彥」玄修 靈照 務云 韓虫國兩主 性牛務元」希安 自無 應觀 李加屎 大仁尹得成兩主」卜今 空月 明寶 金金伊 金允明兩主」金恁丁 崔莫同兩主丹月崔南山兩主戒天」申日下兩主申南卜兩主惠恩表難從兩主權」石卜兩主四德羅同 三印 林天修兩主 金卜介兩主」李應吉兩主應海兩主李彥玉兩主秋」滄同兩主 李希兩主 林莫同兩主 朴德憐」兩主 張後天兩主 莫今 李莫金伊兩主 趙春」兩主林從同兩主 姜連兩主 高繼仁兩主 南彥」卜兩主 鄭永守羅介同兩主善今 韓仁兩主」春月 金男 比丘幸珠 敬熙 鄭仁連兩主」莫孫兩主 朴連希兩主 張世卜兩主 億德」崔許農兩主 日代 李宗直兩主 韓萬世兩主」崔金伊兩主 朴安卜兩主金後乃兩主 鄭日同」兩主 崔允漢兩主任倚眞兩主 李石之兩主」鑑愛直兩主 柳玉金伊兩主 仁之 尹彥眞兩主」二從羅世卜兩主 玉春白彥夫申白山兩主戒心」法宗 智翁 金景行兩主 權德應兩主 朴仁卜」兩主 崔重石兩主 邊得環兩主 孫夢己」兩主李恁男兩主 李多勿兩主 朴春金」兩主 徐得信兩主徐愛男兩主 崔眞兩主」鄭各孫兩主 金孫兩主 鄭住人兩主 朴仁卜」兩主 宋得男兩主 金彥守兩主 尹夫希兩主」安君花兩主 金漠斤兩主 比丘覺惠 李應」吉兩主 李應海兩主六月 信然 寶僅 靈修」惠嘗 印環 金德文兩主 日和 沈恁山兩主」大仁 尹得成兩主 敬俊 尙玄 仁甘 性覺 坦熙」尙元 志軒 大云 智甘 學明 熙印 玉輪 義會」今恩 雲三 學淳 靈瑞 性允 元印 志證」信連 自和 鄭仁明 金順和兩主 漠玉 信玄」惠湜 普明 懷玉惠甘 戒天 莫今 金小仁」兩主 金植兩主 朴希兩主 李安心兩主」趙安信兩主 羅介同兩主 崔業同兩主」崔亡難於憐介兩主河訥/叱春兩主 盧」從同兩主 信和 熙敬 印天 興云 玄熙 玄家」一元 信云 尙惠 雪聰 尹吉孫兩主」驪興閔氏甲戌生保体富貴平生子孫萬祚」緣化 飯頭 眞罔」熟頭 雪敬」於叱世」造像大畫員山人 仁日 助役 守天」證明華嚴宗中德 雪庵敬玉」各各結願同參隨喜施主與緣化幹善大」化主清風衲子日雲等伏爲」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齊年」世子邸下壽千秋亦爲」先王先后祖宗列位仙駕亦爲」先亡父母上世高曾祖孝七代善亡六親九」族等爲 天兵國兵倭兵法界無主孤」魂等承此勝因永離五渴惡世超昇極」樂世界親見」彌陀」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亦與衆生當生」極樂國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신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복장원문을 통해서 만력 38년(1610) 원근(遠近)의 수많은 신도들이 동참, 시주하여 신록사 법당의 주존불로 봉안하기 위해 조성한 상임을 알 수 있다. 목조삼존불상을 조성하는데 참여한 화원(조각승)으로 인일(수화승)(仁日(首畫僧))과 수천(조역)(守天(助役))의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한데, 같은 규모의 불사에 통상 4-5명 이상이 투입되는 것을 생각하면 의아한 일이다. 수화승 인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그의 이름 앞에 ‘대 화원산인(大畫員山人)’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신록사에 거주하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존 아미타불좌상은 허리가 긴 장신형의 불신과 높은 육계, 큼직하게 소라처럼 솟은 나발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머리 형태나 나발모양은 경주 왕릉사원 소조 불좌상에서도 발견되므로 16세기부터 나타난 양식으로 생각되며 점차 정돈된 형태로 변모하면서 17세기에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양감이 풍부한 얼굴은 높고 우뚝한 콧날과 넓은 인중이 이국적인 상호(相好)를 이룬다. 대의와 내의, 군은(裙) 두겹게 표현되었고, 그 옷주름은 다소 단순화되었으나 흑석사 목조아미타 불좌상과 같은 조선전기 불상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좌우협시보살상은 후보(後補)된 보관을 쓰고 있는데, 착의형식이 독특하다. 우협시보살은 여래의 대의형태의 보살옷을 입어 긴 옷자락이 늘어져 있는데 비해서, 좌협시보살상은 천의형식으로 등에 두꺼운 쇼올 형태의 천의를 두르고 그 자락이 양 손목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다. 허리에는 요포(腰布)를 덧입고 앞면에도 술 장식이 달린 긴 V자형의 요포를 늘어뜨렸다. 두 상 모두 원래는 지물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 손을 가까이 모으고 있는 좌협시보살상은 정병이나 염주를, 오른손을 위로 올린 우협시보살상은 연화가지를 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상은 조성연대가 확실하고 조각을 맡았던 화원이 밝혀져 있으며 조각적으로도 우수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은 보살상의 보관과 대좌가 후보된 것을 제외하곤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주존인 불상을 좌상으로 하고 협시상을 입상으로 한 구성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이다. 불상과 보살상들은 모두 상호와 상체가 긴 편인데, 특히 불상의 육계는 유난히 길게 조성되어 이색적인 느낌마저 들게 한다. 불상의 큼직큼직한 나발과 단순하게 처리한 법의 자락은 조선초기부터 내려오던 특징이다. 불상의 눈언저리에 보이는 다크서클 같이 처리한 음영 기법이나 아래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어 아래로 처지게 표현한 것 등은 조각승 인일(仁日)과 수천(守天)의 조형 미감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보살상들은 조성발원문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조선시대 1610년에 조성되었는데, 1620년의 약수선원 보살입상(현 동국대박물관 소장)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들 보살상 중 좌협시보살상은 천의식으로, 우협시보살상은 대의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있다. 한편 좌협시보살상의 양쪽 어깨 위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의 표현법과 하반신 중앙에 타원형을 그리며 드리워져 있는 화려한 장엄, 우협시보살상의 보발이 귀 밑에서 정리되는 표현법 등은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협시보살상의 보발 장식은 경기도 광주 수도사 보살상과 서울 보문사 관음보살상과 유사한데, 이들 보살상 역시 1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록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은 조성자와 조성시기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일이라는 새로운 조각승의 이름이 확인되어 향후 조선시대 불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작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신록사 극락보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삼존상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입상의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이다. 1996년 개금 때 발견된 발원문에서, 이 삼존상은 1610년(광해군 2)에 새로운 불상의 조성에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여 필요한 재원을 시주하고, 화엄종 중덕 설암경옥(雪庵敬玉)의 증명(證明) 아래 조각승 인일(仁日), 수천(守天)이 불상을 제작하였다고 밝혀졌다. 인일은 지금껏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조각승이지만, 이 불상을 통해 제작시기가 불분명했던 파주 보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서울 보문사 보살좌상 등도 이와 비슷 시기에 그가 제작한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16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각승 중 한명으로 판단된다.

본존불상의 굵은 나발로 쌓아 올린 큼직한 육계, 살이 도톰하게 오른 가름한 얼굴형에 특색 있는 이목구비, 오른쪽 어깨의 칼날처럼 접은 못깃 주름, 팔꿈치 부근에 정형화된 ㉺주름, 작은 머리에 긴 허리에서 오는 늘씬한 조형감은 영주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82호)이나 경주 왕룡사원 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15호),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남원 실상사 아미타여래좌상 등 조선전기 불상의 계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곱상하게 생긴 특색 있는 얼굴은 연기 비암사 아미타여래좌상이나, 삼척 천은사 아미타여래좌상, 그리고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상(1576년, 보물 제1666호) 등 16세기 불상의 상호(相好) 표현과

유사지만, 이들 상에 비해 양감이 줄어들고 정돈되어 시대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천의를 걸친 좌협시 보살상은 두 손을 배 부근에서 포개듯 하여 마치 물건을 쥐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도 끈이 달린 정병을 쥐고 있는 관음보살상을 의도한 듯하다. 이러한 수인의 관음보살상은 조각상에서는 그 예가 드물고 불교회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음보살상의 도상적 특징이다. 이는 요포 아래로 늘어뜨린 수피(獸皮)형태의 치레장식과 함께 회화적 모티프를 조각적으로 표현한 독특한 사례로 평가된다. 우협시 보살상은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대의식 착의법에 설법인을 지어 좌협시 보살상과 차별을 두었다. 삼존상의 존명은 아미타구품인을 결한 본존불과 좌협시 보살상의 도상적 특징으로 볼 때, 아미타불상을 본존으로 좌우에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로 하는 아미타여래삼존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아미타여래삼존상은 161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인일(仁日)이라는 조각승이 밝혀져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불상의 양식에서 17세기 대에 조성된 여타의 조선후기 불상들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즉 조선 전기의 조상(造像) 전통의 여운을 마지막까지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조각사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연기 비암사 아미타여래좌상, 삼척 천은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 그리고 함양 금대암 아미타불좌상 등의 편년 설정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상은 17세기 전반기 가장 주목되는 아미타여래삼존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1610 , , 149.5 96.9
177.5 60 174.2 42

大明萬曆二十八年庚戌十月初十日
 驪州牧神勒寺法堂
 新佛造助緣同各名同開
 列于后 佛像大施主金成福而
 大檀信朱德龍而主白從介而主
 閔應期而主劉山而主金春蘭而主
 李介以知而主朱應男而主金炭化佳而主
 金氏七月而主吉水益而主大益而主金侯
 年而主元達而主劉萬年而主

, 1610 , , 1

大明萬曆二十八年庚戌十月初十日
 驪州牧神勒寺法堂
 新佛造助緣同各名同開
 列于后 佛像大施主金成福而
 大檀信朱德龍而主白從介而主
 閔應期而主劉山而主金春蘭而主
 李介以知而主朱應男而主金炭化佳而主
 金氏七月而主吉水益而主大益而主金侯
 年而主元達而主劉萬年而主

趙安信而主羅介而主
 崔上難於憐介而主河訥春而主
 總同而主信和而主
 一元信云尚惠雪怪尹芳孫而主
 驪興閔氏甲戌生保保富貴平生子孫萬補
 緣化
 飯頭真同
 熟頭雪教
 於世
 造像大畫負山人仁日 助役守天

11.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南楊州 奉先寺 毘盧遮那三神掛佛圖)

가. 검토사항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2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5호
- 명 칭 :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 소유자(관리자) : 봉선사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 255
- 수 량 : 1폭
- 규 격 : 785.0×458.0cm
- 재 질 : 종이에 채색
- 제작연대 : 1735년
- 제작자 : 각충(覺聰), 칠혜(七惠), 두책(斗策), 태운(太雲), 만빈(萬彬)

라. 내용 및 특징

남양주 봉선사 괘불도는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이 보처불로 등장하고 하단에 6대보살을 위시하여 제석·범천과 십대제자, 주악천인상을 배치한 삼신불도로 1735년에 조성되었다.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5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괘불도는 세로 785cm, 가로 458cm 크기로 종이 바탕에 그린 채색화로서, 바탕은 최대 144.4cm(세로), 95cm(가로)의 한지를 세로 폭에 6매씩, 가로 폭에 5매씩 총 30매를 이어 붙여 마련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상하 2단구도로 이루어져 있는 화면 상단에 하나의 화염광배 안에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이 전 화면에 딱 차게 그려져 있는데, 본존 비로자나불이 좌우 보처불보다 약간 뒤로 물러나 있어 평면의 화면에 공간감이 부여되어 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지권인을 결하고 있으며, 비로자나불 왼쪽의 노사나불은 보관을 쓴 보살형으로 양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설법인을, 오른쪽의 석가불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왼손을 가슴까지 올리고 오른손을 배에 둔 설법인을 짓고 있다.

하단에는 6대보살과 제석·범천, 십대제자, 주악천인, 용왕 용녀 등의 권속들이 V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화면 하단 좌우에 보살 3구씩을 삼각형 구도로 배치하고 그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0대 제자와 제석·범천, 용왕 용녀 등이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중앙부에는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천인들을 두고 구름으로 구획하여 마치 공중에 두둥실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형태의 경우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은 이목구비의 표현이 단정한 가름한 얼굴에 반달모양의 중앙계주를 갖춘 머리는 봉긋 솟아오른 육계를 하고 있으며, 왼쪽의 노사나불 역시 턱이 둥글어진 얼굴에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형으로서 원만형이다. 그리고 채색의 경우 삼신불은 이례적으로 모두 황토색 바탕에 흰색 문양이 들어간 대의를 걸치고 있어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지며, 전반적으로 밝은 색채를 채용함으로써 활기차고 명량한 느낌의 화사한 설채법을 보여준다. 구사된 필선은 전체적으로 등장인물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듯 힘차고 유려한 세선을 구사함으로써 생동감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구성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봉선사 괘불도는 중앙의 본존불이 양 협시불보다 뒤로 물러나 있는 삼각꼴 구도로, 삼신불은 당시 경기지역에서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장육신의 입상이다. 이러한 삼신불의 형태 및 그림의 구성법은 1690년경 조성 추정인 홍천 수타사 삼신불괘불도의 영향을 시작으로 1739년 추정의 서울 학림사 삼신불괘불도 이후 19세기 서울·경기지방 괘불도에 영향을 주어 1806년 서울 청룡사 소장 원통사 괘불도, 1832년 서울 홍천사 괘불도, 1858년 남양주 흥국사 괘불도, 1862년 의왕 청계사 괘불도, 1895년 불암사 괘불도, 1901년 봉원사 괘불도 등에 이르기까지 계승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마련된 화기를 통해보아 봉선사 괘불도는 상궁 이성애(李性愛)가 숙종의 후궁이었던 영빈김씨의 추복(寧嬪金氏의 追福)을 위해 발원한 이른바 왕실발원 불화로서, 각총(覺聰)이 수화승을 맡고 칠혜 두책 태운 만빈(七惠斗策 太雲 萬彬)을 보조화승으로 삼아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수화승 각총은 봉선사 괘불도외에도 여주 신륵사 삼장보살도(1758)의 수화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 불화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다만 1869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법계통첩(傳法繼通帖)」이라고 필사된 봉투에 그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다. 봉투 안에서 발견된 「조맥도」에는 환성 지안(喚惺 志安)부터 혜명 대식(慧明 大植)까지의 법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9~11번째에 ‘죽암 의겸-학송 각총-관허 설천(竹巖 儀謙-鶴松 覺聰-寬虛 雪川)’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조맥도」를 통해 화승 의겸과 각총, 설훈이 모두 17세기 후반 유명한 선승이었던 환성지안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각총은 의겸의 화풍을 따랐을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이를 통해 전라도의 화풍이 경기도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 명문 및 특기사항

화기 : 擁正十三年九月」日施主庚午生」李氏尙宮性愛」特爲」寧嬪己酉生金氏」尊
靈速離有漏」之業得訂無漏之」果」本寺秩」時教宗判事登階撤善」有司戒還」公員
圓察」掌務致宗」鐘頭太華」時掌務鵬丹」典座元文」訂師一潤」都畫員覺聰」七
惠」斗策」太雲」萬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남양주 봉선사 괘불도는 입상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불,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그려진 삼신불 형식의 도상이다. 화면 하단에는 6보살과 제석·범천, 십대제자, 무악(舞樂)의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불화는 삼신불은 물론 구성 요소들의 형상에 이지러짐이 없고 심지어 울동감마저 느껴지는 우수한 그림이다. 또한 구도가 안정적이고 채색 또한 조화롭다.

이 그림은 수타사의 1690년 삼신불괘불도와 같은 도상을 수용하여 보다 발전시킨 대표적 사례로, 산신불을 하나의 화염 두광 안에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표현 역시 유일한 듯 하다.

이러한 삼신도상은 학림사의 1774년 괘불도, 원통사의 1806년 괘불도 등 주로 서울지역 괘불도에 수용되었다.

봉선사 괘불도는 제작시기가 1735년으로 비교적 이르며, 도상이 특이하고, 화질이 우수하고, 발원자가 숙종의 후궁이며, 특히 종이에 그려진 특이성 등을 감안할 때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작품은 비로사나삼신불(毘盧舍那三身佛)과 권속을 그린 괘불도로, 상부의 중앙에 法身 비로자나불, 향우측에 報身 노사나불, 향좌측에 화신(化身) 석가불, 하단 좌우로는 6구의 보살과 범천 및 제석천, 10대제자, 하단 중앙에는 주악천인과 용왕, 용녀 등을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신불과 권속들을 함께 그렸지만 언뜻 보면 삼신불 중심의 구도로 연상될 만큼 화면 상단의 삼신불을 큼직하게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삼신불 중심의 구성은 이 괘불도를 비롯하여 학림사 괘불도(1774년 중수) 및 원통암 괘불도(1806년) 등 18세기 중, 후반 경의 서울, 경기지역의 삼신불 괘불도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 봉선사 괘불도에서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은 여래형으로, 노사나불은 보관을 쓴 장엄형으로 묘사한 것은 학림사 괘불도와 동일한데, 봉선사 괘불도에 도화원(都畵員)인 각총(覺總)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있는 칠혜(七惠)가 18세기 전반에 학림사 괘불도를 조성하였으며, 1774년 학림사 괘불도의 중수화원인 처징(處澄)이 1758년에 각총과 함께 신록사 삼장보살도(1758년)를 제작했던 것에서 두 작품 간의 도상적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괘불도는 1735년 상궁 이성애(李性愛)가 숙종의 후궁으로 청음 금상헌(淸陰金尙憲)(1570~1652)의 현손녀이자 김수증(金壽增)(1624~1701)의 손녀이며 성천부사 금창국(金昌國)의 딸인 영빈 김씨(1669~1735)의 명복을 빌며 제작한 것으로, 맑은 담채의 황색과 청색, 양록색, 녹색, 하늘색 등 밝고 화사한 색이 곱고 대담하면서도 능숙한 묵선으로 묘사된 인물들의 움직임과 옷자락의 자연스러운 주름표현, 힘찬 동세 등과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왕실발원 불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화기를 통해 보아 상궁 이성애가 숙종의 후궁 영빈김씨의 추복을 목적으로 발

원하여 그린 왕실발원 불화라는데 의의가 있는 봉선사 삼신불괘불도(1735년)는 1690년경 조성 추정인 홍천 수타사 삼신불괘불도의 영향을 받아 1739년 추정의 서울 학림사 삼신불괘불도 이후 19세기 서울·경기지방 괘불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삼신불괘불도로서, 조선시대 삼신불괘불도 중 공주 갑사 삼신불괘불도(1650년) 이후 본격적인 입불 형식의 삼신불 도상을 보여주는 빠른 예라는데 학술적 자료 가치가 크다고 여겨진다.

또한 봉선사 괘불도는 흔하지 않은 종이 바탕 그림으로서 칠혜 두책 태운 만빈(七惠 斗策 太雲 萬彬)을 보조화승으로 삼아 각총(覺聰)이 수화승을 맡아 조성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수화승 각총은 봉선사 괘불도 외에도 여주 신륵사 삼장보살도(1758)의 수화승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파악되나 누구의 영향을 받아 불화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각총은 「전법계통첩(傳法繼通帖)」 발견의 「조맥도」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 크게 활약한 의겸의 화풍을 따랐을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 전라도 화풍이 경기도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봉선사 삼신불괘불도는 왕실발원 불화로서 18세기 이후 서울·경기지역 삼신불괘불도의 입불 형식 삼신불 도상의 이른 예일 뿐만 아니라, 활달하면서도 섬세한 필선 구사와 참신하고 화사한 설채법을 보여주는 수작으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1735 , , 785x456, 1 ,
165





雍正十三年九月
 日施五更于生
 李氏尚古性愛
 特為
 寧嬪已回生食氏
 尊灵速唯有病
 之黃得訂無漏
 果
 本寺秩
 時教宗列字登階微
 有司戒遂
 公負圖察
 堂務致宗
 鐘頭太率
 時堂務鵬丹
 與座元文
 訂野一潤
 都恩負管聰
 七息
 平策
 太實
 萬勝

12.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 (加平 懸燈寺 阿彌陀說如來法圖)

가. 검토사항

‘가평 현등사 아미타설법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2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검토되면 부결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5호
- 명 칭 : 가 평 사 아미타여래설법도(加平 懸燈寺 阿彌陀說如來法圖)
- 소유자(관리자) : 현등사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257
- 수 량 : 1폭
- 규 격 : 245.0×274.0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제작연대 : 1759년(영조 35)
- 제 작 자 : 오관(悟寬), 혜관(惠寬), 민오(敏悟), 사계(師戒), 탄계(坦桂), 송식(松湜), 홍정(弘淨), 오징(梧澄), 봉탄(鵬坦)

라. 내용 및 특징

현등사 아미타회상도는 세로 275cm, 가로 245cm 크기의 비단바탕에 그린 불화로써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185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기에는 “건륭십사년기묘이월이십칠일경기(乾隆十四年己卯二月二十七日京畿) 우도가평서영운악산현등사아미(右道加平西嶺雲岳山懸燈寺阿彌) 陶佛改金與後佛彌陶會一部造(陶佛改金與後佛彌陶會一部造) 성안우자산시사...(成安于茲山是寺...)”으로 기록되어 있어 1759년에 아미타불상의 개금작업과 함께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도를 살펴보면 중앙의 본존불 주위를 감싸듯이 원형구도로 십대제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바깥쪽으로는 8대보살과 사천왕, 제석·범천, 그리고 팔부중이 배치되어 전체적인 구도는 본존을 중심으로 10대제자→8대보살 제석·범천 및 사천왕과 팔부중 순서로 본존을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또한 본존 주위의 10대제자는 겹겹이 에워싸듯 좁게 배치한데 비해 다른 권속들의 간격은 넓게 배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배치법은 현등사 아미타회상도의 구도에 있어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본존불은 폭이 넓은 대좌 위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 하고 앉아 있으며, 키 형 머리 광배와 몸 광배를 구비하였다. 신체는 어깨가 경직되어 있어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건장한 모습이며,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어 올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하품중생인을 짓고 있다. 전체적인 존상의 모습은 1758년 조성된 신륵사 삼장보살도의 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본존불 주위에 배치된 10대 제자의 상호와 사천왕의 표현은 임한이 조성한 통도사 영산회상도(1734년)와 유사점이 나타나 경상도 남쪽의 화풍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존불 대의는 붉은색으로 처리하고 끝단은 청색을 채색하여 보색의 대비로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각 보살 역시 기본적으로 보색 배치하였고, 진한 먹색으로 채색하여 강한 인상을 보인다. 이렇게 색문양을 생략한 과감한 채색법은 오관작품의 특징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채색법은 같은 해에 조성된 영원사 비로자나불도(1759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본존불의 두광은 진한 녹색으로 채색하고 신광은 밝은 녹색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색 배치는 각종의 신륵사 삼장보살도와 유사하다. 또한 구름의 녹색과 밝은 갈색으로 채색하는 부분에서도 각종의 그림과 유사함이 나타난다. 이렇듯 배경의 구름과 광배 등의 전체적인 채색법은 각종의 신륵사 불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등사 지장시왕도(1759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화풍의 영향이 추정된다. 본존불 대의에는 금색의 이중원문을 크게 배치하였고 안감에도 문양을 시문하였다. 또한 보색의 끝단에는 간단한 금문양을 그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문양이 많이 생략되었다.

현등사 아미타회상도는 1759년 수화승 오관(悟寬)이 혜관·민오·사계·탄계·송식·홍정·오증·봉탄(惠寬·敏悟·師戒·坦戒·松湜·弘淨·悟證·鵬坦) 등과 함께 조성한 불화로, 수화승 오관은 1758년 각총이 조성한 신륵사 삼장보살도의 화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는 화기에 수화승 각총 다음 4번째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작업에 참여한 총 20명의 화승 중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신륵사 삼장보살도 이후 그의 행적이 단 1년 동안만 나타나며, 2개의 사찰에서 4점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점이다. 오관은 1759년 2월 영월사 감로왕도를 주도하여 제작하였으며, 3개월 후인 5월에는 신륵사 삼장보살도에 참여했던 화승 가운데 혜관, 사계, 탄계, 홍정, 오징, 봉탄 등 6명을 이끌고 경기도 현등사 대웅전 불상 개금작업 및 아미타회상도를 조성하였다. 그 후 11월에는 다시 이천 영월사로 이동하여 비로자나불회도를 그리는데, 이 작품은 본존의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일반적인 도상과 비교하여 두 배나 길게 표현되어 특이하다. 남아있는 작품으로 보아 오관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이 나타나지만, 그의 화풍은 경상도 지역과 유사점이 보여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명문 및 특기사항

화기(畫記) : 乾隆十四年己卯二月二十七日京畿「右道加平西嶺雲岳山懸燈寺阿彌」
 陁佛改金與後佛彌陁會一部造」成安于茲山是寺」緣化秩」證明道人處益」證明樂西
 道人敏基」誦呪㊦㊧」誦呪明惠」持殿泰哲」誦呪圓察」畫員」悟寬」惠寬」敏悟」
 師戒」坦桂」松湜」弘淨」梧澄」鵬坦」供養主」俊活」自律」處益」都監 圓㊨」別
 座 快閑」都化主舍堂靈源」化主就允」黃金大施主秩」李春三」朴氏」兩主」烏金施
 主 洪萬伊」供養大施主 玄揖」供養施主 彩玉」彩色施主 坤命朴氏」韓氏」三綱」
 住持淨稔」主張大淑」掌務双默」

○ 문화재위원 (현행 유지)

화면구성은 중앙에 본존인 아미타여래가 결가부좌하고, 그 아래 좌우에 관음과 세지보살을, 본존 광배를 에워싸듯 아난과 가섭 등 10대 제자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화면 좌우에는 동수(同數)로 사천왕상, 육보살상(六菩薩像), 제석, 범천 그리고 팔부중, 타방불이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도는 본존이 권속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어 의도적으로 강조한 듯한 인상이다.

채색은 주(朱) 녹청, 군청을 주조색으로 하면서 문양 등에는 금니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색감은 조선 18세기 불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문양이

최대한 억제되어 있는 반면에 군청의 명도가 높아 朱와의 보색 효과로 인하여 강한 인상을 준다.

이 그림은 1759년 수화승 오관(悟寬) 등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그는 신록사 삼장보살도, 영원사 감로왕도와 비로자나불회도 등의 제작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그림은 오관의 화풍을 잘 전해주고 있으며 경기지역 불화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16세기 중반 불화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아쉽게도 부분적으로 손상이 많다. 화면의 손상은 자연적인 부분이 많지만 근년의 잘못된 수리에 의한 부분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현등사 아미타회상도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며,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185호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현행 유지)

이 불화는 현등사 극락보전에 후불탱화로 봉안된 아미타극락회상도로서, 1759년에 오관·혜관·민오·사계·탄계·송식·홍정·오증·봉탄(悟寬·惠寬·敏悟·師戒·坦戒·松湜·弘淨·悟證·鵬坦) 등 9명의 화승이 제작하였다. 화면의 구성은 화면 중앙 높은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보살과 10대제자, 사천왕, 팔부중, 팔금강, 범천과 제석천 등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일반적인 아미타회상도와 달리 8대보살 가운데 지장보살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무려 40명의 많은 권속들이 본존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본존에 비해 권속들을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인물들을 작게 그림으로써, 상승감을 주는 동시에 많은 인물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등 구성의 묘를 보여준다.

우안(右顔) 또는 좌안7분면(左顔7分面)으로 그려진 인물들은 턱 부분에 살이 많고 둥근 얼굴모습이 18세기 임한(任閑)을 중심으로 한 통도사지역 화승들의 얼굴 표현과 닮아있다. 특히 사천왕의 터럭 하나까지도 정성스럽게 묘사한 세세한 묘사법이든가 음영을 묘사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한 얼굴모습, 본존 및 권속들의 옷에 시문된 문양 등 역시 18세기 중후반 경상남도지역의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어서 이 불화가 경기도, 강원도 불화양식 뿐 아니라 경상남도 불화양식과도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밝고 선명한 적색과 녹색의 조화 및 청색과 황토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화면이 밝게 보이게 표현하였으며, 인물들의 적정한 비례와 배치 등 18세기 중반 불화양식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화면의 가로 세로로 접혀진 부분이 많고 채색이 박락되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현행 유지)

현등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회상도는 혜관·민오·사계·탄계·송식·홍정·오증·봉탄(惠寬·敏悟·師戒·坦戒·松湜·弘淨·悟證·鵬坦) 등을 보조화승으로 거느리고 오관이 책임을 맡아 그린 불화로서, 규모도 크고 독특한 구성법을 보여주며 경상도 지역과 화풍상의 연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데 학술적 자료 가치는 인정된다. 그러나 전면에 걸쳐 바탕면의 훼손이 심하고 안료의 박락이 엿보여 존상들의 형태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등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화의 내용 또한 일반적으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아미타회상도이고 조성시기가 1759년으로 뒤떨어져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보다는 현재의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1759 , 245x274, 1 , ,
185



13. 가평 현등사 동종(加平 懸燈寺 銅鍾)

가. 검토사항

‘가평 현등사 동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7)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8호
- 명 칭 : 가평 현등사 동종(加平 懸燈寺 銅鍾)
- 소유자(관리자) : 현등사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257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73.5cm, 입지름 57.5cm
- 재 질 : 청동
- 제작연대 : 1619년(광해군 11)
- 제작자 : 천보(天寶)

라. 내용 및 특징

경기도 가평 현등사 대웅전에 소장되어 있는 봉선사명 범종(奉先寺銘 梵鍾)은 전체높이 73.5cm, 입지름 57.5cm로, 1619년 天寶가 화주로서 찬문을 짓고 현옥, 정회, 대원, 영인(玄玉, 正會, 大元, 瑩仁) 등과 함께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범종은 음통이 없는 쌍용의 종유를 갖추고 있으며, 천관은 낮아지고 종구는 벌어진 종형을 보이고 있어 천보가 주성한 다른 범종의 외형과는 약간 다른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신을 3줄의 횡선으로 구분하고 도안을 상단과 하단에 나누어 배치하는 구성은 천보가 주성한 금사사명 범종(金沙寺銘 梵鍾)(1595년), 견암사명 범종(見岩寺銘 梵鍾)(1630년), 보광사명 범종(普光寺銘 梵鍾)(1634년)과 동일하다. 범종의 구획된 상단을 살펴보면, 천관 밑에는 넓은 연판을 부조했으며 그 아래로는 연곽과 연화당초문만을 배치하였는데, 이보다 먼저 주조된 금사사명 범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단에 부조하던 보살입상, 원권(圓圈)의 범자, 위패 등은 생략되었다. 구획된 하단에는 주성기가 양각되었으며, 그 밑으로 연판문과 수파문을 차례대로 장식하였다. 범종의 장엄된 도안에서 천관 밑에 연판문과 종구를 장식한 수파문은 15세기에 제작된 흥천사명 범종(興天寺銘 梵鍾)(1462년), 낙산사명 범종(落山寺銘 梵鍾)(1469년, 현재소실) 등에서도 보이는 특징으로, 이를 통해 16세기 후반에도 전대의 범종양식이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명문 및 특기사항

명문 : 奉先寺鐘銘并序「恭惟我」世祖大王昇遐之後「貞熹王后 睿宗大王」敬奉 先王創立「者也盡壞壬辰之」變基下二十餘會「山人敬和始於癸丑」重明法堂宝豈爰「丁巳敬造三世」像而鐘廢也天寶「○二十七歲建大悲」願意欲鑄鐘於戊午「成自嶋勸疏忍苦」忍寒而渡山越海胃「雨卽風而岩樹經夜」摸地閭閻三沛五伏「周募四道未果小緣」○○春所得計之鑄「銅五百斤黃蜜五十」斤布五十四粟三十「碩矣倩良工鎔銅焉」此公之建功如蜂之成「蜜也鐘者道物之最」器四時之槌鳴則上「徹有頂天忞悟道下」至六塗迷輪息若「…以吾」之○筆未盡洪功諸○「結緣隨喜者來上斯」銘伏願此功普及細緣「微施者幽明含靈一」切之流世〃生〃同生「佛國速悟玄眞頓」證佛○銘曰「大悲願立忍若寒」未終成不朽壯哉「鐘由擊鯨吼上」下遍震三界含靈「息苦發道微緣同」結脫迷歸眞「萬曆四十七年己未四月二」十一日化主天寶謹作「書刻」大功德主嚴春世兩主「大功德主姜耑守兩主」大功德主張福守兩主「大功德主文德英」張德今許大賢兩主「比丘三學法湖女」銀花兩主女金韶池兩主「張俊金兩主金龔同」緣化比丘玄玉正會大元瑩仁」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전란의 격동기를 거친 17세기에 들어오면 점차 중국종과 전통종이 적절히 혼합을 이룬 혼합형 범종이 주류를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 혼합형이란 우선 용뉴(龍鈕)에 있어 두마리의 쌍용으로 장식되며 종신의 상부에는 상대 없이 범자문이 주회(周廻)된 예가 많다. 그리고 종신의 중단쯤 내려와 연곽(蓮廓)을 배치하고 이 안에 화형의 종유(花形의 鐘乳)를 장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좌와 하대(撞座와 下帶)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기적으로 17세기 범종의 경우 종구(鐘口)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하대처럼 문양대를 장식한 예가 많고 18세기 범종은 대부분 하대가 표현되지 않는다.

16세기의 대표적인 승려 장인의 작품으로는 안정사종(安靜寺鐘)(1580)과 갑사종(甲寺鐘)(1584)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광흥사종(廣興寺鐘)(1573)의 제작자인 ‘주장 김자산과 화원 원오비구(鑄匠 金慈山과 畫圓 元悟比丘)’ 경우처럼 사장과 승장이 함께 등장되는 예도 보인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계열이 합동하여 주종 작업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그러나 이후 17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사찰마다 전쟁에 소실된 종을 만드는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현등사종(1619), 삼막사종(1625), 고견사종(1630), 보광사종(1634), 대복사종(1635), 무량사종(1636)과 같은 승려장인의 작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시작이자 17세기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승려 장인의 범종이 바로 봉선사종으로 만들어진 현등사종(1619)이다. 본래 봉선사종으로 제작된 것이었지만 한국전쟁 때 현등사로 이전되었다고 전해진다. 종신에는 ‘봉선사종명명서(奉先寺鍾銘并序)’를 시작으로 세조를 위해 정희왕후와 예종이 세운 봉선사가 임진왜란 때 훼손되자 1613년에 범당을 중수하고 1617년에는 삼세상(卍)을 조성하였으나 종이 없어 1618년에는 권선문을 돌려 시주를 받아 1619년에 주성했다는 내용과 시주 내역, 그리고 시주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천보 스님은 종 제작을 총괄한 제작자이면서 명문을 쓴 화주(化主)로 기록되었는데, 종 형태와 문양, 종에 쓴 명문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고견사종(1630)과 보광사종(1634)을 주성한 설봉 천보(雪峰天寶)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후 설봉 천보가 제작한 종의 명문을 분석해 보면 1630년 제작된 고견사종에는 □□도대장미지산설봉사문천보□□(□□圖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는 명칭으로 치죽(緇竹), 득남, 득일과 함께 참여하였고 다시 보광사 종(1634)에는 제작자를 ‘주성도대장설봉자□□(鑄成圖大匠雪峯子□□)’라는 명칭으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승려 장인 계열은 대복사종(1635년)과 무량사종(1636년)을 만들었던 정우비구와 서운암종(1667년)을 비롯한 8점의 작품이 남아있는 승려장인 사인비구로 계승을 이루게 되는 점에서 설봉은 17세기 전반의 승장 사회를 이끌었던 우두머리 장인으로

로 추정된다.

검은 색조를 띤 모습에 전체적인 외형은 한국 전통종 보다 중국종 계열을 따르고 있는 전형적인 작품이다. 불룩이 원구형으로 솟아오른 천관 위로는 음통 없이 두 마리의 쌍룡으로 구성된 용뉴와 그 바깥의 주위에는 사각으로 된 복판의 연화문을 상대처럼 둥그렇게 시문하였다. 종 몸체 중단에 둘러진 3줄의 용기선 횡대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누어 윗 단에는 위로부터 연관문대와 사다리꼴로 이루어진 연곽대, 그리고 그 옆으로는 범자문과 대좌 위에 앉은 불좌상을 번갈아 가며 시문한 모습이다. 특히 불좌상 옆으로 위패형의 범자문대를 두고 그 옆에 육자광명진언과 파지옥진언이란 문구를 도드라지게 새기 것은 이후 조선후기 범자(梵字) 다라니의 선행 양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종신의 중단 아래로는 역시 3줄의 용기선을 둘러 3구로 구획하였는데 바로 아래에는 연당초문대(蓮唐草文帶)를 둘러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종신 전면을 돌아가며 긴 내용의 양각명이 새겨져 있다. 이 명문구 아래로 다시 1줄의 용기선을 돌리고 종구(鐘口)에서 조금 떨어진 상부 쪽으로 과도문과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격동적인 모습의 용무늬를 번갈아가며 뿔뿔이 시문하였다. 이러한 문양이나 종신 전체를 빠짐없이 장식하는 모습은 이미 고려후기의 연복사종(1346)에서부터 보이던 중국 종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지만 연관문, 종대의 보상화당초문, 하대의 과도문 등은 조선전기 해인사 대적광전종(1491)의 문양을 계승하거나 약간 변형시킨 모습이다.

따라서 이 종은 17세기 승장 계열 범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종인 동시에 천보 스님이 만든 종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준작이 된다. 아울러 그다지 크지 않은 크기이면서도 정교한 세부 문양과 용뉴의 모습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고견사종으로 발전되는 천보 스님의 승장으로서의 초기적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고견사종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보다 10여년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점에서 현등사 종이 보물로 지정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감정위원 (지정 가치 있음)

1998년 4월13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8호로 지정된 현등사종은 원래 봉선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검푸른 빛이 감돌며 안정감과 볼륨감, 장식성을 고루 갖추고 구조상태도 좋은 수작이다. 명문에 의하면 이 종은 천보(天寶, 1595~1634 활동)가 화주가 되어 모연하고 찬문을 지었으며 연화비구인 현옥과 정회·대원·영인이 제작한 것이다. 즉 계축년(1613)에 산인 경화(敬和)가 법당을 짓고 정사년(1617)에 보은(寶崑)이 삼세상(三世像)을 조성하였으나, 종이 폐(廢)하여

천보가 무오년(1618)에 종을 만들고자 원을 세워서 기미년(1619) 4월에 완성한 것이라 한다. 봉선사에는 종루에 대종(1469)이 있으므로 이 종은 법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체높이 73.5cm 구경 57.5cm 크기의 중종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는 고려 말에 원의 장인들에 의해 제작된 개성 연복사 동종(1346)의 형식을 따라 조선초 왕실에서 주성한 흥천사 동종(1462)이나 보신각 동종(1468), 낙산사 동종(1469), 봉선사 대종처럼 한국종의 특징인 음통 대신 중국종의 특징인 쌍룡의 종뉴와 종신에 띠장식대를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외래유형에 속한다. 때문에 17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승장계인 죽창-정우-신원과가 제작한 전통형의 종들과 확연히 다르다. 전체적으로 종신의 공간구성이 매우 짜임새가 있는데, 쌍룡의 종뉴 아래 종신이 연결된 형태로 종신의 외형선은 둥근 종건부로부터 구연부를 향해 벌어지며 내려오는 선형을 그리고 있다. 종뉴인 쌍룡은 매우 용맹스러운 얼굴과 역동적인 신체에서 사실적인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종정부에는 2cm 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어 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종신은 종복 중앙에 3줄(1개의 굵은선과 上下 가는 선으로 구성)의 띠장식대(太彫線帶)를 둘러 상하로 구획한 다음 상단과 하단에 각각 다시 띠장식으로써 2분하였다. 먼저 상단을 보면 윗부분에 복련문으로 장식된 상대와 4개의 유곽을, 아랫부분에는 가는 당초문양대와 넓은 보상 당초문의 중대(中帶)를 배치하였다. 하단에는 윗부분에 주성내력을 알려주는 명문을 돌리고, 아랫부분은 구연부에서 조금 윗쪽으로 파도문양으로 이루어진 하대와 양련대를 장식했다.

이 종은 봉선사 대종과 흡사하나, 유곽과 교대로 반드시 배치되는 4구의 보살상이 없으며, 고건사 동종(원 견암사 종)이나 보광사 동종과 비교하면, 용문이 배치되지 않은 점만 다를 뿐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이 종들이 한 계열의 종임을 확연히 알게 해준다. 쌍룡의 종뉴와 태조선대가 둘러진 종복, 복련문 상대와 유곽, 명문, 파도가 배치된 점에서 봉선사 대종과 황해도 금사사 동종(1595), 고건사 동종(1630), 보광사 동종(1634)과 같은 계열의 종이라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봉선사 대종을 모본삼아 제작한 현등사 동종과 금사사 동종, 고건사 동종, 보광사 동종은 천보가 관여했기 때문이다. 천보는 주물장 양천목이 제작한 북한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장 금사사 동종의 명문에 “유대명조선국황해도장연 지낙가산금사사중주보금 종명병서 미지산설봉사문천보근찬서(有大明朝鮮國黃海道長淵 地洛迦山金沙寺重鑄寶金 鍾名并序 彌智山雪峰沙門天寶謹撰書)”라고 쓰여 있어 이 종의 찬문을 짓고 썼으며, 현등사 동종 명문에는 “화주천보근작...(化主天寶謹作...)”이라고 적혀있어 화주인 천보가 찬문을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11년 후, 고건사 동종에는 “유대명조선국거창현우두산견암사신주보금종명병서 미지산설봉사문천보술... 연화질 비대장미지산설봉사문천보(有大明朝鮮國居昌縣牛頭山見岩寺新鑄寶金鍾銘并序

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 緣化秩 畧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고 적혀있어 천보는 찬문도 짓고 도대장으로 종을 제작했다. 4년 후에 제작된 보광사 동종에는 “연화질 경섬 주성비대장미지산설봉자(緣化秩 敬暹 鑄成畧大匠彌智山雪峯子)”라고 천보가 직접 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미지산은 현 용문산의 옛 이름이어서 천보는 봉선사를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에서 활동한 승장이었을 것이다.

현등사 동종은 볼륨감이 있는 중종으로서 비교적 사실적인 종뉴와 짜임새 있는 종신 표면의 배치방식, 생동감 있는 장식문양 등에서 수려한 분위기가 감도는 종이다. 또한 이 종은 쌍룡의 종뉴와 안으로 오므라들지 않고 밖으로 다소 벌어진 종신에 둘러진 띠장식대, 복련으로 대신한 상대, 구연부 윗 쪽에 파도문의 하대가 있고, 따로 당좌가 없는 점 등에서 조선 초기에 유행한 외래형의 종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조선 후기의 외래유형 종들에도 이어지는데, 천보의 작품인 고견사 동종, 보광사 동종 이외에도 17세기 후반에 전라지역에서 활동했던 김용암이 만든 용흥사 동종(1644)에도 계승된다.

이 종은 전체적인 형태나 종신표면의 표현수법이 뛰어난 수작으로 구조상태와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17세기 전반 범종을 대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종 전체로 볼 때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또한 조선후기 종들 중 가장 이른 기년명 종이라는 점, 조선 초기 종과 후기 종을 이어주므로 조선시대 범종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는 점, 승장계 주종장 계보 및 사장에로의 전승 과정과 사원경제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1641년에 만든 하동 쌍계사 동종이 이미 보물 제1701호로 지정(2010.12.21)되었음을 볼 때 이 종 역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동종은 원래 현등사의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현재의 현등사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종은 73.5cm의 아담한 크기로, 종신(鍾身)에는 여러 개의 구획선으로 나누고 그 안에 연잎무늬, 당초무늬, 파도무늬 등을 화려하게 새겨 넣어 장식성이 강조된 범종이다. 두 마리 용이 서로 등을 맞대어 몸을 꼬아 만든 용뉴는 안정감을 주고, 두발을 힘차게 내딛어 천판을 들어 올리는 모습에서 역동감을 느낄 수 있다. 둥근 곡면을 이루는 천판에서부터 종의 입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그 폭을 넓힌 종의 형태도 아름답다.

이 종은 고려 후기 연복사종에서 비롯된 중국 종 양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종의 중심부를 세 개의 용기선으로 구획하고 천판에서 종의 입 사이에 다양한 무늬

를 시문하였는데, 작은 마름모꼴의 연곽에 구슬모양의 연꽃봉우리(蓮蕾)라든가, 천판의 내림연꽃이 중앙을 향해 보상화문처럼 말려든 형태와 그 위로 표현된 구슬무늬, 종복(鍾腹)에 크게 자리 잡은 역동적인 연화당초무늬, 그리고 하대에 표현된 물거품이 일렁이는 파도무늬 등의 장엄적인 요소는 1469년 작 남양주 봉선사 동종(보물 제397호)이나 흥천사명 동종(보물 제1460호), 그리고 1491년작 합천 해인사 동종(보물 제1253호) 등 조선 전기의 왕실발원 범종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원래 이 종을 소장했던 봉선사 또한 왕실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어진 궁중양식의 범종의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종의 배 부분에는 반듯한 해서체로 주종기를 돈을 새김하였다. 주종기는 1619년(광해군 11)에 천보(天寶)가 짓고 새기기까지 했으며, 주종기(鑄鍾記)에는 종을 만들게 된 연유, 종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양과 무게, 발원하는 내용, 참여한 사람 등을 질서 있게 적었다. 주종장은 일반적으로 주종기를 작성한 천보(天寶)로 보고 있는데, 그는 조선후기 승려 주종장(鑄鍾匠) 가운데 유일하게 임진왜란 이전부터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승장의 계보나 범종의 양식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인물이다.

이 종은 1619년에 조선 전기 궁중양식 범종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작된 범종이며, 구조상에도 양호하고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무늬들을 조화롭게 배열하여 범종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이 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선 후기 범종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가 , 1619 , ,
73.5 57.5,
168

73.5 57.5,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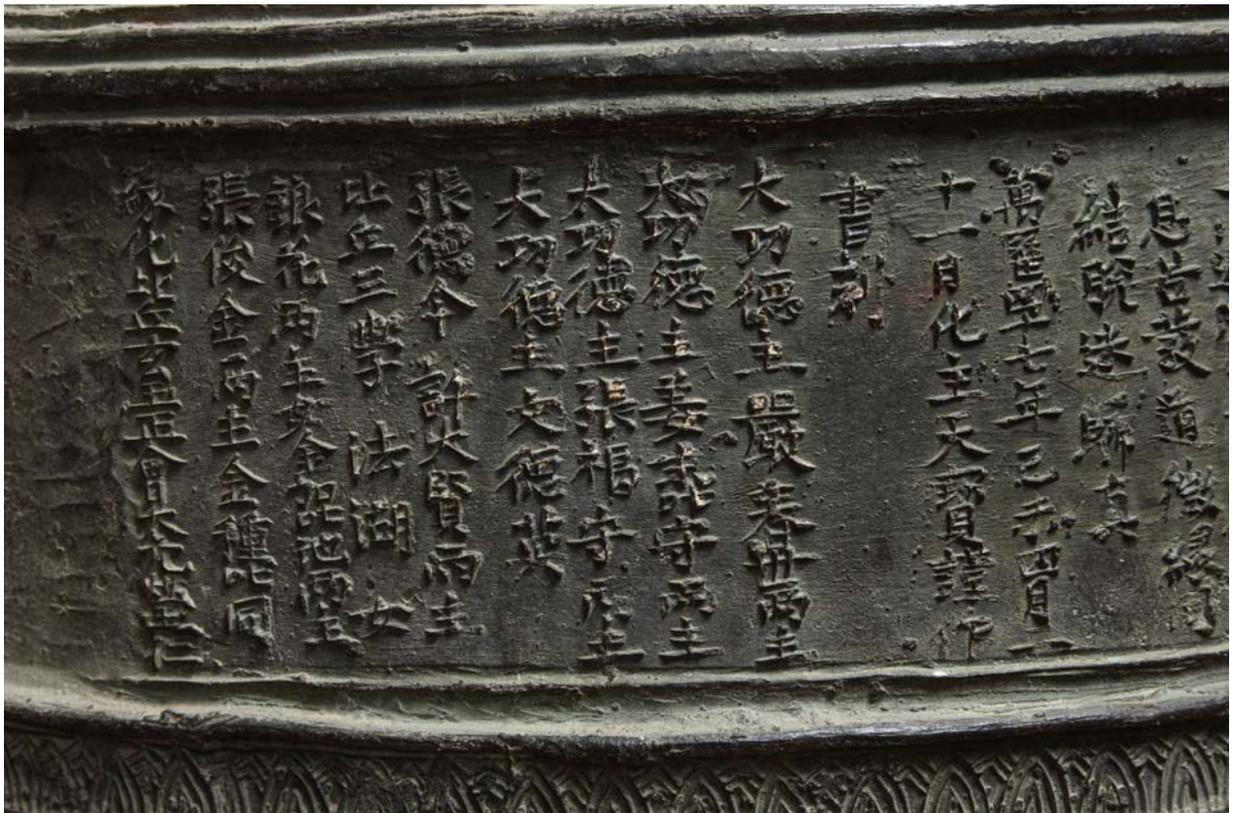
가



가



가



가

銘文

14. 파주 보광사 동종(坡州 普光寺 銅鍾)

가. 검토사항

‘파주 보광사 동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체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2.7.19)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검토되면 부결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 명 칭 : 파주 보광사 동종(坡州 普光寺 銅鍾)
- 소유자(관리자) : 보광사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92.5cm, 입지름 64cm
- 재 질 : 청동
- 제작연대 : 1634년(인조 12)
- 제작자 : 설봉자(雪峯子),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라. 내용 및 특징

경기도 파주 보광사 대웅전에 소장되어 있는 보광사명 범종(普光寺銘 梵鍾)은 전체높이 92.5cm, 입지름 64cm의 종으로서, 1634년 설봉자(雪峯子)와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이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하단부의 주성기(鑄成記)에는 제작 장인이 ‘주성비대장미지산설봉자(鑄成畧大匠彌智山雪峯子)’로 표기되어있는데, 그 옆에 ‘천보(天寶)’라는 낙관이 있어 설봉자가 설봉천보(雪峰天寶)임을 알 수 있다. 미지산(彌智山)이란 출신지는 봉선사명 범종(奉先寺銘 梵鍾)(1619년) 주성기에서 확인되는 ‘미지산설봉사문천보술(彌智山雪峰沙門天寶述)’, ‘비대장미지산설봉사문천보(畧大匠彌智山雪峰沙門天寶)’라는 내용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의 신분을 ‘비대장(畧大匠)’이라 기재하여 범종의 장엄이 되는 도안을 설봉자가 담당했으며 주물공(鑄物工), 조역(助役) 등이 범종 제작과 관련된 작업을 분업화하여 진행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설봉자가 제작한 범종을 살펴보면, 음통이 없는 쌍용의 종유를 비롯해 둥글고 높은 천판이나 종구가 좁아진 종형을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종유 상부에는 여의주를 표현하고 그 위에 S자로 굽힌 4개의 받침장식을 구성하였다. 상단의 천판 밑에는 넓은 연판이 부조되고 그 아래로 연곽, 보살입상, 범자를 배치하였다. 종신은 3줄의 횡선을 사용해 상·하로 구분하고 그 안에 다양한 도안을 배치하였으며, 상단의 천판 밑에는 넓은 연판이 부조되고 그 아래로 연곽, 보살입상, 범자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하단의 주성기 옆에 용문을 장식했으며, 그 밑에 수과문과 용문을 중첩되게 시문하였다.

○ 명문 및 특기사항

명문：有[○]大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光寺新鑄寶鐘銘序[○]竊聞此寺高麗時道詵國師爲[○]國家禪補營刹也及於我朝大[○]明萬曆二十年壬辰兵燹蕩書[○]爲麋鹿所居久矣越三一年壬[○]寅海西僧雪眉湖西僧德仁始[○]入茲墟吁然嘆息名利之爲丘[○]墟不可不復雪眉創法堂德仁[○]創僧堂由是四方賢師雲集一[○]湯百事什物無欠前美而唯闕一[○]鐘仁師痛念無已崇禎辛未[○]意欲成鐘勸立道元老僧三[○]年僅募艱得八十斤青銅成[○]之不果獻寺以退今化主信寬[○]海西僧也癸酉七月繼道元而[○]立乃首僧學岑之勸也時寺[○]衆二十員等皆力助焉別座[○]智什仁師之弟子也体仁師之[○]念盡誠渴力無獻色之嗚呼[○]斯人之誠茲寺之成可銘於[○]鐘也已盖鐘者非特金石絲[○]竹匏土[○]榮木八音之類也擊之[○]大則其聲大擊之小則其聲[○]小亦可以警幽鬼也請余鑄鐘[○]不獲辭而銘云[○]佛之尊德示知何相浮清寂滅[○]利他爲常亦有慈靈所願皆[○]應人[○]崇佛欲得福命毀補如夢[○]達惑可以眉仁寬輩三生願種[○]至此俱大化佛道[○]神[○]于渡人[○]請余作鐘時[○]擊滅惡善[○]崇積若成物萬歲長雄[○]崇禎七年甲戌七月日鑄重三百[○]餘斤[○]同緣錄[○]大功德主申銀福兩主[○]李今連兩主劉彥弘[○]辛天立朴春茂元賢[○]本寺助緣秩[○]彥機天玉靈玉德仁[○]學岑丹湜英湖玉

圭」 双一戒旭印全應成雪岩」 信宗善岑允明惟惠」 楚英惟洽眞機法淳」 妙淨學淨弘信
 信瑛」 法輝可文覺敏志堅」 同參秩李長守」 女青非女同玲嚴於^芑」 楊龍林從希尹(石/
 叱)金」 朴同石金海龍金切男」 金信男吳^芑原朴太福」 緣化秩敬暹」 鑄成畺大匠彌智
山雪峯子」 助役尙倫善岑敬立」 別座智什供養主緇境」 幹善勸化比丘信寬」
 <陰刻> 平安居士智仁吉趙丹孫」 義悅信浩妙善惟共^珎」 景學一珠一還法淨」 應惟聖
 賢」

○ 문화재위원 (현행 유지)

이 종은 현재 대웅전 안에 보관되어 있으나 원래 범종각에 걸려 있던 것으로서 경기도 유형문화재 158호이다. 종신에 기록된 명문에 의하면 승정 7년(崇禎七年)인 1634년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범종 가운데 중국종 양식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명문에 보이듯이 ‘주성도대장설봉자(鑄成圖大匠雪峯子)’는 앞서의 현등사종(縣燈寺鐘)(1619), 고견사종(古見寺鐘)(1630)을 만들었던 승장 설봉 천보(僧匠 雪峰 天寶)임을 알 수 있다. 천보 스님이 주로 중국종을 따른 외래형종을 제작한 반면에 또 다른 승장(僧匠) 일과 엮던 죽창(竹猖), 정우(淨祐), 신원(信元), 원응비구(元應比丘)는 삼막사종(1625년), 무량사종(1635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음통이 부착된 전통형종의 양식을 따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들 승장들은 단독, 혹은 집단을 이루며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 채 꾸준히 그 연맥을 이어 나가게 된다. 그러다가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그 활동이 점차 미약해지면서 사인비구(思印比丘) 외에 이렇다 할 승장이나 그 계열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전체적으로 푸른 색조를 짙게 띠고 있는 보광사종은 밑으로 가면서 밖으로 벌어진 외형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중국종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불룩히 솟아오른 천판 위로는 음통 없이 두마리의 역동적인 쌍용으로 구성된 용鈕(龍鈕)가 네발로 천판을 딛고 있는 모습이다. 그 외연에는 복잡하게 시문된 사각의 복판연화문이 상대처럼 주회 되었다. 종신은 중단과 하단을 돌아가는 3줄의 용기선 횡대로서 종신을 3단 구획하여 상단에는 방형의 연곽대와 보살입상을, 중단 부분에는 운용문과 장문의 양각 명문을 새겼고, 종구(鐘口)에서 약간 위로 올라온 곳에 하대처럼 둘러진 하단 문양대에도 용문과 파도문을 번갈아 가며 유려하게 시문 하였다.

위가 좁은 사다리꼴로 표현된 연곽대에는 연당초문을 시문하고 유곽 내부에는

연화좌 중앙에 작은鈕(鈕) 표현된 9개씩의 종유(鐘乳)를 배치하였다. 이 연곽과 연곽 사이의 여백면에는 보살입상을 중심으로 그 좌·우측에 범자문(梵字文)을 양각하였다. 4구의 보살입상은 원형 두광(頭光)에 통견(通肩)의 범의를 걸치고 합장한 모습으로서 연화좌 위에 시립한 채 몸을 우측으로 돌린 유려한 자세이다. 범자문은 종신 상부에 1단 내지 2단의 범자문(梵字文) 띠를 두르거나 독립된 원권(圓圈)의 범자문으로 주회시켜 장식하는 일반적인 17세기 범종 범자문과 달리 원권 없이 종서(縱書)로 이루어진 점이 색다르다. 두터우면서 경직된 듯한 양각의 범자문 앞에는 각각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과 ‘육자광명진언(六字光明眞言)’이라고 쓴 범자문의 의미와 명칭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육자광명진언은 원래 조선초기 봉선사종(1469)에 보였던 육자광명진언(六字光明眞言), 즉 ‘옴마니반메훴’을 새기는 것이 원칙이었다. 일체의 죄장(罪障)을 소멸한다는 광명진언(光明眞言) 가운데 6字(옴·마·니·파·메·훴)를 발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육자대명주(六字大明呪), 육자대명진언(六字大明眞言), 육자다라니(六字陀羅尼) 등으로 부르며 □□청관세음보살소복독해타라니경□□권20(□□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經□□卷20)에 의하면 이 다라니(陀羅尼)를 창함(唱)으로서 육도의 고에(六道의 苦)서 벗어나 육묘문(六妙門)을 얻고 육근(六根)이 안정된다고 한다. 조선시대 범종에서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된 진언다라니(眞言陀羅尼)의 하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종에 오면서 36자의 광명진언 가운데 순서없이 6자만을 발취하여 의미없이 나열하거나 그 수효가 8자, 10자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하며 ‘옴’자 한자만을 반복 시문한 예가 많아지게 된다.

한편 종단의 용기선 횡대 아래에는 유려한 모습의 운룡문(雲龍文)을 고부조 하였으며 이 운룡문으로 이루어진 문양판 사이로 양각명이 새겨져 있다.

아래 단에는 1줄의 용기선을 돌리고 하대처럼 표현된 종구(鐘口)의 윗 부분에는 과도문과 운룡문을 번갈아 가며 뺄뺄히 시문하였다. 쌍용의 용뉴와 용문, 과도문 등을 종신 전체에 빠짐없이 꾸미는 중국종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된 작품이면서도 문양이 매우 도드라진 고부조로 처리되었다. 특히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명문과 범자문의 명칭을 기록한 점, 종신 전면에 빠짐없이 장식된 다채로운 문양은 17세기 범종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수작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어도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종신 상부의 한쪽이 주조시 문양 부분이 내려앉아 마치 손상된 듯 굴곡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종이 제작 당시에 이미 주조 결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천보 스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크기이지만 현등사종이 국가지정 문화재보다 뒤늦게 만들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국가 지정문화재 보다는 지금처럼 지방문화재로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 문화재감정위원 (현행 유지)

과주 보광사 대웅전에 소장되어 있는 보광사 동종은 1995년 8월7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8호로 지정된 것이다. 전체높이 92.5cm, 구경 64cm 크기인 이 종은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는 범종각에 현수되어 있었으나 근래에 대웅전에 이안된 것이다. 1634년에 경섬과 주성장 설봉자 천보, 조역인 상륜·선잠·경립이 제작한 이 종은 건부에 주조할 때 발생한 층균열이 남아 있으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 종은 조선초기 범종양식을 따른 외래유형의 종으로서 조선후기 범종양식이나 주종장을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전체적으로 푸른 녹이 감돌며 불룩감과 안정감이 있는 이 종은 한국종의 특징인 음통이 없는 대신 중국종의 특징인 쌍룡이 장식된 종정부에 포탄형의 종신이 연결된 형태이다. 종신의 외형선은 불룩한 정부로부터 흘러내려 오다가 종복에 이르러서 구연부를 향해 다소 벌어지며 하강하는 선형을 보인다. 종복에는 3줄로 구성된 띠장식대를 둘러 양분하였는데, 그 윗 쪽에는 건부에 복련으로 구성된 상대가 있고 그 아래에는 사다리꼴의 4유곽과 교대로 4구의 합장보살입상이 배치되어 있다. 종신의 아래쪽에는 구연부의 조금 윗쪽에 파도문과 용으로 구성된 하대가 있으며, 이 하대와 띠장식 사이의 공간에는 오조룡(五爪龍) 한 마리와 주성내력을 알려주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보광사 동종은 연화당초문이 시문된 유곽대·구름 속을 노니는 용의 힘찬 자세·파도문 등에서 비교적 생동감이 있는 편이다. 주성장 천보는 조선초기의 봉선사 대종(보물 제397호)을 모방해서 가평 현등사 동종(1619년, 원 봉선사 동종)을 만들 때 화주였고, 11년 뒤에 고견사 동종(1630)을 직접 제작한 후 보광사 동종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 종들은 매우 유사하다.

보광사 동종은 조선초기의 범종양식을 이은 외래유형으로서 안정감이 있으며, 양식적 특징은 조선후기에 전라지역의 김용암이 제작한 외래유형의 종에도 계승되므로 사료적 가치는 크다. 그러나 이 종의 상대는 문양이 이중으로 어긋나 보이는데 이는 주형(鑄型)이 흔들려서 생긴 층균열(Crack)로 주조 시 원형대로 성형되지 않은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성에 실패한 종으로 볼 수 있다.

이 종은 전국의 종들과 함께 그 우수함이나 가치를 수평적으로 비교 할 때 층균열이 있어 뛰어난 수작으로 보기 어려워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작품이라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현행 유지)

과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 주성도대장(鑄成圖大匠) 미지산(彌智山) 설봉자(雪峯字)를 비롯한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의 주종장이 참여하여 제작

한 종이다. 주성도대장으로 등장하는 미지산 설봉자는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동종(1595년작)에 ‘미지산설봉사문천보근찬서(彌智山雪峯沙門天寶謹撰書)’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보다 늦은 현등사 동종(1619년작)에는 ‘천보근작각서(天寶謹作刻書)’로, 고견사 동종(1630년작)에는 ‘미지산설봉사문천보술(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도장미지산설봉사문천보(圖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로, 그리고 보광사 동종(1634)에는 ‘주성도대장미지산설봉자(鑄成圖大匠彌智山雪峯子)’라고 적고 그 바로 옆에 ‘천보(天寶)’라는 사인(私印)을 새겨 둔 것을 볼 때, 설봉자와 천보는 동일 인물로 보이며, 그는 경기도 미지산을 근거지로 해서 활약한 승려 장인으로 추정된다.

이 종 역시 천보(天寶) 작으로 알려진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종의 몸통 가운데를 3개의 용기선으로 돌려 상하로 구분하고, 천판에서 종의 입구까지 다양한 장식문양들로 장엄하였다. 좁고 불룩한 곡선을 띤 천판에는 두 마리 용이 몸통을 등글게 꼬아 용뉴를 이루고, 뒷발은 들어 여의주를 다투고 앞발은 천판을 힘차게 내딛어 종을 들어 올리는 역동적인 모습이다. 천판과 연결되는 종의 어깨에는 3겹의 내림연판무늬로 장엄하였는데, 표현에서 가장 안쪽의 연판의 끝을 여의두문으로 마무리 하고 그 위로 마치 이슬이 도로롱 굴러 떨어지듯 표현하여 신선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특색 있는 내림연꽃(覆蓮) 표현은 천보 작으로 전해지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확인된다.

연화당초무늬로 꾸며진 사다리꼴의 연곽대는 어깨부터 거의 중심부까지 내려왔고, 그 안에는 큰 꽃받침 위에 작은 구슬모양의 연봉오리(蓮蕾)를 올려놓았다. 연곽대 사이에는 범자로 내려 새긴 ‘육자대명진언(六字大明眞言)’과 연봉을 받쳐 든 보살입상을 돈을 새김하였다.

종의 배 아래쪽에는 해서체로 반듯하게 적은 주종기와 구름 사이를 비행하는 용을 새겼다. 그 아래 울동감이 넘쳐나는 파도문과 운룡문을 번갈아 새겨 넣어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이 종은 세부의 표현이나 문양의 침삭, 그리고 문양의 유형과 종류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인 조형감이나 문양의 배치방식은 천보(天寶) 작으로 전하는 종들과 상통한다. 다만 이 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종들에 비해 천판과 파도문 등에 주물상태가 일그러져 있거나 거칠게 표현된 부분이 있고, 문양에 있어서도 다소 도식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현존하는 천보(天寶)의 가장 늦은 시기의 작품으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승려 장인으로 활약한 그의 작품경향을 시기별로 연구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작품이다. 한편 앞선 시기의 종에서는 ‘설봉 천보’가 주종장이었다는 증거가 미약하지만, 이 종에서는 ‘주성도대장미지산설봉자(鑄成圖大匠彌智山雪峯子) 천보(天寶)’라고 분명히 적시하여 종

의 주성(鑄成)뿐만 아니라 문양의 도안까지도 그가 주도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종들에 비해 천관과 파도문 등에 주물상태가 일그러져 있거나 거칠게 표현된 부분이 있고, 문양에 있어서도 다소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완벽한 주종상태를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바. 의결사항

- 부결



92.5 7 , 1634 , ,
64, 158



7



7



7



銘文 刊記



銘文 緣化秩



彌智山雪峯子'

15. 고양 원각사 쇄북(高陽 圓覺寺 金鼓)

가. 검토사항

‘고양 원각사 쇄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체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2.7.2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검토되면 부결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양 원각사 쇄북(高陽 圓覺寺 金鼓)
- 소유자(관리자) : 원각사
-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9-16
- 수 량 : 1구
- 규 격 : 지름 29.7cm, 두께 7cm
- 재 질 : 청동
- 제작연대 : 고려시대
- 제작자 : 금원(金元)

라. 내용 및 특징

고양 원각사에 소장되어 있는 안선사명 금고(安禪寺銘 金鼓)는 을유년(1285년 추정) 언광 등의 시주로 익령현 안선사에서 주조된 것으로, 장인 김원에 의해 조성되었다. 금고의 앞면 지름은 지름 29.7cm, 두께 7cm로, 앞면은 당좌부, 내구, 외구 등 3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3중의 선으로 구획되어 있다. 중앙 당좌부인 자방(子房)에는 19개의 연꽃 열매가 두드러지게 양각되어 있고, 내구에는 11면의 연화문이 중첩되어 총 22면의 연꽃잎이, 외구에는 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다. 당좌부 및 내구의 경우 사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문양이 무더져 있음을 볼 수 있고, 외구의 경우 주조 당시부터 당초문이 희미하게 시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뒷면은 넓게 뚫린 구멍과, 좁은 폭의 전으로 구성되었다. 옆면은 중앙에 3중의 선이 양각되어 있고, 양각된 선 위 상단 부분에 금고를 매달 수 있게끔 2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

한편 금고의 외구 윗부분에는 주물을 붓기 위한 주입구가 두드러지며, 내구 및 외구에 걸쳐 주조시(鑄造時)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시설한 외구 6개, 내구 8개 등 총 14개의 형지(形持) 자국이 보이고 있다. 옆면에는 정으로 쪼아 놓은 총 32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전체 면에서 균일하게 산화된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청록의 녹이 피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금고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금고 가운데 13세기 후반에 조성된 유일한 사례로 추정된다. 하지만 금고의 소장 경위와 함께 명문에서 확인되는 안선사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장인으로 명시된 김원에 대해서도 전해지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전·후대 가까운 시기에 조성된 금고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금고에 새겨진 명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고증이 요구된다.

○ 명문 및 특기사항

명문 : 을유육월일조 익령현안선사여양언광김유이방김동등원성입중오근장김원(乙酉六月日造 翼令縣安禪寺余良言光金裕李方金同等源成入重伍斤匠金元)」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없음)

금고(金鼓)란 글자의 뜻 그대로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서 금구(禁口), 또는 반자(반자)(飯子(半子)) 등으로 불리는 절에서 쓰인 의식법구(儀式法具)의 하나이다. 범종이 주로 아침·저녁의 예불이나 중요한 의식법회 때 사용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금고는 공양(供養)시간을 알린다거나 사람을 모으는 등 그보다 단순한 용도로 사

용되었다. 앞면은 납작한 원반형이지만 뒷면은 구연 부분이 안쪽으로 접혀져 짧은 전을 형성하고 넓게 뚫려 공간을 이룬 독특한 모습이다. 앞면인 고면(鼓面)에는 두세 줄의 동심원을 도드라지게 배치하고 그 중앙부를 범종의 당좌와 동일한 형식의 연판문으로 장식하였다. 또한 이 당좌구(撞座區) 주위는 구름문이나 당초문, 화문 등으로 시문하기도 하였다. 측면에는 架에 걸 수 있도록 2~3개의 고리를 부착하였으며 이 측면이나 후면 구연부에는 금고를 만든 날짜와 절 이름, 발원문(發願文)과 제작자, 무게 등 금고의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금고의 형태는 뒷면이 넓게 뚫린 기본형식과 함께 뒷면의 구연이 확장되어 공명구(共鳴口)가 좁아지는 형식, 그리고 앞·뒷면이 모두 막혀 측면에 공명구가 뚫리는 소위 일본의 와니구찌식(鰐口式) 금고 등의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금고는 통일신라에 비해 우선 고면의 중앙에는 연판문과 연발을 장식한 당좌구(撞座區)가 완전히 독립된다. 이 당좌구 주위로는 두세 줄의 용기동심원을 두르고 그 구획마다 연화문, 구름문, 또는 화문, 여의두문(如意頭文), 당초문 등으로 장식하였다. 고려 초기 금고의 경우 이러한 장식문양은 당좌를 중심으로 하여 외구(外區)에 한해서만 간략한 구름문, 당초문이 표현되지만 후기로 가면서 점차 고면 전체에 빠짐없이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이 첨가된다. 고려후기에 와서는 금고의 크기가 축소되는 한편 당좌구나 외구의 구획이 분명치 않게 되며 연판문, 당초문의 장식은 도식화되어 별모양(星形)이나 물결무늬로 바뀐 구조기술의 급격한 퇴락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 금고 가운데 기년명(紀年銘)을 지닌 작품은 약 40여점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13세기 초부터 중엽에 제작된 금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작품이 양식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장 우수한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을 따른 고려 금고가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근래에도 간혹 절터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가운데 원각사 소장된 내원사 금고는 후면이 안으로 접혀 넓은 공명구가 형성된 가장 일반적인 반자형 금고이다, 측면에는 굽은 1조와 그 주위에 가는 2조를 합친 3조의 용기선을 둘렀고 이 상부에 2개의 반원형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전면인 고면은 2줄의 용기선으로 3구 구획하였는데, 가장 중앙에는 불규칙적으로 장식된 18개의 굽은 연과를 두어 당좌구로 만들었다. 다시 이 바깥 중구에는 12엽의 연판문을 둘렀으며 연판 사이마다 간엽이 묘사되었고 연판 안에 1줄로 표현된 판심(瓣心)이 장식되었지만 그다지 정교하지 못하고 간략화되었다. 일부의 연판은 두드러지지 못하고 뭉개져 있어 구조가 정밀하지 못함이 느껴진다. 가장 바깥인 외구에도 당초문이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마모가 심해 문양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이 금고는 측면을 돌아가며 새겨진 명문에는 을유육월(乙酉六月)에 안선사(安禪寺)라는 절에 시주자 여러 명

의 이름이 등장되며 오근(伍斤)의 중량을 들여 김원라는 장인이 만들었다고 기록되었다. 이 명문을 원래의 각명으로 본다면 이 금고의 명문에 보이는 익곡은 강원도 안변 남쪽에 위치한 익곡현(翼谷顯)이며 안선사(安禪寺)는 그 곳에 있었던 사찰로 추정되며 특히 제작자로 확인된 김원이라는 장인이 새로이 밝혀진 셈이다. 금고의 양식적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13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명문의 각명이 너무 깊으면서도 일정하고 언제인지 몰라도 명문 내부에 녹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이 명문이 제작 당시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이 금고는 고면 외구에 주입구와 주출구와 같은 주조 관계의 흔적이 잘 남아있고 주조시 사용되는 형지(形持) 자국이 외구 6개 내구 8개를 확인할 수 있어 고려 금고의 주조 방법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다만 출토 후 금고 전면에 덮혀 있던 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화되거나 깎여 나간 흔적을 볼 수 있어 과도하게 처리를 한 아쉬움이 남는다. 기록된 명문을 빼고도 전체적인 양식적 특징으로 미루어 고려 13세기 중엽에서 후반 쯤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되지만 앞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보물로 지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감정위원 (지정 가치 없음)

원각사 소장 안선사명 금고는 근래에 소장하게 된 것으로 전형적인 고려시대 금고 양식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검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군데군데 청녹이 있는 이 금고는 직경 29.7cm, 두께 7cm 크기의 비교적 작은 편이다. 측면에는 년호 없이 을유년 6월에 익령현 안선사 금고로 장인 김원이 제작한 것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데 시주자 김유, 김동의 활동년대를 고려하여 128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형태는 2개의 굽은 태조선을 써서 내구와 외구로 나누고, 내구에는 연판과 자방을 표현했다. 측면은 1개의 태조선을 두르고 그 위에 2개의 현수용 고리가 달려있으며 공명구가 넓게 뚫려져 있어 뒷면 전의 폭이 좁아 보인다. 내구의 자방에는 19개의 씨앗이 듬성듬성하게 나 있으며 연판문은 양각선의 굽기와 높낮이, 끝선이 고르지 않아 들쭉날쭉한 느낌을 준다. 또한 연판 가운데에 양각선으로 잎맥을 표현한 점은 이례적이다. 외구에는 불분명한 당초문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금고 표면과 안쪽에 주조시의 형틀 고정장치인 여러 개의 형지가 눈에 띄게 드러나 있고 측면 모서리에는 용탕 주입구 흔적이 약간 돌출되어 있다. 2개의 고리는 모형 제작시 뒷쪽에서 뚫어 앞쪽에 원모양이 생겼고, 측면은 표면이 부서진 듯 매끄럽지 않다[그림 1].



1. (, , ,)



2.



3.

명문은 내용과 서체, 조각솜씨 등에서 주의를 요하는데, 우선 봉안처의 위치인 익령현(翼令縣)은 《고려사-지》에 “교주익령현(交州翼嶺縣)”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익령현(翼嶺縣)”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안선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8권, 충청도 연기현의 불우 조에 “안선사, 오봉산(五峯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사찰의 소재지가 분명치 않다. 명문 옆에는 굽은 줄자국이 남아 있다[그림 2]. 서체는 고체(古體)에서 보듯이 간결해도 획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획을 흘린듯하면서 깊이 봤는데, 월(月), 안(安), 승(承), 김(金), 이(李) 자 등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획의 빠침에 정(釘)으로 쪼아낸 자국이 작은 연속 삼각형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그림 3]. 아마도 이 명문은 근래에 후각(後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원각사 안선사명 금고는 13세기 금고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하여도 연화문 모양, 연판에까지 설치한 많은 사각형 형지, 별로 사용하지 않은 듯한 거친 표면 등에서 다른 고려시대 금고들과 심도있게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후각한 것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없음)

이 금고의 앞면은 용기선대를 돌려 당좌구(撞座區), 내구(內區), 외구(外區)로 구분하였고, 뒷면은 입술이 얇고 공명구가 크게 뚫려 있다. 측면에도 용기선대로 전후를 구획하였고, 구획선 위에는 단조로운 형태의 2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 측면에는 ‘을유육월일조 익령현안선사정양언광김유이방금동등원성입중오근장김원(乙酉六月日造 翼令縣安禪寺淨良言光金裕李方金同等源成入重伍斤匠金元)’라는 명문을 음각으로 새겨 놓았다. 명문을 통해 이 금고는 익령현(현재의 양양) 안선사 금고로 제작되었으며, 장인(匠人)은 김원(金元)임을 알 수 있다. 연호(年號) 없이 을유(乙酉)라는 간지(干支)만 표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금고의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1285년의 을유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금고는 형태나 자방과 연꽃문양의 표현에서 ‘을사인복사명 금고(乙巳仁福寺銘 金鼓)’(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나 己巳回陽寺銘 金鼓(국립청주박물관소장), ‘을유화엄사명 금고(乙酉華嚴寺銘 金鼓)’(국립부여박물관소장) 등 간지명만 있는 금고들과 유사점이 있다.

고면(鼓面)은 타고(打鼓)로 인한 듯 안쪽으로 약간 들어갔으며, 내구에 불규칙적으로 표현된 연꽃 씨에도 마모의 흔적이 보인다. 내구에는 끝이 날카롭게 펼쳐진 연꽃잎이 얇게 새겨져 있다. 연꽃잎과 연꽃잎사이에 표현된 간엽은 윤곽선이 마멸되어 분명하지 않은 곳도 있고, 외구의 당초문양도 거의 마멸되어 잘 확인되지 않

는다. 고면은 발견 후 표면처리를 한 듯 산뜻한 청동색이 아닌 다소 무거운 검회색을 띄고, 아직까지 여러 곳에 푸른 청동 녹이 서려 있다. 특히 명문이 새겨진 각자 위로는 녹이 거칠게 피어있으나 음각으로 새긴 명문 안에는 녹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후각일 가능성도 있다.

이 금고는 기형을 이루는 외형의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나, 표면을 장엄한 문양들은 마멸이 심하고 불분명하게 표현된 부분도 있어 세련된 조형감이나 정밀한 기교는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입품으로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고, 금고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추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문이 후각(後刻)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1285 , ,
29.7cm, 7cm



五月廿一日

日... 金... 縣... 文... 社... 牙...

聚良言... 老人... 金... 裕... 李... 金... 同... 心... 行... 涼...

李... 金... 同... 心... 行... 涼... 火... 重... 功... 斤... 正... 金... 元...

16. 강화 전등사 업경대(江華 傳燈寺 業鏡臺)

가. 검토사항

‘강화 전등사 업경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체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2.7.2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검토되면 부결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7호
- 명 칭 : 강화 전등사 업경대(江華 傳燈寺 業鏡臺)
- 소유자(관리자) : 전등사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 수 량 : 2점
- 규 격 : ①높이 110.3cm, 최대폭 64.5cm ②높이 106.1cm, 최대폭 66.6cm
- 재 질 : 나무·황동
- 제작연대 : 1627년(인조 5)
- 제작자 : 밀영(密英), 천기(天琦), 봉생(奉生[鳳生])

라. 내용 및 특징

인천 강화 전등사에 소장되어 있는 한 쌍의 업경대(業鏡臺)는 1627년에 조성된 것으로

로, 1688년에 제작된 밀양 표충사 명부전 업경대와 1693년에 제작된 진주 청곡사 업경대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 전등사 업경대의 전체높이는 각각 110.3cm, 106.1cm 이며, 최대폭은 64.5cm, 66.6cm 이다.

업경대의 구조는 죄를 비취 주는 업경과 업경을 받치는 대좌로 구성되었으며, 업경의 형태는 가운데 동(銅)으로 된 거울이 있고, 그 주위에는 투각기법을 사용하여 화염문을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업경 아래로는 연화(蓮花)가 업경을 받치고 있고, 연화 아래에는 해학적으로 표현된 사자가 업경을 받치고 있다. 또한 황색 사자와 청색 사자의 발받침으로 사용된 판자의 바닥에는 제작자와 제작 시기를 알려주는 목서가 적혀 있다. 목서명을 살펴보면 이 한 쌍의 업경대는 天啓 7年인 1627년 정유 9월 13일에 조성되었으며, 천기(天琦), 밀영(密英), 봉생(鳳生[奉生])의 세 목화원(木畵員)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명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목화원’이란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건축공장(建築工匠)인 ‘대목(大木)’이나 ‘소목(小木)’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 명칭은 ‘편수(片手)’와 ‘도편수(道片手)’로 변화하게 되고, 조선 후기가 되면 ‘편수’ 또는 ‘변수(邊手)’로 변화하기도 한다. 또한 명문이 전해지는 여타의 목공예품에는 간혹 ‘화원(畵員)’에 의해 제작되었음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등사의 업경대 명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목화원(木畵員)’이란 명칭이 사용된 예는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 다만, 1636년에 조성된 전등사 명부전 소장 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에서 나온 회향발원문에 화원겸증명(畵員兼證明)으로 전등사 업경대를 만들었던 “밀영(密映)”이 참여하고 있어 당시 조각승으로 활동하던 화원(畵員)들이 목공예품도 조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명문 및 특기사항

명문 : ① 天啓七年丁卯 九月十三日列祿 木畵員天琦 密英 鳳生
② 天啓七年丁卯 九月 十三日列祿 木畵員密英 天琦 奉生

○ 문화재위원 (현행 유지)

원래 업경(業鏡)이란 사찰에서 지장전(地藏殿)이나 법당(法堂) 안에 두어 전생(前生)의 죄악을 비쳐주는 거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실제 구리거울을 사용하기 보다는 목제로 된 상징적인 형태의 거울을 만들고 그 주위를 화염무늬로 조각한 뒤 목제 대좌 위에 안치한 모습이 일반적이다.

현재 두 점의 업경대는 높이가 110.3cm와 106.1cm로서 조선시대 업경대 가운데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예이다. 이 업경대 역시 거울을 걸 수 있는 몸체 부분과 그것을 지지하는 대좌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몸체 부분은 거울이 직접 걸리는 부분으로 불꽃을 형상화한 화염(火焰)형태이다. 두 점 모두 외형은 보주형을 이루었는데, 두 개의 판을 덧대어 가운데는 원형 목제 업경을 끼우고 그 외곽으로 다시 화염문을 투각한 목제 판을 붙이고 있다. 내부의 원형 업경 부분은 황금색으로, 외곽의 화염은 붉은 색으로 채색되었다. 이 업경 아래로는 양·복련(仰·伏蓮)으로 구성된 연화좌(蓮花座)가 놓여있다. 두 연화좌의 조각은 동일하지만 청색과 붉은색으로 채색하여 두 점의 차이를 주도록 구성하였다. 대좌 부분은 사자(獅子)의 형상을 하였으며, 등에는 고복형(鼓腹形)으로 구성된 연꽃 가지를 표현하여 몸체인 업경 부분과 연결되었다. 네 발을 앞쪽을 향해 딛고 있는 측면관의 사자는 얼굴을 앞으로 돌린 모습으로서 두 마리 모두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역시 채색을 달리하여 차이를 두었다. 한쪽 사자는 청색조의 몸체에 안장 부분을 금색으로 채색한 반면 다른 한 점은 황색(금색)조에 안장 부분이 붉은 색으로 칠해졌다. 또한 사자의 형태와 세부 장식은 거의 동일하지만 청색조의 사자의 얼굴이 좀 더 넓적하게 보이며 이 사자의 꼬리 부분이 잘려져 손상되었다. 특히 사자가 서 있는 발 받침으로 방형의 목제 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방형판의 저부에 각각 ‘천계칠년정묘」 구월 십삼일열록」 목화원천기」 밀영」 봉생」(天啓七年丁卯」 九月十三日列祿」 木畫員天琦」 密英」 鳳生)’와 ‘천계칠년정묘구월」 십삼일열록」 목화원밀영」 천기」 봉생」(天啓七年丁卯九月」 十三日列祿」 木畫員密英」 天琦」 奉生)’이라는 목서명 기록되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여기에 기록된 명문에 의하면 이 한 쌍의 업경대는 천계 7년인 1627년 정유 9월 13일에 조성되었으며, 천기, 밀영, 봉생(天琦, 密英, 鳳生[奉生])의 세 목화원(木畫員)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문에 나오는 ‘목화원’은 조선시대 목공예의 장인으로 추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건축 공장인 ‘대목’이나 ‘소목’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 명칭은 ‘편수’와 ‘도편수’로 변화하게 되고, 조선 후기가 되면 ‘편수’ 또는 ‘변수’로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명문이 있는 목공예품 가운데 ‘화원’이라는 명칭이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전등사 업경대 명문에 보이는 ‘목화원’이란 명칭은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이 업경대는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업경대 가운데 가장 먼저 제작된 작품인 동시에 당시 업경을 제작하였던 목화원이란 직명과 제작자들까지 기록되어 조선 후기 불교목공예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 판과 사자의 다리 부분을 부착한 것이 철제 못으로 구성되어 나중에 다시 붙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점의 업경은 제작 년대를 원래의 명문으로 볼 경우 국가 지정문화재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현재 업경 부분은 그 손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채색 역시 후대에 이루어진 듯 매우 조약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1688년에 제작된 표

충사(表忠寺) 명부전 업경대, 1693년에 제작된 청곡사(靑谷寺) 업경대 등 17세기 조각들에 비해 사자의 표현이 매우 섬약하여 조각적으로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 보다는 현재처럼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됨이 바람직할 것 같으나 하루빨리 보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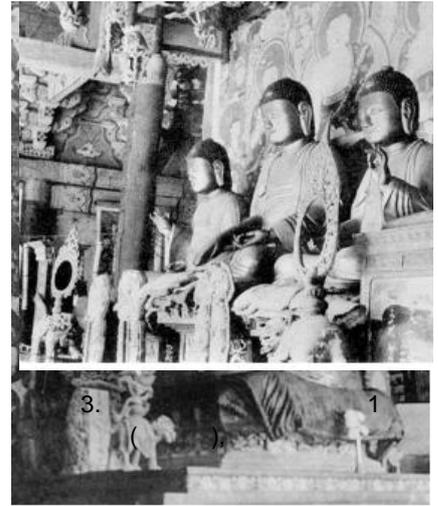
○ 문화재감정위원 (현행 유지)

전등사 목조업경대 1쌍은 2002년 12월 23일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되었으며, 원래는 대웅전 수미단 위에 있었을 것이나 지정조사 당시에도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업경대 1쌍은 높이 110.3cm, 106.1cm, 최대 폭 64.5cm, 66.6cm 크기의 황색사자와 청색사자 위에 연화좌를 갖춘 화염형 거울이 올려진 형태로서, 목각 사자의 몸체 위에 연화좌가 있고 그 위에 커다란 화염문 업경이 붙어있는 구조이다. 좌대 바닥에 묵서로 된 명문이 있어 1627년 9월13일에 목화원(木畵員) 밀영, 천기, 봉생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을뿐더러 현재까지 알려진 목조업경대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어서 자료적 가치 또한 크다.

어느 때 개철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등사 업경대는 표면의 단청이 군데군데 박락되었으나, 사자의 형태는 통나무 하나를 깎고 파내서 용맹스러운 얼굴모습이나 구불구불한 터럭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어 사실성이 있어 보이며, 등에 덮인 대좌 깔개의 모양과 그 안의 문양도 장식적이다. 지름 31.5cm 크기인 황동 거울의 외연인 화염문은 좌우대칭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2분하여 2개의 목조로 얇고 섬세하게 조각한 것을 작은 구멍을 뚫어 뒷면에서 철사로 묶어 조립한 것이다. 조선후기의 업경대는 대개 수미단 위에 불패와 함께 배치되어 있는 불상광배 형태의 간략한 화염형 업경대가 다수인데 비해 이러한 사자대를 갖춘 업경대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업경대와 전체 형태와 크기 면에서 가장 비슷한 예는 진주 청곡사 범당명경(明鏡)으로 제작된 업경대(1693)가 있으며, 밀양 표충사 명부전 업경대(1688)는 사자좌가 아니라 쌍룡좌이다.

또한 《조선고적도보》를 참고하면 함남 안변 석왕사 대웅전 수미단의 좌우 끝에 사자좌 업경대가 있고[그림 1], 순천 선암사 대웅전 불단 끝 좌우에도 사자좌 업경대가 있으며[그림 2], 영광 불갑사 대웅전 수미단 끝에도 사자좌로 된 업경대(현재 팔상전에 있음)가 있었다[그림 3].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업경대”라고 통칭하는 거울의 봉안처와 관련한 명칭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전등사 업경대의 예나 앞서의 참고 사례를 보면



1. 1 (), 2. 1

대개 사자좌를 갖춘 거울은 대웅전 좌우에 배치되었으며, 진주 청곡사^(청곡사) 업경대의 명문에는 “명경”으로 적혀있어 당시에는 명경으로 인식하고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업경은 죽은 이가 일생동안 지은 선악업(善惡業)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거울로 명부시왕 가운데 염라대왕의 상징물로 업경륜(業鏡輪), 정파리경(淨玻璃鏡)이라고도 한다.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抄資持記)》에는 명계의 업경이 1년에 3번 정월, 5월, 9월에 남섬부주(南瞻部洲), 즉 지구를 비추는데 만일 선악이 있으면 모두 나타난다고 한다. 명경은 호조(好照)로 불리우며 좌선 시의 도구이다. 또 삼매라는 것은 심성이 명경처럼 고요함(“心性淸澄如明鏡”)을 이르는 것이어서 대웅전의 주불이 중생을 제도하는 가르침과 부합된다.

전등사 업경대는 가장 이른 기년명으로서 형태나 조각수법이 비교적 뛰어날 뿐 아니라 조선 후기 목공예품의 편년 설정 및 상호비교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승장을 존상 제작자와 구분하여 목화원으로 칭한 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지정 조사할 때는 10년 전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보다 전체적인 형태를 갖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훨씬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가의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때문에 불교공예사적 의의가 큰 유물임에도 현재로서는 보물로 지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현행 유지)

원래 이 거울은 전등사 대웅전 수미단 양쪽에 나란히 놓여져 있었던 것인데, 명부전의 업경대와 달리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자비광명과 지혜를 비추는 거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경대로 칭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예가 1693년에 만들어진 진주 청곡사 대웅전 거울의 명문에서 '청곡사법당명경(靑谷寺法堂明鏡)'이라고 확인되기 때문이다.

황색사자와 청색사자의 받침대 밑면에는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려주는 묵서명이 있다. 이 묵서명을 통해 이 명경대는 1627년(인조 5)에 목화원(木畵員) 천기(天琦), 밀영(密英), 봉생(鳳生)²⁸⁾ 등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경대는 사자형 받침대에 투각한 불꽃무늬에 둘러싸인 거울을 올림연꽃(仰蓮)의 축으로 연결한 것이다. 사자형 받침대는 청색과 황색의 한 쌍의 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자의 등위에는 가운데를 보상화문처럼 멋을 낸 장니와 하엽형 안장을 두었다. 채색에서 황색사자는 백토위에 황색을 칠하고 붉은색 원점무늬를 고분채색으로 올렸다. 청색사자 역시 표면을 청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백색 원점무늬를 고분채색으로 올렸다. 꼬리도 별도로 제작하여 꽃도록 되어있다.

이빨을 드러내고 고개를 돌려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사자의 역동적인 자세에서 생동감이 넘치고, 곱슬곱슬 표현된 갈퀴와 등줄기를 타고 불끈불끈 솟아나듯 드러낸 붉은색 서기(瑞氣)에서 생명력이 느껴진다. 여기에 입속과 콧속을 파내어 정교한 기교를 더하였다. 채색에 있어서도 다소 박락과 퇴락이 있지만, 고풍스러운 옛 멋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 명경대는 1627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는 조선후기 목공예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생동감 넘치는 조각적인 역량과 세밀한 공예적인 기교가 잘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평가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앞서 이와 비교할 만한 목공예에 대한 자료축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보류
- 추가조사 실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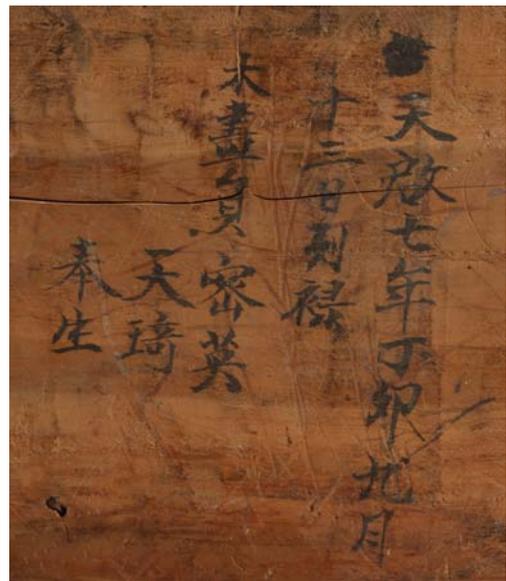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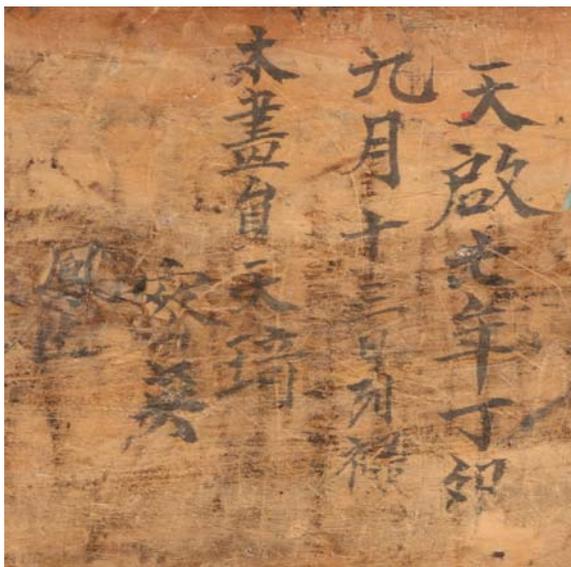
奉生



· , 110.3 , 1627 , 64.5, 47



· , 66.6, 106.1 , 1627 , 47



銘文

17. 대방광불화엄경 권62(大方廣佛華嚴經 卷六十二)

가. 검토사항

‘대방광불화엄경 권6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검토되면 부결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불화엄경 권62(大方廣佛華嚴經 卷六十二)
- 소유자(관리자) : 원각사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9-14
- 수 량 : 1첩
- 규 격 : 전체 31.4×903.7cm, 상하간 22.3cm
- 재 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고려시대

라. 내용 및 특징

○ 서지사항

대방광불화엄경 권62 大方廣佛華嚴經 卷六十二

고려시대, 저지, 전체 31.4×903.7cm 상하간 22.3cm, 1첩

木板本, 上下單邊, 無界, 全葉 24行17字, 無魚尾

版首題: 周第六十二

○ 내용 및 특징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화엄종의 근본경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전문 강원의 교과로 학습해 온 경전 중의 하나로서 이를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 부른다. 중국으로 전래되어 번역된 한역본(漢譯本)은 현재 진본(晉本)(60卷本)·주본(周本)(80卷本)·정원본(貞元本)(40卷本)의 삼본(三本)이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주본화엄경 80권 중 <권62>로 <입법계품(入法界品) 39-3>에 해당한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상하간은 22.3cm이다. 한 장의 길이는 약 50.0cm이며, 행수는 1장 24행으로 매행 17자이다. 권축(卷軸)의 크기는 세로 31.5cm 가로 903.7cm이며, 지질(紙質)은 저지(楮紙)이고 절첩본(折帖本)의 형태이다. 전체가 19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점련 부분에는 ‘周 第六十二’의 역본 및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제7·11·12장의 장차 아래에는 ‘육영(六莢)’, ‘○貞’등의 각수명이 있어 2명 이상의 각수에 의해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수제(卷首題) 아래에 함차(函次)가 없으며, 권말에는 반절법(半切法)에 의한 음석(音釋)이 수록되어 있고 간기는 없다. 표지는 새롭게 비단으로 개장되어 있고, 본문 가운데 2장은 판의 크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약간의 먹 번짐 등이 있을 뿐 크게 훼손된 부분 없이 상태는 양호하다.

두꺼운 닥종이에 인쇄된 이 경은 모두 19장으로 1장당 4폭으로 절첩해 놓았다. 1행은 17자로서 재조(擘漫)대장경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권수제명 아래에 함차가 없는 점과 권미에 간기가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재조대장경과는 동일하며, 마치 번각본과 같은 형상을 보여준다. 물론 이 경이 재조대장경의 바탕이 되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재조대장경이 이 경의 바탕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서지적인 특징을 보아 이 경은 13세기 전후에 간행된 사찰본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2의 1권1첩으로 총 19장을 1장당 4쪽으로 절첩(折帖)한 것이다. 매장의 첫머리에는 “주제육십이(周第六十二)”가 새겨져 있고 1행은 17자로서 재조대장경과 동일하다. 다만 함차(函次)가 없는 점과 권미에 간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13세기 전후에 간행한 사찰본으로 판단된다.

이 경은 재조대장경과 동일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기지정문화재와 구별되는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 주본으로는 조병순 소장의 권6(국보 제203호), 권36(국보 제203호), 권66(보물 제687호), 권17·52(보물 제688호), 권6(보물 제690호) 등 국보 2건과 보물 3건이 있다. 이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권6과 권36은 재조대장경과 서지적인 형태가 동일하지만 다른 가치가 부가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곧 권6은 「해동사문 수기장본(海東沙門 守其藏本)」과 같은 장서인이 있어서 재조대장경의 완성을 주도한 수기 승통이 많은 불서를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권36은 변상도가 아주 정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보물 3건은 고려 숙종 때인 12세기 전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은 재조대장경과 동일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더 많은 유사한 자료가 공개되면 비교·검토 뒤에 필요하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도록 하고, 먼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이 경전은 당나라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 80권 가운데 권62의 1권1첩이다. 전체 19장 연결하였는데 1장은 21행17자이며 6행씩 4절로 절첩한 절첩본이다. 판수제에는 ‘周第六十二 二卜’ 등 역본(譯本), 권차(卷次), 장차(張次)가 표기되어 있다. 상하간 높이는 23.1cm이나 11, 12장만은 22cm로 판 크기의 차이가 있다. 이 판본은 자체가 정교하지 못함을 보이고 있어, 고려 숙종년간에 판각 인출한 사간판을 저본으로 고려 후기에 번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는 개장되

었고 인쇄상태도 좋지 못하여 흐린 부분은 먹으로 가필되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 검토 권고



62 ()



62 ()

18.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1~2, 2-1~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下一之一~二, 二之一~二)

가. 검토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1~2, 2-1~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검토되면 부결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1~2, 2-1~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下一之一~二, 二之一~二)
- 소유자(관리자) : 원각사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9-14
- 수 량 : 4책
- 규 격 : 전체 31.9×22.8cm, 반곽 21.5×18cm
- 재 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조선전기

라. 내용 및 특징

○ 서지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下

조선전기, 저지, 전체 31.9×22.8 반곽 21.5×18, 4책

목판본(木板本), 사주쌍변(四周雙邊), 有界, 半葉 9行17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上下大黑口

版心題：圓覺下一一, 圓覺下一二, 圓覺下二一, 圓覺下二二

所藏本：(下1-1), (下1-2), (下2-1), (下2-2)

※ 下1-1：前七張 缺, 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

○ 내용 및 특징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대승경전 중의 하나로 줄여서 『대방광원각경』 또는 『원각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불교 소의경전 중 하나로 불교 전문강원 교과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존본으로는 1380년 이색의 발문이 있는 ‘고려본’을 비롯해 세조연간의 ‘을해자본’, 1465년의 ‘을유자본’의 활자본과 1465년 함허 득통이 주석을 달고 언해한 ‘간경도감본’ 등이 전래되고 있으며, 이 외 여러 복각본 등이 유통되고 있다.

중국 당나라 때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에 당나라의 종밀(宗密, 780-840)이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鈔)』를 지은 것을 저본으로 삼아 조선 세조가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 효령대군, 한계희 등이 언해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하1의 1~2와 하2의 1~2의 4책이다. 줄여서 『원각경(언해)』라고 하며, 간경도감에서 세조 11년(1465)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반곽의 크기는 21.5×18.0cm이며, 계선이 있고 행자수는 9행17자이다. 판구는 上下大黑口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판심에는 ‘圓覺下○○’로 경명과 권수가 표시되고, 그 아래로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4책 모두 표지는 개장되어 있으며, 결락된 장이 있다.

원각사 소장본은 영인본인 “역주원각경언해8:하2의1, 하2의2(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의 대본으로 일부 권이 이용되는 등 공개된 판본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가치는 있다. 그러나 하1의 1은 앞의 7장이 결락되어 있고, 전 4책의 모든 장이 훼손되어 배접되어 있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다.

○ 문화재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중국 당나라 때 佛陀多羅가 번역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光圓覺修多羅了義經)』에 당 종밀(780-840)이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鈔)』를 지은 것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 세조가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信眉), 효령대군, 한계희 등이 언해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하1의 1-2와 하2의 1-2의 4책이다. 줄여서 『원각경(언해)』이라고 하며, 간경도감에서 세조 11년(1465)에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조사 대상인 원각사 소장본은 동일한 판본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판본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상1의 1, 2의 1~3과 (권)하1의 1~2, 2의 2~3 등 9권5책이 보물 제970호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현재 동일한 판본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상1의 1, 2의 1~3과 (권)하1의 1~2, 2의 2~3 등 9권5책이 보물 제97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5책은 보존상태가 원각사 소장본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먼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국가문화재지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중국 당(唐)나라 때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韓譯)하였으며, 흔히 줄여서 『원각경』이라 부른다. 이 판본은 종밀(宗密, 780-840)이 소초(疏鈔)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 세조가 구결(口訣)하고, 신미(信眉)·효령대군(孝寧大君)·한계희(韓繼禧) 등이 국역하여 세조 11년(1465) 3월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상·하의 세분 11권 중 권 하1-1, 1-2, 하2-1, 2-2의 4권4책이다. 간경도감 국역판 중 원각경은 그 전래가 매우 드문 귀중본이다. 현재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권 상1-1, 상2-1~3과 하1-1~2, 하2의 1~2 등 9권5책이 보물 제970호(국립중앙박물관)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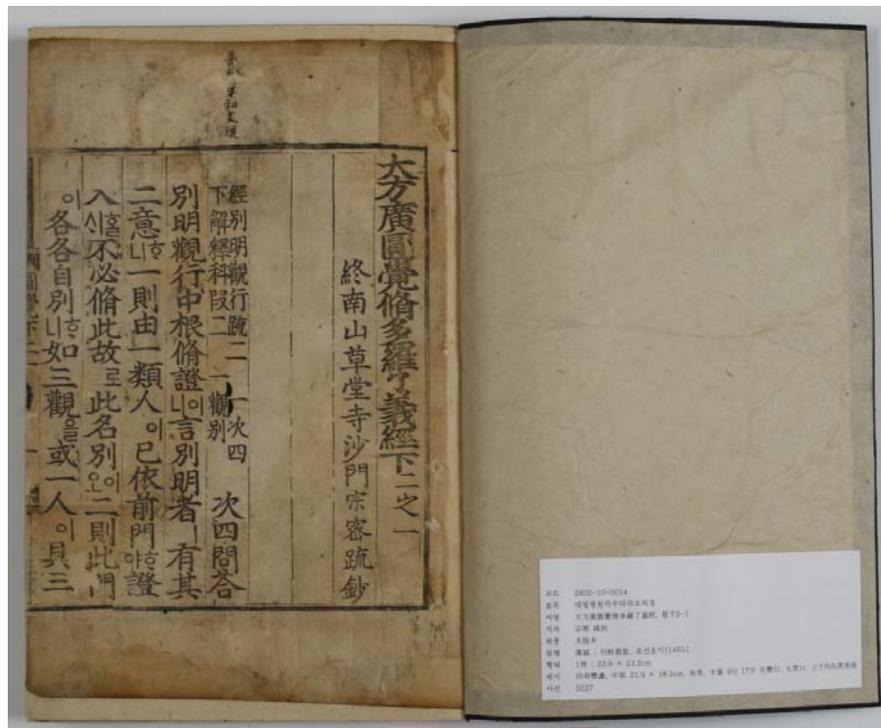
원각사 소장본 4권4책 중 권 하1-1은 권수제 앞의 7장이 결락되어 있고, 4책 모두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배접되어 있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므로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1-2



() 2-1

19.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一)

가. 검토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체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2.7.1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검토되면 부결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一)
- 소유자(관리자) : 원각사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9-14
- 수 량 : 1책
- 규 격 : 전체 35.3×25.0cm, 반곽 27×19.9cm
- 재 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조선전기

라. 내용 및 특징

○ 서지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一

조선전기, 저지, 전체 35.3×25.0 반곽 27×19.9, 1책

금속활자본(을해자본)(金屬活字本(乙亥字本)), 사주단변(四周單邊), 有界, 반엽 9행 21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판심제 : 원각경서(版心題 : 圓覺經序)

○ 내용 및 특징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대승경전 중의 하나로 줄여서 『대방광원각경』 또는 『원각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불교 소의경전 중 하나로 불교 전문강원 교과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존본으로는 1380년 이색의 발문이 있는 ‘고려본’을 비롯해 세조연간의 ‘을해자본’, 1465년의 ‘을유자본’의 활자본과 1465년 함허 득통이 주석을 달고 언해한 ‘간경도감본’ 등이 전래되고 있으며, 이 외 여러 복각본 등이 유통되고 있다.

당나라 종밀의 저술을 저본으로 삼아 찬술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의 1책으로 을해자본이다. 을해자는 세조 1(1455)년에 강희안(1417-1464)의 글자를 자본으로 삼아 주조한 동활자이다. 큰 자, 중간자, 작은 자 등 세 종류를 만들었는데 제목은 큰 자, 본문은 중간자, 주석은 작은 자를 사용하였다. 이 3종의 을해자로 찍은 책으로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외에 4종 가량이 전하고 있다. 이 책들은 간경도감이 설치되기 이전에 간인된 것으로 그 인본은 드물게 전한다.

국가문화재로 기지정된 동일한 인본으로는 동학사 소장의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7종8책. 보물 제1720호)이 있다. 이 중에는 권4·6의 2책이 있다. 이 중 권4는 보존상태가 온전하다. 권6 역시 앞의 3장이 약간의 훼손이 있으나 온전하며, 두 책 모두 「校正」印이 찍혀 있다.

○ 문화재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唐 宗密의 저술을 저본으로 삼아 찬술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권1의 1책으로 을해자본이다. 을해자로 인출한 책으로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외에 4종 가량이 전하는데 전래하고 있는 인본이 희귀하다.

조사대상본인 원각사 소장본은 권수의 서문 6장이 훼손이 심하고, 나머지도 판심 부분의 훼손이 심하다. 이와 같은 판본으로는 동학사 소장의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7종8책, 보물 제1720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바 있다. 따라서 원각사장본은 보존 상태에 비추어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원각사 소장의 이 책은 앞의 서문 6장이 훼손이 심하고, 나머지도 가운데(판심 부분)가 모두 훼손되어 있다. 을해자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희귀하므로 이 책 역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다. 그러나 훼손이 심하므로 먼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뒤 국가문화재로의 승격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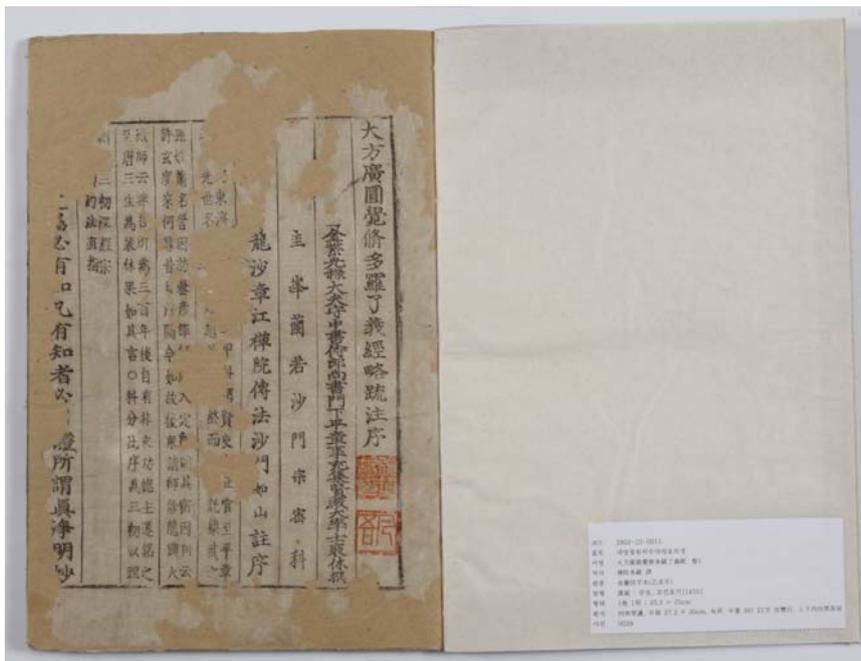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이 경전은 宗密(780~840)이 찬술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의 1책으로 권두에는 배휴(裴休, 791~870)가 찬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약소서(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略疏序)’가 수록되어 있다.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 인출본이다. 을해자는 1455년(세조 1)에 강희안(1417~1464)의 글자를 자본으로 삼아 대·중·소자의 세 종류로 구조하여 이 책에는 권두제 제목 및 찬자는 중자, 본문은 대자, 주석은 소자를 사용하였다. 국내의 전본이 매우 드문 귀중본으로 권4와 권6의 2권2책이 보물 제1720호(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본은 ‘校正’ 도장이 찍혀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데 반하여 원각사 소장본은 서문 1~5장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본문의 결락이 있고, 전반적으로 판심부분이 손상되었으므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 검토 권고



1



1 ()

**20.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九)**

가. 검토사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九)
- 소유자(관리자) : 원각사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9-14
- 수 량 : 1책
- 규 격 : 전체 37.2×24.2cm, 반곽 27.1×19.5cm
- 재 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조선전기

라. 내용 및 특징

○ 서지사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九

조선전기, 저지, 전체 37.2×24.2 반곽 27.1×19.5, 1책

금속활자본(乙亥字本), 사주단변(四周單邊), 有界, 半葉 9行16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관심제 : 룡엄경(版心題 : 楞嚴經)

※ 국한문혼용국역본, 총 107장

○ 내용 및 특징

당나라의 반자밀제(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해설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의 1책이다. 줄여서 『능엄경』이라고 한다. 모두 10권인데, 이 책은 한글로 풀이한 을해자본이다. 을해자는 세조 1(1455)년에 강희안(1417-1464)의 글자를 자본으로 삼아 주조한 동활자이다. 큰 자, 중간자, 작은 자 등 세 종류를 만들었는데 제목은 큰 자, 본문은 중간자, 주석은 작은 자를 사용하였다. 이 3종의 을해자로 찍은 책으로는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외에 4종 가량이 전하고 있다. 이 책들은 간경도감이 설치되기 이전에 간인된 것으로 그 인본은 드물게 전한다. 이 을해자본은 후일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간본과는 해석이나 토에서 차이가 있어 금속활자본의 가치 외에 비교대상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원각사 소장본의 권9는 원래의 표지가 결락되었고, 첫 째 장이 마모되어 글자가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으나 나머지는 온전하다. 동일한 권(권9)으로 지정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은 앞부분의 26장과 뒷부분의 1장이 결락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원각사장본에는 온전하게 남아있어 을해자본 권9를 완전하게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전기 국어학 연구와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현재 국가문화재로 기 지정된 동일한 인본은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권1의 1책(보물 제760호), 서울대학교 소장의 권2·5의 2책(보물 제761호), 동국대학교도서관 소장의 권7·8의 2책(보물 제762호), 세종대왕기념관 소장의 권7-8, 9-10의 4권2책(보물 제763호),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권3의 1책(보물 제948호), 김창현 소장의 권3의 1책(보물 제948-2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권4·7·8의 3책(보물 제973호), 구인사 소장의 권6(보물 제1049호), 고궁박물관 소장의 권1(보물 제1520호) 등 을해자본 10권 모두가 발견되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원각사 소장의 권9는 원래의 표지가 결락되었고, 첫 짜 장이 마모되어 글자가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으나 나머지는 온전하다. 동일한 권(권9)으로 기 지정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은 앞부분의 26장과 뒷부분의 1장이 결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락된 장이 없는 온전한 이 책을 통해 을해자본 권9를 완전하게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은 당나라의 반자밀제(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해설한 것에 세종 31년(1449)에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번역을 시작하여 뒤로 미루어졌다가 혜각존자 신미(信眉)·한계희(韓繼禧)·김수온(金守溫) 등에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세조 7년(1461)에 완성되었다.

인출은 세조 원년(1455)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만든 을해자의 대자·중자·소자를 사용하고, 한글은 이 능엄경 국역본을 찍기 위해 새로 주조한 한글활자를 사용하여 세조 7년(1462)에 이루어졌다. 간경도감판의 번역과 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리고 초인하여 거듭 교정하고 주서(朱書)로 바로잡은 다음 책머리에 ‘교정(校正)’의 도장을 찍었다.

현재 동일한 인본은 권1의 1책은 보물 제760호(성암고서박물관), 권2·5의 2책은 보물 제761호(서울대학교), 권7·8의 2책은 보물 제762호(동국대학교 도서관), 권7-8, 9-10의 4권2책은 보물 제763호(세종대왕기념사업회), 권3의 1책은 보물 제948호(동국대학교박물관), 권3의 1책 보물 제948-2호(김창현), 권4·7·8의 3책은 보물 제973호(서울역사박물관), 권6의 1책은 보물 제1049호(구인사), 권1의 1책은 보물 제1520호(김민영)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합하면 을해자본 10권 1질이 된다.

원각사 소장의 권9는 세조년간에 인출된 을해자본이며, 국내 전본이 드문 귀중본

2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1-1, 1-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下一之一, 一之二)

가. 검토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1-1, 1-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0)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검토되면 부결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1-1, 1-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下一之一, 一之二)
- 소유자(관리자) : 원각사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9-14
- 수 량 : 1책
- 규 격 : 전체 26.5×17.5cm, 반곽 19.4×13.4cm
- 재 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조선전기

라. 내용 및 특징

○ 서지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하1-1, 1-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下一之一, 一之二

조선전기, 저지, 전체 26.5×17.5 반곽 19.4×13.4, 1책

금속활자본(乙酉字本), 사주단변(四周單邊), 有界, 半葉 (大字)6行13字 (小字)12行19字, 주쌍행(註雙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판수제 : 원각(版首題 : 圓覺)

※ 國漢文混用, 총 71장(1-1 : 38장, 1-2 : 33장)

○ 내용 및 특징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대승경전 중의 하나로 줄여서 『대방광원각경』 또는 『원각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불교 소의경전 중 하나로 불교 전문강원 교과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존본으로는 1380년 이색의 발문이 있는 ‘고려본’을 비롯해 세조연간의 ‘을해자본’, 1465년의 ‘을유자본’의 활자본과 1465년 함허 득통이 주석을 달고 언해한 ‘간경도감본’ 등이 전래되고 있으며, 이 외 여러 복각본 등이 유통되고 있다.

조사대상본은 당나라의 종密的 저술을 저본으로 삼아 찬술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1-1, 1-2의 1책으로 금속활자(을유자)본이다. 이 책은 1465년에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삼아 을유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을유자는 1465년(을유)에 정난종(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만든 큰 자·중간자 및 작은 자 등 3종의 금속활자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을 찍기 위해 만들었지만 글자의 모양이 고르지 않아 별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을유자 인본은 드물게 전한다.

○ 문화재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唐나라 宗密的 저술을 저본으로 찬술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1-1, 1-2의 1책을 을유자로 간행한 책이다. 줄여서 『원각경』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1465년에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삼아 을유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을유자는 1465년(을유)에 정난종(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만든 큰 자·중간자 및 작은 자 등 3종의 금속활자이다. 을유자 인본은 전본이 매우 드물다.

조사대상본인 원각사장본은 개장(改粧)되고 제1장이 배접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다만 동일한 권이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보물 제1219-1호)되어 있고, 보존상태 역시 지정본만 못하다는 점에서,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현재 을유자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기 지정된 것으로는 아단문고 소장의 권상1-2, 권하1-1, 2-2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권상2-2, 권하3-1, 3-2 등 5권2책(보물 제1219호), 아단문고 소장의 권상1의2, 권하1의1-2의2의 2책(보물 제1219-1호)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권상2의2, 권하3의1-3의2의 3권2책(보물 제1219-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권상1의1의 1책(보물 제1514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중의 1책(보물 제793-11호) 등이 있다.

이 책은 개장되고 제1장이 배접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존상태가 대체로 온전하다. 그러나 이 책과 동일한 권이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보물 제1219-1호)되어 있고, 보존상태 역시 이 책에 비해 좋다. 전본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이 책이 지정본에 비하여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책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이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1465년에 간경도감 국역본을 저본으로 경문의 한글 구결 부분만을 편집하여 을유자로 인출한 권하1-1, 1-2의 2권1책이다. 을유자는 1465년(을유)에 정난종(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만든 금속활자이다. 이 책은 세조가 1465년에 원각사를 준공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간행되었고 특히 을유자는 주로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사용량이 적어서 그 인본이 드문 귀중본이다. 조선시대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판본이다.

동일본으로 권상2-2·권상2-3의 2권1책이 보물 제793-11호(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전적), 권상1-2, 하1-1~2, 하2-1~2의 5권2책은 보물 제1219-1호(아단문고), 권상2-2, 권하3-1·3-2의 3권2책은 보물 제1219-2호(김민영), 序文·권상1-1의 1권1책은 보물 제1514호(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지정되어 있다.

원각사 소장본 권하1-1, 1-2의 2권1책은 난외에 두주가 있으며, 표지는 개장되었고 1장은 훼손되어 배접되어 있다. 권차가 같은 보물 제1219-1호 아단문고 소장본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므로 따라서 원각사 소장본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 검토 권고



1-1, 1-2



1-1, 1-2

22. 자치통감 권193~195(資治通鑑 卷一百九十三~一百九十五)

가. 검토사항

‘자치통감 권193~195’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
가 (‘12.7.10) , 가 가
가 .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자치통감 권193~195(資治通鑑 卷一百九十三~一百九十五)
- 소유자(관리자) : 원각사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9-14
- 수 량 : 1책
- 규 격 : 전체 36.8×24.6cm, 반곽 27.7×20.0cm
- 재 질 : 종이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서지사항
자치통감 권193~195 資治通鑑 卷一百九十三~一百九十五
조선시대, 종이, 전체 36.8×24.6 반곽 27.7×20.0, 1책
금속활자본, 사주단변, 유계, 반엽 10행19자, 주쌍행, 상하하향흑어미

관심제 : 통감권일백구십삼~통감권일백구십오
(版心題 : 通鑑卷一百九十三~通鑑卷一百九十五)
표제 : 강목(表題 : 綱目)

라. 내용 및 특징

『자치통감』은 북송 시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이다. 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후대에 주희에 의해 『자치통감강목』이라는 형식으로 재탄생되었다. 조선에서도 쉽게 이용하고자하여 중국의 인명, 지명, 고사에 대한 주석을 달아 간행하게 된다. 당시 경복궁 사정전에서 이 일을 하면서 주석을 가감하였으므로 후대에 사마광의 『자치통감』과 구분하기 위해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라는 이름으로도 일컫는다. 처음 이 책은 초주갑인자로 찍어내었는데 모두 294권 100책이었다. 현재 동일한 인본은 당시 적은 부수를 간행한 탓인지 겨우 몇 책이 전한다.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자치통감』은 북송 시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중국의 편년체 통사이다. 조사대상본은 세종의 명에 의하여 집현전학사들이 중심이 되어 경복궁 사정전에 찬집청을 설치하여 주석을 새롭게 정리 편찬하고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것이다. 당시에 초주갑인자로 모두 294권 100책을 인출하였다. 현재 동일한 인본은 당시 적은 부수를 간행한 탓인지 전래본이 극소수에 이르는 귀중본이 되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일한 인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 236-238의 3권 1책(보물 제1281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권131-135, 246-250의 10권 2책(보물1281-2호)이 있다.

조사대상본인 원각사 소장의 이 인본은 권193-195의 3권1책의 잔본이기는 하지만 전본이 매우 희귀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조선전기의 인쇄사 및 출판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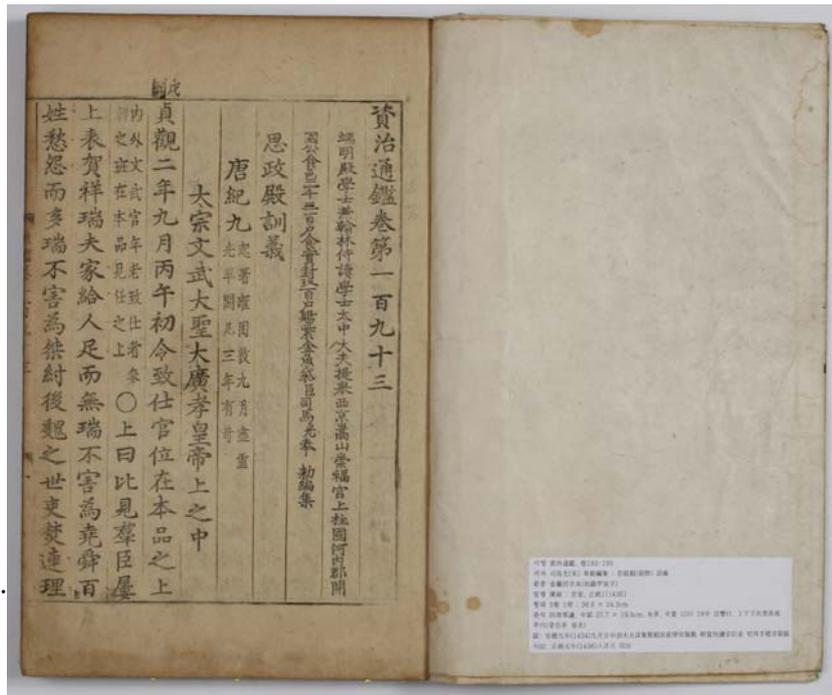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일한 인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 236-238의 3권1책이 보물 제1281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동일한 인본인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의 10권 2책도 보물로 지정 예고되어 있다. 원각사 소장의 이 인본은 권193-195의 3권1책의 잔본이지만 전본이 아주 드물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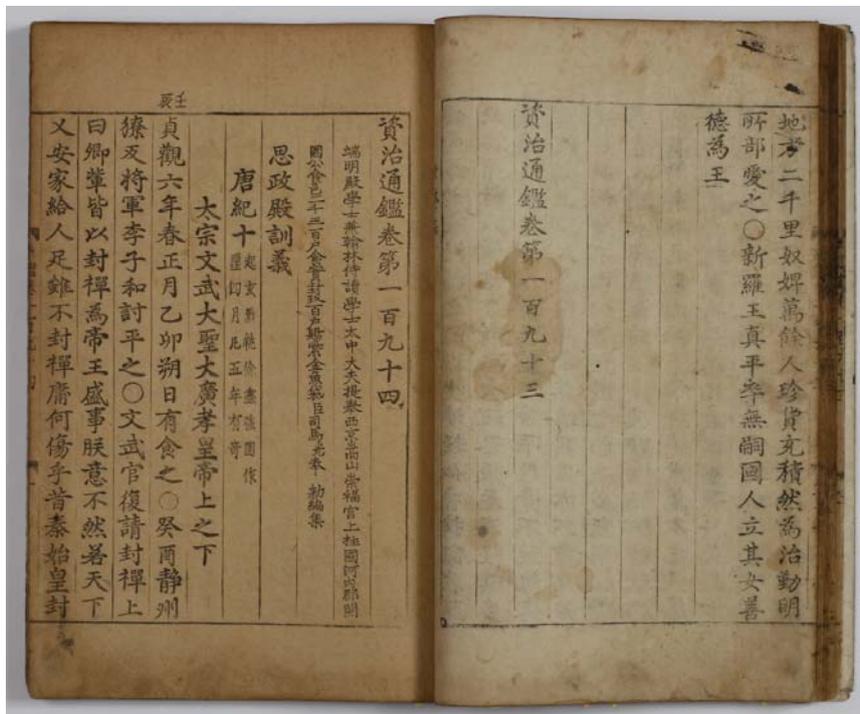
『자치통감』은 중국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중국통사이다. 이 책은 조선 세종의 명을 받들어 윤회(尹淮)·권도(權蹈)·설순(契循)·김말(金末)·유의손(柳義孫) 등 문신 40여명이 사마광의 『통감음주(通鑑音注)』, 『통감원위(通鑑源委)』, 『통감집람(通鑑輯覽)』, 『통감석의(通鑑釋義)』 등 역대 중요 주석서를 바탕으로 주석을 교정하고 가감해서 세종 18년(1436)에 주자소에서 초주 갑인자로 찍어내었는데 총294권이였다. 이 책의 편집이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서 행해진 관계로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불리운다. 권 193-195의 3권1책의 잔본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상태는 거의 온전하다. 현재 이와 동일본으로서 권236-238의 3권1책이 보물 제1281호(국립중앙박물관)로 지정되었고, 권131-135, 246-250의 10권 2책(서울역사박물관)도 보물로 지정 예고되어 있다. 그밖에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에도 1책 씩 소장되어 있다. 전본이 아주 드문 희귀본으로서 집현전 학사를 동원하여 편찬한 책이며, 조선 전기의 활자연구와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193 ~ 195



193 ~ 195



資治通鑑卷第一百九十五

增明殿學士兼翰林侍讀學士太中大夫魏徵世京蒲山堂福宮上柱國河東臨
 關公食邑二千五百戶食封戶五百戶封爵公侯伯子男勅賜祭

恩政殿訓義

唐紀十一

貞觀十一年五月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中之上

貞觀十一年五月壬申魏徵上疏以為陛下欲善
 之志不及於昔時聞過必改少虧於曩日謹罰積
 多威怒微厲乃知貴不期驕富不期侈非虛言也
 且以隋之府庫倉廩戶口甲兵之盛考之今日安

23. 안성 청원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일괄 (安城 淸源寺 阿彌陀佛坐像 腹藏遺物 一括)

가. 검토사항

‘안성 청원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기지역)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2.7.10)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성 청원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일괄
(安城 淸源寺 阿彌陀佛坐像 腹藏遺物 一括)
- 소유자(관리자) : 청원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30 동국대학교박물관
- 수 량 : 7점
- 규 격 : 서지사항 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고려후기

라. 내용 및 특징

○ 서지사항

① 백지금니묘법연화경 권4-5 白紙金泥妙法蓮華經 卷四-五

고려후기, 저지, 1절면 33.3×11.5cm, 상하간 21.7cm, 1첩

필사본, 상하단변, 유계, 일절면 6행17자, 行間 1.9cm

※ 백지금자 / 卷四·五 合本 / 전체크기 33.3×877.7cm

②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12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十二

고려후기, 저지, 1절면 32.6×12.3cm, 상하간 24.2cm, 1첩

필사본, 상하단변, 유계, 전엽 6행17자, 行間 2.0cm

장수제 : 주경권제십이(張首題 : 周經卷第十二)

※ 감지은자(紺紙銀字) / 전체크기 32.6×806.4cm

③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40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四十

1324년, 저지, 1절면 32.5×12.2cm, 상하간 24.6cm, 1첩

필사본, 상하단변, 유계, 전엽 6행17자, 行間 2.1cm

장수제 : 주경권제사십(張首題 : 周經卷第四十)

寫成記 : 弟子比丘 仁訶 以此敬寫「大經功德三處廻向普皆圓滿次以壽」君次以福國三世師親同得解脫施銀檀那大師演洪永暉爲」首或施金泥或施布物同辨善者執勞運力見聞隨喜共增福」慧當成佛果惟願仁訶始從今日終至菩提不傲」金言求名求利但爲教化一切衆生生世世在在處處或以香」墨或以金銀乃至刺血書寫全部讀已能誦誦已能持持」經心上卽見極樂」阿彌陀佛受記已還於六趣遊戲自在如說修行普令衆生未聞者」聞未信者信未解者解行同普賢智同文殊同證」毘盧圓滿果海衆生界盡我願乃盡摩訶般若波羅蜜」時泰定元年甲子八月日寓金生 謹誌」

배면 은서 : 감자육월초구일 서료(背面 銀書 : 甲子六月初九日 書了)」

※ 감지은자(紺紙銀字) / 전체크기 32.5×719.4cm

④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41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四十一

고려후기, 저지, 1절면 32.5×12.2cm, 상하간 24.5cm, 1첩

필사본, 상하단변, 유계, 전엽 6행17자, 변상도(變相圖)

장수제 : 주경권제사십일(張首題 : 周經卷第四十一)

※ 감지은자(紺紙銀字) / 전체크기 32.5×706.4cm

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6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 卷十六

1324년, 저지, 1절면 32.6×12.3cm, 상하간 24.2cm, 1첩

필사본, 상하단변, 유계, 전엽 6행17자, 행간 2.0cm

장수제 : 정경권제십육(張首題 : 貞經卷第十六)

寫成記 : 弟子比丘 仁訶 以此敬寫「大經功德三處廻向普皆圓滿次以壽」君次以福國三世師親同得解脫施或施金泥或施」餘財執勞運力見聞隨喜凡有緣者共增福慧」當成佛果惟願弟子始從今日終至菩提生生世世」在在處處或以香墨或以金銀乃至刺血書寫」此經受持讀誦廣能利益一切衆生如說修行同人」圓通三昧性海即見」毘盧圓滿果海衆生界盡我願乃盡摩訶般若波羅蜜」時泰定元年甲子八月 日寓金生 謹誌」弟子道人 而幻 因請敬寫」

※ 감지은자(紺紙銀字) / 전체크기 32.6×734.1cm

⑥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7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 卷十七

고려후기, 저지, ① 32.2×243.2cm, ② 32.2×85cm, 상하간 22.2cm, 1축

필사본, 상하단변, 유계, 전엽 41행17자, 행간 2.0cm

장수제 : 정원경제십칠(張首題 : 貞元經第十七)

※ 감지금은자(紺紙金銀字(‘佛’, ‘菩薩’字는金字) / 2축으로 나누어져서 수리됨.

① (1, 2, 3쪽), ② (6쪽)

⑦ 백지은니지장보살본원경 권중 白紙銀泥地藏菩薩本願經 卷中

고려후기, 저지, 1절면 35.2×12.3cm, 상하간 24, 1첩

필사본, 상하단변, 유계, 전엽 6행18자, 행간 2.0cm

※ 백지은자(白紙銀字) / 전체크기 35.2×808.5cm

■ 보물 제740호 지정본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8 紺紙銀泥菩薩善戒經 卷八

1280년, 저지, 30.7×1,299.9cm, 상하간 30.7cm, 1축, 보물 제740호

필사본, 상하단변, 유계, 전엽 30행14자, 변상도(變相圖)

장수제 : 보살선계경제팔권(張首題 : 菩薩善戒經第八卷)

寫成記 : ……至元十七年庚辰歲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禪師安諦書」

※ 감지은자(紺紙銀字) / 張 : 第一張 ~ 第二十二張 / 전체크기 30.7×1,300.1cm

○ 내용 및 특징

청원사는 경기도 안성군 성은리 천덕산 밑에 있는 사찰이다. 안성 청원사 아미

타불좌상 복장전적은 1974년 개금불사 때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품으로서 당시 동국대학교박물관에 기탁되었다. 그 중에 고려국왕 발원의 은자대장경(銀字大藏經)으로서 1280년(고려 충렬왕 6)에 사성된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8(紺紙銀泥菩薩善戒經 卷8)’은 이미 보물 제740호(동국대 박물관, 1982)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조사된 고려사경 5종 7점은 다음과 같다.

<안성 청원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목록>

1	① 白紙金泥妙法蓮華經 卷4-5	1	14	권두와 권말 일부가 결락됨. 折帖本.
2	②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12	3	1324 (11)	권40: 권말에 泰定元年(1324)甲子十二月日 寫成記가 권41:권두에 변상도 있음. 折帖本.
	③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40			
	④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41			
3	⑤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 卷16	1첩	1324 (11)	권16의 권말에 泰定元年(1324)甲子十二月日 사성기 있음. 折帖本.
4	⑥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 卷17	1	14	권두와 권말 일부분 결락됨. 卷子本.
5	⑦ 白紙銀泥地藏菩薩本願經 卷中	1첩	14세기	앞·뒤표지가 결락되었고 권수제 일부분 훼손. 은니가 검게 변함. 折帖本.
5 7				

① 백지금니묘법연화경 권4-5 (白紙金泥妙法蓮華經 卷4-5)

이 『백지금니묘법연화경』 권5는 중국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본을 저본으로 백지에 금니로 서사한 사경이다. 고려시대에 사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은 『묘법연화경』 권4의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第十六,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第十七과 권5의 「안락행품(安樂行品)」第十四이다. 그러므로 이 사경은 『묘법연화경』 전7권중에서 권4-5의 영본(零本)에 해당된다.

1折에 6행 각행 17자로 되어 있는 절첩장본이며, 앞·뒤표지가 모두 없으며 권수와 권말에 결락 부분이 있어 장수(張數)도 부족하다. 본문도 권5의 품차(品次) 연결이 잘못되어 혼란이 있으며, 이 권에는 사성기가 없으므로 이 사경을 완성하게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영본에다 보존상태도 좋지 않다.

②③④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12, 40, 41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12, 40, 41)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줄여서 『화엄경』이라고도 한다.

이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2, 40, 41은 당나라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 전80권 중 권12, 권40, 권41을 1324년(충숙왕 11)에 은니로 서사한 사경이다. 각 권의 체제와 크기는 동일하다.

매장의 뒷면에는 “주경권제(周經卷第)OO O복(卜)”과 같이 주본화엄경임을 밝히고, 권수와 장수를 적어놓았다. 1장은 5폭으로 절첩했으며, 30행17자 형식이다. 그 중에서 권40에는 사성기가 있는데, “시태정원년(時泰定元年)(1324)갑자팔월 일우금생(日寓金生) 근지(謹誌)”와 같이 충숙왕 11(1324)년 8월에 이곳에 머물던 김생이 기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은을 시주한 사람은 연홍(演洪) 영휘(永暉)이었다. 이 경을 베낀 사람은 사성기 맨 앞에서 “제자인 비구 인형이 이로써 공경히 쓰다.(제자비구 인형(弟子比丘 仁誦), 이차경사(以此敬寫))”라고 하였고, 내용 중에도 “원컨대 인형은 금일 이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원인형(願仁誦), 시종금일, 종지보제(終至菩提))” 등의 글을 보아 인형이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인형이 바란 것은 “명예와 이익을 찾지 아니하고, 행동은 보현보살, 지혜는 문수보살과 같으며, 비로자나불의 원만한 과해(果海)를 얻어 인간세상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권의 제12장(卜) 뒷면에는 “갑자육월초구일 서료(甲子六月初九日 書了)”라고 적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 사경은 1324년 6월 9일에 사성을 끝내었고, 그 해 8월에 김생이 이 사성기를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권41의 머리에는 변상도가 있다. 이 변상도는 “개인 발원경으로는 유일하게 신장상이 권수화로서 채택되었고, 구성이 간략하고 경직된 면을 보이고 있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6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 卷16)

이 사경은 반야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40권본 중의 권16이다. 매장의 뒷면에는 “정경권제OO O복(貞經卷第OO O卜)”과 같이 정원본 화엄경임을 밝히고, 권수와 장수를 적어놓았다. 1장은 5폭으로 절첩했으며, 30행17자 형식이다. 권의 끝에는 사성기가 있다. 이 사성기는 함께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0의 끝에 있는 사성기와 내용이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사성기의 끝에는 “시태정원년(1324)갑자십이월 일우금생 근지(時泰定元年(1324)甲子十二月 日寓金生 謹誌)”와 같이 1324년 12월에 이곳에 머물던 김생이 기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완성한 시기로 대비하면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0을 완성한 지 4개월 뒤인 충숙왕 11(1324)년 12월에 완성한 사경이다. 이 경을 베낀 사람은 약간 혼란스럽다. 곧 사성기 맨 앞에는 “제자인 비구 인형이 이로써 공경히 쓰다.(제자비구 인형, 이차경사(弟子比丘 仁誦, 以此敬寫))”라고 되어 있으나 사성기 끝에는

“제자인 도인 이환이 요청에 따라 공경히 쓰다.(제자도인 이환, 인청경사(弟子道人而幻, 因請敬寫))”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성기에는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0의 사성기의 “원인형(願仁誦), 시종금일, 종지보제(終至菩提)”와는 달리 “원제자(願弟子), 시종금일, 종지보제(終至菩提)”로 되어 있다. 곧 인형이라는 범명대신에 제자라고 되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경은 사성기의 끝에 이환이라는 사성자의 범명을 따로 밝히고 있고, 또 내용 중에는 인형이라는 범명대신 제자로 표기해 놓은 점을 볼 때 주로 사성한 사람은 이환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혹 인형의 요청에 따라 이환이 베낀 것으로도 추정되기도 하나 분명하지는 않다. 당시 제자가 바란 것은 “명예와 이익을 찾지 아니하고, 행동은 보현보살, 지혜는 문수보살과 같으며, 비로자나불의 원만한 과해(果海)를 얻어 인간세상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원사의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정원본 2종은 모두 동일한 체재로서 동일인의 발원에서 동시에 사성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⑥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7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 卷17)

본문이 수록된 검색의 권지는 3장인데 권지의 이면을 보면 ‘정원경제십칠 이쪽, 삼쪽, 육쪽(貞元經第十七 二幅, 三幅, 六幅)’과 같이 경명에 이어 권차, 장차가 표시되어 있다. 2,3쪽과 6쪽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짝막한 두루마리이다. 상하선과 계선은 금니로 하였고 1장은 41행 각행은 17자이다. 금니로서는 오직 “불”(佛), “여래(如來)”, “보살(菩薩)” 등만을 썼고 그 외에는 은니를 사용하였다. 권수와 권말이 결락된 본문을 잃은 부분이 많은 사경이다.

사성 형태 등을 보아 이 사경은 위의 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 16과 함께 사성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⑦ 백지은니지장보살본원경 권중 (白紙銀泥地藏菩薩本願經 卷中)

이 『백지은니지장보살본원경』은 상·중·하 전3권 중 卷中을 은니로 서사한 사경이다. 상하선과 계선은 은니로 하였고 1절의 각 면은 6행이며 각행 18자로 절첩장본 형식이다. 권말에 사성기는 없으며, 발원자의 인명이 은니 또는 묵서되어 있는데 그 첫머리에는 ‘대시주 김흥효양주 대시주 이호양주(大施主 金興孝兩主 大施主 李浩兩主)’가 있고 그 이하에 ‘경중산(景重山)’ 이하 100여명이 열기되어 있다. 앞뒤표지가 결락되었고 권수제 부분에 약간의 결손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습이 되어 얼룩이 져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은니의 색이 검게 변하여 권말시주자 부분은 먹으로 덧쓰기도 하였고 보존상태도 좋지 않다.

국가문화재로 기 지정된 『지장보살본원경』 사경으로는 리움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940호인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이 있다. 이 경은 조선전기에 중하류 층의 시주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3권 완질에다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다.

○ 문화재위원 (②③④⑤ 지정 가치 있음, ①⑥⑦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① 고려시대에 사성(寫成)된 것으로 판단되는 백지금니사경 1첩으로 전체 7권중 권4-5의 영본에 해당된다. 사성기(寫成記)가 없어서 사경의 조성과 관련된 배경도 알 수 없고 보존상태도 불량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③④ 이상의 寫經 3권은 실차난타가 번역한 80권본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중에서 세권에 해당된다. 개인발원경으로는 특이하게 신장상이 권수화로 새겨져 있고, 권40의 권미(卷尾)에 “시태정원년(1324)갑자팔월 일우금생 근지(時泰定元季(1324)甲子八月 日寓金生 謹誌)”라는 사성기가 있어 사경의 조성 경위를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사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이 사경은 반야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40권본 중의 권16이다. 권의 끝에는 사성기가 있는데, 함께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0의 끝에 있는 사성기와 내용이 유사하다. ‘③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40’을 완성한 지 4개월 뒤인 충숙왕 11(1324)년 12월에 완성한 사경이다. 이 사경은 정원본 40권중의 한 권이지만 유려한 서체의 고려 사경으로 사성한 연유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하다.

⑥ 사성 형태 등을 보아 이 사경은 위의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6과 함께 사성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두 축으로 분리되어 있고 두 축 모두 결락된 부분이 있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⑦ 백지에 은니로 사성한 ‘지장보살본원경 권중’은 결본으로 표지의 결락 및 권수제 부분 등에 훼손이 있다. 보존상태 또한 좋은 편이 아니어서 국가문화재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②③④⑤ 지정 가치 있음, ①⑥⑦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① 고려시대에 사성된 백지금니사경이다. 『묘법연화경』 전7권중에서 권4-5의 영본에 해당되고, 사성기가 없으므로 이 사경을 완성하게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영본에다 보존상태도 좋지 못하므로 국가문화재급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②③④ 이 세권은 1324년에 감지에 은니로 적은 사경이다. 비록 주본화엄경 80권 중 3권에 불과하나 유려한 서체로 정성껏 베낀 고려사경이라는 점, 개인발원경으로는 유일하게 신장상이 권수화로 있는 점, 그리고 사성한 연유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3권을 함께 묶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6’은 정원본 40권중의 한 권에 불과하나 유려한 서체로 정성껏 베낀 고려 사경으로 사성한 연유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하다.

⑥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6’과 함께 사성된 것으로 금니로 쓰는 등 정성은 엇보이지만, 두 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 각각 결락된 장도 제법 있어 국가문화재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보수 후에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⑦ ‘백지은니지장보살본원경 권중’은 고려말기의 사경으로 판단되며, 전3권 중에서 1권만 전하는 결본이다. 또 앞뒤표지가 결락되었고, 권수제 부분과 그 아래도 훼손이 있다. 더욱이 누습의 흔적과 함께 앞뒤부분의 은니는 검게 변색되는 등 보존상태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보아 국가문화재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 문화재전문위원 (②③④⑤ 지정 가치 있음, ①⑥⑦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②③④⑤ 안성 청원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5종 7점 가운데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2,40,41과 정원본 권16의 2종 4점은 태정원년(1324)의 사성(寫成) 연대가 기재되어 있어 사경의 제작시기와 조성자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모두 동일한 체재로서 동일인의 발원에서 동시에 사성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태정원년(泰定元年)에 『화엄경』의 정원·주 양본(貞元·周 兩本)이 전후하여 서사(書寫)된 사실과 거의 흡사했으나 약간의 권만(卷)이 복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사경으로서 조성시기와 조성자를 알 수 있는 전본이 드문 귀중본이며, 고려 사경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가치는 충분하다.

①⑥⑦ 그 외 『백지금니묘법연화경』 권5, 『감지은니정원본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7, 『백지은니지장보살본원경』 권중 등 3종 3점은 불완전본이거나 결락된 부분이 많고 보존상태도 좋지 못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명칭은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수량은 4점으로 함.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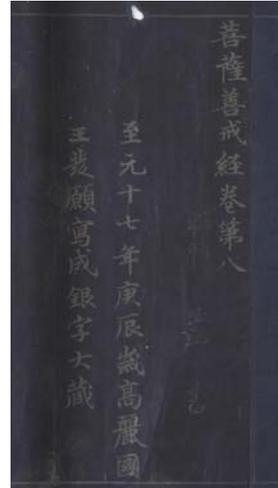
() 12



() 40



8(740)



8(740) ()

24.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벽화 (慶州 佛國寺 靈山會上圖 및 四天王壁畫)

가. 검토사항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벽화’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찰건축물벽화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벽화로 관계전문가의 조사('12.6.27)가 진행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벽화
(慶州 佛國寺 靈山會上圖 및 四天王壁畫)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 수 량 : 불화 1폭, 벽화 2점
- 규 격 : 하단참조
- 재 질 : 비단에 채색, 흙벽에 채색
- 제작연대 : 1769년(영조 45)
- 제작자 : 유성(有誠), 지침(智瞻), 포관(抱冠) 등
- 지정대상 목록

번호	벽화명칭	재 질	크기(cm)	위 치
1	영산회상도	絹本彩色	498×447	후불벽(전면)
2	사천왕도	土壁彩色	419×188	
3	사천왕도	土壁彩色	419×1,74.5	

라. 내용 및 특징

1) 조사내용

불국사의 주전각인 대웅전에는 후불벽 전면 중앙에 영산회상도가 봉안되어 있으며, 그 좌우 벽면에는 사천왕벽화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이 불화들은 1769년에 영조의 딸인 화완옹주(和緩翁主)와 상궁 김씨 등의 시주로 조성되었는데, 중앙의 영산회상도는 좌우 화폭이 찢어지거나 채색이 박락되었으며, 사천왕 벽화 역시 부분적으로 채색이 탈락된 곳이 많아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영산회상도는 세로 498cm, 세로 447cm의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에 여러 권속들이 본존 석가모니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구성을 보여준다. 석가모니는 앞에 놓인 불상에 가려져 잘 보이지가 않는데,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지니고 대좌 위에 걸가부좌한 모습이다. 머리에는 뽕족하게 육계가 솟아있고 정상계주와 중간계주로 장식하였다. 신체는 긴장하며, 우견편단으로 붉은색의 법의를 걸치고 있다. 얼굴은 둥근 편인데, 가늘고 길게 뜬 눈과 활형의 눈썹, 작은 입술 등이 조화를 이루었으며, 두 귀는 길게 어깨까지 늘어져 있다. 두광은 녹색으로 칠하였지만 신광 내부는 붉은색과 흰색의 활짝 핀 꽃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한다.

본존의 좌우로는 모두 10명의 보살들이 본존의 광배를 따라 아래 위로 길게 늘어섰는데, 좌우협시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각각 여의와 연꽃을 들었으며, 나머지 보살들은 합장하거나 연꽃을 들고 시립하였다. 보살들 역시 본존과 마찬가지로 둥근 얼굴에 양감있는 신체표현이 돋보이는데, 일부 보살의 옷에는 화려한 금니의 봉황무늬가 그려져 있어 왕실발원 불화로서의 품격이 잘 드러나 있다.

보살들 위로 화면 가장자리에 범천과 제석천이 합장하고 본존을 향하였으며, 석가모니의 좌우로는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화면상부에는 8존자 등 10대제자와 2구의 타방불이 배치되었다. 제자들은 다른 권속들에 비하여 얼굴에 음영표현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가섭존자의 얼굴은 눈 주위를 비롯하여 이마와 코의 양쪽, 입 주변에 음영을 강하게 표현하여 입체감이 잘 드러나 있다. 채색은 홍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흰색과 황색, 금니, 청색 등이 함께 사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명도가 높고 밝은 색감을 보여준다.

사천왕벽화는 향좌측에 지국천·증장천도, 향우측에 광목천·다문천도가 배치되었다. 향좌측 벽화는 서방 광목천왕과 북방 증장천왕을 중심으로 금강신 2구와 용녀가 배치되었으며, 향우측에는 동방 지국천왕과 남방 증장천왕을 중심으로 금강 2구와 용왕을 묘사하였다. 채색은 백색과 녹색, 적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청색과 금니 등이 함께 사용되었는데, 두 불화를 그린 화승이 다르기 때문에 양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털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그리는 표현법이라든가 음영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한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세 점의 불화 중 영산회상도는 건륭34년(1769) 6월에 대시주인 화완옹주(1737년~1808년, 영조의 딸)의 보체(保體)와 상궁 김씨 및 시녀 정씨, 차씨, 김씨, 이씨 등의 보체를 기원하며 대웅전 삼존불상을 개금할 때 새로 그려 조성한 영산회도탱(靈山會都幀)으로, 수화사 지침(智瞻)을 비롯하여 차전(次全), 유선(幼禪), 철인(哲印), 부일(富一), 대연(大演), 유상(有祥) 등이 함께 그렸다. 사천왕벽화에는 조성연대는 적혀있지 않지만 향좌측(지국천·증장천도)에 ‘양공비구 포관(抱冠)’, 향우측(광목천·다문천도)에 ‘양공 지침(智瞻) 유성(有誠), 양공 유성(有誠)’이라고 적혀있어 포관과 지침, 유성이 함께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침은 영산회상도의 수화사이며 포관과 유성은 도금양공(塗金良工) 목록에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천왕벽화는 1769년에 영산회상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영산회상도를 구성할 때 불과 보살, 나한, 신중을 함께 표현하는 배치법과 달리, 이 불화의 경우 석가모니와 보살 및 나한을 한 폭에 배치하고 외호중인 사천왕은 그리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후불화와 좌우 사천왕벽화가 한 세트의 함께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산회상도의 수화승인 지침은 이 작품 외에 다른 화적이 확인되지 않아 활동연대와 지역 등을 알 수 없으며, 차전, 철인 역시 다른 불화를 조성한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유선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경기도에서 활동하면서 1794년~1796년에는 화성성역에 수원화승으로 참여하였으며 1803년에 도성암 현왕도를 제작하였고, 대연은 1767년(영조32)에 불국사 대웅전 단확(丹獲)불사에 참여하였다. 또 부일은 부석사, 서악사, 개심사, 통도사 등, 유상은 안동 모운사에서 활동한 예가 확인된다. 사천왕벽화 중 지국천도·증장천도를 단독으로 제작한 포관은 18세기 중반 통도사를 중심으로 화승 임한(任閑)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1770년 경 수화사가 되어 통도사 및 포항 보경사, 은혜사 등의 불화를 제작하였다. 포관은 불국사에서 사천왕벽화 외에 수화승 하윤(夏潤)이 중심이 된 1767년 불국사 대웅전 단청불사에도 참여하였는데, 하윤과는 운문사, 통도사 등에서 함께 활동했던 적이 있어 이러한 인연으로 불국사 불사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침과 함께 광목천·다문천도를 조성한 유성은 18세기 중, 후반에 경주 불국사에 거주하

면서 안동 봉정사와 양산 통도사 등에서 불화를 제작한 화승으로, 1755년 통도사 화승 임한과 더불어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도, 1765년에는 수화승 자인과 안동 봉정사 감로왕도를 제작하였으며, 같은 해 수화승이 되어 봉정사의 진영 여러 점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이 불화는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에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승들이 주축이 되어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자료 : 화 기

○ 靈山會上圖 書記

乾隆三十四年己丑六月日大雄殿三尊改金時新畫成

靈山會都幀奉安 大施秩 京城

和緩公主李氏自家保體

尙宮金氏保體

侍女鄭氏

車氏

保體

金氏

李氏

嘉善大夫學眞	徐太奉靈駕
嘉善大夫彩遠	嘉善惠眼
石峯堂 任活	李師朋
都畫師 尙淨	崔宗伯
嘉善 性淨	李氏甲申生
通政 斗日	李氏癸卯生
通政 和惠	處士見惠
山人 就日	通政雷善
	仁伯
通政 爾謙	嘉善等仁
護軍 崔再興	嘉善贊弘
嘉善 眞機	始演
首座 性敏	金海江
比丘 任性	沖悟
西峯堂 道泰	○淑
	華學

嘉善	敏察	說初
大德	達惠	聖初
	勝密	通政信日
	聖戒	
通政	曇日	文演
通政	海清	法清
		信伯
大德	如一	蒿履寡女林召史
通政	興哲	
	金遇秋	
比丘	證戒	
	元明	
	大明	
	慈旭	
	朴永贊	
	比丘碩聰	

	緣化秩	供養主
證明法師	西峯堂道泰	等初
	慶庵堂平心	彩弘
	東峯堂誨寬	體閑
		三湜
誦呪	快湜	快性
	六平	擔 芝眞
	大德藏岬	淨桶廣湜
	大彥	都監閏悅
	宇如	別座判事贊弘
	性元	嘉善道人凌虛堂宇芝
	尙鵬	
	大清	京城去來比丘體安
	慕修	性淨
	祖演	
	道○	本寺秩
知香	玉華	山中 大德礎行

	正海	自一
塗金良工比丘大德	尙淨	如一
	碩岑	任活
	清益	勝密
	宇學	老德海清
	抱冠	抱雲
	德仁	太明
	定安	時僧統斗日
	脫閏	前僧統雷善
	藏榮	仁伯
	報恩	戒鑑
	圓敏	閏悅
	最善	典座海淑
	桂觀	首僧成元
	慕欣	書記大有
	有誠	三補成贊
都畫師	智瞻	
	次全	
	幼禪	
	哲印	
	富一	
	大演	
	宥祥	

○ 사천왕벽화① 화기

智瞻
 良工 有誠
 良工畫員 有誠

○ 사천왕벽화② 화기

良工比丘 抱冠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불국사 대웅전의 석가영산회상도는 석가여래가 문수, 보현보살 등의 보살과 성중들을 거느리고 설법하는 화면과, 그 좌우의 벽화 사천왕도 등 모두 세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의 석가설법장면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편단에 향마촉지인을 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열구의 보살과 아난, 가섭을 포함한 10대 제자, 벽지불 등이 좌우 같은 수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향 좌측의 벽면에는 서방 광목천왕과 북방 다문천왕을 상하로 배치하고, 화면 윗부분에 금강과 용녀를 묘사하였다. 향 우측 벽면에는 동방 지국천왕과 남방 증장천왕을 역시 상하로 배치하고 윗부분에 금강과 용왕을 묘사하였다.

채색은 朱, 군청, 녹청을 주조색으로 하였으며, 본존의 가사와 대의는 물론 보살의 천의에도 문양이 억제되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이지만, 오히려 번잡하지 않고 상형의 윤곽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묘선은 비교적 섬세하고 유려하며, 금니선과 백색선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문양이 억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섭존자와 사천왕상의 얼굴 그리고 보현보살 치마의 봉황문 특히 본존 광배의 꽃무늬 등에서 사실적 표현에 의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우수한 작품이다.

이 석가영산회상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앙은 비단바탕의 거는 그림이고 좌우의 사천왕도는 벽화이지만, 각 화면에 쓰여 있는 화기를 통하여 볼 때 화사가 동일하여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화풍 또한 같다.

이 그림은 제작시기가 1769년으로, 이른 시기라고 할 수는 없으나, 거는 화면과 벽화가 한 셋트를 이루는 유일한 그림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를 대표 할 만 한 화사인 상정, 포관, 유성 등이 참여하였고, 그들이 벽화 제작에도 참여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 나아가 공주, 상궁, 시녀 등이 발원한 그림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화면 아래 부분 등 전반적으로 화면에 손상이 있어 지정이후에는 보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 그림은 앞에 놓여있는 조각상을 제거하고 촬영한 영상(사진) 자료가 없다. 따라서 형편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자료를 확보,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불국사 대웅전의 영산회상도와 사천왕벽화는 1769년에 영조의 딸인 화완옹주와 상궁 김씨 등이 시주하여 제작한 불화로써, 영산회상도와 2점의 사천왕벽화로 이

루어진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즉 영산회상도 안에 의례적으로 배치하는 호법신들을 그리지 않고 좌우 벽에 따로 그리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처럼 불보살과 호법신을 따로 배치하는 수법은 1699년 동화사 아미타불화라던가 1759년 장곡사 영산회상도(동국대박물관소장) 등 조선후기 불화에서 종종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와 같이 탱화와 벽화로 제작한 예는 볼 수 없다.

조성연대는 영산회상도에만 1769년이라는 연대가 있고 사천왕벽화에는 조성연대 없이 화원의 이름만 적혀 있는데, 영산회상도 제작에 참여한 화승들이 사천왕벽화를 그리는 데도 참여하였고 두 불화에서 인물표현과 채색 등에 유사점이 많은 것을 볼 때 영산회상도와 사천왕벽화는 같은 해에 함께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는 18세기 중후반 통도사와 봉정사 등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승들이 함께 제작한 것으로서, 화려하면서도 차분한 색감과 안정적인 구도 등 경상도 지역의 화풍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영산회상도를 구성함에 있어 탱화와 벽화가 한 세트를 이루는 구성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조선후기 불화조성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국사 영산회상도와 사천왕벽화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영산회상도와 사천왕벽화 모두 채색에 박락된 부분이 많으며, 특히 영산회상도는 화면 좌우로 찢어진 부분이 많으므로 하루빨리 보존처리를 시행하여 더 이상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면은 3칸의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칸에는 비단바탕에 그려진 영산회상도가 걸려 있고, 좌우 협칸의 벽면에는 사천왕도가 벽화로 그려져 하나의 장엄한 영산회상(靈山會上)을 구성하고 있다.

영산회상도는 1769년 대웅전 삼존상을 개금할 때 새롭게 조성된 것인데, 영조(英祖)와 영빈이씨(暎嬪李氏) 사이에서 태어난 화완옹주(和緩翁主, 1737~미상)와 상궁김씨(尙宮金氏), 그리고 그녀의 시녀들이 대시주로 참여하고, 지침(智瞻) 등 당시를 대표하는 화원들이 함께 그림을 그렸다. 특히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화완옹주가 불화제작에 대시주로 참여한 점이 흥미롭고, 탱화와 벽화가 일조(一組)를 이루어 제작된 것도 특색이 있다.

우선 영산회상은 큰 화면의 중앙에 크게 그려진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협시보살과 권속들이 둘러싼 균도형식의 그림이다. 채색은 명도 높은 색을 주색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중간색을 간색으로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준다. 아래서 위로 상승시

키며 인물들의 크기를 조금씩 줄여나간 배치와 엄격한 좌우대칭의 구도는 느슨함이 없이 잘 짜여 있다. 가섭과 아난을 비롯한 10대 제자상의 얼굴에는 먹 바림을 통해 내면의 수행 이력과 개성 있는 얼굴 표정을 동시에 살렸다. 보살상의 천의와 영락 등 세밀한 부분의 표현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묘사하여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다. 필선에서도 먹선과 여러 가지 채색 선으로 완급과 장단, 태세의 변화를 주어 화면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불화의 가장자리에 그려져 회상을 외호하던 사천왕을 비롯한 신중들이 이곳에는 불화의 좌우 벽면에 별도로 그려져 회상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 동화사 아미타설법도의 예처럼 3쪽으로 나누어 그린 경우는 있지만, 탱화와 벽화로 구성된 예는 유일하다.

이 사천왕 벽화는 불화의 도상에서 외호신중이 생략되어 있고, 벽화를 그린 포관(抱冠), 지침(智瞻), 유성(有誠) 등 3명의 화원이 불화의 화기에도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불화와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살아 꿈틀대는 듯한 신장상의 역동적인 표정과 자세, 힘차고 세밀한 필선과 윤곽과 주름의 깊이를 잘 드러낸 음영표현이 이 벽화의 특징인데, 이는 불화의 인물표현의 그것과 흡사하다.

이 불화는 조선 왕실의 유력자인 화완옹주가 스스로(自家)를 위하여 대시주로 참여하여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승려 화원들이 그린 이 시기를 대표하는 불화이다. 또한 불화와 벽화가 일조를 이루는 독특한 봉안형식과 구도, 채색, 필선 등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성을 보여준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불국사 대웅전에는 후불벽에 봉안된 1769년작 영산회상도(견본채색, 498×447cm)를 비롯하여 100여 점에 이르는 벽화 및 판벽 그림이 불전을 장엄하고 있다. 그 중 후불벽에 걸린 영산회상도의 좌우측 벽면에 원형 두광을 갖춘 사천왕상과 권속들이 그려진 대형 벽화가 있다. 좌측벽에는 동방 지국천왕과 남방 증장천왕, 금강상 2위와 용왕을, 우측벽에는 서방 광목천왕과 북방 다문천왕, 금강상 2위와 용녀 도상이 각각 그려져 있다.

벽면의 상태는 먼지와 오염으로 안료의 박락과 벽체의 퇴락이 보이나 도상이 비교적 온전하고 채색과 선묘 등도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특히 신장상들의 얼굴의 양감과 감정의 굴곡표현, 눈썹과 수염 등의 섬세한 모근 표현 등은 탁월하다. 아울러 천의 자락의 활짝 팽창된 상태와 굴곡을 이루며 반전하는 휘날리는 양태 등은 이들 도상의 기질을 한층 더 활달하게 보조하고 있다. 채색 역시 백색, 녹색, 주색을 기본으로 하되 청색을 부분적으로 가미하였으며, 장도와 같은 금속구 등에는 금박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고 있다.

이 좌우측 사천왕벽화는 후불벽에 걸린 영산회상도(1769)와 동일 화사에 의해 동시기에 제작된 세트 관계로 추정된다. 즉, 사천왕 벽화의 하단부에 마련된 화기란에 화사를 밝힌 묵서 화기가 있다. 좌측 하단에는 ‘양공비구 포관(良工比丘 抱冠)’이, 우측 하단에는 ‘양공 지첨 유성(良工 智瞻 有誠), 양공 화원 유성(良工 畵員 有誠)’이라는 각각 밝히고 있다. 이들 양공은 같은 전각 후불벽에 걸린 영산회상도(1769)의 장문의 화기에 적힌 도금양공(塗金良工) 비구 명단 가운데 다섯 번째와 마지막에 등장하는 포관(抱冠)과 유성(有誠)과 동일 인물이며, 이어 도화사(都畵師)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지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찰 건물들이 보수되는 과정에서 벽화가 사라져가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국사 대웅전 사천왕 벽화는 대웅전이 중창(1765, 불국사고금창기)되고 1767년에 건물이 단청된 이후에 조성된 귀중한 이미지 텍스트로 평가된다. 더욱이 대웅전 후불벽 좌우측벽의 사천왕벽화는 후불벽에 봉안된 영산회상도와 동시기에 조성된 사례로, 후불화와 벽화가 세트를 이루는 극히 드문 사례로 매우 귀중한 불화라 아니할 수 없다. 현존 상태도 양호하고 화풍 또한 뛰어난 수작으로 후불화인 영산회상도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바. 의결사항

- 보류
 - 정확한 기록조사 필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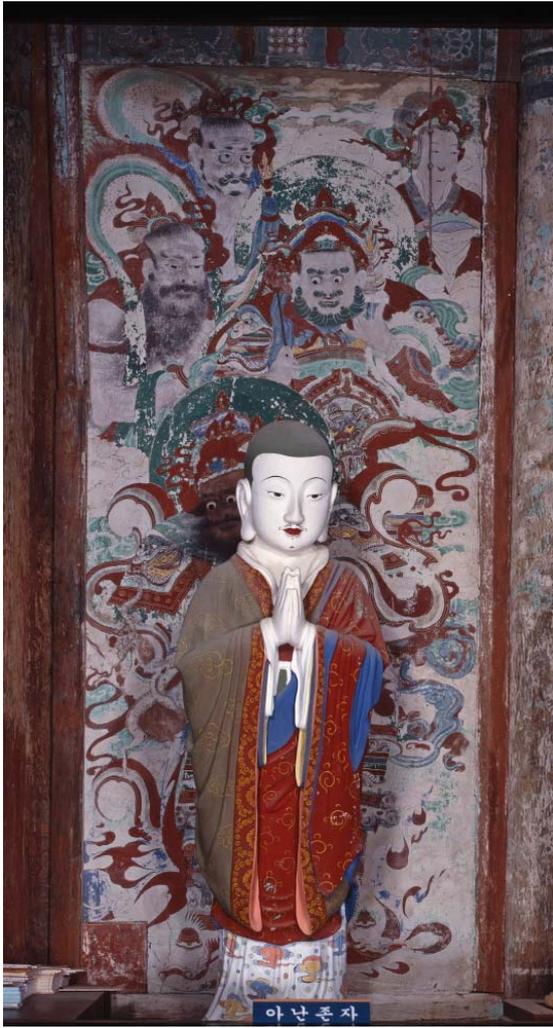


<

()>



< 가 , 498x447, 1769 >



아난존자

< 1, 419×188, 1769 >



마하가섭존자

< 2, 419×174.5, 1769 >

25.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金泉 直指寺 大雄殿 壁畵)

가. 검토사항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찰건축물벽화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벽화로 관계전문가의 조사('12.6.27)가 진행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수 량 : 52점
- 규 격 : 하단 참조
- 재 질 : 흙벽에 채색
- 제작연대 : 미상(18세기~19세기)
- 지정대상 벽화 목록

번호	벽화명칭	크기(cm)	위 치
1	達摩渡江圖	72.4×73.2	내부 동측면 내목도리 윗벽
2	如來受記圖	71×68.7	

3	白衣觀音圖	71×66	
4	拾得圖	71.7×68.6	
5	寒山圖	70×65.7	
6	羅漢圖	81.3×49	내부 동측면 포벽
7	羅漢圖	80×57.5	
8	葡萄圖	81×38.9	
9	花鳥圖	82×45	내부 동측면 포벽
10	鳥竹圖	82×45	
11	白衣觀音圖	80.5×48.3	
12	達摩面壁圖	69.5×38.3	내부 남측면 내목도리 윗벽
13	地藏菩薩圖	66.7×50	
14	道明尊者圖	71×70	
15	釋迦牟尼佛圖	72.5×83	
16	昆盧遮那佛圖	70.5×70.5	
17	盧舍那佛圖	68.5×60.5	
18	龍王龍女圖	67×46.1	
19	白衣觀音圖	67×52.1	
20	善財童子圖	68.5×39.5	
21	老人觀松圖	69.5×37.5	
22	如來圖	76.5×53.2	내부 남측면 포벽
23	如來圖	76×55.7	
24	天人圖	78.5×47.5	
25	天人圖	80.5×49.5	
26	日光菩薩圖	77×68.1	
27	天人圖	81.7×54	
28	地藏菩薩圖	78×47.3	
29	阿彌陀佛圖	79.5×49	
30	觀音菩薩圖	78.5×50	
31	童子奉菓圖	75.2×45.5	
32	童子圖	70×52	내부 서측면 내목도리 윗벽
33	羅漢圖	70×64.7	
34	羅漢圖	68.6×65.7	

35	羅漢圖	72.1×65.3	
36	菩薩圖	80×45	내부 서측면 포벽
37	阿難尊者圖	82×46.5	
38	迦葉尊者圖	79×48	
39	如來圖	79.5×38.5	
40	如來圖	77.5×41.5	
41	如來圖	78×46.5	
42	騎象普賢童子圖	141×256	내부 서측면 벽
43	騎龍觀音圖	148×266.8	
44	童子騎龍圖	141×257.7	
45	墨竹圖	70×90.3	내부 북측면 내목도리 윗벽
46	童子遊戲圖	81×90.7	내부 북측면 포벽
47	童子遊戲圖	82×87	
48	天女飛天圖	110×232	내부 북측면 벽
49	天女飛天圖	122.7×232	
50	海上龍王圖	566.5×231	후불벽
51	觀音菩薩圖	566.5×283.5	
52	善財童子圖	566.5×227.5	

라. 내용 및 특징

직지사 대웅전에는 52점의 벽화가 있다. 이중 동서남북면 내목도리의 윗벽과 포벽에는 조선후기에 조성된 벽화 44점과 근래에 새로 조성된 벽화 4점 등 총 48점의 벽화가 배치되어 있으며, 동서측면벽에는 코끼리를 타고 있는 普賢童子와 용을 타고 있는 관음보살, 용을 탄 동자, 공양천녀 등이 벽면 가득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후불벽에는 선재동자가 보타산의 관음보살도를 찾아 청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전각 전체가 벽화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준다.

불상이 모셔진 후불벽에서 바라보이는 남쪽의 내목도리 윗벽과 포벽에는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설법인의 노사나불, 향마촉지인의 석가불 등 삼신불이 입상형태로 그려져 있으며, 삼신불의 향우측에는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용왕과 용녀가 연꽃잎을 타고 예불하러 오는 장면과 선재동자가 버들가지가 꽃혀있

는 정병을 들고 암반 위에 서있는 모습, 향좌측에는 육환장과 보주를 든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및 산수가 그려져 있다. 삼신불 아래의 포벽에는 새로 그린 나한도와 조선후기의 일광보살도, 아미타불 및 권속, 관음보살, 지장보살, 천녀 등이 배치되었다. 동측면 벽에는 달마도강도(達磨渡江圖)와 여래수기도(如來受記圖), 백의관음보살도(白衣觀音菩薩圖), 한산도(寒山圖), 습득도(拾得圖) 등과 수묵나한도, 포도, 괴석, 묵죽 등과 선재동자의 정수리에 오른쪽 손을 얹고 마정수(摩頂手)하는 관음보살도 등이 배치되어 있다. 또 서쪽내목도리 윗벽에는 팔을 올려 손을 밖으로 내미는 모습의 나한과 계곡에서 떨어지는 물을 길러온 동자 등, 포벽에는 석가모니와 아난, 거섭, 불보살 등이 그려져 있다. 북쪽면에는 묵죽도와 동자도가 2점 배치되어 있다.

직지사 대웅전의 벽화는 이처럼 주제도 다양하고 표현기법도 다양하지만 양식적으로 볼 때 한 시기에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직지사 대웅전은 1735년에 편찬된 <직지사대웅전중창기>에는 1649년 봄에 태원과 상원 등이 중창하였으며, 1664년에 편찬된 <직지사대웅전중창기>에는 상원과 계림 등이 뜻을 내어 중창하고 단청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17세기 중엽 경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단청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713~14년에는 설잠(雪岑)과 성징(性澄)을 비롯한 20여명의 단청화공이 중심이 되어 대웅전 단청불사가 행해졌으며, 1735년에는 세관(世冠)과 설잠(雪岑) 등의 화주로 대웅전이 다시한번 중창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 외에 그 후의 대웅전 중창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그동안 대웅전 내부의 벽화들은 대부분 1713~14년 설잠과 성징의 주도 하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남아있는 벽화 일부에서는 18세기 불화양식을 엿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벽화들, 특히 동서측면의 코끼리를 탄 동자도와 용을 탄 관음보살도 등에서는 채색이라던가 인물표현 등에서 19세기의 불화양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또, 남측면 내목도리 윗벽과 포벽화 등에서도 구불구불한 광배의 표현이라던가 굵은 윤곽선, 인물표현기법 등에서 18세기 불화의 양식과는 다른 표현들이 엿보인다. 따라서 직지사 대웅전의 벽화는 1714년에 대대적인 조성이 이루어지는 했지만, 19세기 이후 전체적으로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미흡)

대웅전 내부의 벽화는 모두 52점 정도로 동·서·남·북면의 면벽과 포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남측면의 벽화는, 주 불상, 불화와 정 대면하는 위치이기 때문인지, 삼신불도(三身佛圖)를 중심으로 약사삼존도, 아미타삼존도, 관음삼존도, 지장삼존도 등 신앙대상의 중심인 불·보살을 배치하였다. 서측 벽화는, 석가삼존과 나한으로 구성된 법화세계와 기상보현동자도(騎象普賢童子圖), 기룡관음보살도(騎龍觀音菩薩圖), 기룡동자도(騎龍童子圖), 공양천녀도(供養天女圖), 주악천녀도(奏樂天女圖) 등이다. 동측 벽화는 달마도강도(達摩渡江圖), 여래수기도(如來受記圖), 백의관음보살도(白衣觀音菩薩圖), 한산도(寒山圖), 습득도(拾得圖)를 비롯하여 포도, 괴석도, 대나무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측 벽화는 비교적 소략한데, 묵죽도 1점, 동자도 2점 정도가 남아 있다. 불화가 걸려있는 후불벽의 뒷면에는 선재동자, 용왕이 표현된 기본적인 묘법이 백색선묘(白色線描)인 관음보살도(觀音菩薩圖)가 그려져 있다.

직지사 대웅전은 「직지사대웅전중창기(直指寺大雄殿重創記), 1664년」와 「직지사대법당중창기(直指寺大法堂重創記), 1735년」에 의하면 1649년과 1735년 두 번의 중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자료에는 벽화 제작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경상도금산군서령황악산직지사불상삼존개금복장중수기(慶尙道金山郡西嶺黃嶽山直指寺佛像三尊改金腹藏重修記)」에 의하면 이미 1713년과 14년의 2년에 걸쳐 단청 등의 불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청화공은 설잠, 성정을 비롯하여 20명이라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직지사 대웅전 벽화는 일부의 손상은 있으나 비교적 잘 남아있는 상태이며 삼신불도를 비롯한 불, 보살도 그리고 후불벽 뒷면의 가로 10m, 세로 6~7m에 이르는 대형 화면의 관음보살도 등, 내용이 충실하다. 다만 벽화의 제작시기가, 주조색인 주(朱)와 녹청(綠靑)이 탁하고 먹의 묘선 역시 굵거나 울동감이 없어 전체적으로 진부한 인상이 강하여, 기록에 근거한 18세기 초반의 화풍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아마도 이 벽화는 18세기 전반의 도상을 최대한 활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20세기 초 전면적인 수리시에 다시 그려진 것으로 짐작된다.

직지사 대웅전 벽화는 내용과 규모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며, 다행히 현재 건물자체가 보물 제1576호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미흡)

직지사 대웅전에는 동서측벽과 동서남북의 내목도리 윗벽 및 포벽에 많은 다양한 주제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직지사 대웅전은 1713~14년에 설잠(雪岑)과 성징(性澄)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인 단청불사가 이루어졌으며 1735년에는 화승인 세관(世冠)과 설잠(雪岑) 등의 화주로 다시한번 대웅전이 중창되면서 일부 벽화가 조

성되었다고 전해온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벽화의 상태를 보건대 18세기 초에 조성된 벽화는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19세기에 전반적으로 보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2점의 직지사 대웅전 벽화 중에는 용을 타고 있는 관음보살처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도상이 보이며, 또 후불벽 이면에도 관음보살과 용왕 및 선재동자를 3개 벽면에 나누어 그리는 등 변화를 추구한 면이 엿보여 조선후기 사찰벽화 연구에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동서측벽의 불화에 후보된 흔적이 많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18세기 초로 올려볼 수 있는 작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미흡)

직지사 대웅전 벽화 중 외부 벽화는 최근에 새롭게 그려진 것이고, 내부 벽화는 일부 새롭게 그려진 것을 제외하고 52점이 조선후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후불벽 뒷벽과 동·서·남·북면을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로 장엄하고 있다. 중심을 이루는 벽화는 후불벽면 뒷벽과 측벽의 규모가 큰 벽화들이며, 그 외 포벽이나 외목도리 윗벽에 그려진 소규모 벽화들은 관음, 나한 등의 개별 신앙과 화훼 등 장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벽화는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뼈대에서 조금씩 이탈하여 들쭉날쭉 튀어나와 있고, 벽체 곳곳에 박리박락이 일어나는 등 보존상태 좋지 못한 상태이다.

「직지사대웅전중창기(直指寺大雄殿重創記), 1664년」와 「직지사대법당중창기(直指寺大法堂重創記), 1735년」 등의 기록에 따르면, 대웅전은 1649년에 대건립되어 1735년에 한 차례 중창되었다. 단청은 「경상도금산군서령황악산직지사불상삼존개금복장중수기」에 이보다 앞선 1714년에 삼존불상의 개금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참여한 화공은 설잠(雪岑), 성징(性澄), 도익(道益) 등 20명이 참여하였다. 이 자료를 근거로 벽화도 이때 함께 그려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벽화의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건물의 중수연대와 단청, 그리고 벽화의 조성시기를 동시기로 보기에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 벽화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3칸으로 이루어진 후불벽면의 뒷벽에 그려진 관음보살도이다. 주불전 후불벽의 뒷벽에 관음보살도가 벽화로 그려진 예는 1476년에 제작된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도(보물 제1314호)를 비롯하여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룡사 대웅전 등 조선후기의 주불전에서도 확인된다. 이곳의 관음보살도는 다른 곳과 달리 협칸에 선재동자와 함께 용왕이 좌우의 예경자로 등장하는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도상은 일반 불화에서는 더러 확인되지만, 벽화에서는 거의 유일한 예로 주목된다. 그런데 관음보살도와 좌우 협시 그림은 이목구비의 표현과 설채된 채색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과연 본존과 협시와의 격을 구분한 것인지, 시기 차이인지, 아니면 후보로 인한 것인지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외 남면의 내목도리 윗벽의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여래의 삼신불회 장면과 서측벽의 기룡관음도와 백의관음도 등이 도상적으로 주목을 끈다. 이외 포벽이나 외목도리 윗벽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그려져 불전을 장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벽면에 그려진 벽화들이 일관성이 있는 표현기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벽면에 그려진 그림에서조차 일관성 없이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이 역시 시기에 따른 차이인지, 아니면 공동 작업에서 오는 작가의 수준 차이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관계 전문위원 박은경(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직지사 대웅전 건물 내벽 가운데 동·서·남·북 측벽과 후불벽 이면 벽면에 총 52점에 이르는 채색벽화가 전한다. 내부 벽화는 벽체의 균열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하며, 도상 전모를 파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현재 내부 벽화 중 주목시되는 벽화는 가장 규모가 큰 후불벽 이면 벽의 수월관음보살과 선재동자 및 용왕 그림이다. 그리고 서측면의 기룡관음(騎龍觀音) 및 기상보현동자(騎象普賢童子), 동자기룡(童子騎龍) 등과 남측면에 그려진 삼신불(三身佛)을 중심으로 약사·아미타, 관음·지장 등의 불보살상을 들 수 있다.

대웅전 내부 벽화는 전반적으로 대웅전 단청불사가 있었던 1714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도상의 표현 및 채운, 채색의 상태 등으로 보아 1714년 당시 원래의 작으로 보기는 힘들며, 19세기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일부 벽화는 1969~1970년, 1979~1980년에 개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새로 보완된 벽면도 확인된다.

다시 말해, 후불벽 이면의 수월관음도는 그 규모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안면표현과 선묘의 활달함과 유연함으로 보아 18세기의 양식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으나, 후불벽 이면벽화를 제외하고 동·서·남·북 측벽과 포벽에 그려진 벽화는 이른 18세기의 작에서부터 19세기에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 도상과 최근에 손을 댄 벽체 등이 확인되어 18~19세기의 작과 현대작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국가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 건물들이 보수되는 과정에서 벽화가 사라져가는 점을 고려할 때, 직지사 대웅전 벽화는 조선후기 주불전 벽화의 도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도지정 문화재로 권고하여 지정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의결사항

○ 부결

26. 겸재 화첩(謙齋畫帖)

가. 검토사항

“겸재화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겸재화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03.0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2.05.14)를 실시하였음.
- 본 위원회 2012년도 제4차 회의(‘12.08.09)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관계전문가의 추가 조사(‘12.09.25)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겸재화첩(謙齋畫帖)
- 소유자(관리자) : 우학문화재단(용인대학교 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 수 량 : 1첩(16폭)
- 규 격 : 화첩 전체 34.5×23.6cm
진경산수도(8폭) 25.1×19.2cm
고사인물도(8폭) 30.3×20.3cm
- 재 질 : 비단에 담채
- 형 식 : 첩

- 제작연대 : 1740년대 후반
- 제 작 자 : 정선(鄭敼)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겸재화(謙齋畵)》는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 화가인 겸재 정선의 작품으로서, 원숙한 필치와 과감한 화면구성이 돋보인다. 금강산의 진경산수화와 중국 송대의 유학자 8인의 고사인물화가 각각 8점씩 균형있게 성첩(成帖)되어 있다. 제작시기는 확단하기 어렵지만, 화풍이나 ‘정(鄭)’과 ‘선(敼)’이라는 백문방인(白文方印) 2과(顆)의 사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략 1740년대 후반, 즉 그의 나이 70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소품이지만 산수화에서는 화면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의 풍도가 넉넉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며, 고사인물화 역시 산수를 배경으로 하여 유유히 자연을 즐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고사인물화는 꾸준히 제작되었지만, 대개 중국의 현인이나 은자들을 특정시대를 지정하지 않고 두루 그려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하여, 이 화첩에서는 송대(宋代)라는 특정시기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후기 문인 취향의 일단을 말해준다. 작품성이나 역사성 면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우학문화재단 소장의 <겸재화첩>은 정선의 특징이 잘 발현된 금강산 소재의 진경산수화와 그의 또 다른 특징으로 평가될만한 고사인물화가 각각 8점씩 장첩된 흔치않은 화첩 구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고른 작품의 수준과 비교적 양호한 작품 상태를 간직하고 있다.

진경산수화는 만년의 여유있고 능숙한 필의 운용과 자유로운듯 하나 격을 갖춘 필법을 보여준다. 특히 일렁이는 파도의 생동감 있는 모습과 힘찬 기(氣)의 표현은 정선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수파묘이다.

고사인물화는 진경산수화 다음으로 정선의 특징처로 재평가되는 분야이다. 작은 화면이지만 짜임새 있는 구도, 함축적인 내용 전달, 시선을 집중시키는 채색의 절제된 사용, 경물 묘사의 능숙함 등 그의 대가(大家)다운 면모를 잘 보여준다. 8점 모두 현전하는 정선의 고사인물화 중에서도 가작(佳作)으로 꼽을만하여 정선의 고사인물화를 대표할만하다.

작품의 제목은 “정선 필<산수 및 인물도> 화첩(鄭敼 筆 <山水 및 人物圖> 畫帖)”을 제안한다. 현재 표지에 ‘겸재화(謙齋畫)’라는 제자(題字) 때문에 ‘겸재화첩’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 표장은 작품 제작 당시의 원래 상황이 아니며 제자도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인다. 호(號)를 사용하여 인물 혹은 작자를 지칭하는 것보다 화가의 이름이 작품명에 들어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좀 더 전문적이며, 작품의 작자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 화첩은 산수와 인물을 주제로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선 필<산수 및 인물도> 화첩(鄭敼 筆 <山水 및 人物圖> 畫帖)”이라 하는 것이 작품의 성격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칭은 2011년 일반회화류 지정명칭개선안을 반영함)

이상 “정선 필<산수 및 인물도> 화첩(鄭敼 筆 <山水 및 人物圖> 畫帖)”을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화첩은 정선의 특징적인 화풍이 잘 간직된 우수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사인물화 8점은 내용이나 양식적으로 볼 때 현전하는 정선의 고사인물화 중에서도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우학문화재단 소장의 “정선 필<산수 및 인물도> 화첩(鄭敼 筆 <山水 및 人物圖> 畫帖)”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감정위원 (지정 가치 있음)

겸재 정선은 우리나라 회화사상 신라의 술거(率居), 고려의 이녕(李寧), 조선 초기의 안견(安堅)과 더불어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지칭되어 마땅한 화가로 평가된다. 한국회화사에서 차지하는 정선의 비중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생애와 작품 및 영향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한국회화사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의 성과에 의해 정선의 작가상과 작품세계는 새롭고 종합적인 각도에서 접근 및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과 그의 작품세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다. 정선의 신분과 진경산수의 정의와 연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정선의 신분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화원인가 직업화가인가 사대부화가인가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신분이 어느 것이든 그의 예술적 위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신분을 화원, 직업화가, 사대부화가로 일도양단(一刀兩斷)하듯 분명하게 규정짓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정선이 활동한 시대와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동아시아 문인의 개념규정과 문인화의 범주에 대한 검토 뒤에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진경산수화 역시 조선성리학 또는 소중화주의

등 사상적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진경(眞景)'의 어원과 의미 및 조선 후기의 용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고려시대 이래 그려졌던 금강산도와 같은 실경산수의 전통과 정선 작품의 영향관계가 정확히 구명되지 않았고 18세기라는 시대에 진경산수가 그려지게 된 요인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정선의 신분과 작가상, 진경산수화의 개념과 연원, 영향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새롭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품과 기록의 발굴과 기존 자료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해석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아울러 진작과 안작(贗作)의 구분,佳作(佳作) 또는 득의작과 범작(凡作)의 분류, 대필작 판정, 표준작 설정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재단법인 우학문화재단(이학) 소장 《겸재화첩》은 정선의 회화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겸재화첩》의 순서대로 금강산도와 고사인물도를 살피고자 한다.

① 《겸재화첩》의 금강산도는 정선이 그의 나이 72세 때인 1747년에 금강산에 다녀온 후 그린 《해악전신첩》(간송미술관 소장)의 저본(底本)으로 소개된 바 있다. 《겸재화첩》에 대해서는 "원숙한 경지"라는 평가도 있고 한편에서는 "졸렬한 구성과 조약한 필묵법의 수응화(酬應畵)"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겸재화첩》은 그의 나이 37세 때인 1711년에 그린 《신묘년풍악도첩》과 72세 때인 1747년에 《해악전신첩》에 비교하면 화필의 강약(強弱)이나 비수(肥瘦) 또는 태세(太細)가 명확하지는 않으며 전반적 구도나 표현에서 다소 소략하게 처리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겸재화첩》의 금강산그림은 정선 특유의 활달하고 유려한 필력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서 작품의 수준 역시 8점 모두 고르며 그의 70대 노년기의 원숙한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작품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현장감이야말로 진경산수화의 개창자(開創者) 또는 집대성자(集大成者)로서의 정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배경과 인물의 적절한 조화, 정선 특유의 소나무 표현과 끊어질 듯 이어지는 파도 등은 달관에 이른 노대가만이 할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 화첩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정선의 고사인물도는 진경산수화에 비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많이 그렸고 또 진경산수화가 회화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선은 고사인물도 역시 많은 수효로 제

작하여 18세기 고사인물도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선의 고사인물도에 대한 연구야말로 진경산수화에 치중된 정선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은 물론 종합적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선의 고사인물도는 대개 그의 나이 64세 때인 1740년대를 중심으로 전기와 후기로 파악하고 있다. 후기의 고사인물도는 전기에 비하여 대체로 구성이 훨씬 능숙해지고 산수배경에 비하여 인물의 비중이 줄어든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인물을 묘사하는 선 역시 세장(細長)해지고 배경과 인물의 위치 선정 등 구성이 훨씬 짜임새 있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겸재화첩》의 고사인물도는 송나라 오현(五賢)인 소옹(邵雍),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정호(程顥), 정이(鄭顥) 등과 사마광(司馬光), 남송대 주희(朱熹), 이동(李侗)의 고사를 그린 것이다. 이들 중 오현은 고사인물도로 선호되지 않았던 주제이기에 아마도 특정인의 주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선이 자신과 그의 후원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념적 지향을 그려낸 것으로 여겨진다. 작품의 순서는 주돈이의 <염계상련(濂溪賞蓮)>, 정호의 <방화수류(傍花隨柳)>, 정이의 <부강풍도(浐江風濤)>, 사마광과 소옹의 <화외소거(花外小車)>, 장재의 <횡거영초(橫渠詠蕉)>, 사마광의 <온공낙원(溫公樂園)>, 주희의 <무이도가(武夷棹歌)>, 이동의 <자현잠농(柘軒蠶農)>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그림의 주인공들의 동작은 구체적 동작을 취하고 있고 인물의 의습(衣褶)은 분명한 색채를 사용하여 부각시키고 강조하였다. 주인공이 아닌 인물의 위치는 보조하는 차원에 머물게 하였고 크기도 작게 하였다. 배경을 이루는 산수는 노년기 정선 특유의 활달하고 원숙한 필치를 자유로이 구사하였고, 산수와 인물의 구성은 적절히 융화되게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도와 고사인물도의 전반적인 필치는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제작되었다기 보다는 후대에 하나의 화첩으로 합친 것으로 여겨진다.

《겸재화첩》은 정확히 그려진 시기, 내력 및 제작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소자출(所自出)' 곧 이 화첩이 나온 근본이나 출처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전형적인 70대 초반 정선의 화풍을 반영하는 수준 높은 그림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선 회화의 이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조선시대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정선의 위상과 작품성 등에 미루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보류
 - 서류 보완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내용 및 특징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은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율백(元伯), 호는 겸재(謙齋), 겸초(謙艸), 난곡(蘭谷) 등이다. 아버지는 시익(時翊)이며, 어머니는 밀양 박씨(密陽 朴氏)이다. 그의 선세(先世)는 전라남도 광산, 나주 지방에서 세거한 사대부집안이었다. 뒤에 경기도 광주로 옮기고, 고조부 연(演) 때 서울 서쪽으로 다시 옮겨 살기 시작하였다.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30세 전후의 금강산 그림 등을 통하여 젊었을 때 화가로 활동한 것은 확실하지만, 40세 이전의 확실한 경력을 입증할 작품이나 생활기록 자료는 없다. 그가 중인들이 일하고 있었던 도화서 화원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원래 사대부 출신으로 신분상의 중인은 아니며 몇 대에 걸쳐 과거를 통하여 출세하지 못한 한미한 양반이었다. 그는 뛰어난 그림 재주 때문에 김창집(金昌集, 1648~1722) 등의 추천을 받아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1729년에 한성부주부, 1734년 청하현감을 지냈고, 또 자연, 하양의 현감을 거쳐 1740년경에는 훈련도감낭청, 1740년 12월부터 1745년 1월까지 양천의 현령을 지냈다. 그 뒤 10여년 동안은 활동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754년에 사도시첨정, 1755년 첨지중추부사, 그리고 1756년에는 화가로서는 파격적인 가선대부 지중추부사라는 종2품에 제수되기 까지 하였다.

정선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화법을 창안하였고 진경산수화라는 독특한 화풍을 이루어내었다. 그 동안 정선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정선의 신분이나 진경산수화의 형성과정, 화풍의 연원에 대해 연구자 간에 다른 해석으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화가 정선이 조선시대 대표적 화가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 화첩에는 실경산수화 8점과 고사 인물화 8점 등 모두 16점의 작품들이 수재되어 있다. 이처럼 산수와 인물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하나의 화첩 안에 모아 놓은 예는 정선 화첩에서 그리 흔하지 않으며, 더욱이 각각 8점 씩 구색을 갖추어 균형을 맞춘 예는 드물다.

- 표지

겉표지는 두껍고 윤이 나는 옅은 황토색 종지로 되어 있다. 능화판을 이용하여 문양을 찍었는데, 만(卍)자를 바탕 배경으로 하여 용, 호, 봉황 등이 표현되어 있다. 표지의 왼편 위쪽에 묵서로 “겸재화(謙齋畫)”라고 적혀있다. 화첩의 크기는 34.5×24.0cm 로서, 군데 군데 좁이 슬은 구멍이 있으며, 얼룩도 묻어 있다. 화면의 오른 쪽 아래 모서리의 바깥 쪽으로는 검정색 볼펜으로 동일인의 서명이 적혀 있다.

- 산수화

화첩의 처음 8면은 비단에 수묵으로 그린 실경산수화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화첩을 펼쳤을 때 오른 쪽 면에 그려져 있고 왼 쪽 면은 비어 있다. <단발령(斷髮令)> <비로봉(毘盧峯)> <혈망봉(穴望峯)>, <구룡연(九龍淵)>, <옹천(瓮遷)>, <고성문암(高城門巖)>, <총석정(叢石亭)>, <해금강(海金剛)> 순으로 금강산의 명산을 담아내고 있는데, 높이 25.0cm에 폭 19.2cm의 크기이다.

이들 산수화에 대해서는 정선이 1747년에 그린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간송미술관 소장)의 저본(底本, 사생)에 해당하는 작품이라는 주장(최완수)이 제기된 바 있는데, 두 화첩의 작품 들 간에 구도나 필법 등에서 상당한 유사한 점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겸재 작품 자체가 지닌 정형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우학재단 본 역시 저본(紙本)이 아니라 견본(絹本)인 점에서 <해악전신첩>에 대해 직접적인 저본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겸재는 활동 당시 그의 그림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은데다가 그 자신 역시 다작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 들 간에 구도나 필치 등에서 유사한 그림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 이를테면 《겸재화》의 <고성문암>이나 《해악전신첩》(1747)의 <문암관일출도>, 그리고 《신묘년풍악도첩》(1711)의 <문암관일출도>를 비롯하여, 《겸재화》의 <총석정>, 《해악전신첩》의 <총석정도>, 《신묘년풍악도첩》의 <총석정도>는 그 좋은 예이다. 특히 총석정도에서 그가 보여준 구도는 훗날 김홍도가 그린 《해동명산도첩》의 <총석정도>나 《해산첩》(18세기)의 <총석정도>, 그리고 이재관(李在寬, 1783~1837)의 <총석정도>에 까지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겸재화》 화첩에 들어 있는 산수화작품들은 겸재 그림의 특징이라 할 다양하면서도 탁월한 구도와 과감한 필묵법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비로봉>과 <혈망봉> 등 산봉이 강조된 경우는 이를 중앙에 두고 하단에 연운처리(煙雲處理)로 구름 위 절경을 나타내었으며, <구룡연>에서는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수직 급락하는 물줄기를 세차게 표현하였고 그 좌우로는 바위가 지닌 양감을 강하게 농묵 처리하였다. 또한 <옹천>, <고성문암>, <총석정>, <해금강> 등 바다는 변각(邊角)이나 화면의 좌우가 열린 구도로 더욱 더 시점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양식들은 특히 겸재가 노년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원숙하고 과감한 필치로 구사되

었는데, 수과문 역시 생명력을 띠고 더 리드미컬하게 묘사되었다. 이 점은 1711년 작인 《신묘년 풍악도첩》(국립중앙박물관)에도 실려 있는 <용천>이나 <총석정도>를 겸재화의 동일한 제목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겸재화》에 실려 있는 금강산 그림들의 제작연대는 확단하기 어려우나, 겸재가 ‘정(鄭)’과 ‘선(叡)’으로 백문방인 2과를 사용하는 것은 66세 양천현령부터 70대 후반까지이며, 또한 그림들에 나타나 있는 정형화된 구도나 활달한 필치, 그리고 1747년에 제작된 《해악전신첩》과의 친연성(親緣性)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학계의 견해대로 대략 그의 나이 70대 즉 174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겸재화》 화첩의 산수화 그림들은 일견 성의 없이 그린 듯 보이지만 노경(老境)에 들은 화가의 원숙하고 호방한 용필이 잘 나타나 있다. 비록 소폭의 작품이지만, 산과 바다, 암석, 나무 등 대자연의 넉넉함을 아쉬움 없이 전해준다. 또한 이 산수화작품들 안에는 제시(題詩)는 없지만, 낙관의 위치, 크기 등을 잘 원용하여 화면의 묘를 살리고 있다. 명소를 적은 작품명과 겸재(謙齋)에 이어 ‘정(鄭)’과 ‘선(叡)’의 두 백문방인(白文方印) 등 관지 또한 화면 구성특면에서 제 크기 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된다.

- 고사인물화

이 화첩에는 금강산 실경산수에 이어 고사 인물화가 8면에 걸쳐 실려 있다. 역시 펼친 화첩의 양면 중 오른 편에만 그림이 위치하며, 비단에 수묵과 담채로 산수와 인물을 묘사하였다. 높이 30.2cm, 폭 20.2cm의 크기이다. 각 폭마다 화제가 쓰여 있는데, <염계상련(濂溪賞蓮)>, <방화수류(傍花隨柳)>, <부강풍도(涪江風濤)>, <화외소거(花外小車)>, <횡거영초(橫渠詠蕉)>, <온공낙원(溫公樂園)>, <무이도가(武夷棹歌)>, <자헌잠농(柘軒蠶農)> 순이다. 화제 옆에는 낙관을 하였는데, 산수화와 마찬가지로 묵서로 ‘겸재(謙齋)’라 쓰고, 이름 ‘정(鄭)’과 ‘선(叡)□□을 백문방인(白文方印) 두 개로 나누어 찍었다. 화면은 좀이 슬은 구멍과 얼룩이 있지만, 산수화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나무, 바위, 다리 같은 경물이 잘려진 곳이 더러 있기 때문에 장황 과정에서 화면 일부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 제1면 염계상련(濂溪賞蓮)

이 작품은 북송대의 유학자였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와 관련된 내용을 그린 것이다. 주돈이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만년에 여산(廬山)에 염계서당을 지어 제자들을 가르쳤기에 염계선생으로 불린다. 주돈이는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아 독창적으로 유교를 새롭게 변모시켰다. 우주의 근원을 태극으로 하는 태극도를 그려 자신의 이론을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주희에 의해 성리학의 개조로 여겨졌다. 주돈이는

애련설을 지어 연꽃을 군자의 꽃으로 칭송하였는데, 이 그림은 이를 옆두에 두고 그려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에서는 멀리 윤곽으로만 표현된 원산을 배경으로 커다란 산봉우리가 기우뚱하게 솟아 있고, 그 아래로 버드나무 역시 기울어지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버드나무 밑으로는 축대 위에 세워진 정자 안에 주돈이라는 인물이 작게 그려져 있다. 정자 앞 쪽으로는 네모난 연못 안에 커다란 연잎과 화사한 연꽃이 떠있다. 연못 오른편의 커다란 바위와 질푸르게 표현된 활엽수 세 그루가 보인다. 전체적으로 물기 많은 먹을 구사하여 활달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 제2면 방화수류(傍花隨柳)

이 그림의 화제인 ‘방화수류’는 북송대의 유학자 정호(程顥, 1032~1085)의 시 「우성(偶成)」에 나오는 구절이다.

가
가 .

가

(韻淡風輕近午川 傍花隨柳過前川 時人不識余心樂 將謂偷閑學少年)

라는 내용인데, 규장각의 녹취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었던 화제이다.

이 그림에서는 버드나무와 개울 그리고 다리를 배치하여 시의 내용과 조응시키고 있다. 공부방을 벗어난 모처럼 바깥 나들이를 나온 늙은 선비의 해방감을 넓은 공간과 청신한 색조로 상쾌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 제3면 부강풍도(涪江風濤)

이 그림의 내용은 북송대 유학자이며 정호(程顥)의 동생인 정이(程頤, 1033~1107)와 관련이 있다.

‘정이가 사천성의 부릉(涪陵)으로 유배가면서 염예를 지나는데 파도가 사납게 일자,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러나 정이는 홀로 의연하게 동요하지 않았다. 강가의 나무꾼이 큰 소리로 묻기를, ‘죽으려고 이러한가, 달관해서 이러한가’ 라고 하여, 정이가 대답하려 했으나 배는 이미 떠났다.’라는 구절을 참고하여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구절은 이황이 중시했던 『심경부주(心經附註)』에 나오는 것으로서, 특히 ‘사거여사달거여사(舍去如斯達去如斯)’라는 구절의 해석에 대하여 이후 계속하여 논란

이 있었을 만큼 널리 알려진 고사였다.

그림의 위쪽에는 낮은 능선의 산을 배치하고, 그 밑으로 그림의 절반 이상까지 높게 파도가 넘실대며 역동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화면 우측엔 절벽 위의 평편한 길에 나무꾼 한 사람이 구부정한 자세로 배에 탄 정이에게 공수를 한 채 읊하고 있다.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결은 능란하게 구사되어있고, 뱃전에 부딪히는 포말 또한 생동감을 더해 준다.

- 제4면 화외소거(花外小車)

그림의 내용은 북송대의 관료이자 학자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지은 시 ‘소요부허래석각구대부지(邵堯夫許來石閣久待不至)’의 한 구절을 따른 것이다. 여기서 소요부는 북송의 학자인 소옹(邵雍, 1011~1077)의 자이다. 사마광은 왕안석 신법에 반대하여 낙중(洛中)에 은거하였는데, 이 때 이 곳에 은거하던 소옹과 교류하여 친분을 쌓게 되었다. 어느 날 사마광의 은거처인 석각에 오르기로 약속한 소옹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기다림에 지친 사마광이 무료함을 달래며 쓴 시이다. 그림에 해당하는 시구절은 꽃구경을 하며 오느라 늦을 거라는 대목이다. 이 역시 규장각 녹취재의 화제였다.

- 제5면 횡거영초(橫渠詠蕉)

이 그림은 북송대 유학자인 장재(張載, 1027~1077)에 대한 것인데, 파초를 좋아했던 모습에 착안한 것이다. 그림은 파초에 대한 시상을 떠올리고 가다듬는 장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붓을 들었지만, 아직 옮겨 적을 준비는 되지 않은 순간을 포착하였다.

- 제6면 온공낙원(溫公樂園)

이 그림에 나오는 온공(溫公)은 송나라 때 재상으로 온국공에 봉해진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을 가리킨다. 그는 일찍이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관직에서 물러나 낙양에 독락원(獨樂園)을 지어 15년 동안을 한가로이 지냈다. 이에 대해 소식(1037~1101)은 <사마군실독락원(司馬君實獨樂園)>이라는 시를 지었고, 사마광 자신도 다음과 같이 <독락원기>를 지었다.

. (迂叟平日讀書 上師聖人 下友群賢 窺仁義之原 探禮樂之書)

화첩의 그림에서는 유유자적하며 독서하는 사마광의 여유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제7면 무이도가(武夷棹歌)

이 그림은 남송대의 유학자이며 성리학을 집대성하여 주자로 칭송되는 주희(朱熹, 1130~1200)와 관련된 내용이다. 화제에 언급된 무이산은 복건성 남쪽에 있는 산으로 복건 제일의 명승으로 손꼽힌다. 주희가 이곳에서 강학하고 유람하며 무이구곡의 아름다움을 읊은 <무이도가>를 지은 뒤부터, <무이구곡도>의 형태로 그려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무이구곡도가 원대부터 문헌에 나타나고, 조선에서도 16세기 무렵부터 매우 애호하기 시작했다. 규장각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재에서도 자주 등장한 화제이다.

- 제8면 자헌잠농(柘軒蠶農)

그림의 내용은 남송의 유학자 이동(李侗)과 관련이 있다. 이동은 젊은 시절의 주희를 가르친 스승이었는데, 정호(程顥)의 제자 양시(楊時1053~1135)로부터 유학을 배운 나종언(羅從彦, 1072~1135)에게서 학풍을 이어받은 대학자였다. 그의 시 중 <자헌>에서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의 중요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는 유학자가 곧 이동이다. 정선의 그림 중 이동에 대한 일화를 다룬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겸재화》의 고사인물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송대 유학자들로서 모두 도학의 계승자이다. 현재 이 화첩의 구체적인 제작 동기와 주문자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잘 그려지지 않았던 정호, 정이, 이동 등 까지 모두 포함하여 성리학 주제를 나타내는 화제를 의도적으로 그린 것에 대하여 특정한 주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겸재는 특히 이들을 도통의 계보를 잇는 딱딱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도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고사인물화의 제작시기 역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의 산수화와 마찬가지로 ‘겸(謙)’과 ‘선(叡)’을 백문방인 2과로 나누어 찍었으며, 또한 노년작의 고사인물화의 특징인 가는 의습선의 사용과 배경이 되는 산수화의 과감한 화풍 등은 70대에 든 노년작임을 말해준다. 특히 1749년작인 <사공도시의도첩(司空圖詩意圖帖)>과 여러 면에서 상통하고 있어 이 화첩의 제작시기 역시 174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시대의 고사인물화 제작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행해졌지만, 대개 중국현인이나 은자들을 특정시대를 지정하지 않고 두루 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데 반하여 《겸재화》의 고사인물은 특정시기의 인물의 집중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내용 및 특징

우학문화재단 소장 <겸재화첩(謙齋畫帖)>은 진경산수화 8점과 고사인물을 주제로 한 산수인물화 8점의 총 16점으로 구성된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의 화첩이다. 능화관으로 문양을 찍은 표지의 왼편 위쪽에 ‘겸재화(謙齋畫)’라고 제자(題字)가 바탕에 직접 쓰여 있다. 제자의 먹이 다소 탈락되고 표지의 가장자리 위주로 군데군데 좁이 슬고 접히거나 찢긴 부분이 있다. 화첩을 펼치면 오른쪽 면에 그림이 장황되었으며 모든 화면 우측 하단 모서리에는 선(緘) 부분에 불펜으로 사인이 있다. 각 화면에는 화제(畫題)와 ‘겸재(謙齋)’라 쓰고 두 개의 백문방인 ‘정(鄭)’과 ‘선(敼)’을 찍었다. 화면에도 좀벌레에 의한 약간의 구멍이 생겼는데, 뒤로 갈수록 그 정도가 미약하여 고사인물화 부분에는 화면에 좁쌀크기의 몇 개 구멍이 있는 정도이다.

수묵담채의 진경산수는 <단발령(斷髮令)>, <비로봉(毘盧峯)>, <혈망봉(穴望峯)>, <구룡연(九龍淵)>, <옹천(瓮遷)>, <고성문암(高城門岩)>, <충석정(叢石亭)>, <해금강(海金剛)> 등으로 금강산의 명소를 그린 것이다. 모두 정선이 즐겨 그리던 금강산을 소재로 한 내용이다. 자신감 넘치면서도 자유롭고 능숙한 필치와 짜임새 있는 구도 등으로 보아 정선의 만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생각된다. 특히 <혈망봉>이나 <해금강>의 수직준법은 1747년 경 제작된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 보다도 한층 더 능란하고 자유로운 필세(筆勢)를 보여준다. 백문방인 2과는 간송미술관 소장 정선의 <해악전신첩>(1747년 경)에 찍힌 것과 동일하다.

고사인물은 북송대 유학자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연꽃 사랑을 소재로 한 <염계상련(濂溪賞蓮)>, 정호(程顥, 1032~1085)의 시를 내용으로 한 <방화수류(傍花隨柳)>, 정호의 동생 정이(程頤, 1033~1107)와 관련된 고사를 그린 <부강풍도(涪江風濤)>,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소옹(邵雍, 1011~1077)을 기다리며 쓴 시에 근거한 <화외소거(花外小車)>, 파초를 좋아했던 장재(張載, 1027~1077)의 고사를 그린 <횡거영초(橫渠詠蕉)>,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한 사마광의 고사를 그린 <온공낙원(溫公樂園)>, 남송대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의 무이산 유람과 관련된 <무이도가(武夷棹歌)>, 농잠(農蠶)의 중요성을 노래한 바 있는 이동(李洞, 1093~1163)과 관련된 <자헌잠농(柘軒蠶農)>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의 소재를 제공한 인물은 북송대 유학자가 6명, 남송대 유학자가 2명이다. 고사인물화라고 하지만 산수에 비해 인물의 비중이 작으며 수묵담채 위주이지만 연꽃, 꽃나무, 복식, 기물 등에 부분적으로 채색을 사용하였다.

필치와 묘법, 채색과 색감 등 전체적인 화풍과 양식으로 보면 이 화첩은 정선의 진작임이 분명하다. 다만 화풍과 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진경산수 8점과 고사인물화 8점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은 아니다.

□ 문화재감정위원

○ 현 상

개장되지 않은 원래의 장정이며, 보존상태는 거의 온전하고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재단법인 우학문화재단 소장 《겸재화첩》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거장 겸재 정선의 화풍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70대 만년의 원숙하고 관조적인 필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겸재화첩》의 중요성은 크다. 정선은 그의 나이 37세 때인 1711년에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岳圖帖)》(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을 그렸고 72세 때인 1747년에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간송미술관 소장)을 그렸다. 《겸재화첩》에 수록된 금강산을 그린 산수 인물도는 화풍으로 미루어 볼 때 《해악전신첩》이 그려진 1747년 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선은 금강산도를 그릴 경우 금강산 전체를 조망하는 전도(全圖)·전경도(全景圖)와 별개의 명소를 그린 각경도(各景圖)로 구분되는데, 모두 정선 특유의 개성 있는 구도와 필법이 잘 드러난다. 정선이 진경산수를 그릴 경우에는 토산은 가로로 긴 미점(米點)을 바위산 묘사는 특유의 수직준법(垂直皴法)을 많이 사용하였다. 소나무 묘사에 있어서는 리듬감 있는 개성적인 소나무 묘사를 하여 일명 ‘겸재송(謙齋松)’이라 불리는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겸재화첩》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여실히 찾아볼 수 있다.

금강산을 그린 8점의 뒤쪽에 수록되어 있는 역시 8점의 ‘고사인물도’는 다소 거칠고 소방한 자신감 넘치는 붓 맛을 보이는 금강산도와 달리 조심스러운 필치와 온화하면서도 분명한 수묵담채로 되어 있다. 정선의 고사인물도는 진경산수 분야에 비하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겸재화첩》의 고사인물도는 정선이 그의 나이 74세 때인 1749년에 그린 《사공도시품첩(司空圖詩品帖)》(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유사한 수묵채색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그의 나이 70세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선이 《겸재화첩》의 고사인물도에서 사용한 채색은 전반적으로 온화하지만 특히 인물의 의복이나 수레, 들꽃에는 선명한 채색을 사용하였다. 《겸재화첩》의 진경산수화와 고사인물도는 세부 묘사 등으로 볼

때 동시에 그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정선이 남긴 작품들 가운데 8점씩 정확하게 균형을 맞춘 매우 드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붙임>

겸재 화첩 추가조사 의견서

◇ 추가조사

- 조사대상 : 겸재 화첩
- 조사일시 : 2012. 9. 25(화)
- 조사위원 : 관계전문가
- 조사내용 : 겸재 화첩(1첩 16폭, 34.5×23.6cm)

□ 관계전문가

○ 현 상

전체 16폭 가운데 전반부의 진경산수화 8폭과 후반부의 고사인물도 8폭은 비단의 재질과 크기가 다소 다르고 비단 가장자리의 오손 상태도 약간 다르며, 화첩 전체에 걸쳐 특히 안쪽 회장(回裝) 부분에 충식(蟲蝕)이 심한 편이다. 이로 볼 때, 진경산수화 8폭과 고사인물도 8폭은 본래 별도의 화첩으로 장첩(粧帖)되어 전승되다가, 19세기 중후반경 이후 현재처럼 두 화첩을 파첩하여 하나의 화첩으로 합첩하여 개장한 듯하다.

19세기 중후반경에 현재처럼 개장하기 이전까지는 화첩의 전승 상태가 그리 양호하지 않았던 듯, 일부 작품은 비단 가장자리의 울이 풀리고 닳아서, 비록 작품성을 손상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나마 화견이 이미 유실된 상태였다. 그리고 개장 당시 비단의 오염을 다소 세탁했던 듯, 그림과 글씨의 일부 수묵이 약간 번지거나 흐릿하게 탈색된 부분이 보인다. 그러나 그림은 연백(鉛白)이 회흑색으로 변색된 반연(返鉛) 현상이 일부 보이는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제작 당시의 모습이 대체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다만, 전체 16폭의 회장 부분 우하각(右下角)에 20세기 들어 골동상이나 소장가가 볼펜으로 써넣은 것으로 생각되는 手決이 추가되어 있어 다소 눈에 거슬리지만, 화첩 자체는 19세기 중후반경에 개장된 이후 보수되거나 개장된 흔적 없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 지정 가치와 근거

이 “겸재화첩”의 내용과 제작 시기, 미술사적 의미 등에 대한 기술은 경기도의 1차 조사보고서와 문화재청의 2차 조사보고서, 그리고 기존의 논문에서 이미 자세히 밝혀놓았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 화첩은 완숙의 경지에 이른 만년의 겸재가 호방하고 난만한 필치로 그린 16폭의 많은 그림이 들어있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내용도 겸재가 가장 많이 그리고 제일 잘 그려 당시 인기가 많았던 금강산 일대의 진경산수화와 송대(宋代) 유현(儒賢)들의 고사인물도가 함께 들어있어 더욱 주목된다. 더구나 겸재가 그린 <해금강(海金剛)>은 이것이 첫 사례이고, 주자(朱子)의 스승인 이동(李侗, 1093-1163)의 고사인물도도 처음 소개된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화첩으로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합벽첩(合璧帖)으로 개장된 이후 지금까지 전혀 보수되지 않은 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것도 이 화첩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화첩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시기가 과연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회화 부분의 국가지정문화재는 초상화와 기록화 중심으로 거의 100점 가까운 작품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산수화와 화조화, 사군자 같은 일반 회화는 극히 일부만 지정되어 있어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 회화 부문도 중요한 작품을 발굴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뒤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겸재화첩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겸재의 경우만 예로 들더라도,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와 <금강전도(金剛全圖)> 같은 극히 일부 작품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이다. 그 결과 겸재 연구는 물론 조선후기 회화사 연구나 문화사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 사료이자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명품 대작들도 거의 대부분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최초의 겸재 진경산수화첩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유년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1711), 겸재가 진경산수화를 대성할 수 있는 요람이 되었던 당대 최고의 예원(藝苑)을 그리며 독자적인 진경산수화법을 정립한 간송미술관의 <청풍계도(淸風溪圖)>(1739), 또한 겸재가 36세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출세작을 72세 되던 최고 절정기에 다시 그린 간송미술관의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1747), 겸재가 한강 일대의 명승들을 사생하며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도상과

새로운 화법의 신경지를 보여준 간송미술관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1740-1)과 개인 소장자의 <<연강임술첩(漣江壬戌帖)>>(1742) 같은 걸작과 대작들도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나 규정 상, 소장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가지정문화재의 권위와 수준,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검재의 작품에 대한 지정은 최소한 이러한 중요 작품들이 먼저 지정된 뒤에 다른 중요한 작품들도 순차적으로 지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학문화재단 소장자의 “검재화첩”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시기를 다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만약 지정시기를 다소 늦춘다면, 그 동안은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며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화첩의 명칭에 대한 제안

이 화첩의 명칭에 대하여 한 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이 화첩의 표지에는 “검재화(謙齋畫)”라고 쓰여 있다. 그리하여 소장자나 기존의 논문에서는 이 화첩을 “검재화첩”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다른 많은 검재 화첩들을 일컫는 일반적인 보통명사와 혼동하기 쉬워 이 화첩만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이 화첩의 “검재화”라는 표제 글씨는 조지겸(趙之謙風)이 감도는 육조해서체(六朝楷書體)의 지형과 필법이 느껴져 19세기 중후반경 이후에 쓰여 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검재화”라는 명칭은 원래의 명칭이 아니라 후대에 붙여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자는 이 화첩에 담긴 내용의 가장 고유하고 핵심적인 특징을 살려 화첩의 제목을 <<검재 해악팔경 송유팔현 함벽첩(謙齋 海嶽八景 宋儒八賢 合璧帖)>>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만약 자호를 사용하지 않고 성명을 사용하는 현행 문화재 명칭 지정의 일반적인 통례를 따른다면, “정선 필, 해악팔경 송유팔현 함벽첩(鄭敼 筆, 海嶽八景 宋儒八賢 合璧帖)”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만약 너무 길어 불편하다면, “정선 필, 해악팔경 송유팔현첩(鄭敼 筆, 海嶽八景 宋儒八賢帖)”으로 줄여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도(圖)”자를 추가하여 “정선 필, 해악팔경 송유팔현도첩(鄭敼 筆, 海嶽八景 宋儒八賢圖帖)”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본 조사자가 이와 같은 명칭을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이 화첩의 전반부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승으로 일컬어지는 금강산과 동해안의 8경이 들어있다. 그리하여 금강산 초입의 <단발령(斷髮嶺)>에서부터 내금강의

<비로봉(毘盧峰)>과 <혈망봉(穴望峰)>, 외금강의 <구룡연(九龍淵)>에 이르는 금강산의 4경, 그리고 금강산을 나와 바닷가에 펼쳐진 <옹천(瓮遷)>과 <고성문암(高城門岩)>, <총석정(叢石亭)>, <해금강(海金剛)>에 이르는 동해안의 4경을 포함한 총 8경의 진경산수화가 노정 순으로 들어있다. 겸재 시대에는 이처럼 금강산과 동해안의 명승들을 포괄하여 통칭할 때, 겸재의 출세작이자 겸재의 가장 대표적인 금강산 진경산수화첩인 <<해악전신첩>>에서 보듯, 통상 “해악(海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화첩의 후반부에는 조선의 국시가 되었던 송의 성리학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8명의 송나라 유현(儒賢)들의 아름다운 고사가 들어있다. 그리하여 앞에서부터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염계상련(濂溪賞蓮)>, 정호(程顥, 1032-1085)의 <방화수류(傍花隨柳)>, 정이(程頤, 1033-1107)의 <부강풍도(涪江風濤)>, 사마광(司馬光, 1019-1086)과 소옹(邵雍, 1011-1077)의 <화외소거(花外小車)>, 장재(張載, 1027-1077)의 <횡거영초(橫渠詠蕉)>, 사마광의 <온공낙원(溫公樂園)>, 주희(朱熹, 1130-1200)의 <무이도가(武夷棹歌)>, 이동(李侗, 1093-1163)의 <자헌잡농(柘軒蠶農)>이 들어있다.

따라서 이 화첩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면, 전반부의 해악팔경과 후반부의 송유팔현에 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화첩의 가장 고유한 특성과 특징을 살려서 화첩의 제목을 붙이자면, <<겸재 해악팔경 송유팔현 합벽첩(謙齋 海嶽八景 宋儒八賢 合璧帖)>>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현행 문화재 지정의 일반적인 통례를 따라 성명을 사용하고 자수를 줄인다면, “정선 필, 해악팔경 송유팔현 합벽첩”이나, “정선 필, 해악팔경 송유팔현첩(鄭敼筆, 海嶽八景 宋儒八賢帖)”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도(圖)”자를 추가하여 “정선 필, 해악팔경 송유팔현도첩(鄭敼筆, 海嶽八景 宋儒八賢圖帖)”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혹 어떤 조사보고서에서는 “2011년 일반회화류 지정명칭 개선안을 반영”하여 “정선 필 <산수 및 인물도> 화첩”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는데, 이 명칭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겸재화첩”이라는 명칭처럼 이 화첩만의 고유한 명칭이라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겸재의 산수화와 인물화가 들어있는 일반적인 화첩들을 일컫는 보통 명사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 연기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燕岐 蓮花寺 戊寅銘佛碑像 및 臺座)
- 연기 연화사 칠존불비상(燕岐 蓮花寺 七尊佛碑像)

지정 현황	문화재명칭	소유자 (소재지)	수량	연대	지정일
보물 제649호	연기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연화사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1047호→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화사길 28-1)	1좌	통일 신라	78/12/07
보물 제650호	연기 연화사 칠존불비상	상동	1구	통일 신라	78/12/07

라.

- 연기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燕岐 蓮花寺 戊寅銘佛碑像 및 臺座)
→ 세종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世宗 蓮花寺 戊寅銘佛碑像 및 臺座)
- 연기 연화사 칠존불비상(燕岐 蓮花寺 七尊佛碑像)
→ 세종 연화사 칠존불비상(世宗 蓮花寺 七尊佛碑像)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명칭은 ‘세종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으로 함.